연구보고 2021-17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박은정·문무경·윤지연·임동선·Weng-Feng Lai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1-17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저 자	박은정, 문무경, 윤지연, 임동선, Weng-Feng Lai
연 구 진	연구책임자 **박 은 정** (육아정책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문 무 경** (육아정책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윤 지 연** (육아정책구소 연구원)
	공동연구원 **임 동 선**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Weng-Feng Lai**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기타 기여자	연구협력진 **황 해 영**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학·이야기치료 전공 초빙교수)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1-17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99-9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가족 형성 초기인 영유아기는 아동의 언어 발달에 결정적인 시기이며 부모도 자녀 양육의 역량을 배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이중언어를 기반으로 한 바람직한 가정 내 언어의 틀이 형성되면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0년부터 다문화가족정책 내에 이중언어 지원이 제도화되면서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이중언어 지원사업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다문화가족 내 이중언어 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이중언어 지원정책 확대 논의에서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학습지원이 강조되며,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 부모에 대한 지원은 아젠다로 언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역량강화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의 강점으로서 이중언어에 접근하여,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정책 및 사업을 분석하고, 이중언어 관련 현황과 가정 내 역량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및 이중언어 지원 사업 관련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각 정책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진행에 도움을 주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육청 등 관련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다문화 영유아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요약 1

Ⅰ.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 내용 및 범위 20
3. 연구 방법 22

Ⅱ. 연구 배경 33
1. 다문화가족 관련 현황 35
2.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 이론 및 선행연구 45
3. 다문화가족 부모 역량강화 접근 60
4. 소결 63

Ⅲ. 국내외 이중언어 지원 제도 67
1. 관련법 69
2. 국내 이중언어 지원 정책 70
3. 국외 사례 91
4. 소결 115

Ⅳ. 이중언어 관련 실태 및 영향요인 119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21
2.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사용 실태 125
3. 자녀 돌봄 및 이중언어 관련 인식 및 부모 역량 140
4.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책 요구 156
5. 다문화 유아의 이중언어 사용 영향요인 분석 179
6. 소결 189

Ⅴ. 이중언어 관련 자녀 양육 경험 및 지원 요구 195
1. 조사 개요 197

2.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 ····· 200
3.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 장애물 ····· 207
4.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을 위한 노력 ····· 211
5. 부모의 지원 서비스 경험 및 요구 ····· 218
6. 소결 ····· 234

Ⅵ. 이중언어 지원 사업 진단 및 개선방안: 전문가 의견 수렴 239
1. 조사응답자 특성 ····· 241
2. 이중언어 지원 관련 인식 및 현황 ····· 243
3. 이중언어 관련 사업 진단 ····· 251
4. 이중언어 지원 사업 개선 방안 ····· 257
5. 이중언어 환경 인식 및 개선 방안 ····· 266
6. 소결 ····· 269

Ⅶ. 다문화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방안 273
1. 연구결과 종합 ····· 275
2. 정책 기본방향 및 법적 기반 조성 ····· 282
3. 정책과제별 추진 방안 ····· 286
4. 지원 방안 종합 및 향후 연구 과제 ····· 297

참고문헌 301
Abstract 321
부 록 323
부록 1. 심층면담 질문지_한국어판 ····· 323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_번역본(베트남어) ····· 326
부록 3. 심층면담 연구참여 설명문_한국어판 ····· 331
부록 4.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설문지_한국어판 ····· 334
부록 5.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설명문_한국어판 ····· 355
부록 6.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모집 안내문 ····· 358
부록 7. 전문가 의견조사 질문지 ····· 359
부록 8. 전문가 의견조사 개방형 응답 결과 ····· 373
부록 9. 전문가 자문 목록 ····· 387

표 목차

〈요약 표 1〉 집단별 주요 연구결과 ····· 6
〈요약 표 2〉 다문화 영유아를 둔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심층면담 분석 주요 결과 ····· 9
〈요약 표 3〉 전문가 의견조사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한 체계 수준별 지원 방안 ····· 11
〈표 Ⅰ-3-1〉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내용 ····· 24
〈표 Ⅰ-3-2〉 심층면담 질문지 내용 ····· 27
〈표 Ⅰ-3-3〉 전문가 의견 조사 대상자 및 질문지 유형 ····· 28
〈표 Ⅰ-3-4〉 전문가 의견 조사 개요 ····· 29
〈표 Ⅰ-3-5〉 콜로키움 개요 ····· 30
〈표 Ⅰ-3-6〉 이중언어 관련 다문화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정책 간담회 개요 ····· 31
〈표 Ⅱ-1-1〉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출생성비, 2017-2019년 ····· 35
〈표 Ⅱ-1-2〉 모(母)의 출신 국적별 출생아 비중, 2017-2019년 ····· 37
〈표 Ⅱ-1-3〉 지역별, 지역규모별 어린이집 재원 다문화 아동 현황 ····· 39
〈표 Ⅱ-1-4〉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국계 부모 나라 모어에 대한 태도(2018) ····· 41
〈표 Ⅲ-2-1〉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내용 세부내용 ····· 74
〈표 Ⅲ-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프로그램 이용 현황(2020년 기준) ····· 75
〈표 Ⅲ-2-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세부내용 ····· 76
〈표 Ⅲ-2-4〉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 현황(2020년 기준) ····· 76
〈표 Ⅲ-2-5〉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세부내용 ····· 77
〈표 Ⅲ-2-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현황(2020년 기준) ····· 78
〈표 Ⅲ-2-7〉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주요 추진과제 목록 ····· 79
〈표 Ⅲ-2-8〉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운영 내용 ····· 83
〈표 Ⅲ-2-9〉 지자체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내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 사업 ····· 84
〈표 Ⅲ-2-10〉 민간 기관 이중언어 지원 사업 ····· 88
〈표 Ⅲ-3-1〉 다문화정책 유형 특성 비교 ····· 91
〈표 Ⅲ-3-2〉 Hornberger의 이중언어 교육 모델 유형 ····· 92
〈표 Ⅲ-3-3〉 2019년 독일 이주상황별 인구 ····· 94
〈표 Ⅲ-3-4〉 영어 외 다른 외국어의 분류 ····· 100
〈표 Ⅲ-3-5〉 대만 내 국제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 ····· 107
〈표 Ⅲ-3-6〉 수준별 교육기관의 결혼이민자 자녀 통계 ····· 108

〈표 Ⅳ-1-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22
〈표 Ⅳ-1-2〉 응답자의 배우자 및 결혼 특성 ····· 123
〈표 Ⅳ-1-3〉 응답기준 자녀 특성 ····· 124
〈표 Ⅳ-2-1〉 가정 내 사용 언어: 본인(응답자), 배우자, 자녀 ····· 125
〈표 Ⅳ-2-2〉 특성별 가정 내 사용언어: 본인 ····· 126
〈표 Ⅳ-2-3〉 특성별 가정 내 사용언어: 자녀 ····· 127
〈표 Ⅳ-2-4〉 자녀의 한국어 발달 정도별 노출 언어 ····· 128
〈표 Ⅳ-2-5〉 자녀의 한국어 구사 시작 시기 ····· 129
〈표 Ⅳ-2-6〉 자녀의 모국어 구사 시작 시기 ····· 131
〈표 Ⅳ-2-7〉 자녀의 한국어와 모국어 습득 순서 ····· 132
〈표 Ⅳ-2-8〉 자녀의 모국어 구사 정도 ····· 134
〈표 Ⅳ-2-9〉 자녀의 한국어와 모국어 구사 수준 비교 ····· 135
〈표 Ⅳ-2-10〉 자녀의 한국어 습득 시 어려움 여부 ····· 137
〈표 Ⅳ-2-11〉 자녀의 한국어 습득 시 어려운 점(1순위, 2순위, 1+2순위) ··· 138
〈표 Ⅳ-2-12〉 자녀의 모국어 습득 시 어려움 여부 ····· 138
〈표 Ⅳ-3-1〉 가정 내에서 자녀와 가장 많이 의사소통하는 가족 ····· 140
〈표 Ⅳ-3-2〉 부모의 자녀양육 정서 평균 및 척도 신뢰도 ····· 141
〈표 Ⅳ-3-3〉 특성별 부모의 자녀양육 정서 ····· 143
〈표 Ⅳ-3-4〉 특성별 부모 역할 효능감 ····· 145
〈표 Ⅳ-3-5〉 특성별 자녀양육 지지 자원 ····· 146
〈표 Ⅳ-3-6〉 이중언어 습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의 정도 ····· 148
〈표 Ⅳ-3-7〉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태도 평균 및 척도 신뢰도 ····· 150
〈표 Ⅳ-3-8〉 특성별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 ····· 151
〈표 Ⅳ-3-9〉 한국사회의 이중언어 인식 및 환경 정도 ····· 153
〈표 Ⅳ-3-10〉 자녀의 모국어 습득을 위한 노력 정도 ····· 154
〈표 Ⅳ-3-11〉 특성별 자녀의 모국어 습득을 위한 노력 정도 ····· 155
〈표 Ⅳ-4-1〉 자녀 돌봄을 위해 이용 중인 기관 및 서비스 ····· 158
〈표 Ⅳ-4-2〉 자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시기 ····· 159
〈표 Ⅳ-4-3〉 재원 중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이중언어 관련 안내 및 지도 ···· 160
〈표 Ⅳ-4-4〉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의 이용 여부 ····· 163
〈표 Ⅳ-4-5〉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경로(중복응답) ····· 164
〈표 Ⅳ-4-6〉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기관(중복응답) ····· 164
〈표 Ⅳ-4-7〉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유무 ····· 165

〈표 Ⅳ-4-8〉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운 점 ····· 166
〈표 Ⅳ-4-9〉 모국어 지원 서비스의 이용 여부 ····· 168
〈표 Ⅳ-4-10〉 모국어 지원서비스 이용 경로(중복응답) ····· 169
〈표 Ⅳ-4-11〉 모국어 지원서비스 이용기관(중복응답) ····· 169
〈표 Ⅳ-4-12〉 모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여부 ····· 170
〈표 Ⅳ-4-13〉 모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운 점 ····· 171
〈표 Ⅳ-4-14〉 한국어 지원 서비스의 이용 여부 ····· 173
〈표 Ⅳ-4-15〉 한국어 지원서비스 이용 경로(중복응답) ····· 174
〈표 Ⅳ-4-16〉 한국어 지원서비스 이용기관(중복응답) ····· 174
〈표 Ⅳ-4-17〉 한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여부 ····· 175
〈표 Ⅳ-4-18〉 한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운 점 ····· 176
〈표 Ⅳ-4-19〉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 ····· 177
〈표 Ⅳ-4-20〉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 관련 기관 서비스 이용 의향 ····· 178
〈표 Ⅳ-4-21〉 이중언어 관련 기관 서비스 선택 시 주요 고려 사항 ····· 179
〈표 Ⅳ-5-1〉 로지스틱 회귀분석 사용 변수 ····· 182
〈표 Ⅳ-5-2〉 자녀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영향요인: 전체 ····· 184
〈표 Ⅳ-5-3〉 자녀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영향요인: 출신국별(중국, 베트남) ····· 186
〈표 Ⅳ-5-4〉 자녀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영향요인: 결혼이민자 부모의 가정 내 언어별(한국어, 이중언어) ····· 188
〈표 Ⅳ-6-1〉 집단별 주요 연구결과 ····· 191
〈표 Ⅴ-1-1〉 다문화부모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 결혼이민자 ····· 198
〈표 Ⅴ-1-2〉 다문화부모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 한국 출신 배우자 ····· 200
〈표 Ⅴ-1-3〉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의 하위 범주 ····· 201
〈표 Ⅴ-1-4〉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 장애물'의 하위 범주 ····· 207
〈표 Ⅴ-1-5〉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을 위한 부모의 노력'의 하위 범주 ····· 212
〈표 Ⅴ-1-6〉 '부모의 지원 서비스 경험 및 요구'의 하위 범주 ····· 218
〈표 Ⅴ-6-1〉 다문화 영유아를 둔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심층면담 분석 결과 ····· 235
〈표 Ⅵ-1-1〉 전문가 의견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241
〈표 Ⅵ-1-2〉 소속기관별 종사자 구분 ····· 242
〈표 Ⅵ-1-3〉 교육·보육기관 현원 및 재원 다문화 영유아 인원 ····· 242
〈표 Ⅵ-2-1〉 이중언어 관련 제도 및 지원 사업 이해도 ····· 244
〈표 Ⅵ-2-2〉 이중언어 지원 근거 규정 ····· 244
〈표 Ⅵ-2-3〉 다문화가족 부모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 ····· 247

〈표 Ⅵ-2-4〉 부모의 이중언어 관련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 및 보완방법 ····· 249
〈표 Ⅵ-2-5〉 일상적인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 교육 강화가 중요한 이유 및 보완방법 ····· 249
〈표 Ⅵ-2-6〉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교재교구 제공이 중요한 이유 및 보완방법 ·· 250
〈표 Ⅵ-2-7〉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조직 및 운영이 중요한 이유 및 보완방법 ·· 250
〈표 Ⅵ-3-1〉 이중언어 지원 사업 내실화의 부분별 중요성 평가 ····· 251
〈표 Ⅵ-3-2〉 이중언어 지원 사업 내실화의 부분별 이행도(충분성) 평가 ····· 252
〈표 Ⅵ-3-3〉 다문화 아동 및 부모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우선 고려사항 선정 이유 ····· 256
〈표 Ⅵ-4-1〉 이중언어 사업 인력풀 확대 필요 이유 및 보완방법 ····· 258
〈표 Ⅵ-4-2〉 이중언어 관련 인력 전문성 제고 필요 이유 및 보완방법 ····· 259
〈표 Ⅵ-4-3〉 이중언어 사업의 다양화 필요 이유 및 보완방법 ····· 259
〈표 Ⅵ-4-4〉 이중언어 사업 예산 확보 필요 이유 및 보완방법 ····· 260
〈표 Ⅵ-4-5〉 이중언어 사업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 ····· 261
〈표 Ⅵ-4-6〉 이중언어 지원 사업 접근성 제고 방안 ····· 262
〈표 Ⅵ-4-7〉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연계 방안 ····· 264
〈표 Ⅵ-4-8〉 이중언어 관련 부모 역량강화 방안 ····· 265
〈표 Ⅵ-5-1〉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방안 ···· 267
〈표 Ⅵ-6-1〉 전문가 의견조사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한 체계 수준별 지원 방안 ··· 269
〈표 Ⅶ-1-1〉 교육 · 보육기관 및 교사 관련 결과 ····· 276
〈표 Ⅶ-1-2〉 컨텐츠 및 교재교구 개발 관련 결과 ····· 277
〈표 Ⅶ-1-3〉 부모 및 가족구성원 인식개선 관련 결과 ····· 278
〈표 Ⅶ-1-4〉 실천적 부모교육 관련 결과 ····· 279
〈표 Ⅶ-1-5〉 출신국별 지원 및 자조모임 관련 결과 ····· 280
〈표 Ⅶ-1-6〉 접근성 제고 필요성 관련 결과 ····· 281
〈표 Ⅶ-1-7〉 접근성 제고 필요성 관련 결과 ····· 281
〈표 Ⅶ-1-8〉 인력 및 사업의 전문성 강화 관련 결과 ····· 283
〈표 Ⅶ-1-9〉 다문화 영유아의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 284

그림 목차

[요약 그림 1] 연구 흐름도 ····· 2
[요약 그림 2] 정책과제별 추진방안 ····· 13
[그림 Ⅰ-3-1] 연구 흐름도 ····· 32
[그림 Ⅱ-1-1]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추이(2009~2019년) ··· 36
[그림 Ⅱ-1-2] 지역별 다문화 출생 비중, 2009년, 2019년 ····· 37
[그림 Ⅱ-1-3] 연도별 외국인 주민 자녀수 추이 ····· 38
[그림 Ⅱ-1-4] 다문화가족 자녀의 외국계 부모 나라 모어에 대한 태도(3개년 비교) ··· 42
[그림 Ⅱ-1-5] 다문화가족 배우자의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대비 서비스 요구 ····· 44
[그림 Ⅱ-4-1] 연구의 개념틀 ····· 65
[그림 Ⅲ-2-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 71
[그림 Ⅲ-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추진 체계 ····· 73
[그림 Ⅲ-2-3] 다문화교육지원 추진체계 ····· 79
[그림 Ⅲ-2-4] 이중언어 전자책 활용을 통한 학습방법 ····· 82
[그림 Ⅲ-3-1] 미국 인구의 영어와 외국어 사용 비율 ····· 100
[그림 Ⅳ-2-1] 자녀의 모국어 습득 시 어려운 점(1순위, 2순위, 1+2순위) ··· 140
[그림 Ⅳ-4-1] 자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 시기 결정 이유 ····· 159
[그림 Ⅳ 4-2]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미이용 이유 ····· 167
[그림 Ⅳ-4-3] 모국어 지원 서비스 미이용 이유 ····· 171
[그림 Ⅳ-4-4] 한국어 지원 서비스 미이용 이유 ····· 177
[그림 Ⅳ-5-1]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및 과정 ····· 180
[그림 Ⅵ-2-1] 이중언어 지원 사업 중요도 ····· 243
[그림 Ⅵ-2-2] 기관별 외부 기관과의 이중언어 사업 연계 실시 여부 ····· 245
[그림 Ⅵ-2-3] 이중언어 지원 사업 운영상 어려운 점 ····· 246
[그림 Ⅵ-2-4] 이중언어 관련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지원 순위 ····· 248
[그림 Ⅵ-3-1] 연계 중요성 및 연계정도 비교: 교육·보육기관 종사자 vs. 그 외 기관 종사자 ····· 253
[그림 Ⅵ-3-2] 교육·보육기관에서 실시 가능한 이중언어 발달 지원 프로그램 ··· 254
[그림 Ⅵ-3-3]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 ····· 255

[그림 Ⅵ-3-4] 다문화 아동 및 부모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우선 고려사항 ·· 256
[그림 Ⅵ-4-1] 이중언어 지원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 ····· 258
[그림 Ⅵ-5-1] 전문가 집단별 한국사회의 이중언어 환경 및 인식 비교 ····· 267
[그림 Ⅶ-2-1] 정책과제별 추진 방안방안 ····· 295
[그림 Ⅶ-4-1] 다문화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 방안 개요 ····· 299

부록 표 목차

〈부록 표 1〉 이중언어 지원 사업 내실화 및 확대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 선정 이유/방법 ····· 373
〈부록 표 2〉 다문화 아동 및 부모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우선 고려사항 선정 이유 ····· 380
〈부록 표 3〉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에서 중요한 부분 이유/방법 ····· 382
〈부록 표 4〉 전문가 자문 개요 ····· 387

요약

1. 서론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000년대 후반부터 다문화가족 대상 이중언어 관련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0년 이후 중복사업 개편을 통해 본격적인 이중언어 지원 사업의 기틀이 마련됨. 그러나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중언어 지원사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내 이중언어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이중언어 정책은 영유아기 부모 보다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학습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가족형성 초기인 영유아기에 아동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여 가정 내 언어의 틀을 바람직하게 구성하는 것은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에 결정적으로 작용.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및 정책을 진단하고, 다문화가족의 강점에 초점을 둔 다차원적 역량강화 관점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의 이중언어 양육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의 역량강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나. 연구 내용 및 범위

□ 연구내용

-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 이론 및 부모 역량강화 관련 선행연구 고찰
- 국내외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정책 및 사업 분석
- 다문화가족 내 이중언어 사용 실태 및 부모의 이중언어 관련 인식 및 역량 분석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및 사업 관련 전문가 의견 심층분석
-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다차원적 부모 역량강화 방안 도출

□ 연구범위 및 개념 정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으로 한정
- 본 연구에서 가정 내 이중언어는 가정 내 의사소통 언어이며, 한국어와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의 강점과 자원으로서 이중언어에 접근

다. 연구 방법 및 과정

□ 본 연구의 연구 방법과 연구과정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요약 그림 1] 연구 흐름도

2. 연구배경

가. 다문화가족 관련 현황

□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영유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2, 2015, 2018년 결과를 비교한 결과, 이중언어 습득에 대한 가족지지 및 자녀의 실제 학습 정도가 오히려 낮아져서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함.

나.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 이론 및 선행연구

□ 발달적 이중언어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이중언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이중언어 아동은 습득 시기와 연령대별 특징에 따라 구분됨.

- 습득 시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언어를 출생 직후부터 동시에 접하는 동시적 이중언어 아동과 출생 이후 단일 모국어를 습득하고 난 후 제2언어를 습득하는 순차적 이중언어 아동으로 구분됨.

□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및 모국어 사용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및 친밀감 형성, 아동의 정체성 및 사회 정서적, 교육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 모국어 유지의 학업능력 등에 영향을 미침.

□ 역량강화 접근은 강점 관점과 자원접근활동을 의미함. 이는 부적응 및 병리적 접근이 아니라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접근방식이며, 강점과 자원을 구체화하고 자원을 발굴하며, 자원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3. 국내외 이중언어 지원 제도

가. 관련법

□ 다문화 아동의 보육 및 교육과 부모 지원에 대한 조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명시되어 있음.

- 이중언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3항에는 ‘지원

을 할 수 있다'는 허용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의무조항의 성격 규정은 없음.

-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등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관련법에도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이나 모국어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나. 국내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및 사업

□ 중앙 정부 지원 정책 및 사업은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실시됨.

□ 핵심적인 영유아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및 사업 관할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임.

-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주요 전달체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며, 중앙 기관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이중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가족코칭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연간 실인원 규모가 크지 않음.
-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 사업의 주요 전달체계는 각 시도교육청과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임.
- 교육부는 이중언어 강점 개발 지원사업으로 전국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및 이중언어 전자책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에서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등을 실시함.

□ 민간 기관 이중언어 지원 사업은 민관 또는 민·관·학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대표적인 민간 기관 사업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의 '언어 두 개, 기쁨 두 배' 사업, 다음세대재단의 '올리볼리 그림동화',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의 '엄마 아빠 나라말 학습교재', 어울림이끌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다문화 영재교육' 등이 있음.

다. 국외 사례 분석

□ 2000년대 이후 이중언어 지원 정책의 전환을 경험한 독일, 미국, 대만 사례를 이중언어 교육 모델 유형(Hornberger, 1991, 1996)을 토대로 비교함.

□ 독일 연방법에는 동화주의 관점에서의 독일어 습득만 명시되어 있으나, 연방정부는 다중언어 기반 언어발달 지원을 지속모델에 기반하여 추구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이중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실시 중임.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아동 및 가족 통합기회(IfKuF)' 사업은 교사 및 교육기관, 전문가, 아동 및 부모가 협력하여 진행하며, 이주민 부모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족교육 프로그램임.

□ 미국은 ESSA 법안 마련을 시발점으로 이중언어 지원에 대한 틀을 구축하였으나, 이중언어 지원 정책이나 사업에서는 뚜렷한 강화모델로의 확대 양상을 보이지 않음.

□ 대만은 우리나라와 다문화가족 형성 배경이 가장 유사하며, 2012년 이후 본격적인 이중언어 지원 정책의 변화가 있었으며, 2016년부터는 이중언어 교육 강화모델로의 분명한 전환을 보임.

- 대만 교육부는 동남아시아 언어 교원 양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7개 국어를 교육과정 커리큘럼에 도입하였으며, 이중언어 교육 및 자료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 원격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4. 이중언어 관련 실태 및 영향요인

가. 조사 및 분석개요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중 만3세~만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귀화자 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 웹조사(CAWI)로 진행하였으며, 조사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임.

□ 조사내용은 크게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실태,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현황 및 정책 욕구, 일반적 양육 특성, 자녀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됨.

□ 결과분석에서는 빈도분석, 카이검증,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하부 요인 도출과 내적 일관성 신뢰도 측정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실시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문화 유아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중언어 관련 특성, 이중언어에 대한 태도, 부모 역량 요인,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사회적 이중언어 환경 인식으로 범주화하여 1차 분석 결과 및 선행연구 검토를 반영하여 독립변수를 도출함.
- 전체 대상자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이후 결혼이민자 부모 출신국(중국, 베트남)과 결혼이민자 부모의 가정 내 언어(한국어 사용 집단, 이중언어 사용 집단)에 따른 추가 분석을 실시함.

나. 분석 결과

□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의 결과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요약 표 1〉 집단별 주요 연구결과

구분	주요 결과
출신국	• 베트남 - 가정 내 모국어 사용이나 지원 서비스 이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는 집단 - 자녀의 베트남 모국어 구사 정도(듣기 2.9점 , 말하기 2.7점)가 가장 낮음. - 자녀의 한국어 습득 시 어려움 유경험 비율이 63.4%로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집단 - 다른 국가에 비해 이중언어 습득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정도를 더 작게, 부정적 영향은 더 크게 인식 -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및 가족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태도 - 부모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과 이중언어에 대한 가족의 태도가 자녀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요인
	• 중국 - 자녀의 모국어 구사 정도가 베트남보다는 높고 일본보다는 낮음. - 부모 역할 효능감과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가 자녀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요인
	• 일본 - 이중언어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임. - 자녀의 모국어 구사수준(듣기 4.0점, 말하기 3.6점) 가장 높게 나타남. - 다른 국가에 비해 자녀가 모국어를 더 잘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구사한다는 응답이 높음.
자녀의 가정 내 일상 언어	• 자녀 이중언어 사용 집단 - 자녀 양육 시 긍정적 정서를 가장 크게 느끼며, 부모 역할 효능감이 가장 높은 집단임. -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적극성이 가장 높음. • 자녀 한국어만 사용 집단 - 부모 역할 효능감이 가장 낮은 집단임. -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태도에서 특히 배우자 및 가족의 이중언어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임. - 한국사회의 이중언어 환경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함.

구분	주요 결과
결혼이민자 부모의 가정 내 일상 언어	• 결혼이민자 부모 이중언어 사용 집단 -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가능성이 가장 높음. - 이중언어 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요인 • 결혼이민자 부모 한국어 사용 집단 - 결혼이민자 부모가 가정 내에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더라도 부모의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 경우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가능성이 높아짐. - 부모 역할 효능감이 높으면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가능성이 높아짐.
결혼이민자 부모의 한국어 구사수준	• 결혼이민자 부모의 유창한 한국어 구사 - 한국어가 유창할수록 자녀 양육 시 긍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남. 특히 자녀 양육 시 자기성장 인지 항목 - 자녀의 장래에 대한 걱정 정도 낮음. - 부모 역할 효능감(3.9점) 가장 높음.
거주지 지역규모별	• 농산어촌 집단 - 결혼이민자가 가정 내에서 한국어만 쓰거나 주로 쓰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자녀 돌봄 시 문화센터나 기타 시설 이용 정도가 가장 낮음. • 대도시 집단 - 자녀의 모국어 말하기 구사 정도가 가장 높음. - 자녀의 모국어 습득 시 어려움 경험 정도가 높음: 자녀 모국어 지도 시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으로 추론 - 이중언어, 모국어, 한국어 지원 서비스 모두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음. • 중소도시 집단 -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비율이 가장 낮음. - 모국어, 한국어 지원 서비스 중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임.

다. 시사점

□ 이중언어 사용이 자녀의 언어발달을 저해한다는 편견이 맞지 않음을 보여줌.

-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만 2~3세 이전에 한국어와 모국어를 구사하기 시작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문화 아동의 동시적 이중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부모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 대상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모가 이중언어를 사용할 경우 모국어를 사용하는 집단보다 자녀가 일상적으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부모가 이중언어를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집단 내에서도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가능성이 더 높아짐.

□ 전반적인 자녀 양육 역량 제고를 위한 부모 교육 강화 필요

- 부모 역할 효능감이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사용과 연관성이 높음.

□ 한국 출신 배우자 및 가족의 인식 제고 교육 강화 필요

- 결혼이민자 본인의 이중언어 인식 및 태도보다 한국 가족의 이중언어 인식 및 태도가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남.

□ 다차원적인 이중언어 인식 제고 노력이 요구되나, 특히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종사자에 대한 이중언어 이해교육이 필요

□ 이중언어 지원 시 출신국별 차이를 고려

- 베트남 등 사회적으로 낮은 언어적 위계를 가진 출신국의 경우 배우자 및 가족의 이중언어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함.

5. 이중언어 관련 자녀 양육 경험 및 지원 요구

가. 조사 개요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중 미취학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귀화자 부모 20명, 한국출신 다문화가족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 진행

-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기준으로 단일언어 15명, 이중언어 1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혼이민자는 베트남 출신 7명, 중국 및 일본 출신 7명, 기타 동북·동남아시아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함.

□ 면담 질문지, 연구참여 설명문, 연구 참여 동의서는 6개 언어(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몽골어)로 번역하여 제공

□ 심층면담 질문지는 자녀양육 전반, 자녀의 사용 언어 및 언어 습득 과정, 이중언어 구사 환경,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지원 요구로 구성되어 있음.

나. 분석 결과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담 결과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요약 표 2〉 다문화 영유아를 둔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심층면담 분석 주요 결과

범주	내용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	자녀의 발달 지연 문제 경험	자녀의 언어 발달 지연
		자녀의 인지·정서 발달 지연
	자녀 양육 및 교육 시 언어적 한계 경험	자녀와의 일상적 대화에서의 어려움
		부족한 한국어로 인한 일상적 자녀 양육 및 훈육 어려움
		자녀 교육 시 어려움
	교류 및 정보 부족 경험	
	부부 간 사고방식 및 양육관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경험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 장애물	이중언어가 언어 발달 지체를 유발한다는 편견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이해 부족	
	배우자 및 가족의 비지지적 태도	
	비지지적인 교육 · 보육기관 교사 태도	
	차별에 대한 두려움	
	학업 과정에 대한 염려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을 위한 부모의 노력	일상에서 이중언어 사용	
	다양한 매체 활용	
	모국 출신 사람들과의 교류	
	모국 가족과의 소통 및 모국 방문 계획	
부모의 서비스 경험 및 요구	부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이용 시 긍정적 경험	실질적인 양육 및 자녀 이중언어 지도에 도움
		심리적 안정감 제공 및 일상에 활력소 제공
		결혼이민자 간 교류의 장
		남편(아버지)의 양육 이해도 제고
	부모 지원 서비스 미이용 사유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긴 대기 시간 및 서비스 제공 시간대 문제
		배우자 및 가족의 반대
		필요성 미인지
	다문화가족 부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	통번역 서비스
		구체적인 발달단계별 이중언어 실천 교육
		정보 접근성 제고
		모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확대
		자국 출신 전문인력 배치 희망
		아버지 교육 및 상담 활성화
	자녀 이중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	모국어 교실 운영
		모국어로 된 도서 및 교재 지원
		모국 문화 및 역사 수업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 이해 교육 및 다문화 교류 강화
		모국 문화 체험 및 캠프 프로그램
		영상 컨텐츠 개발 및 제공

사. 시사점

□ 다문화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이중언어 인식 개선이 여전히 요구됨.

□ 영유아 시기에는 아동의 언어발달 측면에서 이중언어 지원을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부모의 양육 역량 제고가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습득에 기여함.

□ 다문화가족 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다문화가족 부모 특히 아버지 교육 참여를 제고하여야 함.

□ 모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확대가 필요함.

6. 이중언어 지원 사업 진단 및 개선방안: 전문가 의견 수렴

가. 조사 개요

□ 다문화 영유아 이중언어 관련 5개 전문가 집단 총 42명을 대상으로 실시

- (중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이중언어코치, 지자체 담당 공무원, 교육·보육기관 종사자

□ 이메일 설문조사로 실시되었으며, 반구조화 개방형 질문과 구조화된 설문 문항으로 구성

□ 주요 조사 내용은 이중언어 지원 사업 현황, 이중언어 지원 사업·정책 인식 및 방안, 이중언어 환경 및 인식개선으로 구분됨.

나. 분석 결과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 결과 중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미시적, 중범위적, 거시적 수준에서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요약 표 3〉 전문가 의견조사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한 체계 수준별 지원 방안

구분	내용	
미시적 수준	다문화 아동	• 다문화 아동 대상 모국어 교육 기회 제공 및 동기 부여 •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기관의 한국어 교육 • 아동의 발달단계별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 세분화: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 방법 적용, 언어 구사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 •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모국어 구사 수준별 프로그램
	다문화 부모	• 부모의 이중언어 관련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 일상적인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 교육 강화 •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교재교구 제공 •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조직 및 운영 • 부모교육 활성화
	배우자 및 가족	•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중언어 인식개선 교육
중범위 수준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교육 강화	• 모국어별 이중언어코치 양성 • 교육강화: 체계적 교육/재교육,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강화 • 중앙 차원에서 전문 인력을 충분히 양성 • 전문 인력 양성 후 적절한 배치 • 이중언어 담당 인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보육기관 종사자	• 교육보육기관 종사자 대상 이중언어 인식 개선 프로그램 실시 • 양성 및 보수 교육에서 이중언어 관련 교육 실시
	기관 연계	• 기관 간 연계 • 부처 간 연계: 교육부, 여성가족부 • 교육보육기관과의 연계: 인력 파견, 교사 교육, 네트워크 구축, 교재 및 안내 제공 등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교재교구 개발, 수요에 맞는 교재교구 배분 • 다양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 모국어별 이중언어 관련 교재교구 확충 • 타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 리뉴얼 • 지역 특화 프로그램 • 사례공유 및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접근성 제고	• 홍보 강화 • 온라인 활용: 온라인 플랫폼 개발, 온라인 강좌 개설
거시적 수준	이중언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 다문화 교육 보편화 • 이중언어 관련 우수사례 홍보 및 캠페인 • 이중언어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여 중요성 부각 노력
	제도화	•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시행령에 이중언어 지원 근거 규정 • 모국어 능력 인정 제도 및 인센티브 제공
	예산 확보	• 인건비 인상 • 예산 확보를 위한 별도 예산 지원, 예산 재분배

다. 시사점

□ 다문화 아동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전반적인 이중언어 지원 사업 이해 제고 필요

□ 다문화가족 및 교육·보육기관 종사자의 인식 제고의 중요성이 강조됨.

□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필요

- 이중언어 지원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응답에서 '이중언어 사업 인력풀 확대'와 '이중언어 관련 인력 전문성 제고'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양한 차원에서 연계와 네트워크 구축 필요

- 부처 간 연계, 기관 간 협약 및 협의체 구성, 자조모임 활성화 등 부모 간 네트워크 활용이 제안됨.

□ 이중언어 지원 방식에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활용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함.

- 이중언어 관련 온라인 플랫폼 개발 및 연계, 온라인 메신저 및 커뮤니티 활용, 팬데믹 상황에서의 온·오프라인 강좌 병행 활용, 관련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 신청 및 교육 진행 등이 제안됨.

□ 시행 중인 이중언어 지원 사업 및 콘텐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 필요함.

7. 다문화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방안

가. 정책 기본방향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문화 영유아의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이중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 생애초기(영유아기) 동시적 이중언어 습득 지원,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 내실화임.

나. 정책과제별 추진 방안

□ 도출한 정책과제는 협력적 이중언어 지원 사업 추진체계 구축, 다문화가족 및

교육·보육기관의 이중언어 인식 제고, 출신국별 자조모임 활성화 및 활용,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맞춤형 이중언어 지원, 이중언어 사업 및 정보 접근성 제고, 이중언어 전문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임.

□ 정책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요약 그림 2] 정책과제별 추진방안

정책과제	추진 방안
1. 협력적 이중언어 지원 사업 추진체계 구축	컨트롤 타워 역할의 중앙 기구 조직
	교육·보육기관과의 협력 강화: 협의체 구성
	컨텐츠 개발을 위한 민·관·학 협력 강화
2. 다문화가족 및 교육·보육기관의 이중언어 인식 제고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 이중언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관 확대
	교육·보육기관 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 중 이중언어 이해 교육 실시
3. 출신국별 자조모임 활성화 및 활용	자녀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자조모임: 출신국별 자조모임-교육·보육기관-가족센터 연계사업
4.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맞춤형 이중언어 지원	실생활에서 활용가능한 이중언어 실천 부모 교육
	협력 기반 수준별 모국어 교재교구 개발 및 지원
5. 이중언어 사업 및 정보 접근성 제고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통합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
	적극적인 온라인 활용을 통한 이중언어 교육 확대: 온·오프라인 병행 강좌 확대/ 교육용 앱 개발
6. 이중언어 전문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중앙 차원에서 이중언어강사 자격 기준 마련 및 교육 실시
	이중언어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수법 심화 교육

I

서 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 내용 및 범위

03 연구 방법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 인구의 급증과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논의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정책 및 대다수 연구들의 기조는 다문화가족을 취약계층 및 수혜대상 또는 문제를 가진 집단으로 상정했다(신영화, 2002; 권복순, 차보현, 2006; 한건수, 2006).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취약 집단으로서 다문화가족의 문제 중심 관점이 가지는 맹점에 대한 비판이 정책과정에 수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강점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불러왔다. 특히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어만을 강조하는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이주민의 모국어를 다문화가족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이중언어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정해숙, 김이선, 최윤정, 박현선, 장명림, 2014). 따라서 이중언어 지원정책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논의되어 2010년대에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문제 중심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각이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의 형성이 다양한 인종의 이주민 가족들로 구성된 다문화주의 국가들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인종으로 구성된 다문화주의 국가처럼 가족 전체가 이주해서 새로운 문화에 유입되는 방식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인구가 증가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에 들어온 결혼이민자는 여전히 단일 민족의 정체성이 강조되고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가족 문화에도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크며 가족 내에서도 자신의 문화정체성과 주류 문화 간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권순희, 2009; 박현선, 이채원, 노연희, 이상균, 2012).

사회적인 주류 언어와 가정 내 언어가 공존하는 상황이 아니라, 한국의 다문화가족의 특성상 가정 내에서도 주류 언어로 한국어만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주민

부모의 언어는 가정 내에서도 사장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풍부한 언어적 경험을 가진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언어로서 한국어만을 사용해야 하는 강제적 상황은 자녀양육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부모가 미숙한 언어를 사용해 자녀에게 풍부한 어휘를 사용할 수 없고, 의사소통하며 발생하는 언어적 문제는 소극적인 양육 참여로 연결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언어 발달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 형성 및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박현선 외, 2012).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다문화가족의 적응만을 강조하면서 병리적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접근방식에 대한 정책적 고민으로 이어졌고, 이중언어는 다문화가족의 강점이자 글로벌 인재로 발달할 수 있는 자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정해숙 외, 2014: 4). 이에 정책적으로 이중언어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교육부는 2008년부터 이중언어강사 양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중언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정해숙 외, 2014: 3). 2010년에는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이중언어교육 지원이 명시되었다. 이후 이중언어교육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지적되고,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의 일상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기존 사업을 개편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전달체계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정해숙, 김이선, 이아름, 2013; 정해숙 외, 2014: 3~4). 한편, 교육부는 언어 교육 측면에서 이중언어강사 양성과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중심으로 이중언어 교재를 보급하고,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중언어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교육부, 2021: 2~15).

그러나 이중언어 지원사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내 이중언어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주민 부모의 언어에 대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긍정적 인식이 2012년에 비해 낮아졌으며, 다문화가족 내에서 이주민 부모의 언어사용을 격려한다는 응답 비율도 낮아졌다(최윤정 외, 2019: 157~161, 519~520). 가정 내 이중언어 환경은 이주민 출신 부모의 출신국 및 교육수준에 따라 격차를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고 영어권 국가 및 유럽 출신일수록 이중언어 사용 정도가 높고 가정 내 지지를

받았으며, 교육수준이 낮고 개도국 출신의 이주민 출신 부모의 언어는 지지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 외, 2019: 156~161). 이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형성 배경의 특수성과 한국어 지배적인 가족환경을 고려했을 때 단절적이고 일시적인 서비스 지원만으로는 가정 내 이중언어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중언어 지원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중언어 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이중언어 지원정책 및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중언어 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실태를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지지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 및 가족 단위의 미시적 차원을 넘어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다차원의 다양한 체계에 접근하여 다문화가족 부모의 역량강화를 이끌어내는 통합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중언어 환경 개선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 및 가족환경조성의 중요성은 최근 관련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다.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는 주요과제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가 명시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자녀발달주기별로 부모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강화를 명시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환경조성을 강화할 것을 밝히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19~20). 그러나 최근 이중언어 지원정책은 언어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 부모에 대한 지원의 확대보다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학습지원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족 형성 초기인 자녀의 영유아기 개입을 통해 가정 내 언어의 틀을 구성하는 결정적 시기에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을 촉진하고 부모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 영유아는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됨으로써 동시적으로 이중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졌다는 강점이 있다. 이러한 강점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교육적 측면과 더불어 영유아기 부모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강점에 초점을 둔 역량강화(empowerment) 관점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의 이중언어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다

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및 정책을 진단하여,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부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내용 및 범위

가.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 이론 및 부모 역량강화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다문화가족 부모의 다차원적 역량강화에 대한 이론적 틀과 논거를 구체화한다.

둘째, 국내외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및 사업을 분석하여 이중언어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국내 관련법 및 기본계획에서 이중언어 지원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중앙 및 지자체 정책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중언어 지원 정책의 전환을 경험한 국가 중 다문화주의 유형이 상이한 3개국, 독일, 미국, 대만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해외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중언어 지원 정책 확대 시 유의점과 적용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 등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다문화가족 내 이중언어 사용 실태 및 부모의 이중언어 관련 인식 및 역량을 분석한다. 기존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사용 실태 및 영향요인과 부모의 정책 욕구를 분석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 심층면담 결과를 분석하여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역동과 부모의 보다 구체적인 필요와 요구를 파악한다.

넷째,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및 사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심층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현재 이중언어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진단하고, 이중언어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과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섯째,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다차

원적 부모 역량강화 방안을 도출한다.

나. 연구 범위 및 개념 정의

본 연구는 핵심 개념인 다문화가족과 가정 내 이중언어의 범위 설정에 따라 전체적인 연구 범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으로 한정한다. 행정안전부 통계의 다문화 인구는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장기 체류 외국인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협의의 개념으로 한국 국적 취득자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와 국제결혼으로 구성한 가족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 출신 부모와 이주민 출신 부모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과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가족정책 범주 내에서 논의하고자 하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협의의 개념으로 다문화가족을 정의하고자 한다.

상기의 다문화가족의 개념 정의에 따라 본 연구의 가정 내 이중언어는 가정 내 의사소통 언어로서 한국어와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중언어 아동은 출생 이후 청소년기까지 가장 역동적인 의사소통 발달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언어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아동을 의미하며 (Kohnert, 2008), 본 연구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은 한국어와 이주민 부·모의 모국어를 모두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문화가족과 이중언어 정의를 바탕으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의 강점과 자원으로서 이중언어에 접근하고자 한다. 즉, 다문화 영유아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이중언어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

---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는 부모의 역량강화(empowerment) 접근 틀에 다차원적인 생태체계적 관점을 접목하였다. 이에 다문화가족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미시적 차원의 논의부터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중범위 차원의 논의, 더 나아가 제도화와 문화형성 및 인식개선 등 거시적 차원까지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첫째, 연구의 핵심어를 개념화하고 연구 관점을 명확화하기 위해 이중언어 발달 관련 이론 및 국내외 선행연구와 부모 역량강화(empowerment) 접근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검토 내용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개념틀을 제시한다.

둘째, 다문화가족 및 이중언어 사용 관련 통계자료 및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 영유아의 규모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환경을 파악한다.

셋째, 국내 이중언어 지원 제도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법을 검토하고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및 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이중언어 지원 정책에서 중앙정부 지원 정책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지자체 지원 정책은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내에서 검토하였다.

넷째, 다문화정책 및 이중언어 정책 관련 유형론을 살펴보고, 2000년대 이후 이중언어 지원정책의 전환을 시도한 국가들 중 독일, 미국, 대만 관련 선행연구와 인터넷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각국의 지원 정책 및 사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나.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다문화 영유아 가구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실태와 부모의 양육역량 및 어려움 파악이 주된 목적이다. 이와 더불어 설문조사를 통해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과 다문화가족의 지원 정책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설

문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2021년 7월 15일자로 승인(220996-210702-HR-007)을 받았다.

1) 조사대상 및 모집

본 설문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중 만 3세부터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귀화자 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영유아의 언어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언어로 일정 수준 의사소통이 가능한 연령이어야 하므로 만 3세를 기준으로 하였다. 만 3세는 언어적으로 완성된 시기가 아니고 개인차가 존재하나, 습득한 어휘를 통해 부모에게 질문하거나 부탁 및 거절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연령이다(Abdelilah-Bauer, 2016: 120). 즉, 만 3세는 문장으로 말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려는 소통을 시작하며,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언어 습득에 대해 응답이 가능한 연령이다.

조사 대상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국 17개 거점센터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에서 공문을 발송하고, 거점센터에서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공문을 배포하였다. 그 다음으로 센터 담당자들이 결혼이민자들에게 안내 및 참여 URL 링크를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여 조사 참여를 독려하였다. 또한 링크주소와 QR코드가 포함된 설문조사 모집 안내문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비치하여 배포하도록 하였다.

2) 조사방법 및 시기

코로나19 상황과 응답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문조사는 웹조사(CAWI, Computer Aided Web Interview)로 진행하였다. 조사업체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웹조사 URL를 배포하였다.

조사언어는 한국어 버전과 결혼이민자 출신국 비율을 고려한 6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번역본 버전으로 제공하였다. 본 조사는 7월 30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되었다.

3) 조사내용

설문지는 연구진이 선행연구 및 관련된 기존 설문조사 문항을 검토하여 구성하였으며, 설문지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원내 멘토링, 외부 서면 자문, 이중언어 코치(결혼이민자) 사전 테스트를 거쳤다.

설문지 내용은 크게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실태,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정책 욕구, 일반적 양육 특성, 자녀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의 내용은 〈표 Ⅰ-3-1〉과 같다.

〈표 Ⅰ-3-1〉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내용

구분	내용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실태	가정 내 일상 언어
	자녀의 연령별 노출 언어
	한국어와 모국어 습득 시기
	한국어와 모국어 습득 순서
	한국어와 모국어의 상대적 구사 수준
	자녀의 모국어 구사 수준
	모국어 및 한국어 습득 시 어려움
	이중언어 습득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태도(5점 척도, 15문항)
	모국어 습득 노력(5점 척도, 10문항)
	이중언어의 사회적 환경 및 인식(5점 척도, 8문항)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필요조건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정책 욕구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경로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기관 및 서비스 내용
	가장 도움이 된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및 이유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미이용 이유
	자녀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기관 이용 의향
	자녀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선호 기관 및 이유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사업
일반적 양육 특성	낮 시간 주 돌봄자
	자녀와 의사소통이 가장 많은 가족
	이용 중인 자녀 돌봄 기관 및 서비스

구분	내용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시기 및 이유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 및 다문화 유치원 여부
	부모 역할 효능감
	부모 역할 불충분에 대한 이유 및 노력
	자녀와의 소통 정도
	자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
	자녀 양육 시 정서
	자녀 양육 시 어려움
자녀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 특성 : 연령, 성별, 출신국, 모국어, 혼인상태, 거주지, 한국 거주 기간, 최종학력, 취업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가구 구성원, 한국어 구사 수준
	배우자 및 결혼 특성 : 배우자 연령, 최종학력, 취업 여부, 결혼 유지 기간, 배우자 만남 계기, 배우자의 모국어 구사수준
	자녀 특성 : 미성년 자녀수, 자녀별 연령, 성별, 출생국가, 현재 건강상태,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구사 수준

다. 심층면담

본 심층면담은 설문조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 내 역동과 이중언어 사용의 실질적 어려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설문조사에서는 영어권을 비롯한 다양한 언어권을 포함하였으나, 심층면담에서는 이중언어 사용 고충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하여 사회적으로 언어적 지위가 낮은 편에 속하는 출신국 대상자를 다수 포함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심층면담은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2021년 6월 14일자로 승인(220996-210514-HR-003)을 받았다.

1) 조사대상 및 모집

본 연구의 심층면담 대상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중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30명이다.[2] 이 중 20명은 결혼이민자·귀화자

2) 실제 면담은 31명을 진행하였으나, 사전 섭외 과정에서 한국어가 원활하다고 응답하여 통역사를 동반하지 않고 면담을 진행한 결혼이민자 1명의 면담이 한국어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이를 제외하고 추가로 진행하였음.

부모이며, 10명은 한국출신 다문화가족 부모이다. 결혼이민자·귀화자 부모뿐만 아니라 한국 출신 부모의 이중언어 및 양육 태도도 이중언어 사용에 중요한 작용을 하므로, 결혼이민자·귀화자 부모를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되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심층면담도 진행하였다.

본 심층면담의 목적은 설문조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 내 이중언어 관련 역동 및 실질적 어려움 등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대상자 구분에 있어서 이중언어 사용 여부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에 이중언어 사용을 기준으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족과 단일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을 일대일로 섭외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결혼이민자·귀화자 심층면담 대상자와 별도로 10명을 표집하였다. 중국 또는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인 배우자 4명, 이외에 베트남을 포함한 동북·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인 배우자 6명을 가정 내 이중언어와 단일언어를 기준으로 일대일로 구분하여 표집 하였다.

심층면담 대상자 모집은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의 협조를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 설명문 및 질문지는 면담 대상자의 모국어로 번역하여 사전에 제공하였으며, 면담 전에 연구대상자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2) 조사 방법 및 시기

본 면담은 섭외과정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를 통해 1차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심층면담 질문지, 연구참여에 대한 설명문, 연구 참여 동의서를 사전에 제공하여 면담 참여자들이 면담 전에 면담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질문지, 연구참여 설명문, 연구 참여 동의서는 6개 언어(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몽골어)로 번역하여 제공되었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토대로 일대일 심층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장소는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면담실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가 원할 경우 자택 인근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60분~120분이 소요되었으며, 면담 진행은 2021년 7월~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3) 조사 내용

심층면담 질문지는 선행연구 및 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이 구성하였으며, 질문지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원내 멘토링, 서면 자문, 결혼이민자 사전 면담을 진행하여 수정 후 최종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심층면담 질문지의 내용은 〈표 Ⅰ-3-2〉와 같다.

〈표 Ⅰ-3-2〉 심층면담 질문지 내용

구분	내용
자녀 양육 전반	• 자녀 양육 실태 - 주양육자, -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 긴급 돌봄 시 지원
	• 자녀 양육 시 어려움 및 해결 방식
자녀의 사용 언어 및 언어 습득 과정	• 자녀가 사용하는 언어 - 주언어/부언어 - 상황별 사용 언어 차이
	• 자녀의 언어 습득 과정 - 언어습득 시 가장 많이 노출된 언어 - 습득 시기 및 습득 순서 - 습득 과정에서의 어려움
이중언어 구사 환경	• 가정 내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견해
	• 자녀의 외국 출신 부모의 언어 습득/문화공유 노력 및 계획
	• 부부 간 상호 언어습득에 대한 태도 및 습득 정도
	• 이중언어 사용 아동에 대한 우리사회의 수용성 인식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지원 요구	• 다문화가족 부모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 서비스 이용 여부 - 이용 시 만족 및 도움 정도 - 이용 서비스의 개선할 점
	•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또는 언어발달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 서비스 이용 여부 - 이용 시 만족 및 도움 정도 - 이용 서비스의 개선할 점
	•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 제고를 위한 필요 서비스
	•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필요 서비스

라. 전문가 의견 조사

1) 조사 대상자

현재 실시 중인 이중언어 지원 사업 및 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및 사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크게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질문지는 총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60명 이상의 전문가에게 조사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참여 의사를 밝힌 전문가 45명 중 42명이 응답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와 해당 센터의 중앙 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9명, 다문화교육센터 종사자와 중앙 기관인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종사자 9명이 응답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인 이중언어코치는 8명이 응답하였다. 시군구의 이중언어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총 5명,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유치원 원감 및 유치원 교사는 총 11명이 응답하였다. 본 전문가 의견조사의 조사 대상자 및 질문지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에 제시된 〈표 I-3-3〉와 같다.

〈표 Ⅰ-3-3〉 전문가 의견 조사 대상자 및 질문지 유형

구분	전문가 집단	인원	전문가 의견조사 질문지 유형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센터장 및 센터 실무자) 한국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중앙다문화가족지원센터)	9	센터 및 중앙기관용 질문지
2	다문화교육센터 종사자(센터장 및 센터 실무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종사자	9	
3	이중언어코치	8	이중언어코치용 질문지
4	지자체 공무원	5	지자체용 질문지
5	교육·보육기관 종사자 (어린이집 원장 및 유치원 원감,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11	교육·보육기관용 질문지
계		42명	4종

2) 조사내용 및 방법

전문가 의견조사 질문지는 사업 및 정책 검토 결과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자문회의 및 서면자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설문 문항은 반구조화 개방형 질문과 구조화된 질문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전문가 의견 조사 질문은 전문가들

의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현재 이중언어 지원 정책의 맹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조사는 이메일 조사로 실시하였으며, 2021년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전문가 의견 조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Ⅰ-3-4〉와 같다.

〈표 Ⅰ-3-4〉 전문가 의견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관련 현장 전문가 42명 - (중앙)다문화가족지원센터: 9명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9명 - 이중언어코치: 8명 - 지자체 공무원: 5명 - 교육·보육기관 종사자: 11명
조사시기	• 2021년 9월~10월
조사방법	• 이메일 설문조사 • 반구조화 개방형 질문과 구조화된 설문 문항으로 구성
조사 주요 내용	• 이중언어 지원 사업 현황
	소속기관의 이중언어 지원 사업 내용 및 효과성·만족도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외부 기관과의 연계 여부 및 연계 내용 연계 희망 기관 및 프로그램 이중언어 지원 사업 운영의 애로사항 및 해결 방안
	• 이중언어 지원 사업·정책 인식 및 방안
	다문화가족 대상 이중언어 지원 사업의 중요성 평가 이중언어 관련 제도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 이중언어 지원 근거 규정 인식 이중언어 지원 사업 내실화 및 확대 항목별 중요성 및 이행도 평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 및 보완 방법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 담당 인력의 전문성 및 접근성 제고 방안 이중언어 교육 지원 대상별 세분화 방안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과의 연계 중요성 및 연계 정도, 연계 방안 다문화 부모의 이중언어 사용 시 어려움 및 부모 역량강화 방안
	• 이중언어 환경 및 인식개선
	한국사회의 이중언어 환경 및 인식 정도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방안

마. 콜로키움 및 정책간담회

1) 콜로키움

학술적 토론을 기초로 연구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 및 '다문화가족 부모 임파워먼트'를 주제로 한 콜로키움을 2회 개최하였다. 학계 전문가(대학교수) 1인이 발제하고 관련 전문가 2인과 연구진 및 원내 연구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콜로키움 현장에는 연구진 3인과 발제자 및 토론자 3인만 착석하여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하였고, 원내 연구자들은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콜로키움에 참여하였다. 1차, 2차 콜로키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Ⅰ-3-5〉 콜로키움 개요

구분	1차 콜로키움	2차 콜로키움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1년 4월 15일(목), 10:00-12:00 • 장소: 명동포스트타워 9층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온라인 송출	• 일시: 2021년 6월 4일(금), 10:00-12:00 • 장소: 명동포스트타워 9층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온라인 송출
주제	•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	• 다문화가족 부모의 임파워먼트
발제	• 이중언어 아동의 이론 및 실제	• 서비스 대상자에서 서비스 공급자로의 패러다임 전환
주요 내용	• 이중언어 아동 정의 및 종류 • 이중언어 아동의 언어발달 특징 • 언어적 다양성 야기 요인 및 언어손실 • 이중언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 • 실증적 연구 결과 및 사례	• 기존의 다문화가족 및 부모 지원 정책 경향 • 전통적 패러다임: 개인의 내적요인의 강조, 연령별 발달단계 천착 • 다차원적 관점, 환경 속 개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 • 이주여성의 경험에 관한 연구 결과 및 사례 • 실제 실천현장에서의 부모 임파워먼트 현황 및 개선사항 논의

2) 정책 세미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이중언어 관련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의 적합성을

논의하고 추진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각계 전문가들은 본 연구의 도출 결과와 정책방안에 대해 본인이 소속된 현장에의 적용 가능성과 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표 Ⅰ-3-6〉 이중언어 관련 다문화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정책 간담회 개요

구분	내용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1년 11월 26일(금) 10:00-12:00 • 장소: 명동포스트타워 9층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주제	•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 주요 연구 결과 논의 - 지원 방안 및 추진전략 논의
발제 및 토론	• 발제: 연구진 • 토론: 대학교수 1인(좌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1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1인, 이중언어코치 1인, 어린이집 원장 1인

바.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연구 방향 점검, 조사연구 질문지 개발 및 검토, 지원 방안 도출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다문화 관련 연구자 자문회의, 다문화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등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와 원내 동료 멘토링을 다수 실시하였다. 또한 심층면담지, 설문조사지, 전문가 의견조사 질문지 구성 및 문항에 대한 서면자문을 실시하여 검토과정을 거쳤다. 한편, 연구의 정책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 초반에 여성가족부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중간보고 전에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를 통해 서면자문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자문 및 회의는 부록에 제시하였다(부록 9 참조).

사. 연구 흐름도

이상의 연구 방법 및 내용을 종합하여 전체 연구의 흐름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Ⅰ-3-1]과 같다.

[그림 Ⅰ-3-1] 연구 흐름도

이론적 검토 및 개념화
선행연구 검토
• 다문화가족 부모 역량강화 접근 및 이중언어 관련 이론·선행 연구 고찰
콜로키움 개최
• 이론적 논의 확장 및 현장 적용 관련 콜로키움 2회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전체적인 연구 틀 구성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국내외 정책 및 사례 분석
• 관련법 및 주요 계획 분석
• 중앙 및 지자체 정책 및 사업 분석
• 민간차원 지원 사업 분석
• 국외 정책 사례 분석(3개국)
설문조사
• 영유아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 설문조사
- 총 531명
심층면담
• 다문화 영유아 부모 대상 심층면담
- 결혼이민자 20명
- 한국 출신 배우자 10명
정책 과제 및 전략 도출
전문가 의견조사
• 현장 전문가 중심 전문가 의견 조사
- 5개 전문가 집단, 총 42명
정책 세미나
• 정책방안 점검을 위한 관련 전문가 정책세미나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제시

II

연구 배경

01 다문화가족 관련 현황

02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 이론 및 선행연구

03 다문화가족 부모 역량강화 접근

04 소결

Ⅱ. 연구 배경

1. 다문화가족 관련 현황

가. 다문화 아동 현황 및 추이

1) 다문화 출생아 추이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4.3%에서 2014년 4.9%로 증가하였고, 2015년 다소 주춤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여 2019년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5.9%이다. 2019년 다문화 출생아 수는 17,939명으로 전년 대비 140명 감소하여 0.8%p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7.4%p로 크게 감소하여 다문화 출생아의 비중은 오히려 2018년에 비해 0.4%p 증가하였다(통계청, 2020: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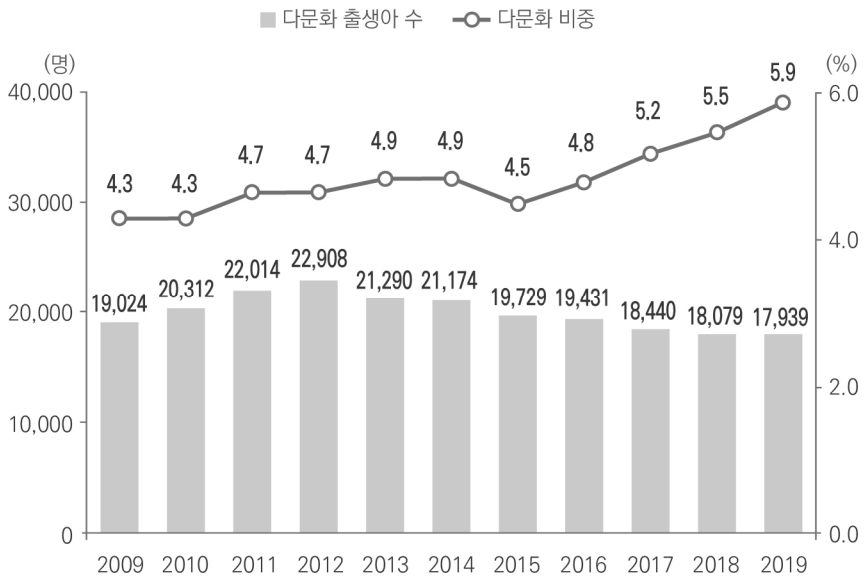
〈표 Ⅱ-1-1〉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출생성비, 2017-2019년

(단위: 명, %, 여아 100명당 남아 수)

		전체*			다문화 부모[1]			출생기준 한국인 부모[2]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출생아 수		357,771	326,822	302,676	18,440	18,079	17,939	335,713	305,450	281,674
비 중		100.0	100.0	100.0	5.2	5.5	5.9	93.8	93.5	93.1
전년 대비	증 감	-48,472	-30,949	-24,146	-991	-361	-140	-46,981	-30,263	-23,776
	증감률	-11.9	-8.7	-7.4	-5.1	-2.0	-0.8	-12.3	-9.0	-7.8

주: * 부모 국적 미상(기아, 영아사망 등) 포함
1) 다문화 부모 :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귀화자인 경우
2) 출생기준 한국인 부모 : 부모 모두 출생기준 한국인인 경우
자료: 통계청(2020),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p. 22. [표 20] 일부 인용.

[그림 Ⅱ-1-1]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추이(2009~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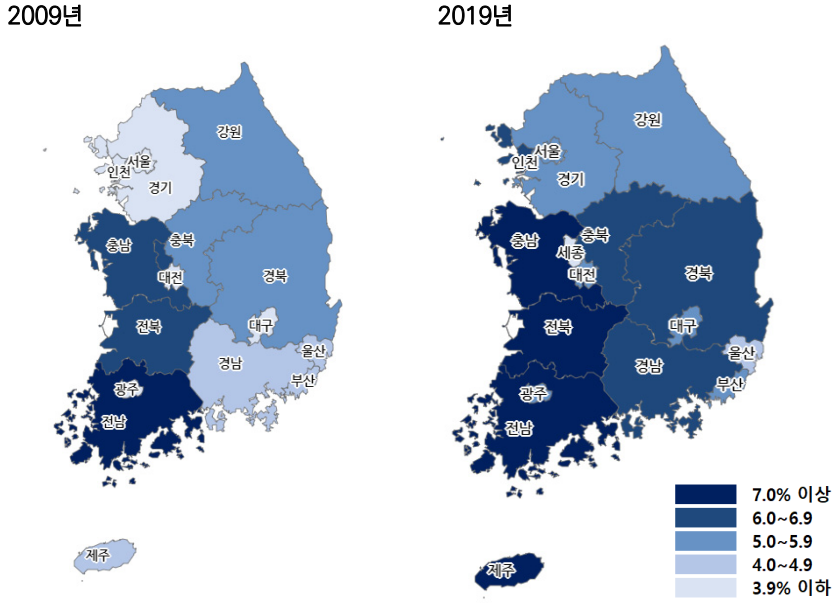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0),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p. 22.

2019년 지역별 다문화 출생아 수는 경기 지역이 4,804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서울 3,053명, 경남 1,185명, 인천 1,139명 순이다. 2009년에는 전남 지역에서만 다문화 출생아 비중이 7%를 넘었으나, 2019년에는 전남(7.8%)을 비롯해서 전북(8.1%), 제주(7.8%), 충남(7%)에서도 다문화 출생아 비중이 7%를 넘어섰다(통계청, 2020: 28~29).

전년대비 다문화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경남(-8.4%)과 부산(-7.7%)이다. 한편, 다문화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전남(9.7%)과 대구(7.5%)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29).

[그림 Ⅱ-1-2] 지역별 다문화 출생 비중, 2009년, 2019년



자료: 통계청(2020),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p. 28.

모의 국적별 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출생아 비중이 가장 높은 모의 출신국은 베트남으로 38.2%이며, 중국이 19.9%, 필리핀 6.1% 순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다문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6%p 증가하였고, 반면 중국은 0.9%p감소, 필리핀은 0.8%p 감소하였다(통계청, 2020: 30).

〈표 Ⅱ-1-2〉 모(母)의 출신 국적별 출생아 비중, 2017-2019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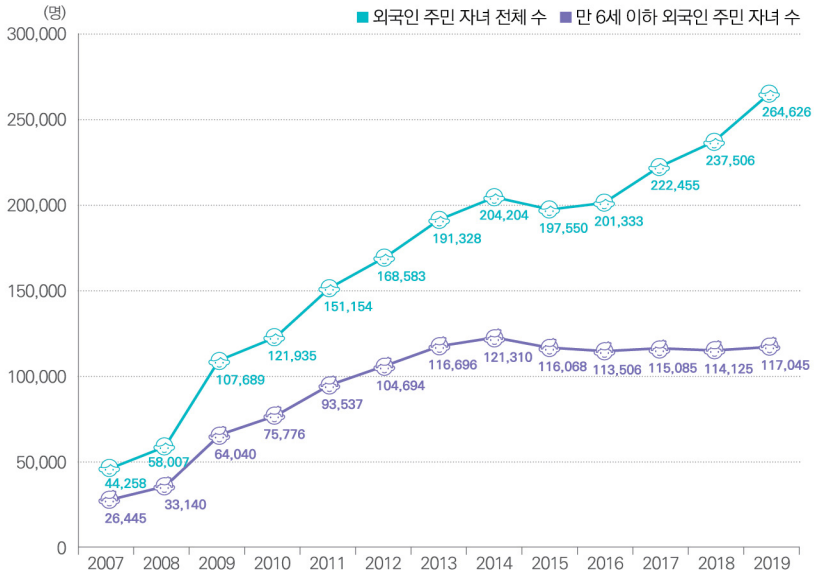
	2017	2018	2019
출생아 수	18,440	18,079	17,939
계*	100.0	100.0	100.0
모(母) 한국	16.0	15.9	14.0
모(母) 외국	84.0	84.1	86.0
베트남	34.7	35.6	38.2
중국	22.0	20.8	19.9
필리핀	7.3	6.9	6.1
캄보디아	4.0	4.1	4.1
일본	3.9	3.8	3.8
태국	1.8	2.4	3.1
미국	2.2	2.2	2.1
기타	8.0	8.1	8.6

자료: 통계청(2020),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p. 30. [표28] 일부 인용.

2) 다문화 영유아 추이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 추이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자녀[3]수는 2008년 약 5만 8천명에서 2009년 약 10만 8천명으로 약 5만 명 급증했다. 이후에도 201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여 2019년에는 약 26만 4천명으로 증가하였다. 만 6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수를 보면, 2014년까지 전체 외국인 주민 자녀수 추이와 유사한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는 다소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117,045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그림 Ⅱ-1-3). 전체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 영유아에서 외국인 주민 영유아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박은정, 박창현, 조혜주, 2020: 33).

[그림 Ⅱ-1-3] 연도별 외국인 주민 자녀수 추이



주: 박은정 외(2020:33) 자료에 행정안전부(2020. 10. 29)의 2019년 데이터를 추가하여 재작성하였음.
자료: 박은정 외(2020). 다문화 영유아의 어린이집 보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33; 행정안전부(2020. 10. 2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19. 11월 기준 자료.

통계청의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는 다문화 영유아의 지역별 인구규모를 제공하지

3)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에서 외국인 주민 자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를 포괄함. 즉,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주민의 자녀 등을 칭함(박은정 외, 2020: 33).

않는다. 그러나 보육통계 자료에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다문화 영유아 수를 통해 지역별 다문화 영유아의 규모를 추론해볼 수 있다.

2020년 보육통계에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다문화 영유아 수를 살펴보면, 재원 다문화 영유아 수는 총 44,882명이며, 대도시 지역에 14,470명, 중소도시 지역에 15,793명, 농어촌 지역에는 14,619명이 재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0: 121). 어린이집 현원 기준으로 다문화 영유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2020년 말 기준 11,445명이다(보건복지부, 2020: 124).

〈표 Ⅱ-1-3〉 지역별, 지역규모별 어린이집 재원 다문화 아동 현황

(단위: 명)

구분		다문화 아동 현원	구분		다문화 아동 현원
시도	지역규모		시도	지역규모	
전국 합계	대도시	14,470	경기도	대도시	0
	중소도시	15,793		중소도시	8,301
	농어촌	14,619		농어촌	3,144
서울특별시	대도시	5,889	강원도	대도시	0
	중소도시	0		중소도시	563
	농어촌	0		농어촌	729
부산광역시	대도시	1,766	충청북도	대도시	0
	중소도시	0		중소도시	623
	농어촌	114		농어촌	1,085
대구광역시	대도시	1,331	충청남도	대도시	0
	중소도시	0		중소도시	733
	농어촌	225		농어촌	1,789
인천광역시	대도시	2,379	전라북도	대도시	0
	중소도시	0		중소도시	1,279
	농어촌	55		농어촌	1,063
광주광역시	대도시	1,289	전라남도	대도시	0
	중소도시	0		중소도시	821
	농어촌	12		농어촌	1,848
대전광역시	대도시	1,164	경상북도	대도시	0
	중소도시	0		중소도시	1,212
	농어촌	0		농어촌	1,952
울산광역시	대도시	652	경상남도	대도시	0
	중소도시	0		중소도시	2,024
	농어촌	199		농어촌	1,449
세종특별자치시	대도시	0	제주도	대도시	0
	중소도시	81		중소도시	156
	농어촌	112		농어촌	843

자료: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121-128(2020. 12. 31일 기준)를 토대로 재구성.

나.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관련 현황

현재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국내 통계 중 가장 규모가 큰 조사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이다.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2018년까지 네 차례 실시되었으며(최윤정 외, 2019: 11), 본조사가 실시된 2012년부터 점차 전체 표본 중 응답 가구 비율이 높아져 2012년 전체표본의 59.5%인 15,529가구, 2015년 65.8%인 17,849가구, 2018년 70.1%인 17,550가구가 응답하였다(최윤정 외, 2019: 28). 그러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자녀 대상 설문조사는 만 9~24세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다문화 영유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한정적이어서 다문화 영유아를 둔 다문화가족 내 이중언어 사용 관련 역동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전반적인 이중언어 가족환경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을 정리하였다.

1) 다문화 가정의 이중언어 환경

다문화가족에서 외국계 부모가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가족들이 지지하고 격려한다는 응답이 2012년 조사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일상에서 결혼이민자나 귀화자들이 모국어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최윤정 외, 2019: 157), 자녀들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친다는 응답이 5점 척도 기준으로 2015년 3.07점에서 2018년에는 2.98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최윤정 외, 2019: 160).

외국계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모국어 사용에 대해 가족들의 지지와 격려가 많았으며(최윤정 외, 2019: 156), 자녀가 해당언어를 사용하는 것에도 허용적이었고(최윤정 외, 2019: 158)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응답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 외, 2019: 161). 출신국적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 미주·유럽·대양주 출신의 경우, 외국계 부모의 모국어 사용에 대해 허용적이고(최윤정 외, 2019: 156), 자녀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도 허용적이었으며(최윤정 외, 2019: 158), 자녀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 외, 2019: 161).

다문화 자녀의 이중언어 환경 조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한국어를 잘하는 경우가 94.1%로 압도적이었으며, 외국계 부모나라 언어를 더 잘하는 경우는 5.9% 수준이

었다(최윤정 외, 2019: 519). 다만, 18세~24세의 경우(18.4%),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28.4%),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경우(54.4%) 등 특성별로 외국인 부모의 언어를 더 잘하는 비율이 높아졌다(최윤정 외, 2019: 519~520). 또한 가족 구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외국계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의 자녀(13.4%), 부모 모두 외국출신의 자녀(11.8%), 한국계 아버지와 외국계 어머니의 자녀(5.1%) 순으로 외국계 부모 나라 말을 한국어보다 더 잘한다고 응답하였다(최윤정 외, 2019: 519~520).

외국계 부모 나라의 모어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 태어난 가족들이 내가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나라 말을 사용하는 것을 격려한다'는 응답은 25.4%, '나는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나라의 말을 배운다'는 응답은 25.1%, '나는 앞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나라의 말을 한국어만큼 잘하고 싶다'는 응답은 42.4%로 높았다(최윤정 외, 2019: 520). 이는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가족들의 지지를 받는 비율은 낮으나, 외국계 부모나라의 언어를 한국어처럼 잘 하고 싶은 희망이 더 큰 것을 나타낸다(최윤정 외, 2019: 520).

〈표 Ⅱ-1-4〉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국계 부모 나라 모어에 대한 태도(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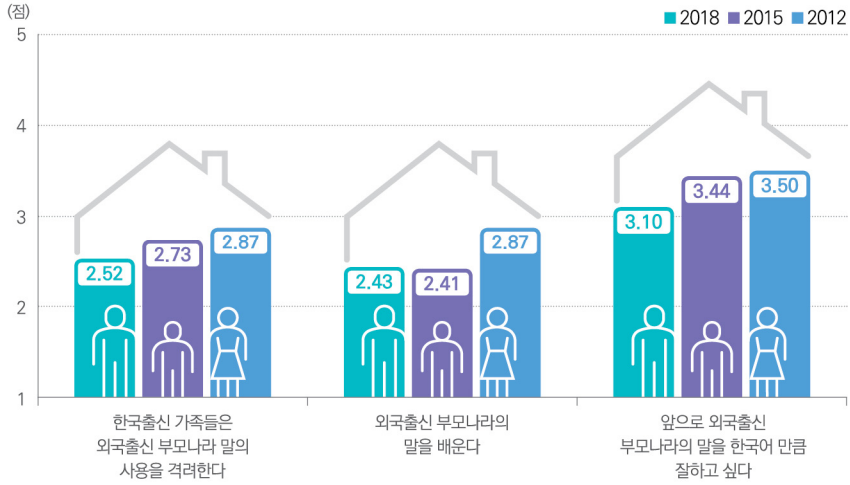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한국에서 태어난 가족들은 내가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 나라 말의 사용을 격려한다	30.1 (24,300)	22.2 (17,938)	22.3 (18,002)	15.9 (12,832)	9.5 (7,687)	100.0 (80,759)	2.52
나는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 나라의 말을 배운다	34.5 (30,709)	22.2 (19,770)	18.1 (16,116)	15.6 (13,891)	9.5 (8,469)	100.0 (88,953)	2.43
나는 앞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 나라의 말을 한국어만큼 잘하고 싶다	17.9 (15,898)	18.9 (16,783)	20.9 (18,630)	19.8 (17,574)	22.6 (20,068)	100.0 (88,953)	3.10

자료: 최윤정 외(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 521. 〈표 Ⅴ-22〉 외국계 부모의 모어에 대한 태도.

2012년, 2015년, 2018년 3년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중언어 습득에 대한 가족들의 지지 및 실제 학습 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아져 이중언어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 외, 2019: 521).

[그림 Ⅱ-1-4] 다문화가족 자녀의 외국계 부모 나라 모어에 대한 태도(3개년 비교)



주: 2012년, 2015년에는 모든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문항임.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어 사용 능력과 외국출신 부모 언어 사용 능력의 평균값을 비교한 후 한국어 사용 능력의 평균값이 더 높은 다문화자녀만을 선별하여 2012년, 2015년 외국계 부모 나라의 모어에 대한 태도 평균을 산출함.
자료: 최윤정 외(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 520. [그림Ⅴ-10] 외국계 부모 나라의 모어에 대한 태도(2012, 2015, 2018).

최윤정 외(2019)는 문화 다양성과 관련한 역량, 교육 등의 관심은 확대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차이 및 모국어 사용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여 앞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한 가족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최윤정 외, 2019: 304), 다문화가족의 강점인 이중언어 능력 환경이 구성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선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최윤정 외, 2019: 657).

2) 다문화가족 지원 및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다문화가족 중 가족생활과 관련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은 2018년은 60.9%, 2015년은 54.9%였으며(최윤정 외, 2019: 247), 이 중 지원 서비스별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 교육이 가장 많은 51%이상이었고,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은 40% 이상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최윤정 외, 2019: 249). 반면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및 이중언어 교육 서비스 이용 경험은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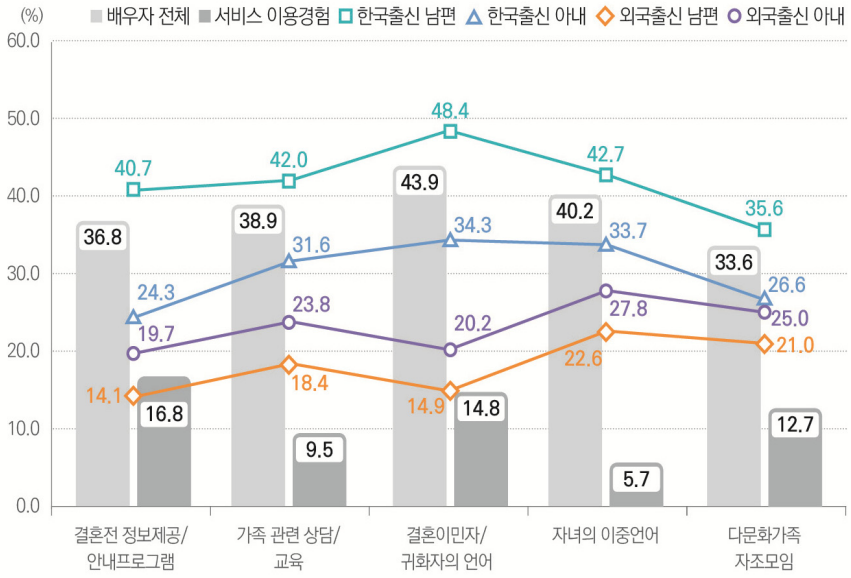
서비스 이용 경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2015년에 15.1%에서 2018년 9.7%로 이용 경험 비율이 낮아져 자녀 언어발달 및 이중언어 관련 서비스 이용 현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최윤정 외, 2019: 250).

다른 항목과 달리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졸 이상 학력층이 고졸 이하 학력층보다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최윤정 외, 2019: 250), 출신 국적별로는 일본 23.0%, 필리핀 20.8%로 타 국가에 비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 외, 2019: 251~252).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요구도도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 외, 2019: 254~255).

다문화가족 배우자 조사에서 자녀의 이중언어와 관련한 부모교육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5.7%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이용 경험이 매우 낮았고 배우자의 특성별로 차이도 크지 않았던 반면(최윤정 외, 2019: 437),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0.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실제 이용경험과 필요성 인식 사이에 간극이 큰 것을 알 수 있다(최윤정 외, 2019: 439). [그림 Ⅱ-1-5]를 살펴보면 다른 지원 서비스들보다 자녀의 이중언어 관련 교육의 이용경험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의 격차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한국인 남편(42.7%), 30~40대(약 44%이상), 고졸이상(약 41%이상), 읍면부 거주자(43.1%), 가구소득 200~300만원 미만(44.2%)이 상대적으로 자녀의 이중언어 부모교육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 외, 2019: 447).

[그림 Ⅱ-1-5] 다문화가족 배우자의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대비 서비스 요구



자료: 최윤정 외(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 440. [그림 Ⅳ-50] 배우자의 서비스 이용 경험 대비 서비스 요구.

2.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 이론 및 선행연구

가족 내 언어와 주류 사회의 언어로 구분되는 경우와 가정 내에서 부모가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급증에 따른 다문화 인구 증가라는 점에서 기존에 이중언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온 해외 국가와는 다문화사회 구성 배경이 상이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언어 발달 측면에서 전반적인 이중언어 연구의 경향을 포괄하여 살펴보았다. 이중언어 발달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이중언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제 본 연구의 조사설계와 조사내용 설계에 검토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절에서는 먼저 이중언어 아동의 정의 및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이중언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해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이중언어 발달 및 지원의 중요성을 다루었다. 해외 선행연구들의 내용은 이중언어 아동의 종류 및 언어 발달의 특징, 이중언어 사용 및 지원의 필요성,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국내 선행연구를 비교분석 맥락에서 해외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론 및 선행연구에서 아동이 가장 먼저 습득하는 모어인 제1언어(L1)과 제2언어(L2)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중언어를 습득하는 순서나 이중언어 노출 환경에 따라서 L1과 L2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언어 구사능력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와 다른 맥락에서 설명되는 선행연구들도 있다. 따라서 II장에서 이론 및 해외 선행연구를 설명하기 위해 L1과 L2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전체 연구보고서에서는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이중언어로 규정하고 해당 용어를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가. 이중언어 아동의 정의 및 특징

발달적 이중언어 아동(developing bilinguals)은 출생과 청소년기 사이 가장 역동적인 의사소통 발달 기간 동안 두 개 이상의 언어로 꾸준한 입력을 받는 아동들을 뜻한다(Kohnert, 2008). 단일언어 아동과 마찬가지로, 두 언어를 배우는 대

부분의 아동은 건강한 사회정서적, 인지적, 신경적, 운동적, 감각적 시스템을 갖추며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발달적 이중언어 아동의 주요 특징은 언어 습득의 기간과 언어습득의 양상 그리고 언어의 능숙도가 아동들 마다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중언어 아동의 언어능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단일언어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정도, 문해능력 등에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향, 선호도, 인지 능력 또는 적성의 개인차도 언어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hman, Bedore, Peña, Mendez-Perez, & Gillam, 2010; Portes & Rumbaut, 2001). 두 언어를 배우는 아동은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연령 및 조건하에서 언어를 배우며, 각 언어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언어 능력을 키우게 된다.

이중언어 아동은 두 언어의 능숙도나 균등성에 따라 정의되지 않는다. 광의의 의미에서 이중언어자는 일상생활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정의되며(Abdelilah-Bauer 2016: 37~38), 발달적 이중언어 아동도 일상생활에서 이중언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사용하는 아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나. 이중언어 아동의 종류 및 언어 발달의 특징

1) 언어 습득 시기에 따른 구분

이중언어 아동이 두 언어 경험을 언제 했는지의 시기에 따라 아동을 동시 이중언어(simultaneous bilingual), 또는 순차적 이중언어(early sequential bilingual) 구사자로 구분한다.

가) 동시적 이중언어(simultaneous bilingual)

어떤 아동들은 출생 직후 혹은 짧은 기간 안에 두 가지 언어를 접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주양육자가 가정에서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각 부모/양육자는 아동에게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아동과 함께 본인의 모국어인 러시아어로 말하고 아버지는 그의 모국어인 영어로 대화할 수 있다. 부모는 문화적, 언어적 편안함에 따라 서로와 대화할 시에는 하나 혹은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며 대화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에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부모는 자녀와 의사소통하거나 서로와 대화하는 동안 두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두 언어의 입력을 받는 아동은 동시(simultaneous) 혹은 '원어민(native)' 이중언어 구사자라고 불린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유아기에 시작되는 두 언어에 대한 아동의 동시 경험을 강조한다. 동시 이중언어 유아는 두 언어를 분리하기 위해 다양한 메커니즘을 사용한다(Bosch & Sebastian-Galles, 2001; Byers-Heinlein, Burns, & Weker, 2010). 과거에는 "한 부모, 한 언어" 접근법이 권장되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접근법이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 습득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자연스러운 이중언어 환경도 아니라는 주장들이 있다(Conboy, 2012; De Houwer, 2007).

한편, 두 언어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어린 언어 학습자들에게 일시적인 병목 현상을 일으킨다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다. 즉, 동시적 이중언어 아동이 처음에는 단일 언어 학습자에 비해 초기 언어가 지연되지만 결국 나중에는 따라잡는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실증적 증거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 즉, 두 언어를 배우는 아동들을 살펴본 연구는 동시적 이중언어 아동의 초기 언어가 지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사한 사회 경제적 상황이 주어졌을 때, 동시적 이중언어 아동은 단일언어 또래와 같은 연령에 첫 단어를 발화하고 핵심 어휘를 개발하며 의미 있는 구절로 결합한다(Petitto et al., 2001; Petitto & Holowka, 2002). 동시적 이중 언어 구사자는 초기 언어의 결정적 지점을 적절한 발달시기에 통과하여 단일 언어 학습자와 동일한 의사소통 목적을 위해, 동일한 수준의 명확성으로 언어를 사용한다. 동시적 이중언어 아동은 또래 단일언어 아동과 주요 초기 언어 능력 발달의 시작 나이와 진행률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중산층일 경우 두 언어를 모두 고려할 때 이중언어 아동이 보유하는 단어의 폭은 단일언어 아동과 같은 수준이다(Marchman & Martinez-Sussman, 2002; Pearson, Fernandez, & Oller, 1993).

동시적 이중언어 아동들은 두 가지 언어에 대해 이른 시기부터 일관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노출량이 불균등하여 두 언어 중 하나에서 더 많은 어휘에 노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두 가지 언어의 어휘를 불균등한 정도로 알고 있는 아이들도 더 많은 어휘를 아는 언어로 단어를 더욱 빠른 속도로 처리한다(Marchman, Fernald, & Hurtado, 2010). 3세에서 5세 내에 아동은 적어도 하나의 언어를 단일 언어에 준하는 능력으로 구사할 것이다. 많은 경우, 서

로 다른 언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기회와 지속적인 입력이 있는 경우, 동시적 이중언어 아동은 두 언어 모두 잘 발달되어 각 언어의 단일언어 또래에 준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적 이중 언어 아동은 서로 다른 의사소통 맥락에서 서로 다른 대화 참여자와 함께,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두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언어 사용의 이러한 차이들은 특정한 목적이 주어졌을 때 두 언어 중 하나의 상대적 강점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다른 목적이 주어졌을 때는 다른 언어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중언어 구사자는 의미상 단일 언어 구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일부 언어적, 인지적 또는 처리 방법들에 있어 단일 언어 구사자와 이중언어 구사자 간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Conboy, 2012). 집단 수준에서 이중언어 아동은 표준화된 어휘 시험에서 소득, 연령 및 교육수준이 대등한 단일언어 아동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지만, 어떠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광범위한 실험적 인지 과제에서는 단일언어 또래를 능가한다는 결과도 있다(Bialystok, Craik, & Luk, 2012).

나) 순차적 이중언어(sequential bilingual)

대략적으로 같은 연령(유아기)에 두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하는 아동과는 달리, 초기 순차적 이중언어 아동(early sequential bilingual)은 출생 이후 단일 모국어(L1)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난 후 특정 시기에 제2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한다. L2를 습득하는 초기 단계의 언어 사용 패턴과 전략은 연령과 아동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다. L2 습득의 초기단계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며 연령이 비교적 적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L1 규칙에 대한 과한 일반화(부정적 전이 혹은 간섭으로 지칭되기도 함), 전신어(telegraphic speech)의 사용, 이전 화자의 발화 모방, 기피, 정형화되거나 틀에 박힌 혹은 단순화된 언어 구조를 사용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Tabors, 2008: 69-74).

어떤 아동은 L2로 생각 혹은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산출하는 시도를 하기 전, 몇 개월의 기간 동안 듣고 수용 능력을 발달시키며 L2에 대한 초기 경험에 접근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함묵기간(silent period)이라고 불려진다. 최근에는 L2 습득 초기 단계의 함묵기간의 존재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Roberts (2014)는 해당

현상을 관찰한 연구가 소수라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지지하는 증거는 한정되고 일화적이었다. 함묵 기간이 L2 습득의 특정 단계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의 변이를 나타내는 것인지 확인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어떠한 경우에는 L1이 지역사회의 다수 언어이고 아동은 외국어 혹은 L2 능숙도 증진을 위해 고안된 공식 몰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언어를 배운다. 미국에서는 출생부터 영어만 습득한 다수의 아동이 초등 학년에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히브리어, 아랍어 혹은 중국어 등이 교육 언어인 몰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다수의 언어가 스페인어인 멕시코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영어나 독일어로 된 몰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정상적으로 발달 중인 아동은 모국어뿐만 아니라 몰입 교육의 언어로도 높은 수준의 언어/학업 성취도를 보인다. 이렇게 몰입 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은 주로 가정의 주 언어인 L1과 더불어 더욱 넓은 지역사회의 다수 언어에 대한 강한 능력을 발달시키고 유지한다. 즉, L1의 단일언어 사용자와 비교했을 때에도 다수 언어 사용자들에게 L2 몰입 교육의 결과로 L1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 (Fortune, 2012; Lindholm-Leary, 2011). 이러한 유형의 이중언어 맥락은 가끔 '추가적/첨가적' (additive)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아동의 환경에서 두 언어가 모두 가치 있기 때문이며, 이는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다른 언어의 희생/손실을 일으키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Lambert, 1977). 제 2언어의 체계적인 증진은 L1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며 일어난다. 장기적 목표는 이중 언어 사용과 이중 문해력이다.

순차적 이중 언어 사용의 다른 경우에는 가정의 주 언어(L1)가 지역사회의 소수 언어이며 L2가 교육 시스템과 더욱 넓은 지역 사회의 다수 언어이다. 소수 언어는 지역사회에서 주로 사용되는 다수 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기회 즉 대상과 맥락, 목적 희소성 사실과 동기 즉, 비교적 적은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이의 예는 미국에 거주하며 부모가 스페인어, 베트남어, 광둥어, 소말리아어, 타갈로그어 혹은 우르두어를 사용하는 아동이나 가정에서 아랍어 방언 중 하나를 L1로 사용하는 스웨덴에 거주하는 아동 등을 포함한다. 이때 지역사회의 언어(L2)가 L1의 희생으로 증진되는 경우를 이중언어의 '삭제/삭감(subtractive)' 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소수 언어는 다수 지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명성이나 가치를 가진다고 여겨진다(Lambert, 1977). 즉, 삭제/삭감 이중언어는 모국어가 학교나 사회의

언어보다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경우를 의미하며, 그로 인해 아동이 모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매우 낮아지고 모국어를 구사할 의사소통 대상자들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삭감'되는 언어 환경에서 다수 L2를 배우는 소수 L1 아동은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과 네덜란드 등 서구 국가를 포함해 세계 거의 모든 국가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이중 언어 학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달과 L1-L2 능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측면에서 가장 가변적이며, 이러한 언어가 사회에서 지니고 있는 특성 때문에 겪게 되는 아동의 언어발달의 역동성으로 인해 교육자와 전문가에게 상당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2) 연령대별 특징

여기에서는 미취학과 학령기로 구분하여 연령별 이중언어 발달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미취학 연령

일부 연구에서 2살과 5살 사이의 소수 언어 학습자들이 가정과 지역사회 두 장소에서 사용한 언어 능력을 직접 측정한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른 언어적 기술의 발달 속도와 방향성 모두 L2보다 L1에서 더 많은 변동성을 보였다. 여러 연구는 L2 능력이 연령과 그에 상응하는 L2 경험에 따라 빠르게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대로 L1은 L2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증가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고, 혹은 어떤 경우에 L2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기도 하였다.

Hemsley, Holm, & Dodd(2010)의 호주 사모아어 사용 가정 출신의 4세 아동 9명의 어휘 발달 조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L1과 L2의 표현 및 수용 어휘점수가 모두 증가하나, L1이 L2(영어)에 비해 비교적 적게 발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동의 L1이 소수언어인 경우 L1 발달은 지원 정도에 달려있다. L1이 저평가되고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언어의 발전이 미미하고, 다수의 L2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일찍 일어난다. 유치원 프로그램이 가정과 학교의 언어와 문화 간의 연결을 촉진하는 경우, L2보다 속도가 느려도 L1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

성이 높다. 또한 L1이 학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아동은 L1과 L2 모두에서 큰 진전을 보인다(Winsler, Diaz, Espinosa, & Rodriguez, 1999). Restrepo et al.(2010)은 16주 동안 매일 30분씩 시행되는 스페인어 보충 프로그램이 영어 전용 유치원에 다니는 스페인어 사용 아동 그룹의 L1 언어 발달을 촉진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양질의 언어적 환경 경험이 각 언어 능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준다. Kan과 Kohnert (2012)는 실험적인 새로운 단어 학습 과제를 통해 흐몽어(L1)와 영어(L2)를 학습하는 미취학아동의 새로운 의미-결합 매핑 학습을 측정했다. 결과는 동일한 투자로 주어진 L1과 L2의 새로운 단어 학습에서 동등한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즉, 각 언어의 입력의 질과 양이 같을 때, 언어적인 결과도 같게 나타난 것이다.

Campos(1995)는 미국에서 스페인어로만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정상발달 아동들의 장기적인 학업 결과를 영어전용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스페인어권 아동들과 비교했다. 스페인어 전용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동들은 유치원 입학 시 표준화된 영어 성취도 시험에서 다른 집단보다 현저히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시간과 꾸준한 시험에 걸쳐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학령기의 소수 언어 사용 아동들이 모국어로 읽기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L2만으로 읽기와 학업 지도를 받는 것에 비해 읽기와 학업 성취에 뚜렷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다른 이중언어 교육 문헌과 일치한다(Cobo-Lewis, Eilers, Pearson, & Umbel, 2002).

요컨대 앞선 연구 결과들은 아동의 미취학 기간에 모국어인 가정언어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다수가 사용하는 제2언어(L2)를 장기적으로 학습하는데 해를 끼치기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언어를 배우는 아동을 포함한 연구 결과는 모국어의 소수 언어 유지 및 발달이 해당 언어로 제공되는 지원 및 강화 수준에 상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양질의 언어적 활동들에 대한 지원이 소수 언어 사용 미취학 아동에게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나) 학령기

소수 L1 언어를 사용하는 학령기 학습자들의 성취를 살펴본 연구들은 다수 언어(L2)가 급속하게 발달한다는 결과를 꾸준하게 내세우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L2가 L1에 비해 우세한 능력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는 아

동과 언어 과제에 따라 다양하다. 일련의 연구에서 Kohnert와 동료들은 5세부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L1(스페인어)과 L2(영어)의 기본 명사와 동사 처리 능력이 이해와 산출 과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발견했다(Jia, Kohnert, Collado, & Aquino-Garcia, 2006; Kohnert, 2002; Kohnert & Bates, 2002; Kohnert, Bates, & Hernandez, 1999). 한편, L1과 L2의 아동 간 비교를 실시한 연구들은 다수 언어에서 더 나은 능력으로의 불가피한 전환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는 측정 대상뿐만 아니라 아동에 따라 다르다. 언어 실력이 다양한 언어 수준(예: 음운론적, 통사론적, 화용론적)과 양식(예: 수용적, 표현적, 담화적, 작문적)에 걸쳐 지식과 처리 능력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L1 및 L2의 절대적/상대적 능력이 속도와 변화에 변동성을 보이며 점진적으로 달성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Jia et al., 2006; Montrul, 2005; Pham & Kohnert, 2014).

이러한 이중언어 학습자의 일반적인 발달에 대한 정보를 언어 능력 평가에 적용하기 전 고려해야 할 세 가지의 주의 사항이 있다. 첫째, 지배적인 언어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는 때때로 측정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유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하나의 언어가 모든 상황, 의사소통 과제 또는 언어 측정검사에서 항상 우세한 것은 아니다. 둘째, 더 우세한 언어가 반드시 충분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우세한 언어의 능력도 학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할 수 있다. 셋째, 전반적으로 L2를 선호하는 쪽으로 전환한 아동은 L2만을 단일 언어로 사용하는 아동들과 차이를 보인다. 좋지 않은 청취 조건에서 일반적인 L2 학습자의 언어 처리에 대한 불리함은 언어 장애를 가진 단일 언어 사용 아동들이 경험하는 불리함과 비슷하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단일 언어 아동이 더욱 까다로운 청취 환경에서 우월한 성취를 보일 수 있는 것은 해당 언어에 대한 더욱 많은 경험에서 기인할 수 있다.(Nelson, Kohnert, Sabur, & Shaw, 2005).

다. 이중언어 사용 및 지원 필요성

1) 이중언어 및 모국어 사용의 중요성

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및 친밀감

수십 년간 아동 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우세언어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아동들의 가정의 문화와 언어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왔다(Barrera 1993; NAEYC, 1995; Tabors, 1997; van Tuijl, Leseman, & Rispens, 2001). 이중언어 전문가들 역시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이중언어아동을 대상으로 모국어 사용을 통한 개입을 지지해왔다(e.g., Beaumont, 1992; Paradis, Crago, Genesee & Rice 2003; Gutierrez-Clellen, 1999; Kohnert & Derr, 2004; Kohnert & Stoeckel, 2003; McCardle, Kim, Grube, & Randall, 1995; Perozzi & Sanchez, 1992; Thordardottir, Ellis Weismer, & Smith, 1997).

아동의 사회성, 정서, 인지,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은 상호의존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상호의존적 능력은 문화적 맥락 안에서 발달하며, 어린 아동들에게 주요한 문화적 환경은 직계 및 확대 가족이다(e.g., Moore & Perez-Mendez, 2003; NAEYC, 1995; Robinson-Zañartu,1996; van Kleeck, 1994). 언어는 가족의 가치관과 기대치를 전달하고, 애정과 보살핌을 표현하며, 규율을 제공하고, 세상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 사용되는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이다. 따라서 아동과 주양육자가 공동의 언어, 즉 일생 동안의 부모와 아동 관계 내의 모든 복잡성을 표현할 수 있기 위해 최대한으로 발달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수 언어인 모국어(L1)는 서로 다른 세대의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긴밀한 가족 관계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Tsengf Fuligni(2000)는 동아시아, 필리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이민자들의 가족 관계를 조사했다. 언어 사용과 가족 친밀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상호 언어의 사용이 성공적인 가족 친밀도 형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부모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청소년(L1 또는 영어)이 비상호 언어 사용(부모는 L1로 말하고 아동은 영어로 응답함)을 보고한 청소년보다 높은 결과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L1의 상호적 사용을 보고한 청소년들은 가족의 친밀도와 대화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문화의 전달이 언어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L1의 사용은 친밀한 가족 관계를 조성하였다. 이처럼 L1을 공유하는 것은 문화적 가치의 정립과 부모와 아동 사이의 상호 작용과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반대로, 비상호적인 언어의 사용(예: 아동 영어 사용, 부모 L1 사용)은 특히 복잡한 개념과 감정을 표현할 때 오해와 언쟁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오해는 가족 구성원이 가족 간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아이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결과 중 하나는 아동이 위험 행동을 하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Klein, Forehand, Armistead, & Long, 1997). Tseng과 Fuligni(2000)는 L1에 대한 능숙함이 부족했던 이민 2세 청소년이 이민 1세대 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위험한 행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언어 차이 때문일 수 있다. 13개국에 거주하고 26개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제 연구에서 Berry와 동료들(2006)은 가장 긍정적인 수준의 심리적, 사회문화적 적응이 원래 문화의 높은 유지와 지역 사회에서 높은 참여도를 보이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 아동의 정체성 및 사회 정서적·교육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

정상발달 아동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 사용하는 언어를 습득하고 유지하지 못하면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주양육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과의 접촉이 감소할 수 있다(e.g., Anderson, 2004; McCardle et al., 1995; Wong-Fillmore, 1991). 또한 제 2언어를 배우기 전에 모국어로 인지 능력을 발달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던 아동은 모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았던 또래 아동보다 학업적으로 지연될 위험이 더 높다(Cummins, 1984). 미국의 사회과학자들은 이민자 부모의 2세 자녀들이 영어 외에도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를 배울 때 사회-정서적, 교육적 이점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Portes & Hao(2002)는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단일언어(영어)를 사용하는 그들의 문화권 또래에 비해 더 높은 자존감, 가족과의 더 나은 관계, 더 높은 학업적 동기를 보인다고 하였다.

다) 모국어 유지가 학업능력에 미치는 영향

모국어 사용이 아동의 사회성 및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모국어 사용을 강조하는 것이 아동의 다수 언어 학습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지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다수 언어를 구사하는 정상발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미취학 시기에 가정 언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영어 학습을 저하시키기보다는 언어 학습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mpos(1995)는 캘리포니아 카펜티아(Carpentería) 지역에서 실시한 종단 연구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연구 결과, 중산층에 속하여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영어만 사용한 아동 집단(집단 3)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수행력을 보였다. 이는 학생의 언어나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학교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스페인어만 사용하는 취학전 아동들은 유치원 입학 시 실시한 표준화된 평가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유지되었다. 5학년 때, 스페인어만 사용한 취학 전 아동 집단의 80%가 지역에서 실시하는 영어 능력 시험을 통과한 반면, 영어 집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수 언어 비교 집단의 30%만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Campos, 1995: 34-48). 이러한 결과는 취학 전 아동의 모국어의 체계적인 교육 및 지도가 이후 영어에서의 학업적 성취를 성공적으로 지원함을 보여주며, 이는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령기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모국어 지원의 긍정적인 효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학령전기 이중언어 아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은 아동의 모국어에 대한 지원이 우세 언어의 학습 및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오히려 정상발달 아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학 전 시기에 모국어를 지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학업적 성취와 우세 언어의 능숙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라) 모국어 능력의 제2언어로의 전이효과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언어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의 언어에서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 다른 언어에서의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기능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정상발달 아동 중 먼저 모국어로 책을 읽은 학령기 아동들은 제 2언어로만 읽기와 학업 지도를 받은 또래에 비해 다수 언어의 읽기 능력과 학업적 성취도에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bo-Lewis, Eilers, Pearson, & Umbel, 2002; Genesee, Paradis & Crago, 2004; Gutierrez-Clellen, 1999; Krashen, 1999). 이는 모

국어와 지역사회 언어 모두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미국의 이민자 자녀들이 교육열이 더 높고 더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인다는 보고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Feliciano, 2001; Portes & Hao, 2002). 언어장애를 가진 이중언어 아동이 보이는 언어 간 전이에 관한 근거가 있다. Kohnert(2004)는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비유창성 실어증 환자를 치료한 결과 동족어(cognates) 이름대기 수행력이 진전되었으며 스페인어에서 영어로 일반화 된 것을 관찰하였다.

López & Greenfield(2004)는 Head Start 취학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1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스페인어 구어 능력과 영어 음운인식 능력 간의 예측 요인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취학 전 정상발달아동의 구어 능력과 모국어(스페인어) 메타 언어 능력을 증진하는 것이 이후 영어 문해력 습득을 촉진함을 보여준다(López & Greenfield, 2004). 언어장애를 가진 취학 전 아동은 문해력과 관련하여 연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상당히 높다 (Gallagher, Frith, & Snowling, 2000; Rescorla, 2000; Scarborough, 1990). 따라서 모국어의 메타 언어능력(음운인식 능력 포함)에 대한 관심은 제 2언어 능력의 구체적인 이점일 뿐만 아니라 읽고 쓰는 능력에 있어서도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3) 모국어 학습·유지의 어려움 및 지원 필요성

모국어 학습 및 유지는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기회,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아동의 동기, 직계 문화 공동체 및 다수 문화 공동체에서의 언어의 사회적 위상의 정도와 같은 여러 상호 관련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Genesee et al., 2004; McLaughlin, 1984). 사회적, 정서적, 문화적 요소들에 따른 모국어 능숙도는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아동에게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정에서의 언어가 교육기관에서 또는 지역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을 때 이러한 위험성이 크다. 제 1언어에서 상당히 정교하고 높은 수준의 능숙도에 도달한 청소년과 성인은 제 2언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함으로 인해 모국어 능력을 퇴보하거나 상실할 위험이 없다. 그러나 언어 습득의 가장 역동적인 단계를 겪는 5세 미만의 어린 아동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즉, 정상발달하는 어린 이중언어 학습자의 경우, 제 1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없다면 낮은 제 1언어 능력으로 인해 제1언어 능력의 퇴보나 불완전한 습득을 경험할 수 있다(Kan & Kohnert, 2005; Leseman, 2000;

Montrul, 2002; Schaerlaekens, Zink, & Verheyden, 1995; Wong-Fillmore, 1991).

2~5세 이중언어 아동의 모국어와 제 2언어의 능력 모두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소수의 연구들이 있다. Leseman(2000)은 네덜란드 저소득층 2, 3세 이민자 자녀들의 터키어와 네덜란드어 어휘 발달을 살펴보았다. 주된 모국어는 터키어였고, 아동들은 3세부터 네덜란드 유치원에 다녔다. 평가 결과 수용 및 표현 어휘 모두 네덜란드어에서 유의한 증진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모국어인 터키어의 수행은 변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치원에 다니지 않은 터키어 단일 언어 또래에 비해 뒤쳐졌다. Schaerlaekens 외(1995)는 벨기에에 있는 네덜란드 유치원을 다니는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3-5세 아동의 어휘력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두 언어 모두 사회적 위치가 높았고, 가정의 소득 수준이 평균 범주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교육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한 네덜란드어는 크게 발달한 반면, 모국어 능력은 감소하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미국에서 Kan & Kohnert(2005)는 흐몽어-영어 이중언어 교육기관에 다니는 몽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국어의 어휘 발달의 정체상태 혹은 안정화의 증거를 밝혔다. 연령에 걸쳐 흐몽어 어휘 향상은 적었던 반면 영어 어휘는 크게 향상 되었다. 이 연구의 3-5세 아동들은 이중언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지만 Kan & Kohnert는 흐몽어와 영어가 교실 환경에서 사용되는 방법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관찰했다. 수업과 교육 활동 동안에는 주로 영어가 사용되었으며, 활동 간 전환을 포함한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관리하는 데에는 흐몽어가 사용되었다. 이외 다른 연구에 따르면 소수언어와 다수언어 모두 지원하는 교육환경에서 정상 발달 아동은 모국어(스페인어)와 사회언어(영어) 모두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Rodríguez, Díaz, Duran, & Espinosa, 1995; Winsler, Díaz, Espinosa, & Rodríguez, 1999). Winsler와 동료들(1999)은 이중언어 교육기관에 다닌 아동이 이중언어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은 연령/문화적 또래에 비해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모두 수행력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상발달 아동들에게 모국어를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충분히 강화하면 소수 언어인 모국어를 발달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의 언어로 언어 능력 촉진을 위한

활동 진행이 불가할 시에는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정상발달 아동은 부모와 다른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사용하는 언어를 습득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적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들의 사회적, 정서적, 학문적 발달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생긴다.

라.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지원

가정에서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언어 촉진 기술을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상황에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부모에게 아동과의 대화 시 각 언어를 사용하는 정도를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책읽기, 노래 부르기, 이야기 해주기 등 한 언어에서 더 쉽게 촉진되는 활동을 제안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논점은 전문가와 가족 간의 언어 차이 존재하여 준전문가나 지역사회 대표가 필요할 시에 부모 교육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가이다. 즉, 주양육자의 주언어와 전문가의 주언어가 다를 경우 부모 교육의 효과가 여전히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지금까지는 이와 관련해서 살펴본 연구는 없다. 그러나 몇몇 연구의 결과는 준전문가로 구성된 체계적인 견습 유형의 교육을 포함한 부모 교육의 변형이 미취학 아동의 의사소통발달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e.g., Delaney & Kaiser, 2001; Hancock, Kaiser, & Delaney, 2002; Hester, Kaiser, Alpert, & Whiteman, 1995; Leseman & van Tuijl, 2001; van Tuijl et al., 2001).

Hancock 외(2002)의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 중재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조기 아동 교육 전문가 세 명이 부모를 교육하였으며 그 중 2명은 학사 졸업자였고 1명은 석사 학위 소지자였다. 이 연구에서 세 명의 아동 교육 전문가들은 언어 및 행동 중재(Blended Communication and Behavior Support Strategies, BCBS)에 관한 40시간 이상의 트레이닝을 받았다. 다섯 명의 부모(어머니 4명, 할머니 1명)가 30-45분의 개별 교육회기에 총 30번 참여하였으며 총 6-10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각 회기는 부모에게 아동의 반응과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이전에 배운 것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역할극(role play)과 읽기 자료를 제공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고, 영상을 보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실제 예시를 보여주었다. 트레이닝을 받은 부모 교육 전문가들은 부모에게 아동과 놀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지도하였다. 또한 아동과 함께 모델링을 제시하였다. 모든 부모들은 이 중재 프로그램에서 5-7개의 전략을 배우고 실시해보았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의 언어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트레이닝과 지도를 받은 준전문가들이 이중언어 아동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중언어 아동은 사회의 큰 자산이며, 미래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적자원이다. 이러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사회에서 자리잡고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상기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중언어 아동이 사회정서적, 인지, 언어 및 학업의 모든 측면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정의 언어를 반드시 지원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가정의 언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언어가 매우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사회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부모에게 언어적 입력의 중요성 및 양질의 언어자극의 방법을 상향식(bottom up) 방식으로 교육하고, 아동들이 사회의 건강한 자원으로 자라나기 위해 그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방법을 코칭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국내 이중언어 관련 선행연구

지금까지 국내의 다문화가족 언어 관련 연구의 다수는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의 언어적, 정서·심리적, 사회적 발달 및 가족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해왔다(최현욱, 황보명, 2009; 박명숙, 2010; 주미연, 정명혜, 2018). 그러나 동화주의적 시각에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를 사용한 자녀양육을 강조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최근 연구의 상당수는 가정에서 이중언어 사용이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서툰 한국어로 자녀와 소통하며 양육하게 되면 자녀의 언어 및 인지발달이 지체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박현선 외 2012: 368; 정해숙 외, 2014: 18; 권경숙, 2017: 232). 이는 앞서 살펴본 해외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국내 연구들에서도 이중언어의 이점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박영순(2010)의 연구에서는 자원으로서의 언어로 이중언어를 바라보며, 주류언어를 사용하는 집단도 어릴 때부터 이중언어를 습득하여 개인적, 사회적 자원으로서 언어를 개발해야 함을 주장한다. 박정은(2007)의 연구는 캐나다의 계승어 교육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어머니가 풍부한 언어적 경험을 가진 모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족한 현지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자녀의 지능 및 학습능력 발달에 긍정적이며, 자녀 발달에 중요한 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 교류에도 모국어 사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박현선 외(2012)의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문화와 언어에 자녀를 많이 노출할수록 어머니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자녀의 자존감, 또래관계, 학교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밝히고 있다.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박영진·장인실(2018)의 연구에서는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한국인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가지는 동시에 다문화 수용성과 국제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중언어 사용에 따른 다문화 아동의 언어능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한 국내 연구로는 임동선, 백수정, 김송이, 한지윤(2020)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이중언어 집단에 속한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과 외국어 능력이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을 보여준다. 즉, 다문화가정에서 이중언어 사용이 모국어뿐만 아니라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향상시킴을 보여준다. 이는 모국어 능력의 제 2언어로의 전이효과를 보여준 해외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임동선 외(2020)의 연구에서는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 또한 Portes & Hao(200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우리나라의 다문화 아동의 긍정적 정체성과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도 이중언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3. 다문화가족 부모 역량강화 접근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인 역량강화 접근 개념을 정의하고, 역량강화 접근방식의 핵심인 강점 관점과 자원접근활동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족 역

량강화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미시적 관점과 중범위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연구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거시적 관점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와 이중언어 지원에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1) 역량강화(empowerment) 접근

역량강화(empowerment) 개념은 Solomon(1976)에 의해 처음으로 개념화되었으며, 주로 취약한 집단에게 권한(power)을 부여하는 사회 운동의 전개와 함께 발전되었다(신영화, 2010: 165). 역량강화는 단순한 권한 부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가족·지역사회가 직면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도록 개별적, 상호적, 정치적 힘을 증가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Holcomb-McCoy & Bryan, 2010: 262). 그래서 역량강화 접근은 주로 장애아동 및 부모, 빈곤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성을 가진 집단에 대한 차별화된 실천적 접근 방식으로 부각되어 왔다.

역량강화 접근의 핵심은 강점(strength) 관점과 자원접근활동이다. 강점 관점은 개인 및 가족이 경험하는 상황을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및 가족의 잠재적인 역량과 자원을 찾아 강화시키는 접근 방식이다(Cowger, 1994; 윤혜미, 2009: 87; 이영실·강윤경, 2009: 133; 신영화, 2010: 166). 강점 관점에서는 개인 및 가족의 권리와 주체성을 강조하고 자가 회복력(resiliency)을 전제로 접근한다(윤혜미, 2009: 3; 이영실·강윤경, 2009: 133). 따라서 강점 관점에 기반한 역량강화 접근에서 개입은 부적응 및 병리적 접근이 아니라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접근방식을 취하게 된다.

강점 관점을 기반으로 한 역량강화 접근에서는 자원접근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Miley & Debois(1995)는 자원접근활동에 기반한 역량강화 개입과정을 대화, 발견, 발달단계인 3단계 모델로 제시하였다(신영화, 2010: 166에서 재인용). 대화단계는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강점과 자원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며, 발견단계는 체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실제로 자원을 발굴하는 단계이다(이영실·강윤경, 2009: 134; 신영화, 2010: 166). 자원을 발굴하는 단계에서 대상의 강점도 함께 고려되며, 자원은 개인 및 가족 체계 내에 존재할 수도 있고, 체계 외에 존재할 수도 있다(이영실·강윤경, 2009: 134). 발달단계는 발굴한 자원을 강화하고 활성화하

는 단계를 의미하며, 네트워크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연계하고 기회를 확장시켜 성취를 인지하고 변화하는 과정까지를 포괄한다(이영실·강윤경, 2009: 134~135).

이러한 강점 관점과 자원접근활동을 기반으로 한 역량강화 접근은 개인 및 가족을 다양한 차원의 체계 내에서 조망한다. 생태체계 이론은 다차원적 체계 접근방식인 역량강화 모델의 기초가 되었다(이영실·강윤경, 2009: 133). 생태체계론에 기반한 역량강화 모델은 단편적으로 미시적 차원에서만 대상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의 개인' 관점으로 접근한다(허남순, 허소영, 고윤순, 이경욱, 2012: 168). 즉, 역량강화 접근은 미시적, 중도적, 거시적 차원의 다양한 체계 내에서 개인 및 가족에 접근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관련 선행연구

현재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들은 개인 및 미시적인 체계에서 개인의 경험 및 가족 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미시적 차원의 연구 중 다수는 다문화가족의 취약성과 부적응에 초점을 두었다(신영화, 2002; 한건수, 2006; 권복순, 차보현, 2006;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 한편,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들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한 연구들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가족의 적응유형, 임파워먼트 과정, 다문화가족의 행복 등에 초점을 두어 단편적인 부적응 측면이 아닌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조망하고자 하였다(최금해, 2006; 구차순, 2007; 김민경, 2009; 김연수, 2007; 양순미, 2007; 신영화 2010에서 재인용).

또한 중범위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에 접근하는 연구들도 있다. 실천현장과 관련된 연구로 실천가들의 문화적 유능감 실태 연구(최혜지, 최연선, 최원희, 2008)가 있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대상 임파워먼트 기반의 실천 연구(윤혜미, 2009), 다문화가족지원 현장에서의 역량강화접근에 대한 연구(신영화, 2010)가 있다. 또한 부모 대상 프로그램 관련 연구로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안 연구(이명숙, 2011)가 있으며, 한국어교육 및 자녀학습지도 측면에서 여성결혼이민자 학부모의 역량강화 연구(심보경, 김정숙, 2012), 영아를 둔 다문화가족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부모역할 프로그램 연구(강현옥, 황혜원, 2013),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연구(성용구, 김근이, 2014) 등이 있다.

그러나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 접근 방식을 취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문화 아동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차원의 환경 요인을 분석하고 다문화가족의 강점이자 자원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핵심 자원으로서 이중언어에 대한 연구가 개인이나 미시적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 중범위적, 거시적 차원에서 아동이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4. 소결

가. 시사점

이 장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중언어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념적 기초를 구성하였다. 또한 전체 연구 구성의 틀인 역량강화 접근 관점을 검토하였다. 이 장의 검토 결과가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지원의 중요성이 전보다 증대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다문화가족의 범주에서 다문화 영유아의 규모를 명확히 제시한 국가통계는 없으나,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와 외국인 주민 현황, 보육통계를 통해 전체 아동 중 다문화 영유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다문화 아동의 증가는 가정 내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되는 아동이 증가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인구집단의 규모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중언어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고려가 보다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선행연구들은 동시적 이중언어 습득이 가능한 다문화가족의 가족환경을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영유아기 모국어 습득은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학습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아동의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성장 이후에 순차적 이중언어보다는 초기에 이중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언어 발달 측면에서 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생애초기(영유아기)에 부모의 두 언어에 노출할 수 있는 환경을 이미 가지고 있는 다문화 영유아의 경우 동시적 이중언어 또는 초기 순차적 이중언어 습득이 이중언

어 발달에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셋째, 동시적 이중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즉, 선행연구 결과들은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코칭이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해외의 선행연구들도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언어발달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에 유의미한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다수의 다문화가족 부모들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이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에 비해 언어가 지체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러나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언어 발달 과정이 단일언어 사용 아동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를 높이고 부모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면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을 증진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나 모국어를 사용하여 자녀의 언어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모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아동과 부모를 둘러싼 다양한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미시적 차원인 부모와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기관 및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이중언어에 대한 태도 및 수용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행연구들은 교육·보육기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아동이 낮시간 동안에 가장 긴 일상을 보내는 환경인 교육·보육기관이 이중언어를 지원하고 지지적일 때 아동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본 연구의 개념틀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개념틀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Ⅱ-4-1]과 같다. 본 연구는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 관점에서 바라본다. 역량강화 관점에서 이중언어는 다문화가족의 주요한 강점이며,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가족의 잠재적인 역량과 자원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역량강화접근에서 자원접근은 크게 강점 및 자원의 구체화, 자원발굴, 체계적인 해결책 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Miley & Debois, 1995; 신영화, 2010: 166).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의 강점으로서 이중언어와 다문화가족의 자원을 구체화한다. 다문화가족 내 강점 및 현재 이용 자원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며, 다문화가족의 이용 서비스를 분석한다. 한편, 다문화 부모 및 아동을 둘러싼 지지체계와 지원 정책 및 사업 분석을 통해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 및 부모 역량 강화에 동원할 수 있는 지원 자원을 발굴한다. 마지막으로 실증적인 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토대로 지원 방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즉, 앞선 분석결과에서 도출한 다문화가족의 강점과 지원 가능한 자원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해결책을 강구한다.

강점 관점과 자원접근 관점은 기본적으로 생태체계 이론의 다차원적 체계 접근 방식을 기초로 개인을 '환경 속의 개인'으로 바라본다(이영실·강윤경, 2009: 13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문화 아동과 부모의 강점 및 자원의 강화 방안 모색 과정은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라는 다차원적인 환경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한다. 즉, 다문화가족 및 영유아의 이중언어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든 단계에서 다층적인 환경을 고려한다.

[그림 Ⅱ-4-1] 연구의 개념틀

III

국내외 이중언어 지원 제도

01 관련법

02 국내 이중언어 지원 정책

03 국외 사례

04 소결

Ⅲ. 국내외 이중언어 지원 제도

이 장에서는 먼저 다문화가족 및 아동 관련 법들을 검토하여 이중언어 지원의 근거 법령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이중언어 지원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지자체 지원으로 구분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서 이중언어 지원 사업을 검토하였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이중언어 지원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국가인 독일, 미국, 대만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이중언어 지원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1. 관련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된 법이다. 동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한국 국적자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로 구성된 가족을 지칭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의 한국어와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언어 지원의 근거 법령이라 할 수 있다. 동법 제 10조는 다문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3항[4]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아동의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 노력과 가족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와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해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7조[5]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을 추진할 의무가 있음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을 밝히고 있어 이중언어 관련 부모 지원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다문화 아동의 취약보육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다문화 영유아 대상 한국어 교육이나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교육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도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이나 모국어 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일반적 지원에 대한 규정도 없다. 교육 및 아동 관련법에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및 이중언어 관련 조항이 전무하며, 다문화 아동의 일반적인 발달에 대한 규정도 없다는 점은 다양한 전달체계에서의 이중언어 지원 확대를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중언어 지원사업이 「다문화가족지원법」조항에 근거하여 실시되듯이, 교육·보육 기관과 아동복지서비스에서 이중언어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령을 통한 법적 체계의 구축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2. 국내 이중언어 지원 정책

가. 중앙정부 지원 정책 및 사업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a: 3).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5대 영역, 70개 세부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18개 행정기관, 17개 시·도 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a: 3).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5대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는 다음 [그림 Ⅲ-2-1]과 같다.

[그림 Ⅲ-2-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비전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목표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정책과제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①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가정폭력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②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③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④ 서비스 연계 활성화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① 자립역량 강화
②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③ 사회참여 기회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①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②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③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④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①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②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③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④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① 정책추진체계간 협력 강화
②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

자료: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 p. 10.

다문화정책 총 예산은 5,629억원에 과제는 1,210개이며, 다문화가족 지원만 별도로 분리할 수 없는 예산을 포함한 총액이기에 실제 예산은 2,40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a: 7). 예산규모는 여성가족부, 외교부, 교육부 순이며 2019년 대비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31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0a: 7). 대부분의 사업이 각 행정기관별로 실행되고 있지만,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실행하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에서 실행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은 2019년 141천명에서 2020년 145천명으로 참여인원이 증가하였고, 결혼이주여성이 직접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 직접 방문하여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多이음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a: 32). 외교부는 청소년 및 청년을 중심으로 KOICA 봉사단 및 인턴 선발에 다문화 가산점을 부여하고 베트남에 한글캠프 및 교육자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a: 22). 보건복지부는 다문화 영유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영유아보육 및 지원과 관련한 교육내용을 보수교육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원장 37,205명, 보육교사 235,977명('19.10월말 기준)이 교육을 이수하였다(여성가족부, 2020a: 29).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중 이중언어와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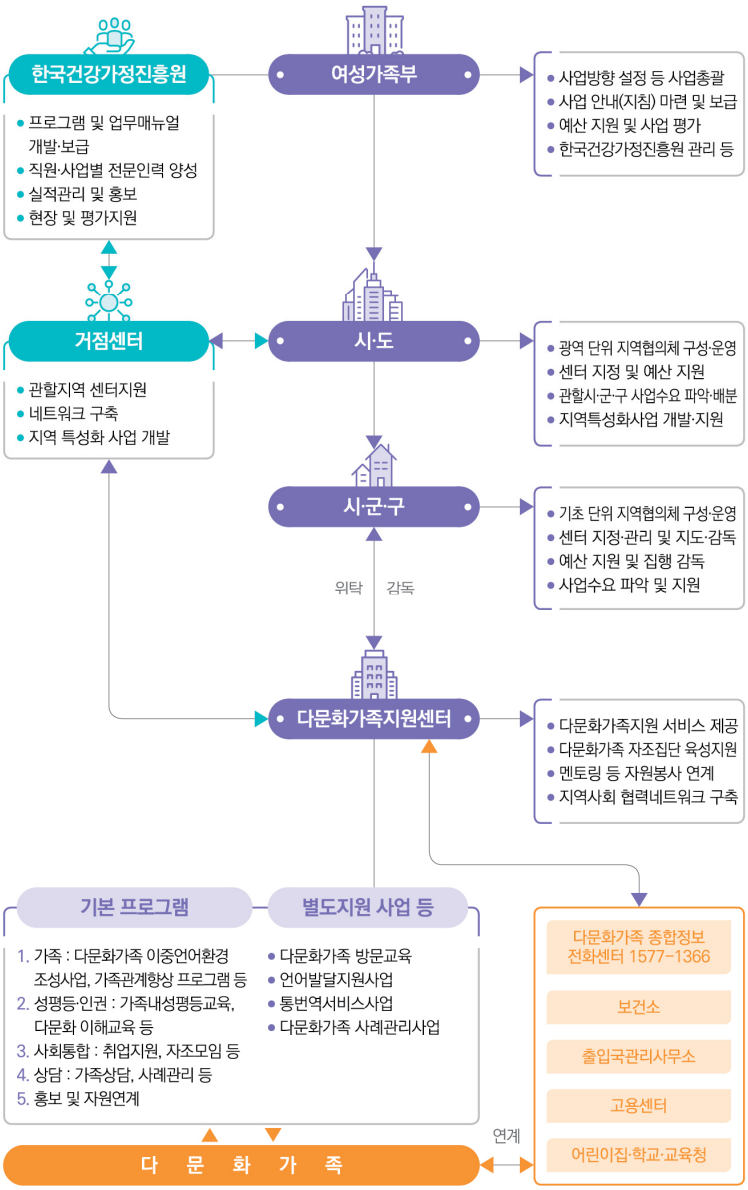
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전달체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전국 시군구에 배치되어 있는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a: 89). 2020년 기준 전국 시군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총 228개소이며, 경기도가 31개소로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a: 91).

여성가족부 산하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중앙기구로서 실적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특성화 사업 개발은 전국에 17개소 거

점센터가 담당하고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a: 1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추진 체계를 정리하면 〈그림 Ⅲ-2-2〉와 같다.

[그림 Ⅲ-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추진 체계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1a). 2020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p.90.

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중언어 및 한국어 교육,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원서비스를 살펴보면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이 있다.

(1)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은 부모-자녀 간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돕고 유대감 강화를 위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제공되는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21: 256). 2021년에는 기존 사업 대상에서 예비 부모 및 미취학 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까지 확대하였고 센터의 여건에 따라 만12세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 자녀를 둔 경우에도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255). 운영시간은 160시간, 40가정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이중언어 코치 미배치 센터는 10시간 운영(20가정)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고(여성가족부, 2021: 257) 각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Ⅲ-2-1〉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내용 세부내용

구분	대상	내용	운영시간
이중언어 부모코칭	영유아자녀 둔 다문화 부모	• 이중언어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 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 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20시간 /하루 4시간 이하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영유아자녀 둔 다문화 가족	• 가정 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등 이중언어를 사용하여 놀이활동 프로그램 • 동요·동화 등 교구 교재를 활용한 상호작용 코칭	120시간 (그룹 당 20시간, 1그룹당 2가정 이상) ※ 총 30가정 이상 /하루 4시간 이하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영유아자녀 둔 다문화 가족	• 각국의 이주 부모들 주체로 이중언어 사용 지지를 위한 부모지지체계 형성의 장 마련 •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방법 등을 공유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출신국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예: 베트남의 날-베트남 음식 나누기, 전통놀이 등을 베트남어만 사용하여 함께 하기 등)	20시간 /하루 4시간 이하
가족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정 중 희망하는 가정	• 가족 초청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해 가족 구성원 전체(배우자, 시부모 등)에 대한 코칭 실시	자율운영

자료: 여성가족부(2021). 2021년 가족사업안내 2권, p. 25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관련 프로그램의 2020년 기준 이용 현황은 다음 〈표 Ⅲ-2-2〉와 같다.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은 '이중언어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으로 2020년 실인원 1,760명이 이용하였다. 그 다음으로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은 실인원 990명, 이중언어 부모코칭은 실인원 789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중언어 가족코칭은 실인원 257명에 그쳤다. 전체 다문화가족 규모를 고려하면 실제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 포괄 규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a: 100).

〈표 Ⅲ-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프로그램 이용 현황(2020년 기준)

(단위: 명)

합계		이중언어_부모코칭		이중언어_부모자녀 상호작용		이중언어_활용프로그램		이중언어_가족코칭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3,796	19,165	789	2,096	1,760	14,031	990	2,743	257	295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1a). 2020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p.100에서 일부 인용.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평가를 통해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언어교육을 지원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우며, 부모상담 및 자녀 언어발달 촉진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21: 211). 2021년에는 기존 사업 대상에서 만 12세를 초과했어도 초등학교 재학생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주 2회, 회당 40분 수업이 원칙이었던 것을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주 1회 80분 수업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변경 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210).

언어발달지원사업의 대상은 센터 추천 및 읍·면·동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중앙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 서비스인 자녀생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여성가족부 2021: 215). 교육장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언어발달교실 및 외부 공공기관에서의 수업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가정방문으로는 진행되지 않는다(여성가족부 2021: 216).

〈표 Ⅲ-2-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세부내용

구분	대상	내용	운영회수/ 시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영유아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 • 초기평가, 진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 등 실시	1~4회(회당 40분) 아동의 연령 및 발달 상태, 주변상황 등에 따라 조절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다문화가족 영유아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아동 개인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목표를 설정(장단기계획서)하여 교육 실시 • 개별수업(1:1), 모둠수업(2인 이상)	주 2회, 회당 40분 수업 원칙 (외부기관 연계 수업시 주1회 가능, 보강이 있는 경우 개인당 주3회 지원가능)
부모상담 및 교육	영유아자녀 둔 다문화 부모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 부모상담(1:1), 부모교육(2인 이상), 사후상담(전화 및 기타 사업연계)	언어교육 종료 후 6개월 이내 사후상담 (아동1인당 2회 이상)

자료: 여성가족부(2021). 2021년 가족사업안내 2권, pp. 211, 217-219.

2020년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수 기준으로 부모상담은 실인원 6,921명, 언어평가 사업은 5,675명이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교육은 개별수업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2020년 개별 언어교육 수업은 85,250회기가 진행되었으며 아동수 실인원 3,999명이 참여한 반면, 모둠 언어교육은 수업 1,037회기, 아동수 실인원 187명에 그쳤다. 2020년 기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활동 중인 언어발달지도사는 292명이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b: 16).

〈표 Ⅲ-2-4〉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 현황(2020년 기준)

(단위: 명, 회)

언어발달 지도사 (명)	초기 면담	부모상담		언어평가		언어교육					
						개별		모둠			
	초기 면담수	상담수 (회기수)	아동수 (실인원)	평가수 (회기수)	아동수 (실인원)	수업수 (회기수)	아동수 (실인원)	수업수 (회기수)	모둠수	아동수 (실인원)	아동수 (연인원)
292	2,890	80,244	6,921	14,433	5,675	85,250	3,999	1,037	88	187	2,075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1b). 20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p.16에서 일부 인용.

(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을 본인부담금 차등적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21: 149). 만3세 ~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2021년부터는 만 12세를 초과했어도 초등학교 재학생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147). 주 2회, 회당 2시간의 개별 또는 그룹수업 형태로 진행하며, 그룹수업의 경우 2가정 이상을 1개반으로 구성하며, 지역 특성에 맞춰 센터 및 지역 거점공간을 활용한 집합 그룹수업도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21: 150). 자녀 생활서비스에 대해 개별수업으로만 진행하였던 것을 2021년부터는 아동연령,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그룹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쌍둥이는 1가정 1개 반으로도 그룹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147).

〈표 Ⅲ-2-5〉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세부내용

구분	대상	내용	운영기간 및 회수
방문 한국어 교육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12개월 이내 제공 1회(80회기) 원칙
방문 부모교육	만 3세~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 자녀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성장, 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 생애주기별 지원 ①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 ~ 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6개월 이내 제공 1회(40회기) 원칙 생애주기별 각1회 지원(총 3회)
자녀 생활서비스	만 3세~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 자녀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영역별 서비스 제공 ① 인지영역 :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② 자아·정서·사회영역 :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③ 문화역량강화 영역 :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④ 시민교육영역 :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12개월 이내 제공 1회(80회기) 원칙

자료: 여성가족부(2021). 2021년 가족사업안내 2권, pp. 149-150를 토대로 재작성함.

2020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방문교육사업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이 이용한 서비스는 자녀생활서비스로 연 실인원 6,367명이 이용하였다. 방문 한국어 교육은 연 실인원 4,054명, 방문 부모교육은 4,046명이 이용하였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b: 4).

〈표 Ⅲ-2-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현황(2020년 기준)

(단위: 명)

방문교육사업 이용자						방문교육지도사 인력현황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한국어 교육	생활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4,054	141,053	4,046	105,980	6,367	250,661	944	1,027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1b). 20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p.4에서 일부 인용.

2)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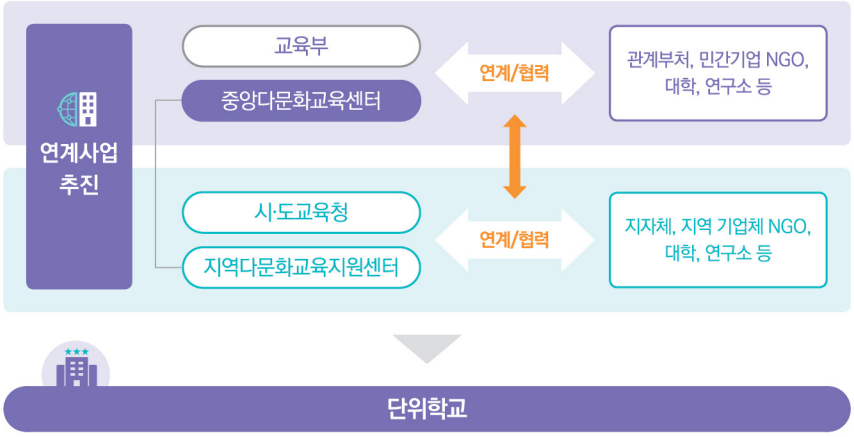
교육부에서는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한 이후 200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다문화 아동의 교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교육부, 2021: 2). 다문화 아동의 공교육 진입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2012년부터 예비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다문화 중점학교를 운영하였으며, 2015년에는 다문화 유치원을 운영하였다(교육부, 2021: 27).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 유치원을 2019년부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사업을 개편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교육부, 2021: 27).

가) 다문화교육지원 사업 전달체계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문화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교육부, 2021: 1) 다문화교육 추진체계로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2007년부터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2015년부터 운영하던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2019년에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였다(교육부, 2021: 27).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은 민·관·학의 연계 및 협력, 중앙과 지역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단위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지원

추진체계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Ⅲ-2-3〉과 같다.

[그림 Ⅲ-2-3] 다문화교육지원 추진체계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html&bcode=HAGAAAA&bmode=view&idx=HAGAAAA (2021. 10. 10. 인출).

나) 다문화교육지원 추진과제 및 운영 내용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자료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2019년에는 '다문화교육포털'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2020년에는 '다국어 학교 가정통신문'을 5개 언어로 제작하여 제공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교육부, 2021: 3, 18). 교육부의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2-7〉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주요 추진과제 목록

구분	과제명
1.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 보장	
1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제도 안착	• 공교육 진입 절차 지원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2 학교교육 준비도 격차 해소	• 유치원 단계부터 시작되는 지원체계 마련
	• 징검다리과정 운영 안착
2. 학교 적응 및 안정적 성장 지원	
1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 입국 초기 한국어교육 강화
	•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구분	과제명
2 학교 적응 및 인재양성 지원	• 기초학력 향상 지원
	• 이중언어 강점 개발 지원
	• 진로지도 및 정서 지원
3.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 환경 조성	
1 전체 학교의 다문화 교육 확대	•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다문화교육 실시
	• 다문화교육 선도모델 개발 및 확산
2 교원의 다문화 교육역량 제고	• 현직 교원에 대한 다문화 역량 강화
	• 예비 교원의 다문화 역량 함양
3 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 학부모의 다문화 관련 교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 지역사회 연계 및 대국민 홍보 강화
4. 다문화교육 지원체제 내실화	
1 다문화교육 법·제도 개선	• 다문화교육 법적 기반 조성
	•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절차 개선
2 코로나19 대응 다문화교육 지원	• 온라인 기반 다문화교육 지원
	• 다문화학생 특성을 고려한 학교현장 지원
3 중앙-지역 및 부처 간 협력 강화	• 다문화교육지원단을 통한 선도인력 교류 및 협력 강화
	• 다문화교육센터를 통한 긴밀한 추진체계 구축
	• 중앙 차원의 부처 간 협업 증진

자료: 교육부(2021).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 24의 일부를 인용함.

(1) 유치원 단계부터 시작되는 지원체계 마련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살펴보면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 보장' 차원으로 '학교교육 준비도 격차 해소' 사업에서 다문화 유아가 유치원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입국 초기 특성 및 한국어 지도방법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하고, 개정누리과정과 초등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연계한 한국어능력 진단도구와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있다(교육부, 2021: 10).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국·공립 유치원으로 확대하여 유아교육 및 아동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한다(교육부, 2021: 10, 14).

(2) 입국 초기 한국어교육 강화

'한국어 학급'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 유아가 많은 학교를 지정하여, 한국어를 집중하여 교육할 수 있는 특별 학급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유치원의 경우 누

리과정과 연계한 놀이중심의 교육을 한다(교육부, 2021: 11). 초·중·고는 '한국어 교육과정' 기반 총 17종의 한국어 교재 및 각종 영상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한다(교육부, 2021: 12). 또한 한국어학급을 전담하는 담당교사를 배치하여 안정적으로 한국어 집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어학급 미운영 시에는 인근 학교 또는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받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제공한다(교육부, 2021: 11). 더 많은 학교 및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중심으로 홍보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교육부, 2021: 11).

(3) 이중언어 강점 개발 지원

이중언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책을 보급하고 민·관·학(교육부·LG연암문화재단·학국외대)이 2018년부터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21: 15).

이중언어 전자책은 기존에 개발된 9개 언어(러시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 총 36종의 자료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이중언어 전자책을 활용하여 부모와 함께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음원 실행, 상호작용 활동, 학습이력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20: 1, 3). 언어별로 초급과 중급 각기 2권씩 제작되었으며, 각 권은 8과씩으로 구성되어 있어 1학기(16주) 동안 초급 1권, 2학기 동안 초급 2권을 마치고 중급과정으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다(교육부 외, 2020: 2). 그림과 같이 주 2회, 2시간씩으로 구성하여 첫 주에는 기본표현과 문법을 익히고 둘째 주에는 실습으로 익히는 과정으로 2주에 걸쳐 1과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외, 2020: 2).

[그림 Ⅲ-2-4] 이중언어 전자책 활용을 통한 학습방법

1학기 (1권)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7과	8과
	1·2주	3·4주	5·6주	7·8주	9·10주	11·12주	13·14주	15·16주
	1주 당 2시간씩 2회 / 2주 한 과 학습 [1주차] 기본표현 및 문법, [2주차] 학습내용 실습							
2학기 (2권)	9과	10과	11과	12과	13과	14과	15과	16과
	1·2주	3·4주	5·6주	7·8주	9·10주	11·12주	13·14주	15·16주
	1주 2시간씩 2회 / 2주 한 과 학습 1과 당 [1주차] 기본표현 및 문법, [2주차] 학습내용 실습							

이중언어교재 초급(또는 중급) 과정 완료

자료: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중앙다문화교육센터(2020). 엄마 아빠와 함께 배우는 이중언어교재 전자책 이용 안내. p. 2.

언어별로 기획 및 개발처가 달라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 구분되어 있다.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 기획·개발하여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는 미래에셋박현주재단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에서 기획·개발 하여,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교육부 외, 2020: 3).

(4)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다문화 친화적인 유치원 환경을 조성하고, 유아 시기부터 동등한 출발선 제공의 차원으로 다문화 유아의 초기발달을 지원하고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를 운영하고 있다(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국가평생교육진흥원·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21: 5).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은 다문화 유아 수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거나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운영 내용은 다음 〈표 Ⅲ-2-8〉과 같다.

〈표 Ⅲ-2-8〉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운영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다문화교육		•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다문화교육 요소를 접할 수 있는 놀이 및 활동제공
다문화유아 초기발달 지원	언어평가	• 다문화 유아의 언어능력 파악
	언어교육	•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놀이중심의 통합언어교육과 다문화 유아의 초기발달 맞춤형 개별언어교육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물리적 환경조성	• 다양한 다문화교육 자료 비치 및 공간 운영
	교원 역량 강화	• 모든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가정 연계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학부모의 다문화교육 및 상호이해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 지역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
프로그램 평가		• 연간 운영한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도출 및 결과 환류

자료: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국가평생교육진흥원·중앙다문화교육센터(2021). 202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유치원. p. 5.

다문화 정책학교(유치원)에서는 다문화 유아의 초기 발달 지원을 위해 유아의 의사소통 및 언어능력을 담임교사나 외부기관을 통해 사전 진단하여, 통합 언어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개별언어교육을 실시한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교육부 외, 2021: 7). 담임교사가 '누리과정 관찰척도', '누리과정연계 다문화유아 한국어능력 평가도구' 등의 언어평가 도구를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및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기타 복지관 및 발달센터와 연계하여 평가할 수 있다(교육부 외, 2021: 7). 담임교사가 직접 자유선택활동이나 방과후과정 시간에 개별언어교육을 지원하거나 외부강사와의 협업을 통해 교육하며, 평가결과와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유아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세운다(교육부 외, 2021: 8).

나. 지자체 지원 정책 및 사업

1) 지자체별 시행계획 내 이중언어 지원 사업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에 따라 수립된 각 지자체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공통사업을 제외하고 지자체 특색사업과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 중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과 관

련된 사업을 살펴보면 〈표 Ⅲ-2-9〉와 같다(여성가족부, 2020b; 여성가족부, 2020c).

이중언어를 직접 교육하는 서울 강동구 언어학교, 전남의 모(母)국어 아카데미, 경남의 토요 글로벌 스쿨 등과 같은 사업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직접적인 언어교육보다는 동화책을 매개로 한 독서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도서관과 연계한 도서 대여 및 배부, 독서코칭, 동화 읽어주기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의 결혼이민자, 공무원, 대학생 등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스토리텔러가 방문하여 동화책을 읽어주는 연계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많지만 전북에서는 특별하게 만0세~2세를 대상으로 주1회 옹알이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자조모임, 아버지교육, 문화체험 축제 등 다문화 가족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b; 여성가족부, 2020c).

〈표 Ⅲ-2-9〉 지자체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내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 사업

구분	시행계획 주요 사업
서울	• 강동구 이웃나라 언어학교 - 결혼이민자가 다문화 및 비 다문화가족 자녀·성인 대상 중국어·영어 기초언어교육 진행 • 은평구 공동육아교실 운영 - 외국인주민 자녀 양육지도 및 부모 역할 교육 등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결혼이민자, 자녀(유아~초등), 배우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자조모임 및 모국어 교육, 이중문화 체험 지원 - '19년 21개구 26개 모임, 309명, 영등포, 동작, 서초, 송파 없음 •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서발간 - 생애주기별 다국어 동화집 12,500권 발간 및 배부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 및 이중언어 활용능력 증진 - 한국어와 다문화가족 모국어(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등 10개 언어) 병기 표기 •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 강북구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6~7세) 대상에게 학교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한글 읽기·쓰기, 영어, 수학 등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부산	•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동화 지원 - 다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태국어 등) 동화 비치, 열람, 대여 등
대구	• 다문화 신문 발행 - 대구매일신문을 통해 결혼이주민 및 다문화가족 이야기, 다문화 관련 행사 및 정보, 자녀 교육, 4개국 동화 게재를 통한 이중언어 교육, 한글퍼즐 등 부교재로 활용 • 다문화가족 사랑의 책 보내기 -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5개국어(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로 이루어진 동화책

구분	시행계획 주요 사업
	제공하여 한글교육과 독서교육의 기틀을 마련 •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운영 - 다문화 자녀에게 엄마나라 도서를 접하게 하여 이중언어 및 독서능력 향상 지원(동구, 남구, 북구) • 다문화 한글 백일장 - 한글날 기념하여 시화 그리기, 수필쓰기 등을 통해 한국어 학습동기 부여 및 내·외국인 주민의 화합의 장으로 활용
인천	• 다문화가족의 자원봉사활동 확대 - 세계이야기 톡! Talk!: 결혼이주여성이 나라별 동화책으로 관내 초등학교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 • 문화다양성 교육 - 다국어 그림책 읽기: 미추홀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공어 능력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및 내·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국어 그림책 읽기 운영
광주	• 다문화 이중도서 확충 - 다문화 자녀들의 독서진흥을 위한 맞춤형 학습교재 및 다문화(이중언어) 자료 확충
대전	• 다문화가족 독서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정 엄마들에게 독서지도 방법을 교육하여 자녀의 언어발달을 돕도록 함. • 한국어 이해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 한밭도서관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통한 다양한 독후활동으로 독서능력 및 한국어 이해능력 향상
울산	• 다문화가정 독서 멘토링 - 동화책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한국인가족이 한조를 이루어 상호 문화이해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 한국생활 적응 도움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주최로 울주군도서관에서 동화책을 통한 문화이해 및 어린이를 위한 다문화 인식개선 공연
경기도	•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직장인 글로벌 봉사단 운영 - 포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봉사단을 구성하여 다문화가정 연계를 통해 동화책 읽어주기, 학습도우미 활동을 함. • 찾아가는 글로벌 가정 아버지 교육 - 다문화가족 대상 아버지 역할 정립 및 자녀 발달 특성 및 이중언어 필요성 인식 제고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문화 도서 구입 - 광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다양한 언어로된 도서를 구입하여 정보이용 편리성 제고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다문화 스토리텔러 양성 - 여주시청에서 주최하며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으로 찾아가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에게 독서 문화프로그램 제공하고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에 스토리텔러가 방문하여 동화책 읽어주기 및 책놀이 진행
충북	• 챌린지 프로그램 운영 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초 5~6학년) 대상으로 모국(필리핀) 학교의 전문적인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이중언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 •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 음성군에서 주최하며 이중언어발표, 나라별 장기자랑 및 체험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 개최
전북	• 옹알이 학습 교육지원 사업

구분	시행계획 주요 사업
	- 만0세~2세(5개월~36개월)의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방문을 통한 주1회 옹알이학습 진행을 하여 이중 언어 의사소통 사용 증진
전남	• 모(母)국어 아카데미 톡톡(talk talk) 선생님 운영 -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어머니(아버지) 나라의 표준어를 배워 이중언어 사용할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을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모국어아카데미의 강사로 양성함. • 다문화가족 백일장 대회 - 이주민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및 내국인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해 글쓰기, 시, 그림그리기 등을 진행
경북	• 다문화가족자녀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 도내 다문화가족 자녀(초등3~ 중학생)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로 이중언어 캠프를 운영
경남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다(多)행복한 웅남 - 창원시 웅남동 복지센터에서 주최하며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서 한글교실, 문화체험활동 등 실시 • 우리말 공부방사업(안동시) - 조기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양강좌 지원 - 지속적인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과 자조모임 육성 - 안동 지역 내 다문화가족 대상 -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체험활동 • 토요 글로벌 스쿨(베트남어 수업)

주: 1) 자료 중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관련 사업들을 중심으로 정리함.
2)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시는 이중언어 관련은 공통사업만 진행되고 있음.
자료: 1) 여성가족부(2020b).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Ⅰ.
2) 여성가족부(2020c).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Ⅱ.

2) 지자체 사례: 경상북도[6)]

경상북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공통사업 이외에 도비 및 시비를 투입하여 이중언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다. 경상북도에서 실시하고 대표적인 사업에는 크게 경상북도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 캠프, 전국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대회,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있다.

가) 경상북도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 캠프

경상북도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학습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베트남 및 중국 출신 다문화가족 자녀 60명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여름/겨울 방학마다 2주간 집중캠

6) 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및 사무처장 대상 전문가 자문(2021. 12. 13~17) 내용을 정리함.

프를 실시하였다. 집중캠프에서는 언어 집중교육, 진로지도, 체험활동, 심리상담 등을 실시한다. 국제캠프에는 도비 연 7,000만원, 국내캠프에는 연 4,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삼성전자의 후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여름캠프부터는 집중캠프를 진행할 수 없어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방식 수업을 1개월 실시한 후 매월 성취도 평가를 진행한다. 베트남어 3개반, 중국어 8개반이 운영되었다.

나) 전국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대회

경상북도는 2009년에 경상북도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콘테스트 개최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 이중언어대회로 대회명을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이후 2014년에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삼성전자가 상금을 후원하는 방식의 전국이중언어대회로 확장되어 현재까지 이중언어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1년 9월에 개최한 전국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대회에는 전국 14개 광역시에 88개팀이 참가하였다.

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맞춤형 일자리사업

이 사업은 결혼이민여성의 이중언어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할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경상북도는 연간 도비 및 시비를 13억 3천만원 투입하여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76명을 양성하였으며, 2021년 12월 기준 1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다. 민간 기관 이중언어 지원 사업

〈표 Ⅲ-2-10〉은 민간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대상 이중언어 지원 사업 중 아동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민간기관 사업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대상 이중언어 지원 사업은 민간 기관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더라도 대부분 순수 민간 부분이라기보다는 민관 협력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세이브더칠드런, 다음세대재단, LG연암문화재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4개 기관과 MOU을 맺고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을 민간 기관들

과 공동 추진하고 있다.[7] 이외에도 많은 민간 기관들이 부처나 공공기관과 업무협약(MOU)이나 연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표 Ⅲ-2-10〉 민간 기관 이중언어 지원 사업

시행기관	사업/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세이브더칠드런	언어 두 개, 기쁨 두 배	• 사업내용: 부모 나라 양국의 언어로 된 동화를 활용하여 부모의 언어 및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전래동화 동영상, 전래동화책, 단어카드, 부모용 교안집, 활동지 제공 • 사업대상: 영유아부터 이용 가능 / 지원국가: 한국, 중국, 베트남, 몽골 • 협력기관: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음세대재단	올리볼리 그림동화	• 사업내용: 총 13개 나라의 문화가 담긴 그림동화를 주제별로 나누어 영어, 원어, 한국어 자막으로 제공하고, 교사용 수업사례집과 활동지 제공 • 사업대상: 영유아부터 이용 가능 / 지원국가: 한국, 레바논, 르완다,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란,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티베트, 팔레스타인, 필리핀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엄마 아빠 나라말 학습교재	• 사업내용: 다문화 가정 자녀가 부모와 함께 이중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이중언어 학습교재를 개발하여 종이책 및 전자책으로 보급 • 사업대상: 유아부터 이용 가능 / 지원국가: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 협력기관: 교육부,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원·지식출판콘텐츠원, 서울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센터
현대차 정몽구재단	이중언어 동화집 제작	• 사업내용: 한국의 전래동화를 수록한 동화집을 10개 언어로 번역·배포한 것을 시작으로, 책 공모전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직접 출신국의 전래동화를 들려줄 수 있도록 제작을 지원 • 사업대상: 이주여성 및 자녀(영유아부터 이용 가능) / 지원국가: 일본, 중국, 베트남,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필리핀 등 • 협력기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도서문화재단씨앗	두루책방	• 사업내용: 한국어 학습을 위한 낱말카드와 수준별 읽을거리부터, 다문화 가정 자녀가 부모 나라의 언어 및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옛날이야기, 현대의 생활상, 풍속과 문화를 다루는 책을 여러 언어로 제작하여 제공 • 사업대상: 영유아부터 이용 가능 / 지원국가: 베트남, 중국, 태국, 필리핀 • 협력기관: 에듀테크 스타트업 에누마
LG연암문화재단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	• 사업내용 -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해 초등, 중등, 졸업생과정으로 나누어 온/오프라인 교육과 방학캠프 등을 제공하고, 부모 나라 자매결연 학교 방문, 국제 엑스포 참가 등의 활동

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488, (2021. 11. 7. 인출).

시행기관	사업/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진행 - 중국, 일본,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6개 언어로 구성된 언어인재과정을 통해 이중언어교육 진행 - 몽골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와 같은 소수 언어에 대한 이중언어능력시험을 구축 및 시행 • 사업대상: 초등학생부터 이용 가능 • 협력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KAIST, 여성가족부, 교육부
어울림이끌림 사회적 협동조합	다문화 영재교육	• 사업내용: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과정 진행 및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러시아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언어 교육 등 다문화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 사업대상: 유아부터 이용 가능 • 협력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열린사이버대학교, 주안대학원대학교, hd행복연구소
한민족복지재단	이중언어강사 지원사업	• 사업내용: 전문교육을 통해 교사역량 강화 기회를 부여하고 자조모임을 통한 결혼이주여성 공동체 형성과 상호지지 제공 • 사업대상: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중언어강사 • 협력기관: 서울이중언어강사연합회, 서울다솜학교
주식회사 아시안허브(사회적 기업)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엄마나라 언어문화교육	• 사업내용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통번역가, 이중언어강사, 다문화강사 교육을 진행하고, 양성된 강사는 내·외부 기관 다문화 교육 진행 - 엄마 강사와 함께 서로의 자녀에게 러시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언어문화 교육 진행 및 엄마나라 언어 발표회 개최 - 이중언어 관련 콘텐츠 제작 • 사업대상: 이주여성 및 자녀(유아부터 이용 가능) • 협력기관: 글로벌교육문화교류협회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한국어/이중언어교실	• 사업내용: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를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진행 및 이중언어교실을 통해 러시아어 등 부모 나라의 언어 학습 제공 • 사업대상: 초등학생부터 이용 가능 • 협력기관: 경기도,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한신대학교

자료: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https://www.sc.or.kr/happy2/intro.do(2021. 11. 5. 인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hf.or.kr/lay1/bbs/S1T62C67/A/15/view.do?article_seq=1111839&mode=view&tp=1(2021. 11. 5. 인출); 올리볼리 그림동화 홈페이지, http://ollybolly.org/?fwp_cartoon_new_or_pop=new(2021. 11. 7. 인출);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홈페이지, https://foundation.miraeasset.com/front/socialwelfare/guide/parentsLang.do(2021. 11. 7 인출); 현대차정몽구재단 홈페이지, http://www.hyundai-cmkfoundation.org/magazine/getMagazineSub.do;jsessionid=BpG8rqUQLu71X2aPD5QhbF0pEUF51vMNPkTWvGoPq0f9NkbtpVOmScOqChld414S.MGFWeb01_servlet_engine1?idx=33&subIdx=348(2021. 11. 7. 인출); 두루책방 홈페이지, http://xn—hu1b40go5ck8x.com/(2021. 11. 7. 인출);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 홈페이지, https://lgglobalschool.co.kr/ko(2021. 11. 7. 인출); 어울림이끌림 사회적 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auliklim.cafe24.com/xe/home(2021. 11. 7. 인출); 한민족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hankorea.or.kr/html/biz_04.php(2021. 11. 7. 인출); ㈜아시안허브 홈페이지, http://asianhub.kr/(2021. 11. 7. 인출);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홈페이지, https://www.key.kr/(2021. 11. 7. 인출)

이 중에서 다문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표적인 민간 기관 사업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의 '언어 두 개, 기쁨 두 배' 사업, 다음세대재단의 '올리볼리 그림동화',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의 '엄마 아빠 나라말 학습교재', 어울림이끌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다문화 영재교육'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언어 두 개, 기쁨 두 배' 사업은 이중언어를 다문화가족의 강점으로 보고, 부모의 양국 언어와 문화를 전래동화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전래동화책, 단어카드, 부모용 교안집, 활동지와 전래동화 동영상을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고 있다.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로 제공된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부모-자녀 간에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을 돕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업하여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자료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8)]

다음세대재단은 2009년부터 올리볼리 그림동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을 실시한 이후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리볼리 그림동화는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필리핀, 태국 등 총 13개국의 동화를 온라인 컨텐츠로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올리볼리 그림동화는 13개국의 문화가 담긴 그림동화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원어, 한국어, 영어 자막으로 제공하고, 교사용 수업 사례집과 활동지도 제공하고 있다.[9)]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의 '엄마 아빠 나라말 학습교재' 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부모와 함께 이중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 학습교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종이책과 전자책 형태로 보급되며,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초·중급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대학교와의 산학협력도 추진하여 민·관·학 협력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10)]

어울림이끌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다문화 영재교육'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다문화 아동에게 러시아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8)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https://www.sc.or.kr/happy2/intro.do(2021. 11. 5. 인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hf.or.kr/lay1/bbs/S1T62C67/A/15/view.do?article_seq=1111839&mode=view&tp=1(2021. 11. 5. 인출).

9) 올리볼리 그림동화 홈페이지, http://ollybolly.org/?fwp_cartoon_new_or_pop=new(2021. 11. 7. 인출).

10)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홈페이지, https://foundation.miraeasset.com/front/socialwelfare/guide/parentsLang.do(2021. 11. 7. 인출).

언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언어 교육 서비스와 더불어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어울림이끌림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대학교 및 연구소 등 민·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1)]

3. 국외 사례

가. 다문화정책 및 언어정책의 유형

일반적으로 이주민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정책적 방식을 크게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로 구분한다. 동화주의는 이주민 집단이 주류 사회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하며,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의 원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한 상태에서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따라서 동화주의에서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추상적인 수준에 그친다. 이주민의 통합을 위한 국가의 역할도 동화주의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다문화주의에서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지원한다. 또한 동화주의에서는 소극적 수준에서 차별 방지를 법제화하는 반면, 다문화주의는 적극적으로 소수집단의 문화를 보호하고 권리화하는 방식을 취한다(한승준, 2008; 송종호, 2007; 김선영, 2009; 박진경, 원숙연, 2010; 정장엽, 정순관, 2014). 이러한 다문화정책 유형의 특성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Ⅲ-3-1〉과 같다.

〈표 Ⅲ-3-1〉 다문화정책 유형 특성 비교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정책 목표	• 이주민 집단의 주류 사회로의 동화	• 이주민 집단의 다양한 문화 수용을 통한 사회통합
문화적 지향	• 주류문화와의 동질화 추구 • 추상적 수준의 타문화 이해 및 수용	• 이주민의 문화적 이질성 존중 • 구체적인 다양한 문화 인정 및 보호
갈등해소방안	• 주류사회와의 완전한 동화	• 주류사회에 완전한 참여·진입
국가역할	• 제한적	• 적극적
이주민에 대한 관점	• 완전 동화를 전제한 수용 • 노동력 제공 • 이방인, 통합의 대상	• 상호존중과 관용 • 사회구성원 • 사회 다양성의 원천
다양성 개념	• 사적영역의 문화다양성 보호	• 사적·공적 영역의 문화다양성 보호

11)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auliklim.cafe24.com/xe/home(2021. 11. 7. 인출).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정책수단	• 소수집단 차별방지 법제화(소극적)	• 소수집단 문화·권리보호의 법제화(적극적)
장점	• 주류사회 동화를 통한 이주민 차별 방지	•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공존과 공영)
한계점	• 주류사회로의 완전 동화의 현실적 어려움 • 실제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발생	• 민족 정체성 약화 • 사회적 분열 초래

자료: 한승준(2008), 송종호(2007), 김선영(2009), 박진경·원숙연(2010), 정장엽, 정순관(2014)를 토대로 재구성함.

그러나 일반적인 다문화정책의 유형 구분만으로는 언어정책 및 이중언어지원 정책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 한 국가의 일반적인 다문화정책의 경향성을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으나, 개별 정책 영역의 양상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중언어정책 및 지원 유형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Hornberger(1991, 1996)의 이중언어 교육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Hornberger는 이중언어 모델 유형을 과도기 모델, 지속모델, 강화모델로 구분하였다. 과도기 모델은 동화주의 관점에서 이중언어 교육이 실시되는 유형으로 언어변이, 문화적 동화, 사회적 통합으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지속모델은 과도기 모델보다 더 나아가 기존의 언어유지 측면에서 이중언어에 접근하며, 이를 통해 다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강화모델은 이중언어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문화적 다원성과 사회적 자치권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 정책을 추구한다(〈표 Ⅲ-3-2〉 참조).

〈표 Ⅲ-3-2〉 Hornberger의 이중언어 교육 모델 유형

과도기 모델	지속 모델	강화 모델
언어변이 문화적 동화 사회적 통합	언어유지 문화적 정체성 강화 시민권 확약	언어발달 문화적 다원성 사회적 자치권

자료: Hornberger, 1991, 1996; 이재승, 김희재(2016) p. 197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이중언어 지원정책의 전환을 경험한 3개국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미국, 대만은 다문화정책의 성격과 다문화사회 구성 배경이 모두 다른 국가이나, 2000년대 이후 이중언어 지원정책에서 강화모델의 성격이 도

입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절에서는 독일, 미국, 대만의 다문화 인구(이주민 인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문화정책 및 이중언어정책의 전개 및 변화, 이중언어 지원 사업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이중언어 지원정책 확대에 있어서 세 국가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 독일

1) 다문화가족(이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독일에서는 주로 '이주배경 가족(Familien mit Migrationshintergrund)' 이나 '이주배경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다문화가족'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독일 통계청 통계에서는 2005년부터 '이주 배경을 가진 인구' 에 대한 공식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주 배경 인구에는 독일 거주민 중 본인이 독일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거나 독일 시민권으로 태어나지 않은 부모가 적어도 한 명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며, 외국인, 귀화자, 독일 시민권을 취득한 입양인도 포함된다. 독일에서 이주배경 개념은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인구집단의 통합과 잠재적인 불평등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다(Statistisches Bundesamt, 2021: 30).

2019년 기준 독일에는 전체 인구의 26%인 약 2,120만 명의 이주배경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 중 760만 명이 독일에서 태어난 인구이며, 약 1,370만 명이 이주민이다. 이주민들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독일로 이주한 경험을 가진 집단으로, 독일 통계에서는 이주경험 여부가 인구 집단의 특성을 구분하는 주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주배경 집단을 단일한 집단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이주 시기에 따라 이민 1세대, 2세대를 구분하며, 독일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한다. 독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인구가 12.4%이며, 본인이 이주한 인구가 10.5%로 다수를 차지한다. 독일 국적자가 독일 국적 미취득자 인구보다 많다. 독일 국적자 중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는 전체 인구 중 13.9%이며, 본인이 아닌 부모 세대가 이주한 인구집단의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 이민 2세대의 인구가 1세대 인구보다 커졌음을 알 수 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21: 31).

〈표 Ⅲ-3-3〉 2019년 독일 이주상황별 인구

(단위: 천명, %, 세)

	이주배경					비 이주배경
	총	외국인		독일인		
		본인 이주경험	본인 외 이주경험	본인 이주경험	본인 외 이주경험	
인구수(천명)	21,246	8,556	1,564	5,125	6,000	60,603
전체 인구 대비 비율	26.0	10.5	1.9	6.6	7.3	74.0
평균 연령	35.6	40.6	23.6	50.7	18.7	47.3

주: Deutsches Mikrozensus를 바탕으로 독일 통계청에서 작성함.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2021). Datenreport 2021. p.31.

독일의 이주배경 인구의 연령 구조를 살펴보면, 중장기적으로 이주배경 인구의 비중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2019년 기준 독일에서 만 5세 미만 아동의 40.4%가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다. 40세~45세 미만 연령은 34.5%이며, 80세~85세 미만은 8.6%였다(독일 연방정책교육본부 홈페이지, 2021. 5. 20. 인출)[12]

독일의 이주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유럽 출신 인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주 인구 2,120만 명 중 35.2%가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이며, 29.7%가 이외에 다른 유럽 국가 출신이다. 2019년 기준 본인 및 부모 출생 국가를 기준으로 이주배경 인구를 살펴보면, 터키 출신이 13.3%로 단일 국가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폴란드 출신이 10.5%, 러시아 출신 6.5%, 루마니아 4.8%, 이탈리아 4.1%였다. 비유럽권 출신 국가에서는 카자흐스탄 출신이 5.9%로 가장 높고, 시리아 출신이 4.0%였다(독일 연방정책교육본부 홈페이지, 2021. 5. 20 인출).[13]

학력수준이나 전문 자격 취득 정도에 따라 이주배경 인구를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학력 수준과 전문 자격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소득에 영향을 미쳐서 빈곤 위험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2019년에 기준 비 이주 인구에 비해 이주 인구는 학위나 전문 자격이 부족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독일의 이주배경을 가진 집단에서 학력수준과 전문 자격 취득 정도는 집단 간 이질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2019년 기준 25세~64세 연령의 이주민

12) 독일 연방정책교육본부https://www.bpb.de/nachschlagen/zahlen-und-fakten/soziale-situation-in-deutschland/61646/migrationshintergrund-i(2021. 5. 20. 인출).
13) 독일 연방정책교육본부https://www.bpb.de/nachschlagen/zahlen-und-fakten/soziale-situation-in-deutschland/61646/migrationshintergrund-i(2021. 5. 20. 인출).

중 24%가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46%는 직업적인 전문 자격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다. 이 연령대는 고등교육을 받은 집단과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된다. 북미 출신 이주민의 53%, 중미 및 남미 출신 이주민의 48%는 대학 졸업 이상이다. 반면, EU 이외에 유럽국가 출신 이주민은 16% 만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수준을 보인다. 또한 25세~64세 이주 인구 중에서 높은 연령에 이주한 집단일수록 고등교육을 마친 인구 비율이 더 높다. 이는 독일이 2000년 이후에 전문가 인력의 부족을 경험하면서 고학력자 및 전문가 집단의 이주가 활성화된 배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청년층인 25~34세 인구에서는 이주 인구와 비 이주 인구 간 대학졸업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019년 기준 청년층 이주 인구의 대학 졸업 비율은 28%이며, 비 이주 인구는 29%이다(Statistisches Bundesamt, 2021: 35~36).

2) 다문화 정책 변화

독일은 오랜 시간 동안 배타적이고 혈통주의적인 이주 정책을 실시했던 국가 중 하나였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였다. 독일의 이주노동자들은 독일 거주 자격을 법적으로 부여받았지만, 자국민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었다. 독일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독일 혈통의 외국 거주자들의 이주와 귀화를 적극 추진하는 혈통주의적 이주 정책을 펼쳤다(구춘권, 2012; 박은정 외, 2020: 62).

1990년대는 독일의 이주 인구, 다문화 인구가 급증한 시기이다. 1990년대에 약 210만 명이 독일로 이주하여, 1999년 당시 전체 인구에서 이주 인구의 비율이 8.9%까지 급증하였다(Nuscheler, 2004: 121). 이러한 이주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환경 및 정책의 전환을 필요로 했다. 기존의 배타적이고 혈통주이적인 다문화 정책은 차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독일 사회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다(최윤경 외, 2011: 67~68; 구춘권, 2012: 120~121).

이에 독일 사회는 이주정책, 다문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정책적 논의의 결과로 1999년 국적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에는 조건부 형태이기는 하나 속지주의 성격을 지닌 국적법[14]을 시행

하게 되었다(최윤경 외, 2011: 67~68; 구춘권, 2012: 120~121). 다중국적 취득을 허용하고 속지주의를 실시하는 법안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국적법 개정은 초안에 비해 조건부 형태라는 절충안에 머물렀다. 하지만 독일 국적법 개혁은 독일 혈통주의 관점에서 독일 출생 이주민 자녀들도 외국인으로 분류하던 기존의 국적법에서 벗어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독일 다문화 정책 변화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구춘권, 2012: 138~139; 박은정 외, 2020: 63).

3) 주요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및 사업

가) 연방 차원

독일의 이주법(Zuwanderungsgesetz) 조항(Kapitel 3, §43~§44)을 살펴보면, 독일의 이주법은 기본적으로 독일어 습득을 통한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일 연방의 정책에서는 언어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모국어를 지원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는 “언어 교육 및 언어 다양성(Sprachliche Bildung und Mehrsprachigkeit)” 이라는 모토 하에 아동의 독일어 교육뿐만 아니라 모국어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학령기 아동의 모국어 습득 및 쓰기 교육을 주된 지원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에서의 언어 지원 프로그램인 MAUS도 운영하고 있다(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2015).

독일은 연방 정부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는 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이중언어 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와 헤센(Hessen)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주의 이중언어 지원 사업 사례

(1)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RW): 아동 및 가족 통합기회(IfKuF)[15]

14) “출생과 함께 독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이주민 자녀는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독일에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거나,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최소한 3년 이상 독일에 거주한 경우로 제한(구춘권, 2012:138)”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는 이주배경을 가진 아이들의 성장 여건 개선을 목표로 “아동 및 가족 통합기회(Integrationschancen für Kinder und Familien, IfKuF)”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 및 교육기관, 전문가들이 아동과 아동의 부모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지원사업은 “이용준비(Griffbereit) 프로그램”, “배낭 유치원(Rucksack KiTa)”, “배낭 학교(Rucksack Schule)” 로 구분되어 있다. 해당 사업은 주의 많은 지역에서 도입되어 이미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지역 통합센터에서 해당 사업을 운영하며, 주 협력 센터(LaKI)는 이 과정을 조율하고 지원한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는 2021년 사업의 예산으로 총 1,800만 유로를 책정하였다.

(가) 이용준비(Griffbereit) 프로그램

이용준비 프로그램은 만 1~3세 자녀를 둔 이주 부모와 비 이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교육 프로그램이다. 단, 이주 가족의 수가 더 많아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보육시설, 가족센터, 이주민 자조조직 등 기관 및 시설들은 지역 통합센터 및 사업 담당자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영유아 친화 활동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기 발달을 촉진시키고, 언어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이주가족을 임파워먼트하고 아동의 언어 발달을 비롯한 전반적인 발달에 도움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의 이중언어, 다국어 구사가 고려되며, 이를 위한 지원을 진행한다.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집단은 두 언어(독일어/타 언어)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중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자격요건에서 학력 조건보다 언어적 능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나) 배낭 유치원(Rucksack KiTa)

배낭 유치원은 교육보육시설, 이주 부모 및 교육보육 시설에 다니는 4~6세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가족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교육보육시설이 지역 통합센터 및 사업 담당자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협의를

15) Ministerium für Kinder, Familie, Flüchtlinge und Integration des Landes NRW(2021)를 토대로 정리하였음.

진행한다. 이 사업은 부모의 양육 기술을 향상시키고, 언어 교육 및 자녀 교육에 있어서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일상에서 사용하는 아동의 독일어와 모국어(가족 내 계승어)의 이중언어 구사력을 발달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이는 교육기관 차원에서 다양성을 지향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수용성, 개방성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동일한 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매주 진행된다. 사업 참여 집단은 최소 6명의 부모로 구성되어야 하며, 부모 중 한 명이 가이드 역할을 담당하여 그룹을 지원한다. 부모 가이드는 사업 진행에 참여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주 경험이 있고 최소 2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은 가정에서 언어, 창의성, 운동 기능 등과 같은 분야를 발달시키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 배운다. 이 과정에서 자녀와 함께 모국어를 사용하여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지도 받는다.

(다) 배낭 학교(Rucksack Schule)

배낭 학교 사업은 배낭 유치원 프로그램의 초등학교 버전이다. 배낭 학교 사업은 독일 초등학생인 1~4학년 아동과 부모, 초등학교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부모들이 양육 및 교육 파트너로서 아동의 전체 교육과정에서 다차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실 수업, 모국어(계승어)로 진행되는 수업, 부모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일어와 모국어(계승어)가 함께 사용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업 진행 및 조정 담당자로서 교사, 부모 가이드, 학교, 학교 외 지역 협력기관(시립도서관, 박물관 등), 외부 전문가(교통 경찰, 치과 의사 등), 부모, 아동 간에 네트워크 구조를 발달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2) 헤센주(Hessen): 조약돌 프로젝트: 아동-학교-부모 프로그램(Projekt Kiesel: Kind-Schule-Eltern Programm)[16]

독일의 헤센주는 통합 지역모델 정책을 실시하여,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통합 지역모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 “조약돌 프로젝트:

16) CGIL Bildungswerk(2013)를 토대로 정리하였음.

아동-학교-부모 프로그램(Projekt Kiesel: Kind-Schule-Eltern Programm)"은 이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공적인 사업이다. 조약돌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영역에서 문화 간 경계를 극복하기 위해 초등학교(Grundschule)와 이주 부모 간에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 이주 부모에게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수용되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다양한 언어로 전체적인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조약돌 프로그램은 부모의 자녀 양육의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해 부모가 가정 환경에서 적합한 자녀 양육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각 모국어 구사자와 지역 이주조직을 활용한다. 또한 학교 교사 및 관련 주체들의 다문화와 이주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이해 및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조약돌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이중언어 지원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역사회와 학교가 다문화 가족에게 다양한 언어에 대한 수용성을 보이고, 다양한 언어를 바탕으로 한 자녀 양육 방법을 교육한다는 점에서 다중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부모 역량강화 사업의 사례이다.

다. 미국

1) 미국 다문화 인구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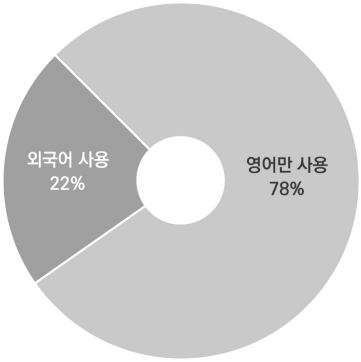
2019년 미국 인구 조사국(U.S. Census Bureau)에서 발표한 미국 지역 사회 조사에 따르면 영어 외의 다양한 언어가 미국 가정 내에서 사용된다. 2019년도 5세 이상인 미국인 인구 약 3억 9백만 명 중 약 2억 4천만 명이 집에서 영어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미국 인구의 약 78%에 해당한다. 또한 인구의 약 22%가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한다(그림 Ⅲ-3-1 참조). 22%의 외국어 사용자 중 가장 흔히 사용된 언어는 스페인어로 약 61.6 %를 차지한다. 인도-유럽어(약 16.9%), 아시아 및 태평양 섬 언어(16.2 %), 기타 언어(5.3 %)가 그 뒤를 이었다(표 Ⅲ-3-2 참조).

〈표 Ⅲ-3-4〉 영어 외 다른 외국어의 분류

언어	표머리	비율 (%)
스페인어	41,757,000	61.6%
인도-유럽 언어	11,465,631	16.9%
아시아 언어	10,973,317	16.2%
기타 언어	3,606,006	5.3%
총합	67,802,000	100%

자료: U.S.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https://data.census.gov/cedsci/ 2019 Language Spoken at Home, 표 S1601 재구성(2021. 5. 3. 인출).

[그림 Ⅲ-3-1] 미국 인구의 영어와 외국어 사용 비율



주: 만 5세 이상인 인구 중 사용 언어 비율임.
자료: U.S.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https://data.census.gov/cedsci/ 2019 Language Spoken at Home, 표 S1601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2021. 5. 3. 인출).

이민자 부모가 있는 자녀(17세 이하)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1세대 자녀란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가 한 명 이상이며 미국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고, 2세대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가 한 명 이상이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한다. 이민자 부모가 있는 자녀에는 이민 1세대와 2세대 자녀가 포함되며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1,310만 명에서 1,70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과 2019년 사이에 약 1,780만 명이 증가하였다. 수치를 상세히 살펴보면 1세대와 2세대 아동의 추세에 차이가 있었다. 1세대 아동의 수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70만 명에서 220만 명으로 감소한 반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 세 자녀 수는 1,040만 명에서 1,56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Batalova, Hanna & Levesque, 2021: 2021 5. 3 인출).

미국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며, 미국에서 자녀를 둔 이민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4,460만 명의 이민자 (5세 이상) 중 약 46% (2,070만)가 영어 능력 부족(Limited English Proficient(LEP))으로 나타났다(Batalova et al., 2021: 2021 5. 3. 인출).

2) 다문화 가족(이주민 가족) 지원 주요 정책

가) 연방 정부 주요 정책

오바마 정권 중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지원하는 'New Americans Citizenship and Integration Initiative' 정책이 통과되었다. 이는 미국 연방 정부의 연합 정책으로 교육부, 노동부, 국토안보부, 주택도시개발부 등 다수의 행정부가 참여했다(The White House, 2015a; The White House,2015b: 2-5). 구체적으로는 네 분야의 이민자 지원 정책을 내세웠다: 1) 지역(local) 수준에서 이민자의 수월한 적응과 통합을 위한 전략 마련, 2) 귀화와 시민적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적 취득 교육 캠페인 등 운영, 3) 이민자의 전문 기술 발전, 창업 및 소기업 지원, 노동자 보호 등 여러 차원에서 경제적 통합 지원, 4) 언어적 통합과 교육을 위해 지역과 학교, 직장 수준에서 어른과 아동을 위한 영어 중재 프로그램 및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 확산을 추진했다.

추가적으로 오바마 정권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Adult Education and Immigration Integration' 정책을 지원하였다. 연방정부에서 주관한 'New Americans Citizenship and Integration Initiative'와는 구분되게 해당 정책은 이민자 사회통합 및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여러 단체가 네트워크를 이루어 ('Network for Integrating New Americans') 진행되었다(Kallenbach, Lee, Down-Karkos, & Taylor, 2013; Kallenbach & Nash, 2016). World Education, Inc., National Partnership for New Americans, IMPRINT, 그리고 Welcoming America, Inc. 등의 단체가 참여하였고, 크게 Linguistic (언어 학습), Civic (시민권 취득, 참정권 행사 촉진), Economic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이민자 통합을 지원하였다.

나) 대표적인 주 정책

- 알라배마, 아리조나, 테네시, 루이지아나 등 15개의 주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자 정책 관련 내용을 고등학교 사회/정치 교육과정에 추가하였다(Chanda, 2017).
- 27개 이상의 주는 영어 교육과 이중언어 증진 중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하였다. 워싱턴 주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아동이 영어와 모국어 양쪽 언어 실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령기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설립시키는 법안을 통과하였다(Chanda, 2017).
- 콜로라도 주에서는 2019년에 'New Americans Initiative'가 통과하였다. 이는 1) 경제적 기회 제공, 2) 현존하는 개인/가정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3) 이민자 언어/직무 교육의 세 분야에서 이민자 지원을 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이민자 집단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팬데믹 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임시 주거권을 연장시키고 코로나 19 검사와 치료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Colorado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2020).
- 캘리포니아 주는 2015년에 주지사실에 이민자 통합 책임자 (director of immigrant integration) 자리를 세우는 법안을 통과하며 주 정부에서 이민자 지원 서비스와 이민자 통합 관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홈페이지, 2021. 5. 1. 인출).

3) 다문화가족 부모 및 아동 대상 이중언어 지원 정책

가) No Child Left Behind(NCLB)법

〈NCLB법〉은 2002년 1월 미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백인 중산층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 또는 유색 인종 학생들 간에 나타나는 학업 성취 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NCLB법〉 에서는 '이중언어'라는 용어 대신 '낮은 수준의 언어 구사 능력/영어 구사력 부족(Limited English Profici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NCLB법〉에서는 LEP와 이민자 학생을 위한 언어 교수 (Language Instruction for Limited English Proficient and Immigrant Students: Title

III)가 신설되었다. 제 3편 (Title III)은 크게 〈영어 습득, 언어 향상 및 학업 성취에 관한 법 (Part A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Enhanc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ct)〉과 영어 교육 프로그램 개선 (Part B-Improving Language Instruction Educational Programs)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법안은 이민자를 포함한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 및 학업 성취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14).

NCLB 법안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아동에게 조기 교육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어 격차를 줄여 이후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단어 격차 경감 계획(Bridging the Word Gap)을 추진하였다. 출생 후부터 학교 입학 전까지의 종합적인 지도 계획을 제안하였다(The White House, 2014). 구체적으로 시행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17].

- Too Small to Fail's Talking 프로그램은 부모들에게 아동과의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공공 캠페인이다. 해당 캠페인은 소아과 의사, 기업가, 아동 언어 발달 전문가 등이 양육자에게 사물에 대한 설명, 노래 부르기, 이야기하기 등 일상적인 행위가 아동의 단어와 개념 학습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 The City of Providence's Providence Talk는 국가 문해력 기준 미달에 속하는 유치원생의 양육자에게 양육 코칭을 진행하는 가정 기반 프로그램이다. LENA 기기를 사용하여 코칭을 제공하는데, 이는 0-3세 유아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양육자가 아동과 나눈 대화 수, 단어 수에 대한 정량적 피드백을 기록하는 기기이다. 3) 미국 보건 및 인적 서비스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Word Gap Toolkit을 개발하여 부모 및 교사들에게 아동의 언어 발달 촉진에 관한 자료집을 제공하였다.

나) Every Student Success Act (ESSA) 법안

ESSA는 NCLB법이 폐지되고 2015년 오바마 대통령 때 통과된 법안이다. ESSA는 학교 내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습자(English Learner)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17) The White House(2014)를 토대로 정리하였음.

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English Learner(EL) 수업에서 벗어나 일반 교육으로 효과적으로 통합되기 위해 주 정부가 통일된 과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ESSA 중 Title III (Language Instruction for English Learners and Immigrant Students)는 이민자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영어학습자(EL)가 학업에서 요구되는 수준 이상으로 영어 실력을 개발하고, 학교에서 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영어학습자(EL)의 부모 및 가정을 포함한 지역 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언어 학습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6).

미국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2016년에 발표한 이중언어아동 (Dual Language Learner)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Dual immersion program 가이드라인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6, p.3-4)에 따르면, Head Start Act 는 이중언어아동의 모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중언어아동을 위한 평가와 학습지원으로 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하는 절차를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전문가가 이중언어아동의 부모가 구사하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이중언어 아동의 모국어 발달 및 읽기·쓰기 능력을 향상하도록 돕는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Dual immersion program은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을 지원함에 있어, 가정의 언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중언어 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로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브라토 초기 문해력 프로그램 (Sobrato Early Academic Literacy (SEAL) Program)[18]

소브라토 초기 문해력 프로그램은 취학 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이중언어 아동의 언어 및 문해 능력을 모국어와 영어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중언어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후의 학업 수행력과 학교 적응을 위하여 개

18) Freedberg & Frey. (2016)를 토대로 정리하였음.

발된 것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휘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수업을 실시하며,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이중언어와 문해력 지도에 관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한다. 일상에서 흔히 쓰는 어휘보다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교과 어휘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며, 수업은 영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사용하여 진행되어 이중언어아동들의 균형잡힌 이중언어 발달과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한다. SEAL 프로그램은 20개의 캘리포니아 지역구에 걸쳐 101개의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20).

(2) 개방 (Abriendo Puertas/Opening Doors) 프로그램[19]

개방 (Abriendo Puertas/ Opening Doors) 프로그램은 0-5세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 라틴계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라틴계 미취학 아동의 부모를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부모의 양육 기술을 향상시키고, 스페인어-영어 이중언어아동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기 아동 발달에 부모와 가족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하며, 가정에서 모국어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총 10회기의 교육에 걸쳐, 부모는 아동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방법, 아동의 감정 표현에 대응하는 양육 방법,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학습과 관련한 활동에 대해 배운다.

다) 영어 학습자(English Language Learner, ELL) 평가[20]

미국 교육부 민권담당국 (U.S. Department of Education's Office for Civil Rights)에 따른 연방 정책의 지침은 각 주에서는 영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5년 1월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행한 지침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며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어 학습자 학생을 파악해야 한다(Linquanti, Cook, Bailey, & MacDonald, 2016). 이를 위해 각 주에서는 1) 가정 언어 설문 조사 (Home Language Survey)와 2) 영어 능력 평가(English Language Proficiency Placement/Screener Assessment)를 실시한다. 학생이 처음 학교에 입학할 때 학부모

19) Moore, Caal, Lawner, Rojas & Walker(2014)를 토대로 정리하였음.
20) Wixom(2015)를 토대로 정리하였음.

에게 가정 언어 설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잠재적으로 영어 학습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들을 파악하여 ELL로 분류하기 위함이다. 설문 조사 설계와 질문은 주마다 다르다.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몇몇 주는 훈련된 ELL교사나 학부모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가정 언어 설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후 가정 언어 설문 조사 결과 영어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된 학생들에게는 영어 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아동의 언어 능력 상태를 확인하고, ELL로 진단되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언어 발달 프로그램에 배정한다(Linquanti & Alison, 2014).

라) 미취학 영어 학습(ELL) 아동 교육

법안에 따라 모든 주는 주 정부 차원에서 미취학 ELL 아동을 위한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미취학 아동 부모 가정교육(Home Instruction for Parents of Preschool Youngsters; HIPPY) 프로그램은 아동의 취학 후 성공적인 학교 적응을 목표로 하는 학교 준비 프로그램으로, 3-5살의 아동과 부모가 참여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etaway 홈페이지, 2021. 5. 3. 인출). 부모에게는 아동의 인지 능력과 초기 문해력, 사회성, 정서 발달 촉진을 목표로 설계된 체계적인 커리큘럼, 책, 자료들이 제공되며, 매주 가정 방문 및 월별 단체교실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2013년 기준, 총 22개 주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13).

마) 부모 및 가족 참여 정책

연방 정책과 지침은 학교에서 ELL 학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미네소타의 학교는 ELL 부모와 가정의 모국어 사용을 촉진하는 가족 참여 계획을 시행하도록 권장한다. 많은 주는 지역이나 학교에 ELL 부모 자문 위원회를 세우도록 지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부모에게 지원 활동을 안내하거나 ELL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것을 담당한다(Wixom, 2015).

라. 대만

1) 다문화 가족의 형성 배경 및 특징

지난 20년 동안 대만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민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현재 결혼이민자 가운데 중국 대륙 및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여성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1990년 초부터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대만 남성들 중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서 '외국인 신부'를 찾기 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했다(Hsia, 2002: 15). 출산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대만의 미래 세대 형성에 일조해 왔다.

대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50만 명 이상에 이르며, 그 중 약 65%가 중국, 30%가 동남아 국가 출신이다. 그리고 전체 외국인 배우자 중 90%가 여성이다(Ministry of Interior, Taiwan, 2021: 2021. 5. 30. 인출). 〈표 Ⅲ-3-5〉는 2020년 국제결혼이민자 분포의 상세 통계를 보여준다.

〈표 Ⅲ-3-5〉 대만 내 국제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

국가	수(명)	비율(%)	동남아 출신 비율(%)	여성 수(명)
총계	569,329	100.00		
동남아			100.00	
베트남	111,758	19.60	66.67	109,231
인도네시아	31,128	5.47	18.56	30,324
태국	9,803	1.72	5.84	6,637
필리핀	10,612	1.68	6.32	9,834
캄보디아	4,350	0.76	2.59	4,342
중국	370,653	65.10		342,883
기타	31,205	5.48		13,396

출처: Ministry of Interior, Taiwan(2021). Marriage Rates. https://www.ris.gov.tw/app/portal/346 에서 2021. 5. 30. 인출하여 재구성.

대만의 혼인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혼인 건수 중 국제결혼이 1998년에는 15.7%를 차지했지만, 2003년에는 약 32%로 증가했다. 2004년에 대만 정부는 국제결혼 사

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결혼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그 결과 대만인이 아닌 배우자의 비율이 2004년에는 23.8%로, 2006년에는 16.8%로 감소했다. 이후 국제결혼 비율은 13%에서 19%사이에 머물렀다(Ministry of Interior, Taiwan, 2021: 2021. 5. 30. 인출). 베트남 출신 배우자의 경우 대만에 와서 평균 18개월 후에 첫 아이를 낳았다(Wang, 2001: 121). 많은 결혼이민자, 특히 학력이 낮은 동남아 출신의 여성은 자녀의 수나 성별에 대한 남편 가족의 기대치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Chen, 2008: 349). 그 결과 결혼이민자에게 태어난 아동의 수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는 학생 수의 증가로 증명된다. 〈표 Ⅲ-3-6〉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준별 각 교육기관의 학생 분포를 나타낸다.

〈표 Ⅲ-3-6〉 수준별 교육기관의 결혼이민자 자녀 통계

	총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015	273,303	33,071	147,013	64,964	25,228	3,027
2016	279,562	25,033	134,482	73,473	39,791	6,783
2017	300,360	34,220	120,352	76,157	55,373	14,258
2018	307,212	32,189	107,486	73,970	68,883	24,684
2019	312,089	30,527	98,060	69,130	77,278	37,094
2020	311,728	26,249	91,388	61,612	80,163	52,316

출처: Ministry of Interior, Taiwan(2020). Total Number of Children of Cross-border Marriages in Different Educational Level. p. 2.

이렇게 학생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동남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아이의 언어 능력이 유아 교육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수많은 연구에서 이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제시한다(Chung, Wang, & Chen, 2006: 411; Lai & Chen, 2007: 99). 어머니의 이민 배경보다 아버지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이들의 학교 성적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들도 있다(Lai, 2013: 126).

대만과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중국 대륙 출신이며 만다린 중국어를 사용하는 결혼이민자와 비교할 때 동남아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는 언어 및 문화적으로 더

큰 장벽에 부딪힌다. 동남아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는 대부분 저학력에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왔다. 이들의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약 30%, 고등학교 졸업이 약 34%이다(Immigration Agency, Taiwan, 2018: 2021. 5. 30 인출).

2)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변화 및 이중언어 지원

대만 정부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및 교육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 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제1부터 제3의 물결 정책을 도입해 왔다.

가) 제1의 물결: 2005년 외국인 배우자와 중국 대륙 배우자 관리 및 상담 대책, 외국인 배우자 지원 기금

2000년대 초부터 대만 정부는 동남아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중국어 및 대만 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해 왔다(Lin, 2018: 123). 예를 들어, 2005년에는 외국인 배우자와 중국 대륙 배우자 관리 및 상담 대책을 세우고 외국인 배우자 지원 기금을 설립했다. 다양한 비정부기구(NGO)가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대만 정부와 NGO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지역 사회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지역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이 빠르게 구축되었다. 동남아 여성 이민자를 모집하고 저녁 수업에 등록시켰고, 대만인 선생, 주로 여성 교사가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사용해 이들에게 만다린 중국어를 가르쳤다(Lin, 2018: 123).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매일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서 현지 언어를 배우기 위해 수업에 매우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이런 수업을 통해 같은 나라 출신이나 결혼이민자로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여성들을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는 지역 문화를 잘 알고 있어 결혼과 가족 문화의 문제에 있어 조언을 줄 수 있었다. 이 여성들은 자녀를 위한 가정 교육이 그들의 책임이며 자신이 아이에게 만다린을 말하고 읽는 것을 가르치기를 남편과 가족 구성원들이 기대한다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Su, 2016: 112).

국제결혼 이민자가 유입되던 초기에 시작된 대만의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은 수만 명의 여성 결혼이민자를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이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병

원 등록 서류를 작성하고, 아이들의 학교 선생님과 소통하고, 학부모 통지문을 읽을 수 있었고, 취업 면접에 합격하기까지 했다(Hsia, 2002; 34).

이런 프로그램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대만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언어 수업의 교재 내용이 주로 어린이용이었다.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는 성인이 아니라 어린 학생을 위한 내용이었다. 자신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Su, 2016: 138). 둘째, 이제 막 배운 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라는 기대는 이 여성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주었다. 전문 교사가 되는 데도 수년 동안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 여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암묵적 목표는 집에서 자녀를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셋째, 프로그램에 내재된 개념은 다문화주의가 아닌 문화 동화주의였다. 동화주의는 이민자를 우리 사회구성원의 일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취급하고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한다(Hsia, 2007: 55; Lan, 2019: 322). 제 1의 물결 기간에 결혼 여성이민자들은 대만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에 관계없이 늘 '외국인 신부' 또는 '신(new) 이민자'로 불렸다.

나) 제2의 물결: 2012년-2014년 새 이민자 횃불 프로그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만 내무부는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의 약 77%에 신이민자 횃불 프로그램(New Immigrant Torch Program)을 시행하여 가능한 한 많은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횃불 프로그램은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자 가정에 가족 상담, 부모 교육 및 엄마 나라의 말과 문화 교육이라는 세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의 주목표는 동남아 출신 배우자가 겪는 장벽을 없애고 대만 문화에 적응할 수 있게 돕는 것이었다(Huang, 2015: 38).

프로젝트 가운데 동남아 배우자의 자녀를 위한 엄마 나라의 말과 문화 교육은 다문화 워크숍 및 학교 행사를 통해 또는 해당 모국어, 예컨대 베트남어로 쓰인 동화책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워크숍과 학교 행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동남아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교통편과 선물을 제공했다. 이러한 유형의 활동은 이민자 가족들 간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어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다.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의 교류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지역 문화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이다(Huang, 2015: 149).

하지만 엄마의 모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동화책 읽기 프로그램은 기대만큼 효과가 없었다. 바라던 결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집에서 아이와 함께 동화책을 읽는 것이 이 여성들에게 익숙한 경험이 아니었다.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활동이었다. 동화책을 읽으며 자녀와 소통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연습이 필요한 교육 방법이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올바른 방법은 어머니에게 직접 시범을 통해 알려줄 수 있는 것이다(Yeh, Ho, 2015: 76). 둘째, 많은 대만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동남아시아 언어를 경시한다(Lan, 2019: 326).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남편들 대부분은 자녀에게 동남아시아 언어를 가르쳐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문화적 자산으로, 또 그들 자녀의 정체성의 일부로서 '모국어'가 가진 가치를 생각하지 못한다. 또 동남아 말을 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를 풍요롭게 하고, 언어적, 사회적 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고 여기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남편이 동남아시아 출신 아내가 자녀에게 그들 모국어로 말하지 못하게 한다. 동남아시아 이민자에 대한 낙인 때문에 그들의 2세 다수가 어머니의 모국어를 할 줄 모른다(Lan, 2019: 326).

다) 제3의 물결: 2016년-2020년 5년 중기 프로젝트

횃불 프로젝트에서 경험을 얻은 대만 교육부는 다문화교육 개선, 동남아시아 언어 교원 양성 강화, 문화적 적합성을 지닌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등에 중점을 두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르는 5년 중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국제결혼 이민자의 약 73%가 그들의 고향 나라에 자녀를 보내어 '모국어'를 배우게 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Immigration Agency, Taiwan, 2018: 7). 5년 중기 프로젝트는 7개 동남아시아 언어를 국가 커리큘럼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2019학년도부터 동남아시아어가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모국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Ministry of Education, Taiwan, 2021: 2021. 5. 30. 인출).

제3의 물결 정책과 프로그램은 최대한 포괄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관심 있는 모든 학생들이 동남아시아 문화와 언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학교 교육과정에 동남아시아어 수업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2개 국어 사용 학생들의 어학 학습을 장려하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가 시행되었다.

첫째, 모든 아이가 엄마의 모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한다는 목표로 적절한 수의 동남아시아 언어 교사가 채용되었다. 동남아시아 언어를 배우려는 아이가 단 한 명 있더라도, 2개 국어를 사용하는 인증된 교사에게 배울 수 있게 했다.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그렇듯, 대만 정부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들의 2세 성인 자녀들을 잠재적 2개 국어 교사로 생각한다. 2021년 5월 현재, 모집 및 교육을 통해 교사 인증을 부여받은 여성결혼이민자와 2세 성인의 수는 약 2,800명에 이른다(Ruan, Wu, Chang, & Hsu, 2020: 4).

둘째, 교사를 위한 동남아시아 언어 교육 교재가 온라인 자료 및 책 형식으로 충분히 제공되었다. 동남아시아 언어 교재의 부족은 10년 이상 지속된 문제였고,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되어야할 문제이다. 대만 정부는 동남아시아 언어 교과서 및 교재 개발을 위해 제도적으로 자원을 배정했다. 2019년에는 다문화 자녀교육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라오어, 미얀마어, 말레이어, 필리핀어 등 7개 동남아시아 언어 교육 교재를 제공했다. 교사는 이곳에서 언어 및 문화 관련 자료를 쉽게 검색하고 교재에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Education Website for New Residents' Children, Taiwan, 2021a: 2021. 5. 30. 인출).

셋째, 2018년에는 국립교육라디오와 K-12 교육청이 협력하여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동남아시아어로 방송하는 일련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시작했다(National Education Radio Website, Taiwan, 2021: 2021. 7. 2. 인출).

넷째, 동남아시아어 원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강좌를 개설하였다. 이 조치는 외딴 지역의 다문화 자녀를 위한 어학 교사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또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동안 원격교육은 많은 학생이 동남아시아 언어를 학습할 수 있게 해준다(Education Website of New Residents' Children, Taiwan, 2021a: 2021. 5. 30. 인출).

다섯째,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를 전면에 내세운 신남방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사업을 포함한다(Executive Yuan, Taiwan, 2016: 2021. 5. 30. 인출). 이 정책을 통해 교육부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여름 방학에 외가 친척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그들의 자녀들이 동남아 국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도 할당되어 있다. 또한 대만 지방정부는 대만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방문이나 인턴십 경험을 제공하는 여름캠프를 개최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자

녀가 국제 기업 환경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New Taipei City Government, 2021: 2021. 5. 30. 인출).

여섯째, 가정에서 동남아시아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확립되었다. 이민자 자녀의 모국어 가정교육에 대한 연구는 따뜻하고 수용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성이 집에서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가족들이 지지할 때 아이는 '엄마 언어'를 배우려는 강한 동기를 얻을 수 있다(Van Deusen-Scholl, 2003: 225). Yeh & Ho(2015: 87)는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자녀와 함께 동화책 읽기를 지도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동화책은 베트남어로 쓰이고 유아교육을 위한 국가교육과정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다. 책의 내용은 대만의 이민자 아동들의 체험을 다루었다. 특히 엄마들이 책 읽기에 가상 놀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지도받았다.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언어 교육이 아니라 엄마 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이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베트남인 아내의 남편과 그 가족들은 아이가 베트남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이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차츰 받아들였다. 아이 엄마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족 간 유대감도 더 돈독해졌다(Yeh & Ho, 2015: 91).

일곱째, 유치원 및 유아원의 아동교육과정에 문화 및 언어의 통합이 진행되었다. 대만은 전국의 국공립 유치원 및 유아원 교사에게 다문화 대응 커리큘럼의 제작 및 교육 방법과 관련된 연수 교육 워크숍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Gay, 2000; Ladson-Billings, 1995: 160). 교사들은 워크숍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전략을 배운다.

-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동남아시아 문화 및 언어의 전문가로 여긴다. 그 첫걸음은 여성 결혼이민자와 아이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이를 교실 현장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출신 엄마들이 그들의 언어, 음식, 노래, 옷 및 명절을 학생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초대한다(Education Website for New Residents' Children, 2021b: 2021. 7. 2. 인출).
- 문화 간 이해가 상호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학교와 이민자 학부모 가족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 불평등을 인식해야 한다. 교사들은 워크숍에서 이민자 어머니와 그들의 자녀에게 필요한 요구사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웠다.

예를 들어, 전화나 가상 회의를 통한 소통 방식은 이민자들에게 어려울 수 있으며, 직접적인 대면 소통이 더 유용하다(Education Website for New Residents' Children, 2021b: 2021. 7. 2. 인출).

-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교육에 낮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사는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일반 학생과 동등한 학업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워크숍에서 교사는 성별, 문화 및 사회정치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교육받았다. 이러한 조치들은 다문화 사회를 추구하는 대만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Education Website for New Residents' Children, 2021b: 2021. 7. 2. 인출).

마. 종합 비교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3개국의 다문화정책 및 이중언어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다문화정책은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의 전환기에 있으며, 이중언어정책은 여러 모델이 혼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연방법에서는 동화주의 관점에서의 독일어 습득만 명시되어 있으나, 연방정부는 다중언어 기반 언어발달 지원을 하고 있어 지속모델에 기반한 이중언어정책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정부 차원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이중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정부에 의해 지속모델에서 강화모델로의 부분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국의 다문화정책을 살펴보면 다문화주의에 가장 가까운 국가는 미국이지만, 이중언어 지원 정책은 2000년대 오바마 정권 이후에 법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모델에서 강화모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류 언어로서 영어 학습자(ELL)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 이중언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이중언어 지원 사업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형성 배경과 유사한 아시아 국가이며 정책수단이나 문화적 지향성 측면에서 다문화주의보다 동화주의에 가까운 다문화정책을 펼쳐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최근인 2016년 이후에 가장 급격한 이중언어 지원정책의 확대를 도모한 국가로 과도기 모델에서 강화모델로의 전환이 중앙정

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과 미국을 비교하면, 독일은 아직까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중언어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는 상황이나, 미국은 오바마 정권 이후 ESSA법안을 마련하여 법적 지원의 틀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과 미국 모두 주류 언어인 독일어와 영어 습득에 보다 방점을 두고 있으며,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중언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만은 독일이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와 다문화가족 형성 배경이 상당히 유사하다. 주로 저학력의 동남아 여성들이 저소득의 대만 남성들과 결혼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결혼이민자가 급증하였다. 이에 대만은 2000년대까지 동화주의 관점에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적응에 방점을 두고 다문화가족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정책적인 전환이 있었으며, 대만 중앙부처인 내무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중언어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되었다. 이중언어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2016년 이후로 가장 최근이며, 독일과 미국에 비해 이중언어 교육 강화 모델의 성격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4. 소결

이 장에서 살펴본 이중언어 관련 법과 국내외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및 사업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언어 관련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다문화 아동의 보육 및 교육과 부모 지원에 대한 조항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중언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3항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허용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의무조항의 성격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도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이나 모국어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이중언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요구되므로, 근거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 아동에 대한 지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령들에는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여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제 당 충분한 규모의 예산 확보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정책에서는 1,210개라는 상당한 수의 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연간 예산은 2,404억원으로 추정된다(여성가족부, 2020a: 7). 이는 과제 당 배정되는 예산 규모가 상당히 작음을 의미한다. 전체 예산 규모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과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중복되거나 통합할 수 있는 있는 사업들을 파악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중점 추진 과제에 예산을 집중하는 전략도 요구된다.

셋째,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의 사업 대상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을 보면 총 이용자가 연간 3,800명 이하이다. 전체 다문화가족 규모를 고려하면 실제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 포괄 규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른 특성화 사업과 비교해도 이용 규모가 상당히 작다. 이는 이중언어 코치에 대한 인건비 예산 편성만으로 이중언어 사업을 진행하는 센터가 대다수인 실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21] 즉,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의 사업 대상 규모 확대는 예산 및 인력 확보라는 선제 과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넷째, 접근성 제고와 일상에서 지속가능한 이중언어 실천을 위해 접근성이 강화된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이중언어를 획득하고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도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일회성이나 단기적 프로그램으로만 이중언어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추진한 이중언어 전자책의 경우 중앙다문화교육센터와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홈페이지로 나뉘어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사이트인 다누리 홈페이지에 링크가 있으나 찾기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및 모국어 학습(이중언어 학습)을 위한 개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다누리 홈페이지 등 다문화가족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와 연결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만에서는 2019년 다문화 자녀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충분한 온라인 언어 교재를 제공하고, 언어 및 문화 관련 자료로 쉽게 검색하여

2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2021. 3. 31)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자문회의(2021.4. 22.)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민·관·학 협력 이중언어 사업의 결과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해야하며, 향후 민·관·학 거버넌스 형태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민간과 공공 부분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일부 이중언어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온라인 콘텐츠나 교재 등을 개발하였으나 해당 결과물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민간 기관이나 센터 단위에서만 활용되어왔다. 다양한 이중언어 사업이나 교육 현장에서 개발된 콘텐츠들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공공 기관 주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학 협력을 보다 긴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유아 자녀 이중언어 지도나 모국어 지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중언어코치 및 언어발달지도사 등 전문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나, 한정된 인력으로는 서비스 규모를 확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의 역량을 발휘하는 연계 프로그램은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아동 및 가족 통합기회(IfKuF) 사업의 배낭 유치원(Rucksack KiTa)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부모가 참여하는 연계 프로그램의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교육·보육시설, 가족센터, 지역 통합센터 등과 이주민 중심의 소규모 집단이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가이드 역할을 이주민 부모가 담당한다.

Ⅳ

이중언어 관련 실태 및 영향요인

0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02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사용 실태

03 자녀 돌봄 및 이중언어 관련 인식 및 부모 역량

04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책 요구

05 다문화 유아의 이중언어 사용 영향요인 분석

06 소결

Ⅳ. 이중언어 관련 실태 및 영향요인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신국은 중국 40.1%, 베트남 33.0%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필리핀 7.9%, 기타 5.8%, 캄보디아 3.2%, 태국 1.7%, 영어권 국가 0.4% 순이었다. 지역규모는 중소도시가 40.3%, 대도시 36.7%로 비슷하게 분포되었고 농산어촌 23.0%로 나타났다. 연령은 30대가 62.5%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19.8%, 40대 16.6%, 50대는 1.1% 순이었다. 응답자 평균 연령은 34.6세로 나타났다. 응답자 성별은 여성 97.7%, 남성 2.3%로 차이가 큰데 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여성 응답자가 과표집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종학력은 고졸 35.0%,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34.8%로 많았고, 전문대 졸 22.0%, 중졸 이하는 8.1% 순이었다. 근로형태는 가정주부가 62.0%로 다수였으며, 전일제 근로자 17.9%, 시간제 근로자 12.8%, 비임금 근로자 7.3%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300만원 미만 30.3%, 100~200만원 미만 24.7%, 300~400만원 미만 19.6%, 100만원 미만 12.4% 순이었다. 가구구성원 수는 4명 41.7%, 3명 26.1%, 5명 18.8%순이었고 평균 4.23명이었다. 2020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475만원[22]인 것을 고려할 때 소득수준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수를 보면, 2명인 경우가 50.5%로 가장 많았고, 1명 34.3%, 3명 13.4% 순이었으며 평균 1.83명이었다.

22) 자료 출처: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2021. 10. 1. 인출)

〈표 Ⅳ-1-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	(531)			
출신국			월 평균 가구소득		
중국	40.1	(213)	100만원 미만	12.4	(66)
일본	7.9	(42)	100~200만원 미만	24.7	(131)
베트남	33.0	(175)	200~300만원 미만	30.3	(161)
캄보디아	3.2	(17)	300~400만원 미만	19.6	(104)
필리핀	7.9	(42)	400~500만원 미만	7.7	(41)
태국	1.7	(9)	500~600만원 미만	3.2	(17)
영어권 국가	0.4	(2)	600만원 이상	2.1	(11)
기타	5.8	(31)	응답자 근로형태		
지역규모			임금근로자(전일제)	17.9	(95)
대도시	36.7	(195)	임금근로자(시간제)	12.8	(68)
중소도시	40.3	(214)	비임금근로자	7.3	(39)
농산어촌	23.0	(122)	가정주부	62.0	(329)
응답자 연령			가구구성원 수		
20대	19.8	(105)	3명	26.1	(132)
30대	62.5	(332)	4명	41.7	(211)
40대	16.6	(88)	5명	18.8	(95)
50대	1.1	(6)	6명 이상	13.5	
평균 연령	34.6세		평균 가구구성원 수	4.23명	
응답자 성별			(만 18세 미만) 자녀 수		
남	2.3	(12)	1명	34.3	
여	97.7	(519)	2명	50.5	(268)
최종학력			3명	13.4	(71)
중졸 이하	8.1	(43)	4명	1.7	(9)
고졸	35.0	(186)	5명	0.2	(1)
전문대 졸	22.0	(117)	평균 자녀 수	1.83명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34.8	(185)			

주: 1) 영어권 국가: 미국, 인도
2) 기타국가: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결과임.

조사 응답자의 배우자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40대가 51.4%로 가장 많았고 30대 27.1%, 50대 17.3% 순이었으며 배우자 평균 연령은 43.0세였다. 배우자 근

로형태는 전일제 근로자가 59.7%로 가장 많았고 비임금 근로자 21.5%, 가정주부 10.4% 순이었다. 결혼유지 기간은 5년~10년 미만이 59.3%로 가장 많았으며, 중개업체를 통한 만남이 29.6%, 친인척 및 지인 소개가 19.4%, 유학 중 만남 17.7% 등이었다. 배우자의 최종학력은 고졸 39.7%,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32.0%, 전문대 졸 22.4% 순이었다.

〈표 Ⅳ-1-2〉 응답자의 배우자 및 결혼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	(531)			
배우자 연령			배우자 만남계기		
20대	3.6	(19)	유학 중에	17.7	(94)
30대	27.1	(144)	한국에서 일하는 중에	12.1	(64)
40대	51.4	(273)	종교 기관을 통해서	4.7	(25)
50대	17.3	(92)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29.6	(157)
60대	0.6	(3)	친인척, 지인, 친구 소개	19.4	(103)
평균 연령	43.0세		기타	16.6	(88)
배우자 근로형태			배우자 최종학력		
임금근로자(전일제)	59.7	(317)	중졸 이하	5.8	(31)
임금근로자(시간제)	8.5	(45)	고졸	39.7	(211)
비임금근로자	21.5	(114)	전문대 졸	22.4	(119)
가정주부	10.4	(55)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32.0	(170)
결혼 유지 기간					
5년 미만	11.1	(59)			
5년 이상 10년 미만	59.3	(315)			
10년 이상 15년 미만	23.7	(126)			
15년 이상	5.8	(31)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결과임.

조사 참여 결혼이민자 자녀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만 5세 이상이 48.0%로 가장 많고, 만 3세 28.1%, 만 4세 23.9% 수준으로 비슷하였으며 성별은 남자 51.6%, 여자 48.4%로 비슷하였다. 전체 자녀 중, 영유아 자녀의 출생 순위는 첫째가 68.0%, 둘째는 26.7%였다. 한국어 구사수준은 또래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많았으며 또래보다 다소 지체되었다는 응답이 17.9%, 잘하는 편이

라는 응답이 16.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녀의 출생국가는 91.9%가 한국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국가는 2% 이하였다. 모국 체류 기간은 3개월 미만이 81.0%로 가장 많았으며, 3~6개월 미만 7.6%, 12개월이상 7.4%, 6~12개월 미만 3.9%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건강상태는 건강하다는 응답이 96.4%로 다수였다.

〈표 Ⅳ-1-3〉 응답기준 자녀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	(531)			
자녀 연령			자녀 출생국가		
만 3세	28.1	(149)	한국	91.9	(488)
만 4세	23.9	(127)	중국	2.0	(11)
만 5세~취학 전	48.0	(255)	일본	2.0	(11)
자녀 출생순위			베트남	1.1	(6)
첫째	68.0	(361)	캄보디아·태국·필리핀	1.7	(9)
둘째	26.7	(142)	기타(미국, 대만, 호주)	1.2	(6)
셋째	4.7	(25)	자녀의 모국 체류 기간		
넷째	0.6	(3)	3개월 미만	81.0	(392)
자녀 성별			3~6개월 미만	7.6	(37)
남	51.6	(274)	6~12개월 미만	3.9	(19)
여	48.4	(257)	12개월 이상	7.4	(36)
자녀 한국어 구사수준			자녀 건강상태		
또래에 비해 매우 지체됨	7.2	(38)	건강함	96.4	(512)
또래에 비해 다소 지체됨	17.9	(95)	다소 약한 편임	2.1	(11)
또래와 비슷함	51.2	(272)	질병 있음	0.6	(3)
또래보다 잘하는 편임	16.4	(87)	장애 있음	0.6	(3)
또래보다 월등히 잘함	7.3	(39)	질병·장애 있음	0.4	(2)

주: 기준 자녀의 모국 체류 기간은 이상치 또는 결측치를 제외함.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결과임.

2.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사용 실태

가. 가정 내 사용 언어

다문화 가족이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본인, 배우자,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가끔 모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자녀 49.5%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도 48.8%로 많았다. 반면 배우자는 한국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72.9%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끔 모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16.8%였다. 자녀가 한국어만 사용하는 경우는 31.6%로 전체적으로 가정 내 사용언어는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1〉 가정 내 사용 언어: 본인(응답자), 배우자, 자녀

단위: %(명)

구분	한국어만 사용	주로 한국어, 가끔 모국어 사용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	주로 모국어, 한국어 가끔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계 (수)
전체							
본인	13.4(71)	48.8(259)	25.6(136)	7.3(39)	2.3(12)	2.6(14)	100.0 (531)
배우자	72.9(387)	16.8(89)	5.8(31)	1.9(10)	0.2(1)	2.4(13)	100.0 (531)
자녀	31.6(168)	49.5(263)	13.6(72)	2.1(11)	1.1(6)	2.1(11)	100.0 (531)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결과임.

가정 내 사용언어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신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기타 국가에서는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가끔 모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각각 50.7%, 50.3%, 49.5%로 절반 정도였으나, 일본은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경우(35.7%)와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31.0%)가 비슷하였다. 지역별로는 농산어촌 지역에서 주로 한국어를 쓴다는 응답이 59.8%로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다소 높았다. 자녀의 일상언어가 한국어인 경우, 응답자도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응답이 32.1%, 주로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54.2%로 많았고 자녀의 일상언어가 이중언어인 경우, 응답자도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한다는 응답이 63.9%로 많았다.

〈표 Ⅳ-2-2〉 특성별 가정 내 사용언어: 본인

단위: %(명)

구분	한국어만 사용	주로 한국어, 가끔 모국어 사용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	주로 모국어, 한국어 가끔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계 (수)
전체	13.4(71)	48.8(259)	25.6(136)	7.3(39)	2.3(12)	2.6(14)	100.0 (531)
출신국							
중국	13.1(28)	50.7(108)	26.8(57)	7.0(15)	0.9(2)	1.4(3)	100.0 (213)
베트남	14.3(25)	50.3(88)	28.6(50)	4.6(8)	1.1(2)	1.1(2)	100.0 (175)
일본	4.8(2)	31.0(13)	35.7(15)	14.3(6)	14.3(6)	0.0(0)	100.0 (42)
기타	15.8(16)	49.5(50)	13.9(14)	9.9(10)	2.0(2)	8.9(9)	100.0 (101)
x^2	67.648***						
지역규모							
대도시	10.8(21)	42.6(83)	31.8(62)	7.7(15)	4.1(8)	3.1(6)	100.0 (195)
중소도시	17.3(37)	48.1(103)	22.0(47)	7.9(17)	0.9(2)	3.7(8)	100.0 (214)
농산어촌	10.7(13)	59.8(73)	22.1(27)	5.7(7)	1.6(2)	0.0(0)	100.0 (122)
x^2	23.051*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32.1(54)	54.2(91)	8.9(15)	3.6(6)	0.6(1)	0.6(1)	100.0 (168)
주로 한국어 사용	5.3(14)	60.8(160)	26.6(70)	5.7(15)	0.8(2)	0.8(2)	100.0 (263)
이중언어 사용	4.2(3)	6.9(5)	63.9(46)	15.3(11)	6.9(5)	2.8(2)	100.0 (72)
기타	0.0(0)	10.7(3)	17.9(5)	25.0(7)	14.3(4)	32.1(9)	100.0 (28)
x^2	319.009***						

주: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자녀의 가정 내 사용언어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신국가별로는 모든 국가 자녀가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가끔 모국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일본은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응답이 14.3%로 적고,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한다는 응답이 33.3%로 많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의 자녀가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응답이 25.1%로 중소도시 36.0%, 농산어촌 34.4%에 비해 다소 적었다.

〈표 Ⅳ-2-3〉 특성별 가정 내 사용언어: 자녀

단위: %(명)

구분	한국어만 사용	주로 한국어, 가끔 모국어 사용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	주로 모국어, 한국어 가끔 사용	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계 (수)
전체	31.6(168)	49.5(263)	13.6(72)	2.1(11)	1.1(6)	2.1(11)	100.0 (531)
출신국							
중국	37.6(80)	51.6(110)	8.0(17)	0.9(2)	0.0(0)	1.9(4)	100.0 (213)
베트남	26.3(46)	53.7(94)	17.7(31)	1.1(2)	0.0(0)	1.1(2)	100.0 (175)
일본	14.3(6)	42.9(18)	33.3(14)	7.1(3)	2.4(1)	0.0(0)	100.0 (42)
기타	35.6(36)	40.6(41)	9.9(10)	4.0(4)	5.0(5)	5.0(5)	100.0 (101)
x^2	64.187***						
자녀 연령							
만3세	31.5(47)	45.0(67)	15.4(23)	4.0(6)	1.3(2)	2.7(4)	100.0 (149)
만4세	26.0(33)	52.0(66)	16.5(21)	2.4(3)	1.6(2)	1.6(2)	100.0 (127)
만5세	34.5(88)	51.0(130)	11.0(28)	0.8(2)	0.8(2)	2.0(5)	100.0 (255)
x^2	11.132						
지역규모							
대도시	25.1(49)	52.8(103)	16.9(33)	2.6(5)	0.5(1)	2.1(4)	100.0 (195)
중소도시	36.0(77)	49.1(105)	10.7(23)	1.4(3)	0.0(0)	2.8(6)	100.0 (214)
농산어촌	34.4(42)	45.1(55)	13.1(16)	2.5(3)	4.1(5)	0.8(1)	100.0 (122)
x^2	22.850*						

주: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나. 한국어 및 모국어 습득 과정

자녀의 성장 시기별로 많이 노출했던 언어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한국어를 가장 많이 노출했으며, 생후 12개월 이전 63.5%, 만 1~2세 71.6%, 만 2~3세 80.4%, 만3~4세 83.6%, 만4~5세 87.1%, 만 5세 이상 87.3%로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한국어 노출이 많았다. 자녀의 현재 한국어 수준별로 살펴 보았을 때, 만5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한국어 발달이 우수한 경우에 한국어 노출이 많았으며, 한국어 발달 지체나 보통인 경우에 모국어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단, 언어발달이 가속화되는 2~3세 부터는 80%이상 한국어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Ⅳ-2-4〉 자녀의 한국어 발달 정도별 노출 언어

단위: %(명)

구분		한국어	(귀하의) 모국어	기타 언어	계	(수)
생후 12개월 이전		63.5(337)	34.5(183)	2.1(11)	100.0	(531)
	한국어 발달 지체	57.1(76)	40.6(54)	2.3(3)	100.0	(133)
	보통	64.0(174)	34.2(93)	1.8(5)	100.0	(272)
	한국어 발달 우수	69.0(87)	28.6(36)	2.4(3)	100.0	(126)
x^2		10.678*				
만 1~2세		71.6(380)	26.2(139)	2.3(12)	100.0	(531)
	한국어 발달 지체	63.9(85)	34.6(46)	1.5(2)	100.0	(133)
	보통	71.3(194)	27.2(74)	1.5(4)	100.0	(272)
	한국어 발달 우수	80.2(101)	15.1(19)	4.8(6)	100.0	(126)
x^2		10.678*				
만 2~3세		80.4(427)	16.6(88)	3.0(16)	100.0	(531)
	한국어 발달 지체	78.2(104)	18.0(24)	3.8(5)	100.0	(133)
	보통	79.4(216)	18.4(50)	2.2(6)	100.0	(272)
	한국어 발달 우수	84.9(107)	11.1(14)	4.0(5)	100.0	(126)
x^2		10.678*				
만 3~4세		83.6(444)	13.2(70)	3.2(17)	100.0	(531)
	한국어 발달 지체	83.5(111)	12.0(16)	4.5(6)	100.0	(133)
	보통	83.1(226)	14.7(40)	2.2(6)	100.0	(272)
	한국어 발달 우수	84.9(107)	11.1(14)	4.0(5)	100.0	(126)
x^2		10.678*				
만 4~5세		87.1(303)	10.9(38)	2.0(7)	100.0	(348)
	한국어 발달 지체	83.8(62)	12.2(9)	4.1(3)	100.0	(74)
	보통	86.6(161)	11.3(21)	2.2(4)	100.0	(186)
	한국어 발달 우수	90.9(80)	9.1(8)	0.0(0)	100.0	(88)
x^2		10.678*				
만 5세~취학 전		87.3(186)	11.3(24)	1.4(3)	100.0	(213)
	한국어 발달 지체	84.6(33)	15.4(6)	0.0(0)	100.0	(39)
	보통	89.0(105)	8.5(10)	2.5(3)	100.0	(118)
	한국어 발달 우수	85.7(48)	14.3(8)	0.0(0)	100.0	(56)
x^2		10.678*				

주: 한국어 발달 지체는 '또래보다 매우 지체됨', '또래에 비해 다소 지체됨'응답을 합한 것이며, 보통은 '또래와 비슷함', 한국어 발달 우수는 '또래보다 잘하는 편임', '또래보다 월등히 잘함'응답을 합한 것임.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자녀의 한국어 구사 시작 시기를 살펴보면 만2~3세부터 시작했다는 응답이 42.0%로 가장 많았고, 생후 24개월 이전 23.7%, 만3~4세 19.8%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의 자녀들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한국어를 구사하기 시작하였으나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자녀의 일상언어가 이중언어일 때, 만2~3세에 한국어를 시작한 경우가 48.6%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일상언어를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에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13.1%는 모국어도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로 분석되어, 언어발달 지연 사례로 볼 수 있다. 한국어 발달 수준별로 한국어 구사 시작 시기에 차이가 나타나 생후24개월 이전 한국어 구사를 했다는 응답이 한국어 발달 지체 12.0%, 보통 23.5%, 우수는 36.5%로 발달이 우수할수록 이른 시기에 한국어를 구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한국어와 모국어 구사 수준별로도 한국어 구사 시작 시기에 차이가 나타났다. 모국어를 더 잘하는 경우 생후 한국어를 구사하기 시작한 시기가 24개월 이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2%로 한국어를 더 잘하거나(24.9%), 두 언어를 비슷하게 사용(25.0%)하는 경우 보다 적었지만, 만2~3세에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은 모국어를 더 잘하는 경우가 50.0%로 많았다. 한편, 두 언어를 비슷하게 구사하는 이중언어 사용 아동이 오히려 한국어를 더 잘하는 아동보다 한국어 구사시기가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5〉 자녀의 한국어 구사 시작 시기

단위: %(명)

구분	생후 24개월 이전	만 2~3세	만 3~4세	만 4~5세	만 5세 이후	구사하지 못함	계 (수)
전체	23.7(126)	42.0(223)	19.8(105)	5.8(31)	2.4(13)	6.2(33)	100.0 (531)
출신국							
중국	24.4(52)	45.5(97)	14.6(31)	5.2(11)	3.3(7)	7.0(15)	100.0 (213)
베트남	21.7(38)	37.7(66)	25.7(45)	6.3(11)	1.7(3)	6.9(12)	100.0 (175)
일본	31.0(13)	52.4(22)	9.5(4)	2.4(1)	2.4(1)	2.4(1)	100.0 (42)
기타	22.8(23)	37.6(38)	24.8(25)	7.9(8)	2.0(2)	5.0(5)	100.0 (101)
x^2	18.326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23.8(40)	41.1(69)	16.7(28)	4.2(7)	1.2(2)	13.1(22)	100.0 (168)
주로 한국어 사용	24.7(65)	40.7(107)	20.5(54)	6.8(18)	3.0(8)	4.2(11)	100.0 (263)
이중언어 사용	23.6(17)	48.6(35)	19.4(14)	5.6(4)	2.8(2)	0.0(0)	100.0 (72)

구분	생후 24개월 이전	만 2~3세	만 3~4세	만 4~5세	만 5세 이후	구사하지 못함	계 (수)
기타	14.3(4)	42.9(12)	32.1(9)	7.1(2)	3.6(1)	0.0(0)	100.0 (28)
x^2	28.877*						
자녀 한국어 수준							
한국어 발달 지체	12.0(16)	42.9(57)	24.8(33)	9.0(12)	3.8(5)	7.5(10)	100.0 (133)
한국어 발달 보통	23.5(64)	43.0(117)	19.5(53)	5.9(16)	1.5(4)	6.6(18)	100.0 (272)
한국어 발달 우수	36.5(46)	38.9(49)	15.1(19)	2.4(3)	3.2(4)	4.0(5)	100.0 (126)
x^2	28.467**						
자녀 한국어·모국어 구사수준 비교							
모국어를 더 잘함	19.2(5)	50.0(13)	19.2(5)	7.7(2)	3.8(1)	0.0(0)	100.0 (26)
한국어를 더 잘함	24.9(87)	41.0(143)	21.5(75)	6.0(21)	2.3(8)	4.3(15)	100.0 (349)
두 언어 비슷함	25.0(9)	41.7(15)	25.0(9)	2.8(1)	2.8(1)	2.8(1)	100.0 (36)
잘 모르겠음	11.8(2)	35.3(6)	11.8(2)	0.0(0)	11.8(2)	29.4(5)	100.0 (17)
x^2	32.839**						

주: 1) 한국어 발달 지체는 '또래보다 매우 지체됨', '또래에 비해 다소 지체됨'응답을 합한 것이며, 보통은 '또래와 비슷함', 한국어 발달 우수는 '또래보다 잘하는 편임', '또래보다 월등히 잘함' 응답을 합한 것임.
2)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3) 출신국-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자녀의 모국어 구사 시작 시기를 살펴보면 구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28.4%로 가장 많았고 만2~3세 26.2%, 만3~4세 15.8%, 생후 24개월 이전 14.5%, 만4~5세 10.7%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국별로는 중국, 베트남, 기타국가에서 모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베트남이 37.7%로 가장 많았다. 자녀의 일상언어별로도 차이가 나타나, 한국어만 사용하는 경우, 모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58.3%로 가장 많았고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만2~3세에 모국어를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녀의 한국어와 모국어 구사 수준별로도 모국어 구사 시작 시기에 차이가 나타났다. 모국어를 더 잘하는 경우 생후 모국어를 구사하기 시작한 시기가 24개월 이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8%로 한국어를 더 잘하거나(14.3%), 두 언어를 비슷하게 사용(27.8%)하는 경우 보다 많았고 만2~3세에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은 두언어를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47.2%로 많았다.

〈표 Ⅳ-2-6〉 자녀의 모국어 구사 시기

단위: %(명)

구분	생후 24개월 이전	만 2~3세	만 3~4세	만 4~5세	만 5세 이후	구사하지 못함	계 (수)
전체	14.5(77)	26.2(139)	15.8(84)	10.7(57)	4.3(23)	28.4(151)	100.0 (531)
출신국							
중국	11.7(25)	33.3(71)	14.6(31)	12.2(26)	3.3(7)	24.9(53)	100.0 (213)
베트남	10.9(19)	14.3(25)	19.4(34)	10.9(19)	6.9(12)	37.7(66)	100.0 (175)
일본	31.0(13)	42.9(18)	4.8(2)	4.8(2)	2.4(1)	14.3(6)	100.0 (42)
기타	19.8(20)	24.8(25)	16.8(17)	9.9(10)	3.0(3)	25.7(26)	100.0 (101)
x^2	50.919***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9.5(16)	16.7(28)	7.7(13)	5.4(9)	2.4(4)	58.3(98)	100.0 (168)
주로 한국어 사용	13.7(36)	27.4(72)	21.3(56)	14.1(37)	6.5(17)	17.1(45)	100.0 (263)
이중언어 사용	30.6(22)	34.7(25)	13.9(10)	13.9(10)	2.8(2)	4.2(3)	100.0 (72)
기타	10.7(3)	50.0(14)	17.9(5)	3.6(1)	0.0(0)	17.9(5)	100.0 (28)
x^2	138.043***						
자녀 한국어 수준							
한국어 발달 지체	9.8(13)	25.6(34)	15.0(20)	7.5(10)	2.3(3)	39.8(53)	100.0 (133)
한국어 발달 보통	15.4(42)	27.6(75)	14.3(39)	12.5(34)	5.5(15)	24.6(67)	100.0 (272)
한국어 발달 우수	17.5(22)	23.8(30)	19.8(25)	10.3(13)	4.0(5)	24.6(31)	100.0 (126)
x^2	17.644						
자녀 한국어·모국어 구사수준 비교							
모국어를 더 잘함	30.8(8)	30.8(8)	23.1(6)	0.0(0)	3.8(1)	11.5(3)	100.0 (26)
한국어를 더 잘함	14.3(50)	28.4(99)	18.6(65)	14.9(52)	4.9(17)	18.9(66)	100.0 (349)
두 언어 비슷함	27.8(10)	47.2(17)	13.9(5)	2.8(1)	0.0(0)	8.3(3)	100.0 (36)
잘 모르겠음	5.9(1)	35.3(6)	11.8(2)	5.9(1)	0.0(0)	41.2(7)	100.0 (17)
x^2	31.554**						

주: 1) 한국어 발달 지체는 '또래보다 매우 지체됨', '또래에 비해 다소 지체됨'응답을 합한 것이며, 보통은 '또래와 비슷함', 한국어 발달 우수는 '또래보다 잘하는 편임', '또래보다 월등히 잘함'응답을 합한 것임.
2)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3) 출신국-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자녀의 한국어와 모국어 습득 순서를 살펴보면 한국어를 먼저 습득하고 이후 모국어를 습득했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고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습득했다는 응답이 20.9%, 현재까지 한국어만 습득했다는 응답이 19.0%순이었다. 출신국가별로 한국어를 먼저 습득했다는 응답이 베트남 53.7%, 중국 48.8%로 많았고, 두 언어를 동시에 습득했다는 응답이 일본이 33.3%로 다소 많았다. 자녀의 일상언어별로는 한국어만 사용하거나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어를 먼저 습득했다는 응답이 각각 46.4%, 53.2%로 다수였고,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습득했다는 응답이 40.3%로 많았다. 자녀의 한국어와 모국어 구사 수준별로도 모국어 습득 순서에 차이가 나타났다. 모국어를 더 잘하는 경우 모국어를 먼저 습득했다는 응답이 50.0%로 많았고, 한국어를 더 잘하는 경우 한국어를 먼저 습득했다는 응답이 63.3%, 두 언어를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 동시에 습득했다는 응답이 55.6%로 높았다.

〈표 Ⅳ-2-7〉 자녀의 한국어와 모국어 습득 순서

단위: %(명)

구분	나의 모국어를 먼저 습득하고, 한국어를 습득함	한국어를 먼저 습득하고, 나의 모국어를 습득함	나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습득함	현재 나의 모국어만 습득함	현재 한국어만 습득함	계 (수)
전체	13.4(71)	46.3(246)	20.9(111)	0.4(2)	19.0(101)	100.0 (531)
출신국						
중국	12.7(27)	48.8(104)	19.2(41)	0.0(0)	19.2(41)	100.0 (213)
베트남	9.7(17)	53.7(94)	20.0(35)	0.0(0)	16.6(29)	100.0 (175)
일본	26.2(11)	19.0(8)	33.3(14)	0.0(0)	21.4(9)	100.0 (42)
기타	15.8(16)	39.6(40)	20.8(21)	2.0(2)	21.8(22)	100.0 (101)
x^2	30.588**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6.5(11)	46.4(78)	3.6(6)	0.0(0)	43.5(73)	100.0 (168)
주로 한국어 사용	11.4(30)	53.2(140)	25.9(68)	0.0(0)	9.5(25)	100.0 (263)
이중언어 사용	30.6(22)	27.8(20)	40.3(29)	0.0(0)	1.4(1)	100.0 (72)
기타	28.6(8)	28.6(8)	28.6(8)	7.1(2)	7.1(2)	100.0 (28)
x^2	193.266***					

구분	나의 모국어를 먼저 습득하고, 한국어를 습득함	한국어를 먼저 습득하고, 나의 모국어를 습득함	나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습득함	현재 나의 모국어만 습득함	현재 한국어만 습득함	계 (수)
자녀 한국어 수준						
한국어 발달 지체	17.3(23)	36.1(48)	21.8(29)	0.8(1)	24.1(32)	100.0 (133)
한국어 발달 보통	14.0(38)	48.5(132)	20.2(55)	0.0(0)	17.3(47)	100.0 (272)
한국어 발달 우수	7.9(10)	52.4(66)	21.4(27)	0.8(1)	17.5(22)	100.0 (126)
x^2	13.279					
자녀 한국어·모국어 구사수준 비교						
모국어를 더 잘함	50.0(13)	42.3(11)	7.7(2)	0.0(0)	0.0(0)	100.0 (26)
한국어를 더 잘함	12.6(44)	63.3(221)	24.1(84)	0.0(0)	0.0(0)	100.0 (349)
두 언어 비슷함	27.8(10)	16.7(6)	55.6(20)	0.0(0)	0.0(0)	100.0 (36)
잘 모르겠음	23.5(4)	47.1(8)	29.4(5)	0.0(0)	0.0(0)	100.0 (17)
x^2	53.974***					

주: 1) 한국어 발달 지체는 '또래보다 매우 지체됨', '또래에 비해 다소 지체됨'응답을 합한 것이며, 보통은 '또래와 비슷함', 한국어 발달 우수는 '또래보다 잘하는 편임', '또래보다 월등히 잘함'응답을 합한 것임.
2)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3) 출신국-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다. 한국어와 모국어 구사 수준

다음은 자녀의 모국어 구사 정도를 듣기와 말하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구사 수준을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듣기는 평균 3.1점, 말하기는 2.9점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듣기 4.0점, 말하기 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베트남이 듣기 2.9점, 말하기 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듣기 3.2점, 말하기 3.0점으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이 듣기 3.0점, 말하기 2.8점인 것에 비해 높았다. 자녀가 사용하는 일상언어가 이중언어인 경우 듣기 4.0점, 말하기 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어만 구사하는 경우 듣기 2.4점, 말하기 2.2점으로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8〉 자녀의 모국어 구사 정도

단위: 점

구분	듣기	말하기
전체	3.1	2.9
출신국		
중국	3.1	2.8
베트남	2.9	2.7
일본	4.0	3.6
기타	3.2	2.9
F	16.787***	11.173***
지역규모		
대도시	3.2	3.0
중소도시	3.0	2.8
농산어촌	3.0	2.8
F	1.368	3.111*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2.4	2.2
주로 한국어 사용	3.2	3.0
이중언어 사용	4.0	3.8
기타	4.0	3.6
F	76.748***	93.909***
자녀 한국어 수준		
한국어 발달 지체	3.1	2.8
한국어 발달 보통	3.1	2.9
한국어 발달 우수	3.1	2.9
F	0.035	0.829

주: 1) 한국어 발달 지체는 '또래보다 매우 지체됨', '또래에 비해 다소 지체됨'응답을 합한 것이며, 보통은 '또래와 비슷함', 한국어 발달 우수는 '또래보다 잘하는 편임', '또래보다 월등히 잘함' 응답을 합한 것임.
2)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3) 출신국-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자녀의 한국어와 모국어 구사 수준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한국어를 모국어보다 잘한다는 응답이 81.5%로 가장 많았으며, 비슷한 수준으로 구사하는 경우 8.4%, 모국어를 더 잘하는 경우 6.1% 순이었다.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은 한국어를 더 잘 한다는 응답이 83.6%로 많았으나, 일본은 비슷한 수준으로 구사한

다는 응답이 27.3%로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자녀 연령별로 모든 연령이 한국어를 더 잘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만3세의 경우 비슷하게 구사한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자녀의 일상언어별로는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어를 더 잘한다는 응답이 90.3%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더 잘한다는 응답은 57.7%, 두언어를 비슷하게 사용한다는 응답 28.2%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어 구사 수준별로는 보통과 우수한 경우에 한국어를 더 잘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모국어를 더 잘하거나 비슷하다는 응답은 한국어 구사 수준이 지체인 경우보다 낮았다.

〈표 Ⅳ-2-9〉 자녀의 한국어와 모국어 구사 수준 비교

단위: %(명)

구분	나의 모국어를 한국어보다 잘함	한국어를 나의 모국어보다 잘함	나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비슷한 수준으로 구사함	잘 모르겠음	계 (수)
전체	6.1(26)	81.5(349)	8.4(36)	4.0(17)	100.0 (428)
출신국					
중국	2.3(4)	84.3(145)	7.0(12)	6.4(11)	100.0 (172)
베트남	8.2(12)	83.6(122)	6.8(10)	1.4(2)	100.0 (146)
일본	12.1(4)	60.6(20)	27.3(9)	0.0(0)	100.0 (33)
기타	7.8(6)	80.5(62)	6.5(5)	5.2(4)	100.0 (77)
x^2	31.233***				
자녀 연령					
만3세	4.1(5)	74.6(91)	13.1(16)	8.2(10)	100.0 (122)
만4세	7.1(8)	82.3(93)	7.1(8)	3.5(4)	100.0 (113)
만5세	6.7(13)	85.5(165)	6.2(12)	1.6(3)	100.0 (193)
x^2	15.138*				
지역규모					
대도시	8.6(14)	77.3(126)	11.7(19)	2.5(4)	100.0 (163)
중소도시	3.5(6)	83.2(144)	6.9(12)	6.4(11)	100.0 (173)
농산어촌	6.5(6)	85.9(79)	5.4(5)	2.2(2)	100.0 (92)
x^2	11.925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5.3(5)	85.3(81)	2.1(2)	7.4(7)	100.0 (95)
주로 한국어 사용	2.9(7)	90.3(215)	3.4(8)	3.4(8)	100.0 (238)

구분	나의 모국어를 한국어보다 잘함	한국어를 나의 모국어보다 잘함	나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비슷한 수준으로 구사함	잘 모르겠음	계 (수)
이중언어 사용	12.7(9)	57.7(41)	28.2(20)	1.4(1)	100.0 (71)
기타	20.8(5)	50.0(12)	25.0(6)	4.2(1)	100.0 (24)
x^2	84.596***				
자녀 한국어 수준					
한국어 발달 지체	8.0(8)	70.0(70)	11.0(11)	11.0(11)	100.0 (100)
한국어 발달 보통	5.3(12)	84.4(190)	8.0(18)	2.2(5)	100.0 (225)
한국어 발달 우수	5.8(6)	86.4(89)	6.8(7)	1.0(1)	100.0 (103)
x^2	20.656**				

주: 1) 한국어 발달 지체는 '또래보다 매우 지체됨', '또래에 비해 다소 지체됨'응답을 합한 것이며, 보통 은 '또래와 비슷함', 한국어 발달 우수는 '또래보다 잘하는 편임', '또래보다 월등히 잘함' 응답을 합한 것임.
2)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3) 출신국-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라. 언어 습득 시 어려움

자녀의 한국어 습득 시 어려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 50.7%, 없다는 응답 49.3%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출신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63.4%, 일본 57.1%, 중국 45.1% 순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역규모별로도 차이가 나타나 대도시 61.5%, 농산어촌 51.6%, 중소도시 40.2% 순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녀의 한국어 수준별로는 지체인 경우 72.9%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인 경우 47.4%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한국어 구사 수준별로도 차이가 나타나, 응답자가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경우 76.5%, 전혀 못하는 경우 75.0%,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58.4% 순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즉, 결혼이민자 부모의 한국어 구사 정도는 자녀의 한국어 습득 과정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10〉 자녀의 한국어 습득 시 어려움 여부

단위: %(명)

구분	어려움 있음	어려움 없음	계 (수)
전체	50.7(269)	49.3(262)	100.0 (531)
출신국			
중국	45.1(96)	54.9(117)	100.0 (213)
베트남	63.4(111)	36.6(64)	100.0 (175)
일본	57.1(24)	42.9(18)	100.0 (42)
기타	37.6(38)	62.4(63)	100.0 (101)
x^2	21.650***		
자녀 연령			
만3세	53.0(79)	47.0(70)	100.0 (149)
만4세	48.0(61)	52.0(66)	100.0 (127)
만5세	50.6(129)	49.4(126)	100.0 (255)
x^2	0.684		
지역규모			
대도시	61.5(120)	38.5(75)	100.0 (195)
중소도시	40.2(86)	59.8(128)	100.0 (214)
농산어촌	51.6(63)	48.4(59)	100.0 (122)
x^2	18.670***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46.4(78)	53.6(90)	100.0 (168)
주로 한국어 사용	51.3(135)	48.7(128)	100.0 (263)
이중언어 사용	51.4(37)	48.6(35)	100.0 (72)
기타	67.9(19)	32.1(9)	100.0 (28)
x^2	4.579		
자녀 한국어 수준			
한국어 발달 지체	72.9(97)	27.1(36)	100.0 (133)
한국어 발달 보통	47.4(129)	52.6(143)	100.0 (272)
한국어 발달 우수	34.1(43)	65.9(83)	100.0 (126)
x^2	41.311***		
응답자의 한국어 구사 수준			
매우 유창함	28.2(22)	71.8(56)	100.0 (78)
유창한 편임	48.4(103)	51.6(110)	100.0 (213)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함	58.4(128)	41.6(91)	100.0 (219)
거의 못함	76.5(13)	23.5(4)	100.0 (17)
전혀 못함	75.0(3)	25.0(1)	100.0 (4)
x^2	26.979***		

주: 1) 한국어 발달 지체는 '또래보다 매우 지체됨', '또래에 비해 다소 지체됨'응답을 합한 것이며, 보통은 '또래와 비슷함', 한국어 발달 우수는 '또래보다 잘하는 편임', '또래보다 월등히 잘함' 응답을 합한 것임.
2)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3) 출신국-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결과임.

*** p 〈 .001,

자녀의 한국어 습득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1순위(51.3%) 및 1·2순위(7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가 한국어와 나의 모국어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한다'는 응답이 1순위(32.0%) 및 1·2순위(54.3%)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2순위 응답에서는 한국 출신 부모가 자녀와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응답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2-11〉 자녀의 한국어 습득 시 어려운 점(1순위, 2순위, 1+2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나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웠음	51.3(138)	27.1(73)	78.1(210)
자녀가 한국어와 나의 모국어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함	32.0(86)	22.3(60)	54.3(146)
한국 출신 부모가 자녀와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부족했음	10.0(27)	33.1(89)	43.1(116)
자녀가 나의 모국어로만 이야기하려고 함	2.2(6)	6.7(18)	8.9(24)
해외에 오래 거주하는 등 한국어를 듣거나 접할 기회가 적었음	1.9(5)	5.6(15)	7.4(20)
기타	2.6(7)	5.2(14)	7.8(21)
(수)	(269)	(269)	(537)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결과임.

자녀의 모국어 습득 시 어려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 81.2%, 없다는 응답 18.8%로 거의 대부분 모국어 습득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별로는 일본 92.9%, 베트남 86.3%, 중국 80.8%순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86.7%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녀의 일상 언어가 한국어인 경우 88.7%,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80.2%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70.8%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다소 적었다.

〈표 Ⅳ-2-12〉 자녀의 모국어 습득 시 어려움 여부

단위: %(명)

구분	어려움 있었음	어려움 없었음	계 (수)
전체	81.2(431)	18.8(100)	100.0 (531)
출신국			
중국	80.8(172)	19.2(41)	100.0 (213)

구분	어려움 있었음	어려움 없었음	계 (수)
베트남	86.3(151)	13.7(24)	100.0 (175)
일본	92.9(39)	7.1(3)	100.0 (42)
기타	68.3(69)	31.7(32)	100.0 (101)
x^2	17.689***		
자녀 연령			
만3세	75.8(113)	24.2(36)	100.0 (149)
만4세	84.3(107)	15.7(20)	100.0 (127)
만5세	82.7(211)	17.3(44)	100.0 (255)
x^2	3.973		
지역규모			
대도시	86.7(169)	13.3(26)	100.0 (195)
중소도시	77.6(166)	22.4(48)	100.0 (214)
농산어촌	78.7(96)	21.3(26)	100.0 (122)
x^2	6.160*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88.7(149)	11.3(19)	100.0 (168)
주로 한국어 사용	80.2(211)	19.8(52)	100.0 (263)
이중언어 사용	70.8(51)	29.2(21)	100.0 (72)
기타	71.4(20)	28.6(8)	100.0 (28)
x^2	13.140**		

주: 1)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2) 출신국-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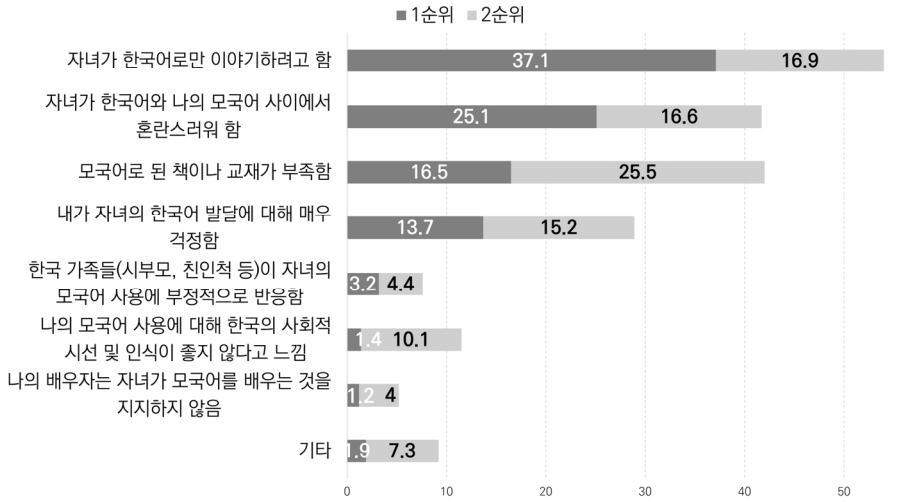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자녀의 모국어 습득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녀가 한국어로만 이야기하려고 함'에 대한 응답이 1순위(37.1%) 및 1·2순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가 한국어와 나의 모국어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한다'는 응답이 1순위에서 25.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모국어로 된 책이나 교재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1·2순위 합산 순위에서 42.0%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림 Ⅳ-2-1] 자녀의 모국어 습득 시 어려운 점(1순위, 2순위, 1+2순위)

단위: %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결과임.

3. 자녀 돌봄 및 이중언어 관련 인식 및 부모 역량

가.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양육 정서

가정 내에서 자녀와 가장 많이 의사소통하는 가족은 본인(결혼이민자)이라는 응답이 81.5%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가 14.7%, 조부모 2.8%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은 출신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국과 일본에 비해 베트남과 기타 국가에서 '배우자'가 자녀와 가장 많이 의사소통한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베트남과 기타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 수준이 중국 및 일본 출신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 수준이 자녀와의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3-1〉 가정 내에서 자녀와 가장 많이 의사소통하는 가족

단위: %(명)

구분	본인	배우자	조부모	친인척+기타	계 (수)
전체	81.5(433)	14.7(78)	2.8(15)	1.0(5)	100.0 (531)
출신국					
중국	91.5(195)	4.2(9)	3.3(7)	0.9(2)	100.0 (213)

구분	본인	배우자	조부모	친인척+기타	계 (수)
베트남	69.7(122)	25.7(45)	3.4(6)	1.2(2)	100.0 (175)
일본	97.6(41)	2.4(1)	0.0(0)	0.0(0)	100.0 (42)
기타	74.3(75)	22.8(23)	2.0(2)	1.0(1)	100.0 (101)
χ^2	51.217***				

주: 1) 출신국-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결과임.
*** $p < .001$,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정서에 대한 6문항을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응답결과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23]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분류되었다. 신뢰도 평가를 위해 각 요인의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을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 요인은 0.793, 부정적 정서는 0.660으로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분석에 적합한 내적 신뢰도를 보였다.

자녀 양육에서 느끼는 행복감과 자기 성장 인지는 모두 4.3점으로 긍정적 정서의 평균은 4.3점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의 평균은 3.1점으로 긍정적 정서 보다 낮게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 중에서 자녀 양육 시 혼란스러움이 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느껴진다는 항목은 2.7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Ⅳ-3-2〉 부모의 자녀양육 정서 평균 및 척도 신뢰도

요인	항목	평균	요인별 평균
긍정적 정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4.3	4.3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4.3	
	신뢰도(Cronbach's α)		.793
부정적 정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3.3	3.1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	2.7	
	자녀가 장래에 잘 성장할지 걱정된다.	3.2	
	자녀에게 남들만큼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생각이 든다.	3.0	
	신뢰도(Cronbach's α)		.660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23) KMO와 Bartlett의 검정 실시(KMO 측도= .603, 유의확률= .000),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실시.

자녀가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일상언어에 따른 부모의 자녀 양육 정서를 살펴보면,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부모가 다른 집단의 부모보다 자녀 양육 시 긍정적 정서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에서 자녀 양육 시 느끼는 행복감은 5점 만점에서 평균 4.5점이었으며, 자녀 양육 시 자기 성장 인지는 4.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정서 중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느껴진다는 응답은 이중언어 사용 집단에서 2.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출신국별로는 중국 및 기타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는 자녀 양육 시 자기 성장 인지 정도가 4.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집단에서 4.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자녀 양육 시 부정적 정서에서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자녀 양육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자녀의 장래 성장에 대한 걱정 및 상대적 비교에서 오는 자녀에 대한 미안한 감정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났다. 기타 출신 결혼이민자 집단은 자녀의 장래 성장에 대한 걱정 정도가 가장 높았다.

자녀의 한국어 구사 수준 간 긍정적 정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한국어 발달이 지체될수록 부정적 정서 중에서 자녀 양육 시 혼란스러움과 자녀의 장래 성장에 대한 걱정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본인의 한국어 구사수준에 따른 결과를 보면, 한국어가 유창할수록 긍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녀 양육 시 자기 성장 인지 항목에서 결혼이민자 부모의 한국어 구사 수준 집단 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에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자녀의 장래 성장에 대한 걱정 부분에서 한국어가 유창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에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어가 매우 유창하다고 응답한 경우 자녀의 장래 성장에 대한 걱정이 2.8점에 그쳤으나, 한국어를 거의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3.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3-3〉 특성별 부모의 자녀양육 정서

단위: 점

구분	부모의 자녀양육 정서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4.3	4.3	3.3	2.7	3.2	3.0
출신국						
중국	4.3	4.4	3.4	3.2	3.0	3.0
베트남	4.2	4.1	3.3	1.9	3.2	2.9
일본	4.2	4.2	3.2	2.5	3.4	3.3
기타	4.4	4.4	3.3	2.9	3.6	3.2
F	0.748	4.436**	0.546	63.119***	7.450***	2.549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4.2	4.1	3.4	2.8	3.3	3.2
주로 한국어 사용	4.3	4.3	3.3	2.6	3.2	3.0
이중언어 사용	4.5	4.4	3.3	2.4	3.2	2.8
기타	4.3	4.3	3.2	2.8	3.6	3.0
F	2.849*	4.012**	0.561	2.915*	1.146	1.347
자녀 한국어 수준						
한국어 발달 지체	4.2	4.1	3.5	2.8	3.4	3.2
한국어 발달 표준	4.3	4.3	3.3	2.7	3.2	3.0
한국어 발달 우수	4.5	4.3	3.2	2.5	3.0	3.0
F	2.549	1.925	4.771**	2.202	4.877**	2.619
본인의 한국어 구사 수준						
매우 유창함	4.4	4.4	3.3	2.8	2.8	2.9
유창한 편임	4.3	4.4	3.3	2.7	3.1	3.0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함	4.3	4.2	3.4	2.6	3.4	3.1
거의 못함	4.1	3.8	3.8	2.4	3.9	3.3
전혀 못함	3.5	3.8	2.8	3.0	3.3	3.3
F	1.304	4.013**	1.696	1.061	5.797***	0.975

주: 1) ① 자녀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②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③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④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
⑤ 자녀가 장래에 잘 성장할지 걱정된다.
⑥ 자녀에게 남들만큼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생각이 든다.
2) 한국어 발달 지체는 '또래보다 매우 지체됨', '또래에 비해 다소 지체됨'응답을 합한 것이며, 보통은 '또래와 비슷함', 한국어 발달 우수는 '또래보다 잘하는 편임', '또래보다 월등히 잘함'응답을 합한 것임.
3)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4) 출신국-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

자료: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부모 역할 효능감 및 지지 자원

결혼이민자 부모의 부모 역할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부모 역할 수행 정도를 5점 척도로 7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크론바흐 알파 값은 0.892로 설문의 내적 신뢰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부모 역할효능감의 전체 평균은 3.6점이었으며, 이 중에서 자녀에 대한 정서적지지 역할 수행 정도는 3.8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업 지도가 3.5점으로 가장 낮았다.

출신국별로는 일본이 평균 3.4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 3.6점, 베트남 3.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 집단의 경우 정서적 측면이나 생활지도 부분 보다는 학업지도, 경제적 지원, 자녀에게 필요한 정보 습득 등 외부적인 요인이나 한국어 구사정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에서 부모 역할 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부모 역할 효능감이 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한국어만 사용할 경우는 3.5점으로 결혼이민자 부모의 역할 효능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부모 역할 효능감을 보였으며, 특히 정서적지지 측면에서 평균 4.1점으로 가장 높은 부모 역할 효능감을 나타냈다. 자녀의 한국어 발달 수준에서는 발달이 우수한 집단의 효능감이 평균 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어 발달이 지체된 집단에서는 3.4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모든 부모 역할 수행 항목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본인의 한국어 구사 수준에서는 매우 유창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부모 역할 효능감이 3.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창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3.7점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하는 집단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부모 역할 효능감이 가장 높은 반면, 한국어를 거의 못한다고 응답한 집단은 경제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부모 역할 효능감을 보였다.

〈표 Ⅳ-3-4〉 특성별 부모 역할 효능감

단위: 점

구분	부모 역할 효능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전체	3.7	3.8	3.6	3.7	3.5	3.6	3.7	3.6
출신국								
중국	3.6	3.6	3.6	3.8	3.5	3.6	3.7	3.6
베트남	3.5	4.0	3.5	3.6	3.6	3.8	3.8	3.7
일본	3.6	3.7	3.6	3.6	3.0	3.1	3.1	3.4
기타	4.0	4.0	3.8	3.9	3.6	3.5	3.7	3.8
F	7.466***	8.083***	3.171*	3.882**	6.571***	6.248***	7.994***	3.878**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3.5	3.6	3.4	3.5	3.3	3.5	3.5	3.5
주로 한국어 사용	3.7	3.9	3.6	3.8	3.5	3.6	3.7	3.7
이중언어 사용	3.9	4.1	3.9	3.9	3.7	3.7	3.7	3.8
기타	3.9	3.9	3.6	4.0	3.6	3.6	3.5	3.7
F	2.827*	5.879***	5.658***	6.295***	4.201**	1.628	2.138	5.676***
자녀 한국어 수준								
한국어 발달 지체	3.3	3.6	3.3	3.5	3.2	3.4	3.4	3.4
한국어 발달 표준	3.7	3.8	3.6	3.8	3.5	3.6	3.7	3.7
한국어 발달 우수	3.9	4.0	3.8	3.8	3.7	3.8	3.9	3.8
F	12.001***	6.399**	12.728***	6.855**	12.246***	5.227**	8.764***	14.554***
본인의 한국어 구사 수준								
매우 유창함	4.0	4.0	3.9	4.0	3.7	3.8	3.8	3.9
유창한 편임	3.7	3.8	3.6	3.8	3.5	3.7	3.7	3.7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	3.6	3.8	3.4	3.6	3.4	3.5	3.6	3.5
거의 못함	3.2	3.7	3.2	3.4	2.9	3.4	3.2	3.3
전혀 못함	3.5	3.8	3.3	4.0	3.3	3.3	3.5	3.5
F	4.158**	1.701	6.349***	4.087**	4.172**	3.611**	2.684*	5.664***

주: 1) ① 자녀와의 소통. ② 자녀에 대한 정서적지지, ③ 일반적인 자녀 양육 지식, ④ 자녀의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⑤ 학업/공부 지도, ⑥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⑦ 자녀에게 필요한 정보 습득
2) Cronbach's α= .892(7개 항목)
3) 한국어 발달 지체는 '또래보다 매우 지체됨', '또래에 비해 다소 지체됨'응답을 합한 것이며, 보통은 '또래와 비슷함', 한국어 발달 우수는 '또래보다 잘하는 편임', '또래보다 월등히 잘함'응답을 합한 것임.
4)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5) 출신국-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결혼이민자 부모가 자녀 양육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자원을 살펴본 결과, 5점 만점에 전체 평균 2.9점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4개 항목 중 배우자의 자녀 양육 시 적극적인 참여가 3.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 항목은 모두 2.7점에 그쳤다.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출신국별로는 기타 국가 집단이 3.1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이 2.9점, 베트남과 일본이 2.8점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집단에서는 특히 자녀 돌봄에 도움을 제공하는 친구 또는 이웃에 대한 응답이 2.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긴급돌봄 필요 시 이용 가능한 기관 및 서비스라는 응답도 2.4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 집단은 지역 내에 유치원, 어린이집 외에 자녀의 이용 시설 및 서비스의 충분성을 2.5점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적극성이 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국어를 주로 사용하거나 제3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타 집단에서는 3.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자녀의 한국어 발달 수준별로는 자녀의 한국어 발달이 지체된 경우 자녀 양육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 부모가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립되어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의 한국어 발달이 지체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 수준은 자녀 양육 지원 환경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3-5〉 특성별 자녀양육 지지 자원

단위: 점

구분	자녀 양육 지지 자원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적극성	자녀 돌봄에 도움 제공하는 가족 또는 친구/이웃	긴급돌봄 필요 시 이용 가능한 기관 및 서비스	지역 내에 유치원, 어린이집 외에 자녀의 이용 시설 및 서비스의 충분성	전체
전체	3.5	2.7	2.7	2.7	2.9
출신국					
중국	3.6	2.8	2.7	2.5	2.9
베트남	3.5	2.3	2.4	2.8	2.8
일본	3.2	2.8	2.6	2.5	2.8
기타	3.5	2.9	3.0	3.0	3.1

구분	자녀 양육 지지 자원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적극성	자녀 돌봄에 도움 제공하는 가족 또는 친구/이웃	긴급돌봄 필요 시 이용 가능한 기관 및 서비스	지역 내에 유치원, 어린이집 외에 자녀의 이용 시설 및 서비스의 충분성	전체
F	1.222	8.125***	5.229**	6.805***	4.219**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3.5	2.5	2.6	2.7	2.8
주로 한국어 사용	3.5	2.7	2.7	2.7	2.9
이중언어 사용	3.9	2.8	2.5	2.8	3.0
기타	3.1	2.8	3.1	3.0	3.0
F	4.019**	1.716	2.158	0.755	1.468
자녀 한국어 수준					
한국어 발달 지체	3.3	2.3	2.4	2.5	2.6
한국어 발달 표준	3.6	2.7	2.8	2.8	3.0
한국어 발달 우수	3.7	2.8	2.6	2.8	3.0
F	5.629**	5.889**	4.301*	2.405	8.020***
본인의 한국어 구사 수준					
매우 유창함	3.5	2.9	2.7	2.7	3.0
유창한 편임	3.6	2.7	2.7	2.6	2.9
기본적인 의사소통 가능	3.5	2.5	2.6	2.8	2.9
거의 못함	3.2	2.4	2.2	2.7	2.6
전혀 못함	3.8	3.0	3.0	3.5	3.3
F	0.905	2.039	0.751	1.474	0.996

주: Cronbach's α= .684(4개 항목)

1) 한국어 발달 지체는 '또래보다 매우 지체됨', '또래에 비해 다소 지체됨'응답을 합한 것이며, 보통 은 '또래와 비슷함', 한국어 발달 우수는 '또래보다 잘하는 편임', '또래보다 월등히 잘함'응답을 합한 것임.

2)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3) 출신국-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 이중언어 인식 및 태도

이중언어 습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5점 척도로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긍정적 영향의 평균은 4.3점, 부정적 영향의 평균은 2.1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중국은 '장래에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4.5점)과 '다문화 배경에 대해 긍정적 정체감 가짐'(4.4점)을 긍정적으로 보았고, '부모 자녀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맺음'에 대해서는 일본(4.7점)과 베트남(4.2점)이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베트남이 평균 1.8점으로 가장 낮아 이중언어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경향이 다른 국가에 비해 있다. 자녀의 일상언어별로는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부모 자녀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맺음'(4.6점)을 가장 긍정적 영향으로 보았고, '자녀의 언어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1.5점)을 가장 부정적 영향으로 보았다.

〈표 Ⅳ-3-6〉 이중언어 습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구분	긍정적 영향(영역 1)				부정적 영향(영역 2)		
	부모 자녀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맺음	장래에 진학이나 취업에서 장점(경쟁력)으로 작용	자녀가 다문화 배경에 대해 긍정적 정체성 가짐	영역 1 평균	자녀의 언어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자녀의 한국 사회 적응에 문제됨	영역 2 평균
전체	4.3	4.3	4.2	4.3	2.1	2.1	2.1
출신국							
중국	4.2	4.5	4.4	4.3	2.1	2.2	2.2
베트남	4.2	3.9	3.8	4.0	1.9	1.8	1.8
일본	4.7	4.7	4.5	4.6	2.1	2.1	2.1
기타	4.3	4.4	4.3	4.4	2.4	2.2	2.3
F	3.522*	15.017***	15.636***	10.698***	4.886**	6.044***	6.125***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4.1	4.3	4.0	4.1	2.3	2.3	2.3
주로 한국어 사용	4.3	4.3	4.2	4.3	2.1	2.0	2.1
이중언어 사용	4.6	4.4	4.3	4.4	1.5	1.7	1.6
기타	4.6	4.4	4.3	4.5	2.2	2.1	2.2
F	6.471***	0.608	1.831	3.033*	8.089***	4.004**	6.685***

구분	긍정적 영향(영역 1)				부정적 영향(영역 2)		
	부모 자녀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맺음	장래에 진학이나 취업에서 장점(경쟁력)으로 작용	자녀가 다문화 배경에 대해 긍정적 정체성 가짐	영역 1 평균	자녀의 언어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자녀의 한국 사회 적응에 문제됨	영역 2 평균
자녀 한국어 수준							
한국어 발달 지체	4.4	4.4	4.1	4.3	2.3	2.2	2.3
한국어 발달 보통	4.3	4.4	4.2	4.3	2.1	2.0	2.0
한국어 발달 우수	4.1	4.1	4.1	4.1	2.0	2.0	2.0
F	2.056	3.268*	1.384	2.081	2.916	2.299	3.051*

주: 1) 한국어 발달 지체는 '또래보다 매우 지체됨', '또래에 비해 다소 지체됨'응답을 합한 것이며, 보통은 '또래와 비슷함', 한국어 발달 우수는 '또래보다 잘하는 편임', '또래보다 월등히 잘함'응답을 합한 것임.
2)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3) 출신국-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태도와 관련된 15문항을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24]그 결과 3개의 주성분 요인이 도출되었는데, 응답자(결혼이민자 부모)가 자녀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해 가진 태도,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가족의 태도, 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로 구분되었다. 크론바흐 알파값은 각각 0.798, 0.886, 0.836으로 모두 높은 내적 신뢰도를 보였다.

먼저, 자녀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4.3점이며, 이 요인에서는 본인이 자녀의 모국어 사용에 지지적이라는 응답이 4.5점으로 가장 높았다. 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도 4.3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자신의 출신에 대한 자부심이 4.5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본인의 한국어 습득과 한국문화 이해가 자녀의 이중문화 수용에 중요하다는 응답도 4.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인 요인은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가족의 태도로 3.1점에 그쳤다. 자녀의 모국어 사용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적 태도는 4.2점

24) KMO와 Bartlett의 검정 실시(KMO 측도= .893, 유의확률= .000),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실시.

으로 해당 요인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배우려는 노력은 2.9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Ⅳ-3-7〉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태도 평균 및 척도 신뢰도

요인	항목	평균	요인별 평균/신뢰도
자녀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	나는 자녀가 나의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지지한다.	4.5	4.3
	나는 자녀가 한국어와 나의 모국어를 모두 능통하게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2	
	나는 자녀가 나의 모국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3	
	신뢰도(Cronbach's α)		.798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가족의 태도	나의 배우자는 자녀가 나의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지지한다.	4.2	3.1
	한국 가족들은(부모/시부모, 친인척) 자녀가 나의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지지한다.	3.8	
	나의 자녀는 나의 모국어를 배우고자 노력한다.	3.5	
	나의 배우자는 나의 모국어를 배우고자 노력한다.	2.9	
	나의 가족은 나의 모국 문화(음식, 명절 등)를 함께하고자 노력한다.	3.4	
	나의 배우자 및 가족은 내가 모국인 친구와 만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3.9	
	나는 자녀가 나의 모국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9	
	신뢰도(Cronbach's α)		.886
결혼이민자(본인)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	내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자녀의 이중문화 수용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4	4.3
	나는 한국이웃들과 잘 어울리려고 노력한다.	4.1	
	나는 한국의 전통과 풍습을 익히고 가족들과 함께하고자 노력한다.	4.3	
	나는 한국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4.0	
	나는 나의 모국 출신이라는 점이 자랑스럽다.	4.5	
	신뢰도(Cronbach's α)		.836
전체			.897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출신국, 자녀의 일상언어, 자녀의 한국어 발달 수준별로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태도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출신국별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베트남은 전체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에서 3.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특히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및 가족이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태도가 모두 4.2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는 본인 스스로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는 자녀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가정 내 일상언어별로는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이 3.8점으로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중언어 사용이나 기타 집단이 4.2점으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본인의 태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녀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에서 다소 긍정적이었다. 특히,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가족의 태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가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은 3.4점에 그쳐 가족이 이중언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기 어려움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표 Ⅳ-3-8〉 특성별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분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			
	자녀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가족의 태도	결혼이민자(본인)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	전체
전체	4.3	3.7	4.3	4.0
출신국				
중국	4.6	3.9	4.5	4.2
베트남	3.9	3.2	4.1	3.6
일본	4.7	3.9	4.2	4.2
기타	4.3	3.7	4.2	4.0
F	34.602***	27.950***	9.630***	32.609***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4.2	3.4	4.2	3.8
주로 한국어 사용	4.3	3.7	4.3	4.0

구분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			
	자녀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가족의 태도	결혼이민자(본인)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	전체
이중언어 사용	4.5	4.0	4.3	4.2
기타	4.4	3.9	4.4	4.2
F	2.639*	12.198***	0.299	6.995***
자녀 한국어 수준				
한국어 발달 지체	4.2	3.6	4.2	3.9
한국어 발달 표준	4.4	3.7	4.4	4.0
한국어 발달 우수	4.2	3.7	4.2	4.0
F	2.279	0.460	3.957*	1.850

주: 1) 한국어 발달 지체는 '또래보다 매우 지체됨', '또래에 비해 다소 지체됨'응답을 합한 것이며, 보통은 '또래와 비슷함', 한국어 발달 우수는 '또래보다 잘하는 편임', '또래보다 월등히 잘함'응답을 합한 것임.
2)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3) 출신국-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결혼이민자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한국사회의 이중언어 관련 인식과 지지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전체 평균 3.4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문화 아동이 이중언어를 구사할 경우 한국 사회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응답이 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언어별 차별 없이 모국어 습득이 가능한 사회라는 항목에서 3.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모든 집단 간 차이 검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결혼이민자는 한국 사회의 이중언어 환경 중에서도 언어 간 차별이나 위계 부분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신국별로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전체 평균이 3.2점으로 한국사회의 이중언어 인식 및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는 3.6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베트남은 일반적인 국민이 다문화 아동의 모국어 습득을 다소 부정적으로 본다고 인식(2.7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교육·보육 기관이나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중언어 사용 지지 정도가 낮고, 다문화 아동의 모국어 습득 지원 서비스가 불충분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 환경에서 한국사회의 인식 자체에 대한 문제를 크게 인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 부모는 지원적 환경 체계의 부족을 크게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의 일상언어로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이 한국사회의 이중언어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집단은 교육·보육기관이나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이중언어 사용지지 정도와 다문화 아동에 대한 모국어 습득 지원 서비스 정도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9〉 한국사회의 이중언어 인식 및 환경 정도

단위: 점

구분	한국사회의 이중언어 인식 및 환경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전체	3.5	3.2	3.1	3.3	3.4	4.2	3.4
출신국							
중국	3.5	3.5	3.2	3.5	3.6	4.5	3.6
베트남	3.5	2.7	3.0	3.0	3.2	3.8	3.2
일본	3.3	3.4	2.9	2.8	2.8	4.4	3.3
기타	3.5	3.4	3.2	3.4	3.4	4.0	3.5
F	0.677	24.975***	2.197	9.542***	10.014***	21.783***	12.378***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3.4	3.1	3.0	3.1	3.2	4.1	3.3
주로 한국어 사용	3.5	3.2	3.2	3.3	3.5	4.2	3.5
이중언어 사용	3.6	3.2	2.9	3.3	3.4	4.2	3.4
기타	3.7	3.5	3.3	3.7	3.6	4.0	3.6
F	1.960	1.328	2.124	2.869*	3.807*	1.413	2.878*
자녀 한국어 수준							
한국어 발달 지체	3.4	3.1	3.0	3.1	3.3	4.2	3.4
한국어 발달 표준	3.5	3.2	3.1	3.3	3.4	4.2	3.5
한국어 발달 우수	3.5	3.2	3.2	3.3	3.4	4.1	3.4
F	0.706	0.498	1.234	1.177	1.145	1.487	0.892

주: 1) ① 한국사회는 다양한 외국 문화에 대해 수용적이다.
②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국민은 다문화 아동의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 습득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③ 한국사회는 언어별 차별 없이 모든 모국어 습득에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④ 다문화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중언어 사용을 지지 받는다.
⑤ 한국사회는 다문화 아동이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서비스가 충분하다.
⑥ 다문화 아동이 이중언어를 사용하면, 한국사회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2) Cronbach's α= .814(6개 항목)
3) 한국어 발달 지체는 '또래보다 매우 지체됨', '또래에 비해 다소 지체됨'응답을 합한 것이며, 보통은 '또래와 비슷함', 한국어 발달 우수는 '또래보다 잘하는 편임', '또래보다 월등히 잘함'응답을 합한 것임.
4)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5) 출신국-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라. 자녀의 모국어 습득을 위한 노력

자녀가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를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5점 척도로 10문항을 물었다. 그 결과에 대한 요인분석[25]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주성분 요인이 도출되었다. 일상적인 모국어 지도 노력 요인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0.917이며, 지지 및 기회 제공 노력 요인은 0.771로 두 요인을 구성하는 설문 문항 모두 높은 내적 신뢰도를 보였다.

일상적인 모국어 지도 노력의 전체 평균은 3.4점으로, 3.8점인 지지 및 기회 제공 노력보다 0.4점 낮게 나타났다. 일상적인 모국어 지도 노력 요인 중에 일상생활에서 모국어를 사용하여 자녀와 이야기하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이 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에게 모국어로 된 책을 읽어주거나 학습지나 낱말카드 등을 활용하여 모국어를 가르친다는 항목이 3.2점으로 가장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모국어 습득을 위한지지 및 기회 제공 노력에서는 자녀가 모국어를 사용할 때 칭찬하고 격려한다는 응답이 3.9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Ⅳ-3-10〉 자녀의 모국어 습득을 위한 노력 정도

단위: 점

요인	항목	평균	요인별 평균
일상적인 모국어 지도 노력	나는 일상생활에서 모국어를 사용하여 자녀와 이야기하려고 노력한다.	3.8	3.4
	나는 자녀에게 모국의 방송 및 영상을 보여준다.	3.4	
	나는 자녀에게 모국어로 된 책을 읽어준다.	3.2	
	나는 자녀에게 모국어로 된 노래를 불러준다.	3.5	
	나는 자녀와 함께 모국어로 다양한 놀이를 한다.	3.3	
	나는 학습지나 낱말카드 등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친다.	3.2	
	신뢰도(Cronbach's α)		.917

25) KMO와 Bartlett의 검정 실시(KMO 측도= .932, 유의확률= .000), 베리멕스 회전(Varimax rotation) 실시.

요인	항목	평균	요인별 평균
지지 및 기회 제공 노력	나와 배우자는 자녀가 나의 모국어를 사용할 때 칭찬하고 격려한다.	3.9	3.8
	나는 자녀가 함께 모국 출신 사람들을 만나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3.7	
	나는 자녀가 모국어를 사용하여 모국의 가족과 자주 통화하도록 한다.	3.7	
	나와 배우자는 기회가 될 때마다 자녀와 함께 모국을 방문한다.	3.8	
	신뢰도(Cronbach's α)		.771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출신국별로 자녀의 모국어 습득을 위해 노력을 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일본이 4.0점으로 모국어 습득에 대한지지 및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자녀에 대한 모국어 지도도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부모는 전체 평균 3.2점으로 가장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일상적인 모국어 지도에서 3.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녀가 일상언어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의 모국어 습득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4.1점). 반면, 자녀가 한국어만 사용하는 경우 전체 평균 3.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특히 자녀에 대한 일상적인 모국어 지도 노력에서 2.9점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표 Ⅳ-3-11〉 특성별 자녀의 모국어 습득을 위한 노력 정도

단위: 점

구분	자녀의 모국어 습득을 위한 노력 정도		
	일상적인 모국어 지도 노력	지지 및 기회제공 노력	전체
전체	3.4	3.8	3.5
출신국			
중국	3.5	4.0	3.7
베트남	3.0	3.5	3.2
일본	4.0	4.0	4.0
기타	3.5	3.8	3.6

구분	자녀의 모국어 습득을 위한 노력 정도		
	일상적인 모국어 지도 노력	지지 및 기회제공 노력	전체
F	18.725***	13.489***	18.362***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2.9	3.4	3.1
주로 한국어 사용	3.5	3.9	3.7
이중언어 사용	4.0	4.3	4.1
기타	3.8	4.0	3.9
F	37.658***	25.762***	40.112***
자녀 한국어 수준			
한국어 발달 지체	3.3	3.7	3.5
한국어 발달 표준	3.4	3.8	3.6
한국어 발달 우수	3.4	3.7	3.5
F	0.419	2.446	1.159

주: 1) 한국어 발달 지체는 '또래보다 매우 지체됨', '또래에 비해 다소 지체됨'응답을 합한 것이며, 보통은 '또래와 비슷함', 한국어 발달 우수는 '또래보다 잘하는 편임', '또래보다 월등히 잘함'응답을 합한 것임.
2)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3) 출신국-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 $p < .001$,

4.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책 요구

가. 자녀 돌봄 이용 기관 및 서비스

결혼이민자 부모가 자녀 돌봄을 위해 이용 중인 기관 및 서비스를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9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응답자가 32%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 16.6%, 육아종합지원센터 14.9%, 공동육아나눔터 12.8%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이나 지역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결과를 살펴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 보육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아이돌봄서비스는 중국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경우 4.8%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도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베트남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자녀 돌봄을 위해 문화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집단은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로 44.6%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도 32.6%가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영어 유치원 및 놀이 학교 등 사립 영유아 학원의 경우는 동남아를 포함한 기타 출신 결혼이민자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필리핀 등 영어권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 규모별로는 문화센터의 이용률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 규모가 클수록 문화센터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시의 경우 다양한 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풍부한 반면 농산어촌으로 갈수록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4-1〉 자녀 돌봄을 위해 이용 중인 기관 및 서비스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시간제 보육		공동육아나눔터		문화센터		사립 영유아학원(영어유치원 및 놀이학교 포함)		기타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전체	97.2(516)	2.8(15)	14.9(79)	85.1(452)	16.6(88)	83.4(443)	6.6(35)	93.4(496)	12.8(68)	87.2(463)	32.0(170)	68.0(361)	8.1(43)	91.9(488)	2.1(11)	97.9(519)
출신국																
중국	98.1(209)	1.9(4)	17.8(38)	82.2(175)	23.0(49)	77.0(164)	5.2(11)	94.8(202)	13.6(29)	86.4(184)	44.6(95)	55.4(118)	7.0(15)	93.0(198)	2.3(5)	97.7(208)
베트남	97.1(170)	2.9(5)	8.6(15)	91.4(160)	13.7(24)	86.3(151)	3.4(6)	96.6(169)	14.9(26)	85.1(149)	32.6(57)	67.4(118)	6.3(11)	93.7(164)	1.1(2)	98.9(172)
일본	97.6(41)	2.4(1)	11.9(5)	88.1(37)	4.8(2)	95.2(40)	11.9(5)	88.1(37)	4.8(2)	95.2(40)	14.3(6)	85.7(36)	2.4(1)	97.6(41)	0.0(0)	100.0(42)
기타	95.0(96)	5.0(5)	20.8(21)	79.2(80)	12.9(13)	87.1(88)	12.9(13)	87.1(88)	10.9(11)	89.1(90)	11.9(12)	88.1(89)	15.8(16)	84.2(85)	4.0(4)	96.0(97)
x^2	2.389		10.055*		12.646**		11.943**		3.550		40.403***		11.074*		3.468	
지역규모																
대도시	97.9(191)	2.1(4)	14.4(28)	85.6(167)	11.8(23)	88.2(172)	5.6(11)	94.4(184)	14.4(28)	85.6(167)	44.6(87)	55.4(108)	7.2(14)	92.8(181)	4.1(8)	95.9(187)
중소도시	97.7(209)	2.3(5)	15.4(33)	84.6(181)	18.7(40)	81.3(174)	6.1(13)	93.9(201)	12.6(27)	87.4(187)	25.2(54)	74.8(160)	9.8(21)	90.2(193)	0.9(2)	99.1(212)
농산어촌	95.1(116)	4.9(6)	14.8(18)	85.2(104)	20.5(25)	79.5(97)	9.0(11)	91.0(111)	10.7(13)	89.3(109)	23.8(29)	76.2(93)	6.6(8)	93.4(114)	0.8(1)	99.2(120)
x^2	2.558		0.093		5.270		1.544		0.933		22.556***		1.456		6.242*	

주: 출신국-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이용 시작 시기를 살펴보면, 만 1~2세에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만 2~3세가 35.1%였다. 즉, 76.2%가 만 3세 이전에 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4세 이전까지 다문화 영유아의 대부분인 96.3%가 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4-2〉 자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시기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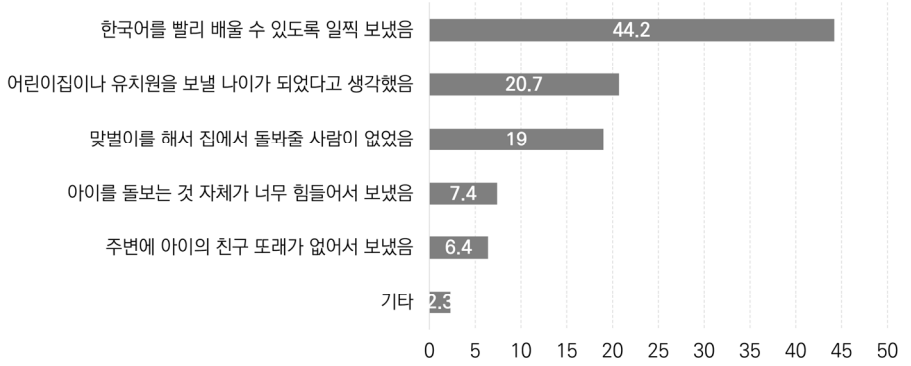
구분	만 1세 이전	만 1~2세	만 2~3세	만 3~4세	만 4~5세	만 5세 이후	계 (수)
전체	8.7(45)	41.1(212)	35.1(181)	11.4(59)	2.7(14)	1.0(5)	100.0 (516)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첫 등원 시기를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한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도록 일찍 보냈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보낼 적정 연령이라고 판단하여 등원하게 된 경우는 20.7%, 맞벌이 가구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는 응답이 19.0%로 나타났다.

[그림 Ⅳ-4-1] 자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 시기 결정 이유

단위: %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자녀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이중언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

다는 응답이 63.4%로 약 3분의 2는 교육·보육 기관에서 이중언어에 대해 논의하거나 대화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나 이외에 지원은 없었다는 응답이 20.2%였다. 가정 내에서 자녀와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주었다는 응답은 8.1%였으며, 관련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연계해주었다는 응답은 4.7%에 그쳤다. 모국어를 사용하지 말고, 한국어만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는 응답은 2.9%로 15명이 응답하였다.

한편, 자녀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이중언어에 대해 문의하거나 대화를 나눈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중언어에 대한 대화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자녀가 한국어만 사용하는 경우 68.7%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은 48.5%, 모국어를 더 사용하거나 모국어만 사용하는 기타 집단은 40.7%만 대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긍정적이나 지원은 없었다는 응답은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28.8%로 가장 높았다. 한편, 기타 집단의 경우는 한국만 사용할 것을 권유받은 비율이 1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4-3〉 재원 중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이중언어 관련 안내 및 지도

단위: %(명)

구분	유치원/어린이집의 이중언어 관련 안내 및 지도						
	이중언어에 대한 대화 경험 없음	한국어만 사용 권유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긍정적이나 지원 없음	가정 내 자녀와의 이중언어 사용 방법 지도	이중언어 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기타	계 (수)
전체	63.4(327)	2.9(15)	20.2(104)	8.1(42)	4.7(24)	0.8(4)	100.0 (516)
출신국							
중국	67.0(140)	1.0(2)	22.5(47)	6.2(13)	2.9(6)	0.5(1)	100.0 (209)
베트남	72.9(124)	1.8(3)	13.5(23)	5.3(9)	5.9(10)	0.6(1)	100.0 (170)
일본	48.8(20)	2.4(1)	46.3(19)	2.4(1)	0.0(0)	0.0(0)	100.0 (41)
기타	44.8(43)	9.4(9)	15.6(15)	19.8(19)	8.3(8)	2.1(2)	100.0 (96)
χ^2	75.754***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68.7(112)	2.5(4)	17.8(29)	8.0(13)	3.1(5)	0.0(0)	100.0 (163)
주로 한국어 사용	66.2(172)	1.5(4)	19.6(51)	7.3(19)	5.0(13)	0.4(1)	100.0 (260)

구분	유치원/어린이집의 이중언어 관련 안내 및 지도						
	이중언어에 대한 대화 경험 없음	한국어만 사용 권유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긍정적이나 지원 없음	가정 내 자녀와의 이중언어 사용 방법 지도	이중언어 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기타	계 (수)
이중언어 사용	48.5(32)	4.5(3)	28.8(19)	9.1(6)	4.5(3)	4.5(3)	100.0 (66)
기타	40.7(11)	14.8(4)	18.5(5)	14.8(4)	11.1(3)	0.0(0)	100.0 (27)
x^2	43.313***						
자녀 한국어수준							
한국어 발달 지체	59.1(75)	3.1(4)	24.4(31)	7.9(10)	3.1(4)	2.4(3)	100.0 (127)
한국어 발달 표준	67.5(181)	2.6(7)	18.3(49)	6.7(18)	4.5(12)	0.4(1)	100.0 (268)
한국어 발달 우수	58.7(71)	3.3(4)	19.8(24)	11.6(14)	6.6(8)	0.0(0)	100.0 (121)
x^2	12.996						

주: 1) 한국어 발달 지체는 '또래보다 매우 지체됨', '또래에 비해 다소 지체됨'응답을 합한 것이며, 보통은 '또래와 비슷함', 한국어 발달 우수는 '또래보다 잘하는 편임', '또래보다 월등히 잘함'응답을 합한 것임.
2)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3) 출신국-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 $p < .001$,

나.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결혼이민자 부모의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부모교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4.6%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언어 관련 부모상담은 43.9%, 가족구성원의 이중언어 인식 개선 교육 27.1% 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부모는 이중언어 관련 부모상담 및 가족구성원 이중언어 인식 개선을,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 부모는 이중언어 관련 부모교육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연령에 따른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유형별 이용 빈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보다 대도시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이중언어 부모가 가족구성원 이중언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한국어만, 또는 주로 한국어나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이중언어 관련 부모교육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서비스(37.5%)를 많이 이용한 반면,

이중언어 부모-자녀 상호작용 지원 서비스는 이용률이 2.8%에 불과하며, 기타 서비스 이용률 역시 5.8%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지원서비스, 이중언어 부모-자녀 상호작용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경험이 있다는 응답보다 현저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모가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지원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며(43.6%), 이외의 서비스 이용률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자녀의 일상언어 유형과 관계없이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지원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수가 많지는 않으나, 3개 언어 이상을 사용하는 자녀의 부모(14.3%)가 한국어나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자녀의 부모에 비하여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4-4〉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의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이중언어 관련 부모 상담		이중언어 관련 부모 교육		가족구성원 이중언어 인식 개선 교육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지원		이중언어 부모-자녀 상호작용		기타	
	이용함	미이용	이용함	미이용	이용함	미이용	이용함	미이용	이용함	미이용	이용함	미이용
전체	43.9(233)	56.1(298)	54.6(290)	45.4(241)	27.1(144)	72.9(387)	37.5(199)	62.5(332)	2.8(15)	97.2(516)	5.8(31)	94.2(500)
출신국												
중국	31.5(67)	68.5(146)	50.2(107)	49.8(106)	12.2(26)	87.8(187)	26.3(56)	73.7(157)	1.9(4)	98.1(209)	1.4(3)	98.6(210)
베트남	63.4(111)	36.6(64)	54.9(96)	45.1(79)	45.1(79)	54.9(96)	46.9(82)	53.1(93)	4.6(8)	95.4(167)	9.1(16)	90.9(159)
일본	33.3(14)	66.7(28)	73.8(31)	26.2(11)	4.8(2)	95.2(40)	47.6(20)	52.4(22)	0.0(0)	100.0(42)	2.4(1)	97.6(41)
기타	40.6(41)	59.4(60)	55.4(56)	44.6(45)	36.6(37)	63.4(64)	40.6(41)	59.4(60)	3.0(3)	97.0(98)	10.9(11)	89.1(90)
x^2 / F	42.850***		7.924*		67.978***		20.208***		3.869		16.684***	
지역규모												
대도시	50.3(98)	49.7(97)	61.0(119)	39.0(76)	32.3(63)	67.7(132)	43.6(85)	56.4(110)	2.6(5)	97.4(190)	6.7(13)	93.3(182)
중소도시	38.3(82)	61.7(132)	47.7(102)	52.3(112)	19.6(42)	80.4(172)	30.4(65)	69.6(149)	2.8(6)	97.2(208)	5.6(12)	94.4(202)
농산어촌	43.4(53)	56.6(69)	56.6(69)	43.4(53)	32.0(39)	68.0(83)	40.2(49)	59.8(73)	3.3(4)	96.7(118)	4.9(6)	95.1(116)
x^2 / F	5.918		7.591*		10.186**		8.094*		0.140		0.452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33.9(57)	66.1(111)	42.9(72)	57.1(96)	18.5(31)	81.5(137)	27.4(46)	72.6(122)	2.4(4)	97.6(164)	1.8(3)	98.2(165)
주로 한국어 사용	51.7(136)	48.3(127)	59.3(156)	40.7(107)	30.4(80)	69.6(183)	42.2(111)	57.8(152)	3.0(8)	97.0(255)	8.0(21)	92.0(242)
이중언어 사용	41.7(30)	58.3(42)	62.5(45)	37.5(27)	34.7(25)	65.3(47)	43.1(31)	56.9(41)	2.8(2)	97.2(70)	4.2(3)	95.8(69)
기타	35.7(10)	64.3(18)	60.7(17)	39.3(11)	28.6(8)	71.4(20)	39.3(11)	60.7(17)	3.6(1)	96.4(27)	14.3(4)	85.7(24)
x^2 / F	14.207**		13.941**		9.969*		10.813*		0.223		11.224*	

주: 1)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2) 출신국-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경로를 살펴본 결과(중복응답),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권유로 응답한 경우가 84.3%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주변에서 이미 이용 중인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이용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25.4%로 나타났다. 이외에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한 후 정보를 알게 되어서(7.4%), 가족 및 친인척을 통해서(5.1%),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해서(4.6%), 보건소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담당자를 통해서(4.3%) 및 기타(0.3%) 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5〉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경로(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계	(수)
주변에서 이미 이용 중인 지인이 소개해주어서	25.4	(89)
가족 및 친인척을 통해서	5.1	(18)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해서	4.6	(16)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권해주어서	84.3	(296)
보건소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담당자를 통해서	4.3	(15)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한 후 정보를 알게 되어서	7.4	(26)
기타	0.3	(1)
(수)	(461)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살펴본 결과, 다른 기관에 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96.3%), 이외의 기관에서의 이용률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센터(8.3%), 어린이집(4.8%), 육아종합지원센터(3.4%), 유치원(2.8%), 기타(2.6%) 및 지역 도서관(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4-6〉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기관(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계	(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6.3	(338)
육아종합지원센터	3.4	(12)
어린이집	4.8	(17)
유치원	2.8	(10)

구분	계	(수)
지역 도서관	2.0	(7)
문화센터	8.3	(29)
기타	2.6	(9)
(수)	(422)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 68.4%, 있다는 응답 31.6%로 나타나,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출신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40.8%, 중국 31.3%, 기타 23.8%, 일본 12.5% 순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자녀연령, 지역규모 및 자녀의 일상언어에 따른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유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4-7〉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유무

단위: %(명)

구분	어려움 있었음	어려움 없었음	계	(수)
전체	31.6(111)	68.4(240)	100.0	(351)
출신국				
중국	31.3(41)	65.7(90)	100.0	(131)
베트남	40.8(51)	59.2(74)	100.0	(125)
일본	12.5(4)	87.5(28)	100.0	(32)
기타	23.8(15)	76.2(48)	100.0	(63)
x^2	12.065**			
자녀 연령				
만3세	27.5(28)	72.5(74)	100.0	(102)
만4세	32.1(27)	67.9(57)	100.0	(84)
만5세	33.9(56)	66.1(109)	100.0	(165)
x^2	1.241			
지역규모				
대도시	35.9(52)	64.1(93)	100.0	(145)
중소도시	25.4(31)	74.6(91)	100.0	(122)
농산어촌	33.3(28)	66.7(56)	100.0	(84)
x^2	3.497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34.8(31)	65.2(58)	100.0	(89)
주로 한국어 사용	30.5(58)	69.5(132)	100.0	(190)

구분	어려움 있었음	어려움 없었음	계 (수)
이중언어 사용	32.1(17)	67.9(36)	100.0 (53)
기타	26.3(5)	73.7(14)	100.0 (19)
x^2	0.782		

주: 1)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2) 출신국-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 $p < .01$,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가장 어려운 점 1, 2순위를 질문한 결과, 모국어로 된 정보가 없거나 부족함이 합산 순위(53.2%)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서비스 제공시간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45.9%)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거리가 먼 점(36.0%), 즉 접근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표 Ⅳ-4-8〉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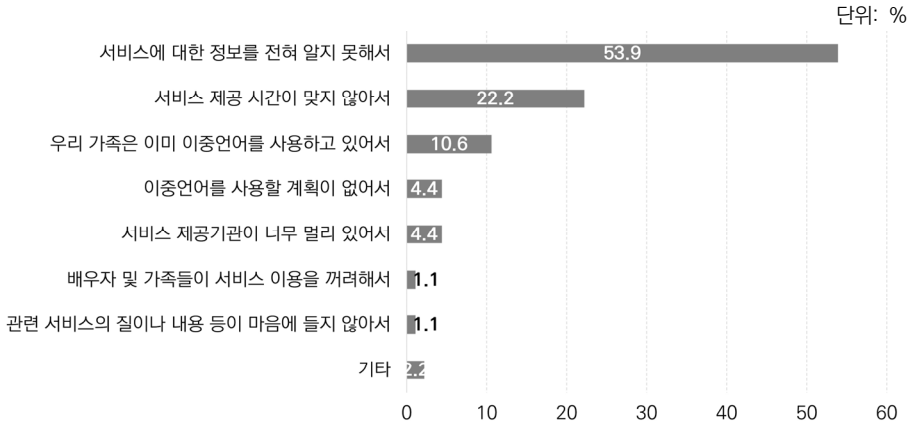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나의 모국어로 된 정보가 없거나 부족함	41.4(46)	16.9(13)	53.2(59)
서비스 제공 시간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있음	23.4(26)	32.5(25)	45.9(51)
서비스 제공 기관이 너무 멀리 있음	18.0(20)	26.0(20)	36.0(40)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담당자와 의사소통이 잘 안 됨	8.1(9)	10.4(8)	15.3(17)
관련 교육 및 상담 등 서비스 내용이 어렵게 느껴짐	5.4(6)	10.4(8)	12.6(14)
기타	3.6(4)	3.9(3)	6.3(7)
(수)	(111)	(77)	(161)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해서'가 과반을 초과하였으며(53.9%),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22.2%), 이미 이중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10.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너무 멀리 있어서(4.4%), 이중언어를 사용할 계획이 없어서(4.4%)로 나타났다.

[그림 Ⅳ 4-2]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미이용 이유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다. 모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모국어 지원 서비스 유형에 따른 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교재(전자책 포함) 제공 서비스가 41.1%,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예: 모국어로 동화 읽어주기, 동요 배우기, 음식 만들기 등)이 44.4%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출신국별로는 중국, 베트남, 기타 출신국 부모가 공통적으로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교재 제공 서비스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더 빈번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대도시의 경우,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교재 서비스가 44.1%,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이 54.4%로 응답되어,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에 비해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일상언어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한국어만 사용하는 경우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교재 제공 서비스(33.3%)를 많이 이용하였으며, 주로 한국어를 사용(51.3%)하거나, 이중언어를 사용(52.8%)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 이용률이 약 20%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 대상 모국어 수업은 10명 중 7명이 이용한 적 없음(68.4%)으로 나타났다. 출신국 및 지역규모별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의 일상언어에 따른 이용률에서는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38.0%가 자녀 대상 모국어 수업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한국어나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었다.

〈표 Ⅳ-4-9〉 모국어 지원 서비스의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교재(전자책 포함) 제공 서비스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모국어로 동화 읽어주기·동요 배우기, 음식 만들기 등)		자녀 대상 모국어 수업		기타	
	이용함	이용한 적 없음	이용함	이용한 적 없음	이용함	이용한 적 없음	이용함	이용한 적 없음
전체	41.1(218)	58.9(313)	44.4(236)	55.6(295)	31.6(168)	68.4(363)	2.1(11)	97.9(520)
출신국								
중국	44.6(95)	55.4(118)	45.1(96)	54.9(117)	30.0(64)	70.0(149)	1.9(4)	98.1(209)
베트남	40.6(71)	59.4(104)	43.4(76)	56.6(99)	35.4(62)	64.6(113)	1.1(2)	98.9(173)
일본	16.7(7)	83.3(35)	35.7(15)	64.3(27)	19.0(8)	81.0(34)	4.8(2)	95.2(40)
기타	44.6(45)	55.4(56)	48.5(49)	51.5(52)	33.7(34)	66.3(67)	3.0(3)	97.0(98)
x^2 / F	11.958**		2.081		4.682		2.684	
지역규모								
대도시	44.1(86)	55.9(109)	54.4(106)	45.6(89)	34.9(68)	65.1(127)	2.1(4)	97.9(191)
중소도시	39.3(84)	60.7(130)	35.0(75)	65.0(139)	29.0(62)	71.0(152)	2.8(6)	97.2(208)
농산어촌	39.3(48)	60.7(74)	45.1(55)	54.9(67)	31.1(38)	68.9(84)	0.8(1)	99.2(121)
x^2/ F	1.183		15.438***		1.660		1.508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33.3(56)	66.7(112)	29.8(50)	70.2(118)	23.8(40)	76.2(128)	1.2(2)	98.8(166)
주로 한국어 사용	49.0(129)	51.0(134)	51.3(135)	48.7(128)	38.0(100)	62.0(163)	1.9(5)	98.1(258)
이중언어 사용	31.9(23)	68.1(49)	52.8(38)	47.2(34)	29.2(21)	70.8(51)	5.6(4)	94.4(68)
기타	35.7(10)	64.3(18)	46.4(13)	53.6(15)	25.0(7)	75.0(21)	0.0(0)	100.0(28)
x^2 / F	13.885**		21.789***		10.491*		5.581	

주: 1)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2) 출신국-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모국어 지원서비스 이용 경로 역시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권유가 82.9%로 현저히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이어서 주변에서 이미 이용 중인 지인이 소개해주어서 23.9%,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한 후 정보를 알게 되어서 5.5%,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해서 4.3%, 가족 및 친인척을 통해서 4.0% 및 기타 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4-10〉 모국어 지원서비스 이용 경로(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계	(수)
주변에서 이미 이용 중인 지인이 소개해주어서	23.9	(78)
가족 및 친인척을 통해서	4.0	(13)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해서	4.3	(14)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권해주어서	82.9	(271)
보건소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담당자를 통해서	4.3	(14)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한 후 정보를 알게 되어서	5.5	(18)
기타	1.2	(4)
(수)	(412)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모국어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모국어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9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문화센터 5.8%, 육아종합지원센터 4.6%, 어린이집 4.0%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유치원, 지역도서관 및 기타 기관은 이용률이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Ⅳ-4-11〉 모국어 지원서비스 이용기관(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계	(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3.9	(307)
육아종합지원센터	4.6	(15)
어린이집	4.0	(13)
유치원	2.1	(7)
지역 도서관	2.8	(9)
문화센터	5.8	(19)
기타	2.8	(9)
(수)	(379)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모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시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가 31.8%로 나타났다(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68.2%).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이 42.3%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반면, 일본은 5.3%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 지역규모 및 자녀의 일상언어별 모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여부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4-12〉 모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여부

단위: %(명)

구분	어려움 있었음	어려움 없었음	계 (수)
전체	31.8(104)	68.2(223)	100.0 (327)
출신국			
중국	31.4(44)	68.6(96)	100.0 (140)
베트남	42.3(44)	57.7(60)	100.0 (104)
일본	5.3(1)	94.7(18)	100.0 (19)
기타	23.4(15)	76.6(49)	100.0 (64)
x^2	13.536**		
자녀 연령			
만3세	28.7(25)	71.3(62)	100.0 (87)
만4세	34.2(27)	65.8(52)	100.0 (79)
만5세	32.3(52)	67.7(109)	100.0 (161)
x^2	0.601		
지역규모			
대도시	37.2(48)	62.8(81)	100.0 (129)
중소도시	28.7(35)	71.3(87)	100.0 (122)
농산어촌	27.6(21)	72.4(55)	100.0 (76)
x^2	2.894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36.6(30)	63.4(52)	100.0 (82)
주로 한국어 사용	31.4(58)	68.6(127)	100.0 (185)
이중언어 사용	32.6(14)	67.4(29)	100.0 (43)
기타	11.8(2)	88.2(15)	100.0 (17)
x^2	4.041		

주: 1)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2) 출신국-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 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 $p < .01$

모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신의 모국어로 된 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이유가 1순위 응답에서 51.9%, 합산 응답에서 58.7%로 가장 높은 수준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1, 2순위 합산 결과에서 서비스 제공 시간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있어서라는 응답이 44.2%, 서비스 제공 기관이 너무 멀리 있어서라는 응답이 38.5%,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담당자와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가 2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4-13〉 모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운 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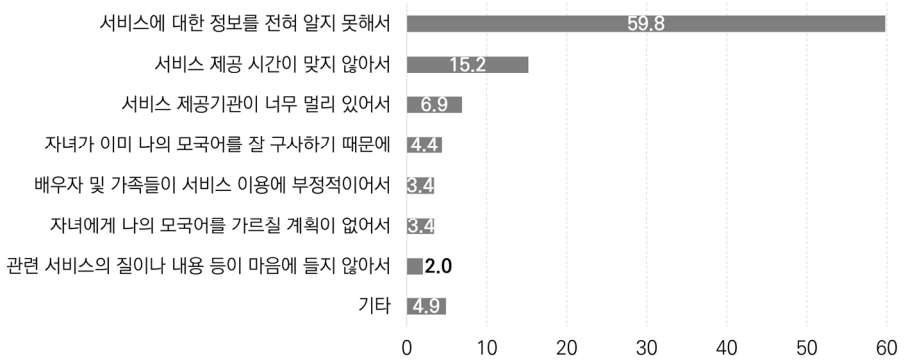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나의 모국어로 된 정보가 없거나 부족함	51.9(54)	8.6(7)	58.7(61)
서비스 제공 시간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있음	15.4(16)	37.0(30)	44.2(46)
서비스 제공 기관이 너무 멀리 있음	22.1(23)	21.0(17)	38.5(40)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담당자와 의사소통이 잘 안 됨	4.8(5)	21.0(17)	21.2(22)
관련 교육 및 상담 등 서비스 내용이 어렵게 느껴짐	5.8(6)	8.6(7)	12.5(13)
기타	0.0(0)	3.7(3)	2.9(3)
(수)	(104)	(81)	(185)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모국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59.8%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함을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어서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 15.2%, 서비스 제공 기관이 너무 멀리 있어서 6.9% 순으로 나타났다. 즉, 모국어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로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4-3] 모국어 지원 서비스 미이용 이유

단위: %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라. 한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한국어 지원 서비스 유형별(①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실, ② 자녀 대상 한국어 수업, ③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한국어로 동화책 읽어주기·동요 배우기 등), ④ 기타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실 이용률이 78.0%로 가장 높으며,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43.3%, 자녀 대상 한국어 수업은 36.7%로 나타났다.

출신국별로는 베트남 출신(90.9%)과 기타 출신국 부모(82.2%)의 절대 다수가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서는 기타 출신국 부모(53.5%), 베트남(42.9%)과 중국(41.8%) 부모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 대상 한국어 수업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파악되었으며(만 5세 41.6%〉 만 4세 37.8%〉 만3세 27.5%), 나머지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51.3%)와 읍면지역(49.2%)에서 중소도시(32.7%)보다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한국어로 동화책 읽어주기·동요 배우기 등)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중언어 지원서비스와 모국어 지원 서비스 중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소 산업도시에 거주하면서 맞벌이를 하는 다문화 부모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자녀의 일상언어별로는 주로 한국어 사용(50.6%), 기타 언어 사용(42.9%), 이중언어 사용(40.3 %)하는 경우에 한국어만 사용하는 경우(33.3%)보다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4-14〉 한국어 지원 서비스의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실		자녀 대상 한국어 수업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한국어로 동화책 읽어주기·동요 배우기 등)		기타	
	이용함	이용한 적 없음	이용함	이용한 적 없음	이용함	이용한 적 없음	이용함	이용한 적 없음
전체	78.0(414)	22.0(117)	36.7(195)	63.3(336)	43.3(230)	56.7(301)	2.8(15)	97.2(516)
출신국								
중국	65.7(140)	34.3(73)	35.7(76)	64.3(137)	41.8(89)	58.2(124)	0.0(0)	100.0(213)
베트남	90.9(159)	9.1(16)	36.6(64)	63.4(111)	42.9(75)	57.1(100)	4.6(8)	95.4(167)
일본	76.2(32)	23.8(10)	23.8(10)	76.2(32)	28.6(12)	71.4(30)	2.4(1)	97.6(41)
기타	82.2(83)	17.8(18)	44.6(45)	55.4(56)	53.5(54)	46.5(47)	5.9(6)	94.1(95)
x^2/ F	36.619***		5.781		8.175*		11.739**	
자녀 연령								
만3세	81.2(121)	18.8(28)	27.5(41)	72.5(108)	39.6(59)	60.4(90)	4.0(6)	96.0(143)
만4세	78.0(99)	22.0(28)	37.8(48)	62.2(79)	43.3(55)	56.7(72)	1.6(2)	98.4(125)
만5세	76.1(194)	23.9(61)	41.6(106)	58.4(149)	45.5(116)	54.5(139)	2.7(7)	97.3(248)
x^2 / F	1.441		8.074*		1.330		1.513	
지역규모								
대도시	81.5(159)	18.5(36)	40.0(78)	60.0(117)	51.3(100)	48.7(95)	4.6(9)	95.4(186)
중소도시	73.4(157)	26.6(57)	31.8(68)	68.2(146)	32.7(70)	67.3(144)	1.9(4)	98.1(210)
농산어촌	80.3(98)	19.7(24)	40.2(49)	59.8(73)	49.2(60)	50.8(62)	1.6(2)	98.4(120)
x^2 / F	4.482		3.777		16.552***		3.614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70.2(118)	29.8(50)	29.2(49)	70.8(119)	33.3(56)	66.7(112)	1.8(3)	98.2(165)
주로 한국어 사용	80.6(212)	19.4(51)	41.4(109)	58.6(154)	50.6(133)	49.4(130)	2.7(7)	97.3(256)
이중언어 사용	86.1(62)	13.9(10)	33.3(24)	66.7(48)	40.3(29)	59.7(43)	5.6(4)	94.4(68)
기타	78.6(22)	21.4(6)	46.4(13)	53.6(15)	42.9(12)	57.1(16)	3.6(1)	96.4(27)
x^2 / F	9.696*		8.143*		12.729**		2.699	

주: 1)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2) 출신국-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한국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경로를 살펴본 결과(중복응답),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권유가 79.2%로 가장 높으며, 주변에서 이미 이용 중인 지인의 소개가 27.3%로 나타났다. 이외에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한 후 정보를 알게 되어서(8.0%), 가족 및 친인척을 통해서(5.4%), 보건소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담당자를 통해서(4.1%),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해서(3.9%) 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의 이중언어 서비스 및 모국어 지원 서비스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표 Ⅳ-4-15〉 한국어 지원서비스 이용 경로(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계	(수)
주변에서 이미 이용 중인 지인이 소개해주어서	27.3	(126)
가족 및 친인척을 통해서	5.4	(25)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해서	3.9	(18)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권해주어서	79.2	(365)
보건소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담당자를 통해서	4.1	(19)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한 후 정보를 알게 되어서	8.0	(37)
기타	0.9	(4)
(수)	(594)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한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기관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절대 다수(9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9.1%), 문화센터(8.2%), 유치원(5.2%), 육아종합지원센터(4.6%)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4-16〉 한국어 지원서비스 이용기관(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계	(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5.2	(439)
육아종합지원센터	4.6	(21)
어린이집	9.1	(42)
유치원	5.2	(24)
지역 도서관	2.4	(11)
문화센터	8.2	(38)
기타	2.0	(9)
(수)	(584)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한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시 어려움 경험 여부에 대하여 10명 중 3명은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28.9%). 출신국별로는 베트남이 4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38.2%)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비하여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자녀연령, 자녀의 일상언어 및 한국어 수준은 한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Ⅳ-4-17〉 한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여부

단위: %(명)

구분	어려움 있었음	어려움 없었음	계 (수)
전체	28.9(133)	71.1(328)	100.0 (461)
출신국			
중국	26.3(44)	73.7(123)	100.0 (167)
베트남	41.2(68)	58.8(97)	100.0 (165)
일본	13.5(5)	86.5(32)	100.0 (37)
기타	17.4(16)	82.6(76)	100.0 (92)
x^2	22.918***		
자녀 연령			
만3세	27.3(36)	72.7(96)	100.0 (132)
만4세	25.0(27)	75.0(81)	100.0 (108)
만5세	31.7(70)	68.3(151)	100.0 (221)
x^2	1.799		
지역규모			
대도시	38.2(66)	61.8(107)	100.0 (173)
중소도시	21.3(38)	78.7(140)	100.0 (178)
농산어촌	26.4(29)	73.6(81)	100.0 (110)
x^2	12.501**		
자녀의 일상언어			
한국어만 사용	34.1(46)	65.9(89)	100.0 (135)
주로 한국어 사용	25.0(59)	75.0(177)	100.0 (236)
이중언어 사용	32.3(21)	67.7(44)	100.0 (65)
기타	28.0(7)	72.0(18)	100.0 (25)
x^2	3.886		
자녀 한국어 수준			
한국어 발달 지체	32.2(39)	67.8(82)	100.0 (121)
한국어 발달 표준	29.1(68)	70.9(166)	100.0 (234)

구분	어려움 있었음	어려움 없었음	계 (수)
한국어 발달 우수	24.5(26)	75.5(80)	100.0 (106)
x^2	1.643		

주: 1) 한국어 발달 지체는 '또래보다 매우 지체됨', '또래에 비해 다소 지체됨'응답을 합한 것이며, 보통은 '또래와 비슷함', 한국어 발달 우수는 '또래보다 잘하는 편임', '또래보다 월등히 잘함'응답을 합한 것임.
2) 자녀의 일상언어-기타: 주로 모국어 사용,모국어만 사용, 제3의 언어 사용을 포함.
3) 출신국-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네팔, 대만, 러시아, 모로코, 몽골, 미얀마,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페루 등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한국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어려운 점에 대하여 나의 모국어로 된 정보가 없거나 부족함 때문이라는 응답이 51.9%로 1순위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0.6%로 나타났다. 이용하기 어려운 서비스 제공 시간 37.6%,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담당자와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21.1%, 어렵게 인식되는 서비스 및 교육 내용 18.5% 순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4-18〉 한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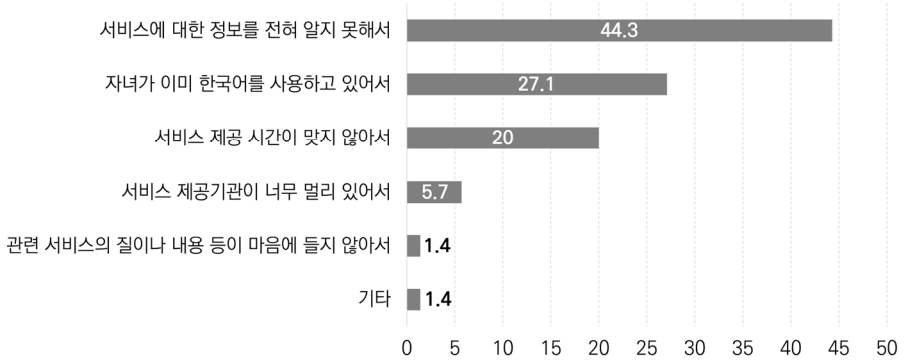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나의 모국어로 된 정보가 없거나 부족함	40.6(54)	14.7(15)	51.9(69)
서비스 제공 시간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있음	18.0(24)	25.5(26)	37.6(50)
서비스 제공 기관이 너무 멀리 있음	18.8(25)	28.4(29)	40.6(54)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담당자와 의사소통이 잘 안 됨	10.5(14)	13.7(14)	21.1(28)
서비스 및 교육 내용이 어렵게 느껴짐	7.5(10)	13.7(14)	18.0(24)
기타	4.5(6)	3.9(4)	7.5(10)
(수)	(133)	(102)	(235)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그림 Ⅳ-4-4] 한국어 지원 서비스 미이용 이유

단위: %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의 1, 2, 3순위 합산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와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교재교구(책, 낱말카드 등) 제공이 63.1%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자녀 대상 모국어 수업 56.3% 및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이 54.3%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타 필요한 지원 서비스로는 이중언어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31.3%, 부모의 이중언어 인식개선 및 부모 상담 27.9%, 배우자 및 시부모 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중언어 인식 개선 20.7%,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지원 19.4%,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실 14.9%, 자녀 대상 한국어 수업 11.1% 순으로 필요한 지원 서비스에 대해 응답하였다.

〈표 Ⅳ-4-19〉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2+3 순위
자녀와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교재교구(책, 낱말카드 등) 제공	31.1(165)	19.8(105)	12.2(65)	63.1(335)
부모의 이중언어 인식개선 및 부모 상담	21.7(115)	1.9(10)	4.3(23)	27.9(148)
이중언어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13.6(72)	11.5(61)	6.2(33)	31.3(166)
자녀 대상 모국어 수업	11.7(62)	19.2(102)	25.4(135)	56.3(299)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 (예를 들어, 모국어로 동화 읽어주기 · 동요 배우기, 음식 만들기 등)	8.9(47)	26.9(143)	19.0(101)	54.8(291)
배우자, 시부모 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중언어 인식 개선	7.5(40)	6.4(34)	6.8(36)	20.7(110)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2+3 순위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실	2.1(11)	7.5(40)	5.3(28)	14.9(79)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지원	2.1(11)	3.2(17)	14.1(75)	19.4(103)
자녀 대상 한국어 수업	1.3(7)	3.6(19)	6.2(33)	11.1(59)
기타	0.2(1)	-	0.4(2)	0.6(3)
(수)	(531)	(531)	(531)	(1593)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 관련 기관 서비스 이용 의향을 질문한 결과, 의향 있음이 95.9%로 나타났다. 즉. 절대 다수의 다문화가정 부모가 향후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4-20〉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 관련 기관 서비스 이용 의향

단위: %(명)

	기관 서비스 이용 의향		계 (수)
	있음	없음	
전체 응답	95.9(509)	4.1(22)	100.0 (531)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이중언어 관련 기관 서비스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을 살펴본 결과, 1순위 응답에서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기관의 서비스가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 2순위를 합산한 결과에서는 자녀가 나의 모국어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기관 서비스가 45.4%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서비스 42.8%, 제공하는 교재교구가 다양한 서비스 41.3% 및 이중언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의 서비스 36.9% 순으로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외에 합산 순위 결과를 살펴보면,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기관의 서비스는 16.7%가 고려하며,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기관의 서비스는 16.1%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21〉 이중언어 관련 기관 서비스 선택 시 주요 고려 사항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기관의 서비스	30.3(154)	12.6(64)	42.8(218)
제공하는 교재교구가 다양한 서비스	21.6(110)	19.6(100)	41.3(210)
이중언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의 서비스	15.5(79)	21.4(109)	36.9(188)
자녀가 나의 모국어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기관의 서비스	14.7(75)	30.6(156)	45.4(231)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기관의 서비스(기관 이용 빈도)	11.8(60)	4.3(22)	16.1(82)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기관의 서비스	6.1(31)	10.6(54)	16.7(85)
기타	-	0.8(4)	0.8(4)
(수)	(509)	(509)	(1018)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5. 다문화 유아의 이중언어 사용 영향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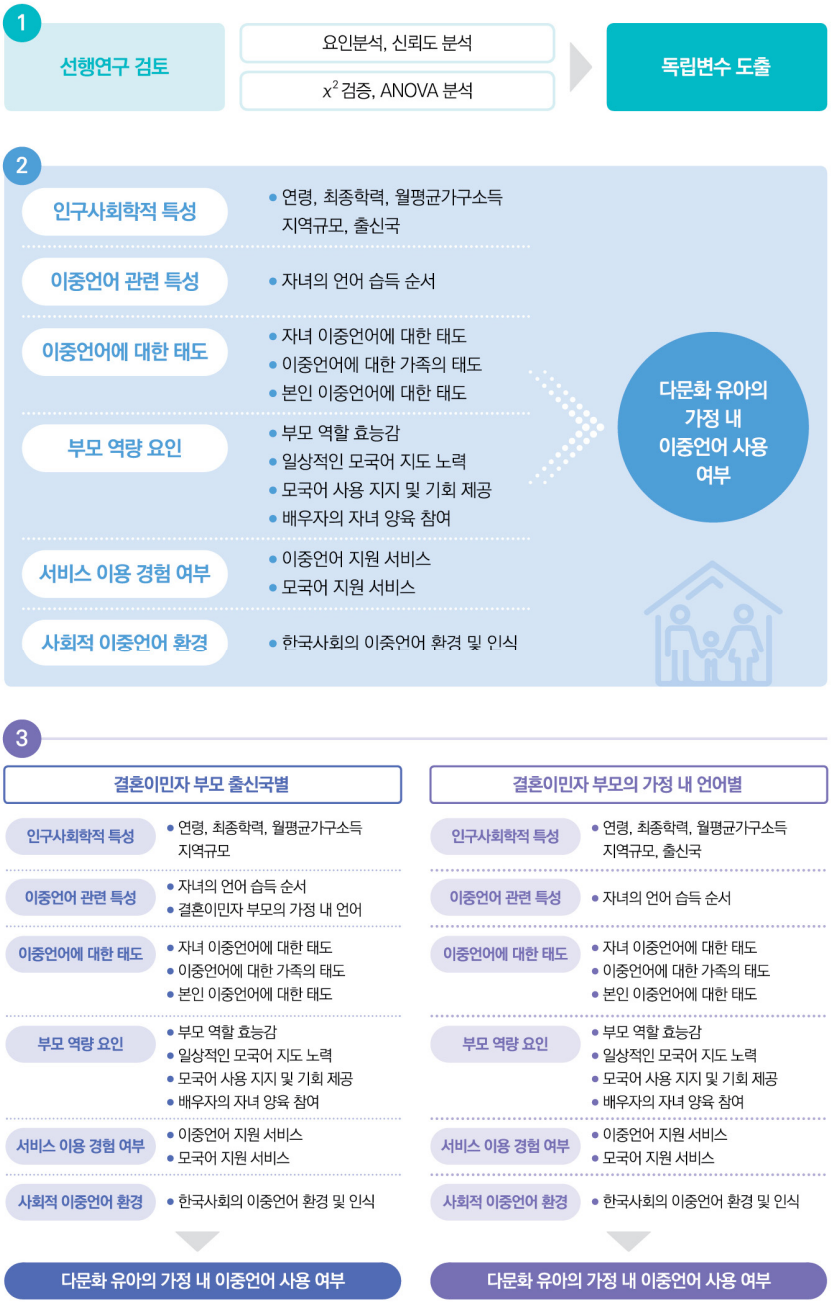
가. 분석개요

1) 분석 방법 및 모형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 및 Ⅳ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만3세~취학 전 유아의 이중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유아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종속변수의 범주가 2개 집단으로 구분되므로 이분변수일 때 사용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dichotomous 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총 3회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 응답자 자녀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체 응답자의 영향 요인 분석 결과에서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여부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 출신국별로 구분하여 다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 부모의 가정 내 사용언어별 집단에 따른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변수는 전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언어 관련 특성, 이중언어에 대한 태도, 부모 역량 요인,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사회적 이중언어 환경 인식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앞서 실시한 카이검증 및 분산분석 결과와 선행연구 검토를 반영하여 각 범주에 포함되는 분석변수를 선정하였다. 본 절에서 실시한 분석모형을 포함하여 분석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5-1]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및 과정



자료: 연구진 작성

2) 분석 변수 설명

본 절의 분석에 사용된 예측변수들은 선행연구 검토와 선행 분석을 토대로 선정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응답자의 연령, 최종학력, 월평균가구소득, 거주지의 지역규모, 출신국 변수를 포함하였다.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의 경우 결혼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설 인프라 및 기관의 낮은 지리적 접근성 등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규모를 변수에 포함하였다(정은희, 2004; 오윤자, 정민자, 라휘문, 박정윤, 김상만, 2009; 박은정 외, 2020). 또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자녀 양육 가치관이나 부모 역할 인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다수 있으며(박찬옥, 이은경, 2012; 이진경, 김혜미, 2019), 본 연구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분석결과에서 출신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다문화 유아의 이중언어 관련 특성으로는 자녀의 언어습득 순서를 포함하였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중언어 아동은 크게 동시적 이중언어 아동과 순차적 이중언어 아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II장 2절 참조). 즉, 이중언어 습득 과정에서 이중언어에 동시에 노출되었는지, 아니면 한 언어를 습득한 이후에 다른 언어를 습득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이중언어 습득 순서를 예측변수에 포함하였다. 또한 가정 내에서 부모의 균형잡힌 이중언어 사용은 영유아기에 동시적 이중언어를 발달시키는 데에 매우 강력한 조건이 되며, 결국 부모의 언어 사용 양상이 아동의 언어 능숙도에 영향을 미친다(Abdelilah-Bauer, 2016:40; 임동선, 김신영, 한지윤, 강다은, 이수경, 2020). 이에 가정 내에서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로서 결혼이민자 부모의 가정 내 언어 변수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 문항을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결혼이민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가족의 태도, 본인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 총 3개의 척도로 구분되었다(표 Ⅳ-3-7 참조). 부모의 이중언어에 대한 태도는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부모 역량 요인으로는 부모 역할 효능감, 부모의 자녀 이중언어 습득 지원 노력, 양육지지 환경 변수를 포함하였다. 부모 역할 효능감은 자녀의 발달이나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언급되며,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포

함되어 논의되기도 한다(이선미, 이경아, 2010; 박점자, 2015; 이은경, 2016; 김미애, 2018). 또한 부모가 이중언어와 문화를 자녀에게 많이 노출시킬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반영하기 위해 부모의 노력 정도를 포함시켰다(박현선 외, 2012, 박영진, 장연실, 2018). 부모의 자녀 모국어 지도 노력에 포함한 변인은 앞서 실시한 요인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일상적인 모국어 지도 노력과 자녀의 모국어 사용지지 및 기회 제공 노력 척도를 사용하였다(표 Ⅳ-3-10 참조). 한편, 다수의 연구들에서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배우자의 지지 등이 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된다(나동석, 박종인, 2009; 최미영, 2019). 본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 지원 환경을 4개 항목으로 조사하였는데, 이 중에서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적극성만 자녀의 일상 언어에 따라 평균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었다(표 Ⅳ-3-5 참조). 이에 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는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를 예측변인으로 포함시켰다.

본 분석에서는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에 따라 아동의 이중언어 사용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와 모국어 지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여부를 포함하였다.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에는 이중언어 관련 부모 상담, 부모교육, 가족구성원 이중언어 인식 개선 교육,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지원의 이용 경험 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에 하나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면 '이용 경험 있음'으로 구분하였다. 모국어 지원 서비스는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교재 제공 서비스, 모국어 부모-자녀 활동 프로그램, 자녀 대상 모국어 수업 중에 이용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한편, 결혼이민자가 느끼는 한국사회의 이중언어 환경 및 인식 정도가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6개 문항으로 구성된 한국사회 이중언어 인식 및 환경 인지 척도를 포함시켰다(표 Ⅳ-3-9 참조).

〈표 Ⅳ-5-1〉 로지스틱 회귀분석 사용 변수

구분		변수 내용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응답자의 연령 변수(단위: 세)
	최종학력	고졸 이하=0, 전문대졸 이상=1
	월평균가구소득	응답자의 월평균가구소득 변수(단위: 백만원)
	거주지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0, 농산어촌=1

구분		변수 내용
	출신국	중국, 일본, 베트남, 기타 준거집단(reference group): 중국
이중언어 관련 특성	자녀의 언어습득 순서	순차적 습득 & 미습득 =0 동시적 습득 =1
	결혼이민자 부모의 가정 내 언어	한국어&기타 언어, 이중언어, 모국어 준거집단: 한국어&기타 언어 사용
이중언어·문화에 대한 태도	자녀 이중언어·문화에 대한 태도	5점 척도, 3문항
	이중언어·문화에 대한 가족의 태도	5점 척도, 7문항
	본인 이중언어·문화에 대한 태도	5점 척도, 5문항
부모 역량 요인	부모 역할 효능감	5점 척도, 7문항
	자녀의 모국어 습득 지원 노력 일상적인 모국어 지도 모국어 사용지지 및 기회제공	 5점 척도, 6문항 5점 척도, 4문항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5점 척도, 1문항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없음=0, 이용 경험 있음=1 (총 4개 서비스 중 1개 이상 이용 시 '있음'으로 처리)
	모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없음=0, 이용 경험 있음=1 (총 3개 서비스 중 1개 이상 이용 시 '있음'으로 처리)
사회적 이중언어 환경	한국 사회의 이중언어 인식 및 환경	5점 척도, 6문항

자료: 연구진 작성

나.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출신국, 결혼이민자 부모의 가정 내 언어, 이중언어에 대한 가족의 태도, 자녀의 모국어 사용지지 및 기회제공 노력에 따라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중국을 준거집단으로 한 출신국별 분석 결과에서는 베트남과 일본이 중국보다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본 출신의 결혼이민자 부모의 경우 자녀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출신의 결혼이민자 부모의 자녀에 비해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부모의 자녀는 약 3배 정도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 출신의 결혼이민자 부모의 자녀는 약 4.2배 이상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가능

성이 높았다.

결혼이민자 부모의 가정 내 언어에서는 한국어 사용 및 제3의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을 합하여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후 이중언어 사용 집단과 모국어 사용 집단을 비교하였다.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결혼이민자 부모 집단과 모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결혼이민자 부모 집단 모두 준거집단에 비해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모국어 사용 집단은 한국어 사용 및 기타 언어 사용 집단에 비해 자녀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약 12.7배 높았다. 이중언어 사용 집단은 준거집단에 비해 약 18배나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결혼이민자 부모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할 경우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을 확인하였다.

다음 결과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의 경우는 한국인 '배우자 및 가족의 태도'가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본인의 이중언어에 대한 태도'나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태도'는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중언어에 대한 배우자 및 가족의 태도'는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가족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가능성이 높았다. 이중언어 및 문화에 대한 가족의 태도가(5점 척도) 1점 상승할 때 마다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가능성은 약 1.9배 증가하였다.

부모의 역량 요인에서는 부모의 자녀 모국어 사용지지 및 기회제공 노력이 자녀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유의미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의 모국어 사용을 지지하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한 단위가 증가할 때(5점 척도에서 1점)마다 자녀가 가정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할 가능성은 약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2〉 자녀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영향요인: 전체

구분	b	Exp(b)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057	.944
최종학력	.168	1.182
월평균가구소득	-.014	.986

구분	b	Exp(b)
지역규모	.344	1.411
출신국		
중국	-	-
베트남	1.101	3.008*
일본	1.445	4.241*
기타	.432	1.540
언어 발달 특성		
자녀의 언어습득 순서	.357	1.429
결혼이민자 부모의 가정 내 언어		
한국어 사용 및 기타 언어	-	-
이중언어 사용(반반씩 사용)	2.892	18.037***
모국어 사용	2.544	12.729***
이중언어·문화에 대한 태도		
자녀 이중언어에 대한 태도	-.559	.572
이중언어에 대한 가족의 태도	.652	1.920*
본인 이중언어에 대한 태도	-.636	.530
부모 역량 요인		
부모역할 효능감	.373	1.453
일상적인 모국어 지도 노력	.295	1.343
자녀의 모국어 사용지지 및 기회제공	.744	2.104*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185	1.203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537	1.710
모국어 지원 서비스	-.307	.736
사회적 이중언어 환경		
한국사회의 이중언어 환경 및 인식	-.274	.760
상수항	-5.271	.005**
-2LL	258.375	
x^2	151.624(df=20, p〈.001)	
Nagelkerke R^2	.464	
N	517	
분류 정확도	88.0%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는 출신국별로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여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사례수가 적은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다변인이 투입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적합성이 떨어지므로, 중국과 베트남 출신국 결혼이민자 집단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녀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정도가 가장 낮은 집단인 중국 출신의 결혼이민자 부모 집단 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요인은 부모 역할 효능감과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 부모의 부모 역할 효능감(5점 척도)이 1점 높아지면 자녀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확률은 약 6.6배 높아진다. 또한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 부모 중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이 이용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녀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가능성이 약 1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부모 집단에서는 부모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한국어 및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에 비해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부모가 가정 내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때보다 이중언어를 사용할 때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가능성은 약 17.8배 높았다. 또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이중언어에 대한 가족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이중언어 사용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중언어 및 문화에 대한 가족의 태도가(5점 척도) 1점 상승할 때 마다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은 약 3배 증가하였다. 이는 특히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집단의 경우 한국 출신 배우자 및 가족의 이중언어 수용성과 지지정도가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에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보여주며, 한국 가족의 이중언어 지지가 부족한 집단임을 방증하기도 한다.

〈표 Ⅳ-5-3〉 자녀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영향요인: 출신국별(중국, 베트남)

구분	중국		베트남	
	b	Exp(b)	b	Exp(b)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205	.815	-.027	.973
최종학력	-.881	.414	.545	1.725
월평균가구소득	-.100	.905	.211	1.235
지역규모	.578	1.783	.223	1.250

구분	중국		베트남	
	b	Exp(b)	b	Exp(b)
언어 관련 특성				
자녀의 언어습득 순서	1.386	3.999	.295	1.343
결혼이민자 부모의 가정 내 언어				
한국어 사용 및 기타 언어	-			
이중언어 사용(반반씩 사용)	19.526	3020.869	2.877	17.765***
모국어 사용	20.592	8772.556	2.104	8.196
이중언어에 대한 태도				
자녀 이중언어에 대한 태도	6.531	686.008	-.837	.433
이중언어에 대한 가족의 태도	1.037	2.822	1.090	2.974*
본인 이중언어에 대한 태도	-.916	.400	-.821	.440
부모 역량 요인				
부모역할 효능감	1.888	6.606*	.634	1.886
일상적인 모국어 지도 노력	.519	1.681	-.444	.641
자녀의 모국어 사용지지 및 기회제공	.255	1.290	1.046	2.847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549	.578	.025	1.025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2.581	13.207*	.126	1.135
모국어 지원 서비스	-.763	.466	.122	1.130
사회적 이중언어 환경				
한국사회의 이중언어 환경 및 인식	.243	1.275	.070	1.073
상수항	-56.056	.000	-5.610	.004*
-2LL	48.098		103.897	
x^2	69.959(df=17, p<.001)		55.696(df=17, p<.001)	
Nagelkerke R^2	.659		.457	
N	210		173	
분류 정확도	94.8%		85.5%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 부모의 가정 내 사용 언어별로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여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사례수가 적은 모국어 사용 집단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한국어 사용 집단과 이중언어 사용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가정 내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결혼이민자 부모 집단을 분석하였다. 한국어만 사용하거나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결혼이민

자의 집단에서는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라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 내에서 결혼이민자 부모가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더라도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가구소득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자녀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할 확률은 약 3.1배 증가한다. 한편, 결혼이민자 부모가 가정 내에서 한국어만 사용하거나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자녀의 이중언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의 실제 언어 사용과 자녀에 대한 태도가 서로 모순적인 경우에는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결혼이민자 부모가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가정 내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적, 외부적 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결혼이민자 부모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에서는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부모가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자녀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할 확률이 약 3.4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이중언어 관련 교육이나 자녀와의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경우, 부모의 이중언어 사용이 더 효과적으로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에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Ⅳ-5-4〉 자녀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영향요인: 결혼이민자 부모의 가정 내 언어별(한국어, 이중언어)

구분	한국어 사용		이중언어 사용	
	b	Exp(b)	b	Exp(b)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238	.788	-.106	.899
최종학력	4.820	124.000	-.086	.918
월평균가구소득	1.128	3.090*	-.140	.869
지역규모	-.536	.585	.593	1.810
출신국				
중국				

구분	한국어 사용		이중언어 사용	
	b	Exp(b)	b	Exp(b)
베트남	18.294	8808.304	.671	1.956
일본	7.142	1263.882	.852	2.344
기타	19.095	1963.088	.668	1.950
언어 관련 특성				
자녀의 언어습득 순서	-20.631	.000	.737	2.090
이중언어에 대한 태도				
자녀 이중언어에 대한 태도	-5.828	.003*	.265	1.303
이중언어에 대한 가족의 태도	5.664	288.240	.146	1.157
본인 이중언어에 대한 태도	-2.722	.066	-1.040	.353
부모 역량 요인				
부모역할 효능감	2.897	18.114*	-.167	.846
일상적인 모국어 지도 노력	-.878	.416	.300	1.350
자녀의 모국어 사용지지 및 기회제공	3.051	21.143	.749	2.115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181	1.199	.072	1.075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1.808	.164	1.210	3.353*
모국어 지원 서비스	2.671	14.458	-.137	.872
사회적 이중언어 환경				
한국사회의 이중언어 환경 및 인식	-.729	.482	-.070	.932
상수항	-28.545	.000	1.069	2.912
-2LL	26.493		142.018	
x^2	48.826(df=18, p〈.001)		32.023(df=18, p〈.05)	
Nagelkerke R^2	.674		.291	
N	330		136	
분류 정확도	98.8%		70.6%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임.
* $p < .05$

6.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의 결과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Ⅳ-6-1〉과 같다.

먼저, 본 분석결과 중 다수의 문항에서 출신국별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종합해보면, 베트남이 가정 내 모국어 사용이나 지원 서비스

이용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자녀의 모국어 구사 정도도 가장 낮았으며, 자녀가 한국어 습득 시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은 가장 높았다. 이중언어 습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에서도 긍정적 영향은 적게, 부정적 영향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는 배우자 및 가족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태도를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에 이중언어 대한 배우자 및 가족의 태도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모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도 자녀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는 자녀가 가정 내에서 가장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 집단에서는 부모 역할 효능감과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여부가 자녀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은 이중언어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자녀의 모국어 구사수준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가정 내 일상언어별 집단 간 차이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에서 결혼이민자 부모의 자녀 양육 시 긍정적 정서가 가장 높았으며, 부모 역할 효능감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에서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적극성이 가장 높았다. 반면, 자녀가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은 부모 역할 효능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배우자 및 가족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태도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또한 한국사회의 이중언어 환경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부모의 가정 내 일상언어별 집단 간 차이에서는 이중언어 사용 집단에서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내에서도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자녀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부모가 가정 내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는 부모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부모 역할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결혼이민자 부모의 한국어 구사 수준별 집단 간 차이에서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집단에서 자녀 양육 시 긍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자녀 양육을 통한 자기 성장 인지 항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결혼이민자 부모가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할 경우 자녀의 장래에 대한 걱정 정도는 낮았다. 또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집단에서 부모 역할 효능감(3.9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 차이는 살펴보면, 농산어촌 지역에서 결혼이민자 본인이 가정 내에서 한국어를 주로 쓴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자녀 돌봄 시 문화센터나 키즈카페 등 기타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돌봄 인프라의 다양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는 자녀의 모국어 말하기 구사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언어, 모국어, 한국어 지원 서비스의 평균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자녀의 모국어 습득 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도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시에서 자녀에 대한 모국어 지도를 더 시도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중소도시에서는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모국어 및 한국어 지원 서비스 중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는 중소 산업도시에 거주하면서 맞벌이를 하는 다문화 부모가 많아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6-1〉 집단별 주요 연구결과

구분	주요 결과
출신국	• 베트남 - 가정 내 모국어 사용이나 지원 서비스 이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는 집단 - 자녀의 베트남 모국어 구사 정도(듣기 2.9점 , 말하기 2.7점)가 가장 낮음. - 자녀의 한국어 습득 시 어려움 유경험 비율이 63.4%로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집단 - 다른 국가에 비해 이중언어 습득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정도를 더 작게, 부정적 영향은 더 크게 인식 -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및 가족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태도 - 부모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과 이중언어에 대한 가족의 태도가 자녀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요인
	• 중국 - 자녀의 모국어 구사 정도가 베트남보다는 높고 일본보다는 낮음. - 부모 역할 효능감과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가 자녀의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요인
	• 일본 - 이중언어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임. - 자녀의 모국어 구사수준(듣기 4.0점, 말하기 3.6점) 가장 높게 나타남. - 다른 국가에 비해 자녀가 모국어를 더 잘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구사한다는 응답이 높음.

구분	주요 결과
자녀의 가정 내 일상 언어	• 자녀 이중언어 사용 집단 - 자녀 양육 시 긍정적 정서를 가장 크게 느끼며, 부모 역할 효능감이 가장 높은 집단임. - 배우자의 자녀 양육 참여 적극성이 가장 높음. • 자녀 한국어만 사용 집단 - 부모 역할 효능감이 가장 낮은 집단임. -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태도에서 특히 배우자 및 가족의 이중언어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임. - 한국사회의 이중언어 환경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함.
결혼이민자 부모의 가정 내 일상 언어	• 결혼이민자 부모 이중언어 사용 집단 -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가능성이 가장 높음. - 이중언어 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요인 • 결혼이민자 부모 한국어 사용 집단 - 결혼이민자 부모가 가정 내에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더라도 부모의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 경우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가능성이 높아짐. - 부모 역할 효능감이 높으면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가능성이 높아짐.
결혼이민자 부모의 한국어 구사수준	• 결혼이민자 부모의 유창한 한국어 구사 - 한국어가 유창할수록 자녀 양육 시 긍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남. 특히 자녀 양육 시 자기 성장 인지 항목 - 자녀의 장래에 대한 걱정 정도 낮음. - 부모 역할 효능감(3.9점) 가장 높음.
거주지 지역규모별	• 농산어촌 집단 - 결혼이민자가 가정 내에서 한국어만 쓰거나 주로 쓰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자녀 돌봄 시 문화센터나 기타 시설 이용 정도가 가장 낮음. • 대도시 집단 - 자녀의 모국어 말하기 구사 정도가 가장 높음 - 자녀의 모국어 습득 시 어려움 경험 정도가 높음: 자녀 모국어 지도 시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으로 추론 - 이중언어, 모국어, 한국어 지원 서비스 모두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음. • 중소도시 집단 -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비율이 가장 낮음. - 모국어, 한국어 지원 서비스 중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임.

자료: 연구진이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함.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이중언어 사용이 자녀의 언어 발달을 저해한다는 편견이 맞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국어 구사 시작이 2~3세 이전으로 응답한 비율을 비교해 보면, 자녀 일상 언어별로 이중언어(72.2%), 주로 한국어·가끔 모국어(65.4%), 한국어만(64.9%)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구사에서도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자녀가 보다 일찍 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만 2~3세 이전에 한국어와 모국어를 구사하기 시작

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 부모가 유창하지 않은 한국어만을 구사하는 것보다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동의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다문화 아동의 동시적 이중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부모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 대상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이중언어를 사용할 경우 부모가 모국어를 사용하는 집단보다 자녀가 일상적으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이중언어를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집단 내에서도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 사용 필요성과 실질적인 실천 방법 등을 익힐 경우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전반적인 자녀 양육 역량 제고를 위한 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조사결과에서 부모 역할 효능감이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사용과 연관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부모 역할 효능감은 부모의 한국어 구사수준, 부모의 경제력 등과 연관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양육효능감을 제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 출신 배우자 및 가족의 인식 제고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결혼이민자 본인의 이중언어 인식 및 태도보다 한국 가족의 이중언어 인식 및 태도가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중언어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자를 결혼이민자로 설정하는 것보다 가족 단위 또는 한국인 배우자에 보다 초점을 두는 것이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에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아버지 및 가족단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인식 제고 교육의 운영 시간대를 유연화하거나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등 교육방식의 다양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여러 영역에서 다차원적인 이중언어 인식 제고 노력이 요구되나, 특히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종사자에 대한 이중언어 이해교육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면담을 진행한 결과 교사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이중언어에 대해서 교사와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나 지지를 받은 경험은 20%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이중언어 지원 시 출신국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등 사회적으로 낮은 언어적 위계를 가진 출신국의 경우 특히 이중언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한국 출신 배우자와 가족도 비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이중언어 인식개선 교육이 선결되어야 이후의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이 실시될 수 있다. 또한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부모 역할 효능감,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가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부모 교육, 이중언어 지원 교육 등 교육적 차원 서비스가 보다 필요함을 알 수 있다.

V

이중언어 관련 자녀 양육 경험 및 지원 요구

01 조사 개요

02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

03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 장애물

04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을 위한 노력

05 부모의 지원 서비스 경험 및 요구

06 소결

Ⅴ. 이중언어 관련 자녀 양육 경험 및 지원 요구

1. 조사 개요

가. 조사대상 및 규모

본 심층면담 대상자 표집 방법은 의도적 표집으로 한국의 다문화가족의 특수성과 언어별 위계를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앞서 살펴본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이중언어 사용에서는 언어별 위계에 따른 격차가 존재한다(최윤정 외, 2019: 156~161). 또한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의 어려움과 역동은 해당 언어에 대한 수용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 심층면담에서는 이중언어 사용에서 언어별 위계로 인해 지지받지 못하는 출신국 집단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언어별 위계를 고려하는 동시에 현재 결혼이민자 수의 비율도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2019년 11월 기준 전체 결혼이민자 수는 173,882명이며, 동북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 수가 87,143명,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 수는 63,739명이다. 즉, 동북·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 비율이 전체 결혼이민자 중 90.4%를 상회한다(행정안전부, 2020. 10. 29).

이에 본 심층면담에서는 인구 비율이 높은 아시아권(동북·동남 아시아)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특히, 베트남 출신은 동북·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중 약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국어 및 일본어에 비해 베트남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수용성이 낮기 때문에 덜 지지받는 출신국 집단의 언어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본 심층면담의 목적에 따라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를 과표집 하였다. 이에 베트남 출신 7명, 중국 및 일본 출신 7명, 기타 동북·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6명을 표집하였다. 기타 동북·동남아시아 출신국은 태국, 캄보디아, 몽골 출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결혼이민자·귀화자 심층면담 대상자와 별도로 10명을 표집하였다. 중국 또는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인 배우자 4명, 베트남을 포함한 동북·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인 배우자 6명을 가정 내 이중언어와 단일언어를 기준으로 일대일로 구분하여 표집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농어촌 지역 다문화가족은 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이민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 인프라가 도시 지역에 비해 부족하고 지리적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정은희, 2004; 오윤자, 정민자, 라휘문, 박정윤, 김상만, 2009; 박은정, 박창현, 조혜주, 2020). 즉, 우리나라의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족이 가지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본 심층면담에서는 결혼이민자 면담에 농어촌 지역사례 30%를 할당하여 결혼이민자 20명 중 6명을 농어촌에서 표집하였다.

나. 면담 참여자 특성

본 심층면담 참여자 중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V-1-1〉과 같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연령은 30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4명, 40대는 2명이었다. 거주지 지역규모는 농산어촌에 6명을 할당하여 표집하였고, 중소도시 거주 6명, 대도시 거주 8명이다. 한국 거주 기간은 5년~10년 사이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어 구사능력 이유창한 편이라는 참여자가 가장 많았으며, 기본적 의사소통만 가능할 경우 통역사를 대동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가정 내 일상언어는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가족 10명, 이중언어 미사용 가족 10명이다. 미취학 영유아 자녀를 둔 면담 참여자에게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수를 질문한 결과, 자녀가 2명이라는 참여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자녀를 둔 참여자가 6명이었다.

〈표 V-1-1〉 다문화부모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 결혼이민자

구분	연령	지역규모	출신국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구사능력	가정 내 일상언어	자녀 수
결혼이민자1	32	대도시	중국	13년 1개월	유창한편	이중언어	1
결혼이민자2	33	대도시	태국	5년	기본적 의사소통	주로 한국어	2
결혼이민자3	39	대도시	베트남	17년 3개월	유창한편	한국어만	1

구분	연령	지역규모	출신국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구사능력	가정 내 일상언어	자녀 수
결혼이민자4	28	중소도시	베트남	5년 8개월	기본적 의사소통	주로 한국어	2
결혼이민자5	29	농산어촌	베트남	8년	유창한편	이중언어	1
결혼이민자6	36	중소도시	태국	16년	기본적 의사소통	한국어만	2
결혼이민자7	36	농산어촌	베트남	5년	기본적 의사소통	한국어만	1
결혼이민자8	28	농산어촌	캄보디아	3년 6개월	기본적 의사소통	이중언어	2
결혼이민자9	35	농산어촌	캄보디아	7년 2개월	유창한편	주로 한국어	3
결혼이민자10	36	농산어촌	일본	2년 4개월	기본적 의사소통	이중언어	3
결혼이민자11	44	농산어촌	몽골	15년	유창한편	주로 한국어	3
결혼이민자12	38	대도시	중국	12년	유창한편	이중언어	2
결혼이민자13	35	대도시	중국	2년8개월	기본적 의사소통	이중언어	1
결혼이민자14	27	대도시	베트남	7년 7개월	유창한편	이중언어	2
결혼이민자15	40	대도시	베트남	3년 10개월	유창한편	이중언어	1
결혼이민자16	36	중소도시	베트남	10년 2개월	기본적 의사소통	이중언어	4
결혼이민자17	37	중소도시	중국	9년	매우유창	주로 한국어	2
결혼이민자18	31	대도시	중국	11년 10개월	유창한편	한국어만	2
결혼이민자19	33	중소도시	중국	10년 11개월	유창한편	주로 한국어	2
결혼이민자20	33	중소도시	태국	6개월	기본적인 의사소통	이중언어	2

본 심층면담 참여자 중 한국 출신 배우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V-1-2〉와 같다. 총 10명 중 40대가 4명, 50대 3명, 30대 2명, 60대 1명으로 결혼이민자에 비해 연령대가 상당히 높았다. 한국 출신 배우자는 대부분 중소도시에서 섭외가 되어 면담이 진행되었다. 배우자의 출신국은 중국이 4명, 베트남 3명, 태국 3명이다. 본인의 배우자의 언어 구사능력을 질문한 결과, 유창한 편 4명, 기본적 의사소

통만 가능하다는 응답 4명, 거의 못한다는 응답은 2명이었다. 가정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2명이었으며, 자녀가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가구까지 포함하면 이중언어 가구 5명, 단일언어 가구 5명이다. 미성년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Ⅴ-1-2〉 다문화부모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 한국 출신 배우자

구분	연령	지역규모	배우자의 출신국	배우자의 언어 구사능력	가정 내 일상언어	자녀 수
배우자1	39	대도시	태국	기본적 의사소통	한국어만	1
배우자2	60	대도시	베트남	유창한편	한국어만	1
배우자3	52	중소도시	베트남	기본적 의사소통	한국어만	4
배우자4	53	중소도시	중국	거의 못함	이중언어	2
배우자5	52	중소도시	베트남	거의 못함	한국어만	2
배우자6	35	중소도시	중국	기본적 의사소통	이중언어	2
배우자7	41	중소도시	태국	유창한편	주로 한국어 (자녀 이중언어)	1
배우자8	40	중소도시	태국	유창한편	이중언어	2
배우자9	41	중소도시	중국	기본적 의사소통	주로 한국어	3
배우자10	43	중소도시	중국	유창한편	주로 한국어 (자녀 이중언어)	2

다문화 영유아를 둔 결혼이민자 20명과 한국 출신 배우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담 내용을 단계별로 유목화하여 분석하였다. 상위 범주는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 장애물,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을 위한 부모의 노력, 부모의 지원 서비스 경험 및 요구로 구분하였다.

2.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은 자녀의 발달 지연 문제 경험, 자녀 양육 및 교육 시 언어적 한계 경험, 교류 및 정보 부족 경험, 부부 간 사고방식 및 양육

관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경험으로 유목화되었다. 자녀의 발달 지연 문제 경험은 하위 범주로 언어 발달 지연과 인지·정서 발달 지연으로 구분된다. 자녀 양육 및 교육 시 언어적 한계 경험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의미하며, 이를 다시 하위 유목화하여 자녀와의 일상적 대화에서의 어려움, 일상적 자녀 양육 및 훈육 어려움, 자녀 교육 시 어려움으로 구분하였다.

〈표 V-1-3〉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의 하위 범주

범주	하위범주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	자녀의 발달 지연 문제 경험	자녀의 언어 발달 지연
		자녀의 인지·정서 발달 지연
	자녀 양육 및 교육 시 언어적 한계 경험	자녀와의 일상적 대화에서의 어려움
		일상적 자녀 양육 및 훈육 어려움
		자녀 교육 시 어려움
	교류 및 정보 부족 경험	
	부부 간 사고방식 및 양육관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경험	

가. 자녀의 발달 지연 문제 경험

1) 자녀의 언어 발달 지연

상당수의 다문화가족 부모들이 자녀의 언어 발달 지연이 자녀 양육에서 경험하는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하였다. 특히, 한국어 발달이 지체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컸다.

> 어. 3살부터요. 그때는 애는 말 많이 안 해가지고 너무 걱정스러웠는데. 그 어린이집 보내고 또 혹시 언어 치료 받아야 되는지. 그때도 많이 걱정했거든요. (면담 5)

> (아이가 1~2살 때쯤) 그때도 늦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병원에도 가 봤거든요. 그냥 발음 좀 안 돼 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그래 가지고 (다문화센터) 선생님이 어린이집 다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직은 지금 안 보내가지고.(면담 12)

> 네. 또래 아이들하고 있을 때 유심히 보고. 기죽는 것보다는 차이가 처음에는 많이 있었죠. 검사해보니까 한 한 살 정도 늦는다고. 그때 그러니까 한두 돌 넘었는데 말을 안 하니까 단어만 하니까. (면담 17)

자녀의 언어 발달 지체는 결혼이민자 어머니뿐만 아니라 한국 출신 배우자 면담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다. 한국 출신 아버지들의 경우 부모가 다문화이거나 어머니가 외국 출신이기 때문에 자녀 언어 발달이 늦다고 진술한 경우들도 있었다.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모국어는 배제하고 기본적으로 한국어 발달로만 자녀의 언어 발달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였으며, 이러한 인식이 다문화 배경을 자녀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 24개월이요. 근데 제가 발달센터나 언어 느린 치료실 같은 데 가잖아요. 단기도 있거든요. 가면 다문화 아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깐 언어가 다 느린 거죠. 다문화 아이들이. 느리거나 뭔가 좀 이상하던가.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배우자 면담 1)

> 이게 발음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하고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발음이. 뭐 쌍기역 쌍시옷 요런 것들이. 받침 있는 것들이 엄마가 이제 우리 같이 한국어를 했던 사람 같으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건데. (배우자 면담 3)

> 네. 이게 아이들이 아이들을 차이일 수 있는데 언어적으로 게 좀 빠른 애들은 금방 됐는데 좀 약간 늦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가 얘기를 안 하는 애인가. 무슨 병이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배우자 면담 10)

다문화가족 부모는 자녀의 언어 발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언어발달 진단 검사를 받고 언어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사설 언어치료센터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 그 전에 그. 학교. 한국어 그 제가 여기(다문화센터) 다녔는데. 그 (다문화센터) 선생님이 소개해주고 제가 신청했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받고 있어요. 그 언어치료. (면담 4)

> 그래서 어딘가 제가 방법이 틀렸거나 아이가 뭔가 조금 안 되겠다 원인이라도 찾아야 되니까 제 판단은 늦었다. 그래서 여기 처음 방문한 목적은 검사를 받았거든요. 인터넷 검색 보니까 다문화센터에 언어검사 있다고 했더니 엄청 늦었다. 그러니까 또. 근데 자리는 없고. 또 문화 복지관에 갔어요. 복지관도 검사 한 번 받고 거기도 늦었다 하고. (면담 17)

> 그리고 이제 사설. 사설 언어치료센터도 몇 달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때 때마침 이제 다문화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응. 여기가 훨씬 낫더라고. 선생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배우자 면담 5)

2) 자녀의 인지·정서 발달 지연

자녀의 언어 발달 지체 이외에도 전반적인 발달 및 인지·정서 발달 지연에 대한 어려움도 경험하기도 한다. 비다문화 아동의 경우도 인지·정서 발달 지연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결혼이민자 부모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을 경험하였다.

> 아기가 머리가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는지. 이쪽만 잘 알려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아기. 아기만. (면담 6)

> 이리 와봐. 이거 뭐야. 이렇게 가르쳐주면. 치워. 이렇게 안 배우고. 마음대로. 뭐 하고 싶으면 그거하고. 가르쳐주는 거 안 따라서 해요. .....(중략)..... 좀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걱정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조금 지금. 조금 괜찮아졌어요. (면담 8)

> 아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얘가 자폐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해요. 경계인 것 같아서 대학병원 가서 유명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아기가 지연이래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걱정이니깐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정확히 아직도 모르죠. 아기가 어리니깐. (배우자 면담 1)

> 요즘은 다른 애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느린 것만 같아.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인 것도 같은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 느리다고 생각되니까. 더 한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런데 지금은 뭐.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냥 뭐. 지켜보고 있죠. (배우자 면담 5)

나. 자녀 양육 및 교육 시 언어적 한계 경험

1) 자녀와의 일상적 대화에서의 어려움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경우 본인의 한국어 구사 능력 부족으로 인해 자녀와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고, 사용하는 단어에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한국어 발음이 유창하지 않아서 자녀가 자신의 발음을 배우게 되는 것에 대한 염려도 가지고 있었다.

> 지금까지 그 대화가 아직 잘 안 되니까. 그냥 짧은 문장, 짧은 문장하고 그렇게 간단한 단어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긴 문장. 긴 문장이 안 되어서 아기도 그런 것도 늦어요. 또 그냥. 뭐야. 단어가 그냥 생활. 생활에만 안고 있으니까. 그것만 이야기해서 그 애도 단어도 많이 부족해요. (면담 4)

> 그러면 알아들으면 되는데 애기 말투 좀 엄마 말투 좀 닮았네요. 그때는 좀 너무 속상하고 저도 한국어 열심히 배우려고 하다보니까 잘 안되는 부분도 있어요. 갑자기 어느 단어 모국어로

> 편하게 말할수 있는데 한국어는 단어가 안 나오고. 언어표현의 차이가 있어요. (면담 18)

> 발음은 아직 한국 사람처럼 되지 않아서 그래서 아빠가 아이랑 대화할 때도 항상 야단맞고 있어요. 발음 너무 안 좋다고. 아이 보고 배운다고. (면담 3)

2) 부족한 한국어로 인한 일상적 자녀 양육 및 훈육 어려움

결혼이민자 어머니는 자녀를 훈육할 때 잘못된 행동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자녀 양육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가 아파서 병원을 방문했을 때 한국어로 설명을 할 수 없는 등 일상에서 자녀 양육 시 필요한 의사소통에 고충도 경험하고 있었다.

> 지금 저희가 하는 한국어 한계예요. 그 만약에 아이가 잘못하면 안 돼, 아니야 만 하고 있어. 이것 왜 안 돼. 이것 왜 아니야 그런 설명하는 그런 것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들이 만약에 한국어를 가르쳐 주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면담 13)

> 제가 한국말 잘하고 싶어요. 아기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요. 저 잘못해요. 속상해요. 하지만 제가 태국사람이라 태국 말 가르치는 거 더 편해요. 한국말보다. 안돼, 왜 안돼요? 설명 못해요. (면담 2)

> 어려운 거 이제. 아기 아플 때나 말 못 하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뭐를 얘기해야 되는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지. 그게 제일 힘들었고. (면담 9)

3) 자녀 교육 시 어려움

결혼이민자 부모의 경우,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 자녀에게 한국어로 학습지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 교육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를 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학령기 자녀를 함께 둔 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자녀가 입학 후에 제대로 학습지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였으며, 영유아기 자녀만 둔 결혼이민자도 자녀 진학 이후에 대해 염려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학습지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통지서를 이해하고 작성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생활하는 것. 지금 다 적응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부시켰을 때. 조금 힘들. 힘들어요. 공부할 때. 제가 또 많이 모르니까. 그것 좀 힘들어요. (면담 4)

저희들도 미안하죠. 엄마가 저기 학교에서 저기 와요. 이런 것 서류 갖다가 여기다가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한국말 못 배웠으니까. 여기 와서 배우고. 그러니까 글씨쓰기 같은 건 좀 어려워요. 읽기는 읽겠는데. 쓰기가 어려워서. 그냥 해도 좀 미안하죠. 써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뭐 쓰고 해야되는데. 그래서 아기들이 그런 거 다하고 뭐 숙제 같은 거 엄마 힘들게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니까 좀 그렇네요.(면담 11)

엄마는 좀 어려운 거 더 많았지. 지금 옛날, 옛날도 어렵고 지금은 크니까 더 어려운 거 같아요. 왜냐면 학교 다니고 애들 학습도 봐 주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설명을 못 해 준 거야. (면담 14)

그거는 저도 걱정하네요. 왜냐면 애기 반에 딱 몇 명이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두 명 만 저 아이 하나하고 하나는 같은 베트남 엄마예요. 그래도 그 애기 공부 문제는 잘 풀었는데. 저는 애기는 (문제) 풀었는지 엄마는 도와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니까. 아빠가 한국 사람이지만 아빠는 너무 바빠요.(면담 16)

저도 애기 육아 좀 힘들 것 같아요. 공부. 왜냐면 지금 초등학교이라서 큰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학 과학이나 저 저도 한국 사람 아니라서. 베트남 말을 하고 싶지만, 또 한국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저 정도 엄마들이. 한국 엄마들이 한국말 잘하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저는 그거를 못 하니까... (면담 16)

맞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 뭐 언어를 어렵게 뭐 하니까 그거는 좀 있었어요. 또 다른 거는 학교에서 소통하는 거도 뭐 학교에서 지면에 통지서 보잖나요. 다들 지면 용어 하니까 다들 너무 길면 안 돼. (면담 19)

다. 교류 및 정보 부족 경험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은 본인이 한국의 양육 방식이나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 어머니들과의 교류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한국의 양육 및 교육 방식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도 가지고 있었다.

몰라요. 알고 싶은데 하지만 몰라요. 어디 있어요? 어디서 찾아요? 몰라요. 알려줘도 몰라요. 한국말 어려워서 못하니깐 몰라요. 여기만 알아요. (면담 2)

그리고 다른 엄마들이 만났을 때도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교류가 없어요. (면담 13)

다 어려워요. 특히 첫째 키울 때 제일 어려워요. 처음에 엄마 되어서 어떻게 키우는 거.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나라도 아니고 한국 사회문화 어떻게 엄마들 어떻게 키우는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한국 교육 시스템하고 중국하고 안 똑같잖아. (면담 18)

결혼이민자 어머니들 중에는 한국 어머니들과의 교류 부족과 정보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육아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공부하는 등 해당 부분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잘하고 나서 요즘은 온라인 정보 발달해서 온라인 검색능력 키워야 해요. 한국어 배우고 나서 온라인 검색능력 키워서 자기에서 많이 도움 줄 거예요. 맨날 다문화 통·번역 선생님 있긴 한데, 사실 다 전화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맘카페 가입해서 거기서 한국말 어떻게 하는지 한 번씩 물어보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면담 1)

> 저는 아이사랑포털에 있는 육아 정보를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책 있잖아요.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님의 저서 아기 육아 백과 책 같은 것도 구입하고. (면담 3)

라. 부부 간 사고방식 및 양육관 차이에서 오는 갈등 경험

다문화가족 부모는 기본적인 문화적 차이 외에도 자녀 양육관에서 차이를 경험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일상적인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도 있었다. 부부 간에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더 큰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제 어려운 거는 이제 교육방법이 이제 나라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뭐. 그것 때문이지, 뭐 하면 더 좋은가. 뭐 하면 더 나은 건가. 애는 또 잘 발전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좀 고민도 많이 했고. 이제 우리 남편은 한국 교육받고 그렇게 아니까. 저는 베트남 교육받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만 좀. 좀 힘들었어요. .....(중략)..... 힘든 거 있으면 아니면, 어려운 거 있을 때. 둘이 모르면 그러면 뭐. 폰 찾아보거나 인터넷 네이버 그렇게 어떻게 인지 알아보고. .....(중략)..... 베트남 교육이나 한국 교육은 가끔은 그렇게 달라서 갈등도 생기지만, 뭐 그냥 양보도 잘 해주니까. 잘 되었어요. (면담 5)

> 그리고 문화가 틀리니까. 문화가 여러 가지 섞이니까 말도 안 통하고 문화적인 것도 안 맞으니까. 엄마는 사고방식이 자기가 배웠던 사고방식하고 좀 다르니까. (배우자 면담 4)

> 근데 이제 중국 문화 자체가 이제 애들이 대해서는 이렇게 좀. 좀 약간 프리한 성향이 많이 있어요. 네. 네. 물론 이제 때때로 어떤 분들은 좀 거의 한 명 밖에 안 낳으니까. 걔한테 이제. 다 이렇게 시켜서 이제 뭔가를 배우기도 하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좀 자녀를 그냥 놔두면서 그냥 알아서 키우는 식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내가 조금 더 알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예. (배우자 면담 9)

3.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 장애물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 장애물은 이중언어가 언어 발달 지체를 유발한다는 편견, 배우자 및 가족의 비지지적 태도,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이해 부족, 차별에 대한 두려움, 학업과정에 대한 염려로 구분되었다.

〈표 V-1-4〉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 장애물'의 하위 범주

범주	하위범주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 장애물	이중언어가 언어 발달 지체를 유발한다는 편견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이해 부족
	배우자 및 가족의 비지지적 태도
	비지지적인 교육 · 보육기관 교사 태도
	차별에 대한 두려움
	학업 과정에 대한 염려

가. 이중언어가 언어 발달 지체를 유발한다는 편견

심층면담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중언어로 인해 자녀의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고 인식하고 있는 부모들도 있었다. 자녀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한국어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 아기가 머리가. 아기 다른 아기보다는 안 빨라요. 늦어요. 늦기 때문에 다른 데(이중언어 배우러) 안 보낼 겁니다. (면담 6)

> 이중언어 때문에 애기 좀 다른 사람이 다 이중. 아 다문화가정 애들은 언어 발달 문제 있다고 생각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많아요. 애기는 한국, 한국 애기들보다 언어 발달 (지연 문제가) 좀 많긴 해요. 진짜. 진짜 많아요. (면담 15)

> 24개월이요. 근데 제가 발달센터나 언어 느린 치료실 같은 데 가잖아요. 단기도 있거든요. 가면 다문화 아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깐 언어가 다 느린 거죠. 다문화 아이들이. 느리거나 뭔가 좀 이상하던가.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배우자 면담 1)

주양육자가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인식보다는 한국어만 사용하여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언어 발달 지연이 발생했다고 인식하는 경우, 이중언어를 포기하고 자녀에게 주로 한국어만 사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 첫째가 말이 좀 늦어서. 말이 좀 늦어서 지금까지 말 아직 통화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한국말로 이야기해요. (면담 4)

> 네. 맞아요. 그때도 너무 당황해서 저도 한국말만 썼어요. 한국말 막 못할까 봐. 베트남 말도 못 하고. 그때는 베트남 말도 잘 안 하고 한국말도 잘 안 하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각 바뀌어가지고 일단 한국말 잘해야 되고 베트남 말은 천천히 배워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면담 5)

나.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이해 부족

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에게 이중언어를 가르쳐주기 원하더라도 자녀에게 어떻게 이중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에 노출하면서 자녀가 이중언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더라도 발화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일상언어로 한국어만 사용하는 부모에게서 이중언어에 대한 지식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이중언어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진술이 많았다.

> 저는 아기가 베트남어도 잘 해주고 싶고 한국어도 해주고 싶은데 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고, 친구한테 물어 봤더니 어떤 친구는 이중언어 동시에 시키면 안 좋은 것 같다. 아기 혼란스럽다. 어떤 데는 동시에 시키면 더 좋다. 아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어요. (면담 3)

> 네. 계속 (태국어) 쓰지만, 아기가 태국말 전혀 안 되니까. … 아마. 머리. 머리를 덜 쓰는 것 같아요. (면담 6)

> 방법. 아직 몰라서 난 걱정해요. 어떻게 아기. 베트남어 가르치면 아기 잘 듣고. 말 잘하는. 이 방법. 음. 아직 몰라. (면담 7)
> 네. 아기 베트남어 이야기하면 아기 몰라서 그냥 한국어로 이야기했어요. (면담 7)

다. 배우자 및 가족의 비지지적 태도

결혼이민자 여성이 자녀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고 자녀가 모국어를 습득하기를 희망하더라도 가정 내에서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이는 배우자 또는 시부모가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출신 배우자가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 모국어를 가르치라고 하거나 이중언어를 사용하면 자녀가 왕따 등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경우 모두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한국어만 사용하여 자녀가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를 구사하지 못하였다.

> (남편이) 아이가 베트남어 알게 되면 한국에 살면 베트남어 하게 되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기에게 베트남어를 많이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으세요 (면담 3)

> 네. (남편은) 지금 (아이가) 어려서 조금 더 크면 배우라고 했어요. (면담 6)

>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남편이 애기 어릴 때부터 한국말 먼저 배우라고. 중국어로 하면 혼란스러우다가 뭐 말 안 나오다가 뭐 이런저런 하고. 그래서 들었어. 한국말하고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 와서. (면담 19)

또한 시부모가 자신의 모국어를 자녀가 배우는 것에 반대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자녀에게 모국어를 사용하더라도 시부모가 함께 있을 때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결혼이민자 어머니 중 일부는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국 가족들의 반대나 부정적 태도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배우자는 아기가 한국어만 사용하길 원하나?) 네 맞아요. 시어머니도 다. 한국말 먼저 해. 저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내가) 태국말 더 잘하니 한국말 어떻게 가르쳐요. (면담 2)

> 그런데 어릴 땐 저도 몽골말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시아버지가 어. 좀 반대했고.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그냥 같이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면담 11)

> 네. 시부모님은 (이중언어 사용을 처음에는) 다 반대했어요. (면담 14)

> 반대는 아닌데 배우면 좋은데. 시부모님 계실 때 전에 그렇게 하거든요. … 그게 제가 할머니 있을 때는 “하지 마라”. … “나중에 할머니 없을 때 해라”. 일관성 있게 이거는 습관을. 근데 너무 저거 하니까. 할머니 있을 때는 안 하죠. 나중에. 배우는 거는 좋은데 본인이 … 네. 나 없을 때 해라. 약간. (면담 17)

이처럼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상당수가 배우자 또는 시부모가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나, 한국 출신 배우자 대부분은 자녀가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거나 부모님들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상당히 상반되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출신 배우자의 경우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에 장점이 있다는 점을 다소 인지하고는 있으나, 실제 양육과정에서는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라. 비지지적인 교육ㆍ보육기관 교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가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거나 논의하기 힘든 상황으로 인해 이중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교사의 의견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사가 이중언어 사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여 혼란을 느끼기도 했다. 또한 이중언어 관련 상담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교사와의 이중언어 관련 상담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교사가 먼저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네, 쭉 이용했어요. 중간에 한번 옮긴 이유는 어린이집 선생님과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저보고 아이 중국어 쓰지 말라고 그래서 안 맞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저는 일주일마다 전화 와서 상담을 해요. 근데 그때 아기 아직 어리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자기가 말하는 거 못 알아들어서 짜증나서 그렇데요. 근데 우리 남편도 그 때는 힘들었어요. 한국어만 계속 말해야 되나, 중국어 말해야 되나.. 계속 고민했어요.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면담 1)

> (인터뷰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 이런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어려움이 있다 상담을 해보신다던지.) 있으면 좋았겠는데, 하지만 선생님 다 항상 어려워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 해요. (면담 2)

마. 차별에 대한 두려움

다문화가족 부모는 자녀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서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염려로 인해 이중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영어와 같이 사회적으로 필요도가 높다고 인식되는 언어가 아닐 경우 자녀가 모국어 사용을 기피할 수 있다는 염려도 하고 있었다.

(남편이) 아이가 베트남어 알게 되면 한국에 살면 베트남어 하게 되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기에게 베트남어를 많이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으세요. (면담 3)

네. 한국말 제대로 모르면 애들이 좀 잘 안놀아줘요. (면담 6)

저는 그런 것도 맞는 건데. 집에서만 사용하고 규정이 되잖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밖에 나가도 당당할 수 있게 영어도 어떤 애는 영어만 하면 너무 좋아하고 와 너 잘한다. 멋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도 외국어도 베트남어가 있잖아요. 베트남어도 외국어잖아. 그럼 그거 대해서 너는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래서 조금 밖에 나가서 좀 자연스럽게 말아야 애도 나중에 밖에 나가도 좀 자연스럽게 엄마랑 대화하고. 그 부끄럽지 않은 거지.(면담 14)

바. 학업 과정에 대한 염려

다문화가족 부모는 자녀가 성장한 후 학업 과정에서 모국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에 대한 염려도 하고 있었다. 한국어 이외에 기본적으로 영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모국어까지 가르치게 되면 3개 이상의 다중언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므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의 부담이 커졌을 때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였다.

그 일본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가르쳐 주고 싶은데. 내가 그 수준까지 가르쳐 줄 수 있는지 그게 불안해요. 자신이 없어요. 또 한국어도 배워야 되지만, 영어도 그렇게 나중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런 것도 배워야 되고 하니까. 2가지가 언어가 아니라 3가지 언어가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면담 10)

응. 한국에 살면서 진짜 어렵잖아요. 공부. 뭔가 학원에 매일, 뭔가 매일매일 다니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어. 포기해야되는 날이 올까 봐. (면담 10)

아이들하고 언어전공이더라도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그냥 약간 그런 쪽. 이중언어랑은. 제2외국어니까 아이들하고 애들 말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면담 17)

4.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을 위한 노력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을 위한 부모의 노력은 크게 일상에서 이중언어 사용, 다양한 매체 활용, 모국 출신 사람들과의 교류, 모국 가족과의 소통 및 모국 방문으로 구분되었다.

〈표 Ⅴ-1-5〉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을 위한 부모의 노력'의 하위 범주

범주	하위 범주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을 위한 부모의 노력	일상에서 이중언어 사용
	다양한 매체 활용
	모국 출신 사람들과의 교류
	모국 가족과의 소통 및 모국 방문 계획

가. 일상에서 이중언어 사용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족 부모는 한 명이 한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이중언어를 노출시키는 방식을 주로 선택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 출신 부모는 자신의 모국어를 일상에서 사용함으로써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언어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 네, 내가 아빠보고 이것 좀 갖다 줘, 중국어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아빠한테 갔을 때는 한국어로 이야기해줘요. 엄마가 이거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랬어요~(면담 1)

> 네. 그런데 한국말은 저녁때만, 저녁때하고 남편 휴가 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녁에 아빠 퇴근하고 와서 아빠 한국말 해요. 그런데 하루 중에는 저하고 엄마는 계속 캄보디아 말로 해요. 그런데 한국말 더 빨라요. 시작하면 아빠 엄마 이렇게. (면담 8)

> (한국에서 사니까)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쓰거나 배우거나. 진짜 일본어만 걱정하고. 그래도 가끔. 일본어랑. 일본어도 공부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집에서는 일본어만 써요). (면담 10)

> 예. 근데 둘째 낳고 나서 생각이 바뀠어요. 16년에는 그냥 어린이집 일찍 보내도 좀 효과가 없는 거 같다. 그냥 한국말 정도 되면은 다 말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모국어는 한국어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베트남 말로 해 주고. 어린이집 가면은 어차피 한국말 사용하니까(그렇죠). 그때는 다른 엄마들 베트남어 가르치라고 말한 거예요. (면담 14)

나. 다양한 매체 활용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녀가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모국어를 배우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먼저, 일반적으로 모국어로 된 책을 구비하거나 시간이 될 때 자녀에게 읽어 주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책보다는 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자녀에게 모국어

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더 많았다. 동영상 매체를 동해 애니메이션 등을 보여줌으써 모국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모국의 역사나 문화 등에 대한 지식도 영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책 읽어주기와 같은 활동보다 부모가 시간을 할애하는 정도가 적기 때문에 부모들이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제가 벌써 준비해 놓았어요. 유치원 들어갈 베트남어 책 가져왔거든요. 지금 언제쯤 시켜야 할지. (면담 3)

> (베트남 동화책) 몇 권 있어요. … 한국에서 샀고, 그 베트남 사람이 가져온 거(동화책) 샀어요. (면담 4)

> 여기 몇 개 있어요. 그림하고 아기. 베트남어(책) 몇 개 있어요. (면담 7)

> (일본어로 된 책을 구입하기 위해) 일본 아마존 어플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하는 거 사용하고, 일본에서 사요. 여러 가지 뭐 장난감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의 물건을 그 앱에서 구입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가끔 사요. 삽니다. (면담 10)

> 제가 집에서 동영상 있잖아요.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유튜브 많이 안 보여줘요. 중국 말도 중국어로 유추하는 동영상만 보여줘요. 예를 들어 헬로카봇 한국어 있잖아요. 우리 아이 헬로카봇 엄청 좋아해요. 한국어 말고 중국어 버전으로 해줘요. (면담 1)

> 근데 집에서 중국어 배우려면 유튜브 하지 말거나, 패드는 아예 중국어 버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유튜브 아예 다운 안 받고 중국어 동영상 다운받아서 중국어로 하고 있어요. (면담 1)

> 애가 지금 그 애니메이션 좋아해서 나도 만화 중국어로 되어 있는 그 애니메이션 많이 보여줬어요. (면담 13)

> 아니면 자기 그냥 대체 유튜브 있잖아. 거기에 요쯤 또 베트남 소개해주는 유튜브 그 방송에 저도 그냥 애기한테 거기 들어가서 들어요. 왜냐면 제가 시간을 해 줄 수 없으니까. 애 한 명 하나 하니까 엄마 혼자는 3명을 다 한꺼번에 해 줄 수 없으니까. 그냥 자기 큰 애는 이거 하고 싶다고 하면은 유튜브 켜 놔서 문화 아니면 역사 좀 들으고 싶으니까. 그냥 틀어주고. (면담 16)

동영상 매체에서 동요 등 노래를 듣고 따라부르게 유도하거나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등에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에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 예. 이제 노래. 큰 애는 이제 유튜브 처음이라 이제 캄보디아 노래 있잖아요. 하나를 그거 되게 듣기 좋다고 그래서 자꾸 들어요. 그런데 따라 하지는 못하는데. 근데 아기가 자꾸 듣

더라고요. 그게 왜. 저기 들으니까. 그 노래가 엄청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면담 9)

읽어주는 데도 자기 혼자 해야 할 것만 하고 잘 안 듣더라. 예. 거기 제가 소리 나는 책을 샀거든요. 우리 소리 누르면 소리 나는 것. (면담 12)

혼자도 혼자 맨날 교재를 사서 교재 보면서 다시 가르치고, 또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베트남어 그 노래 동요 그거 많이 들려주고. 베트남 알파벳 동요도 있어요. 그거 맨날 이렇게 들려주고, 음악 들으면서 또 노래 따라 하고. 또 어느 정도 다음에 오면은 그때도 쓰기 연습하는 거지.(면담 14)

제가 중국어도 까먹지 말라고, 핸드폰에서 … 핸드폰에서 거기에 중국어를 배우는 거, 거기 하나 다운 해가지고 (면담 12)

그거는 안 해 봤어요. 그냥 핸드폰에서만 프로그램에서 글자 배우는 거. 그거 예 거기에서 이야기도해주고. 사자성어 그런 거 (면담 12)

한국 출신 배우자의 경우는 자녀가 한국어를 배우는 데에 보다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에서도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를 배우는 것은 결혼이민자 부모의 몫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을 위해 매체를 활용하는 것 역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거나 개입하지 않았다.

미디어 같은 거는 틀어주고. 애들이 노래 부르고 따라 하게 하고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저는 한국어 이제 책. 유치원 같은 데서 옛날 매주 책을 좀 줬었거든요. 그런 거 읽고 그림을 그리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배우자 면담 6)

있어요. 있어요. 저희 딸 외할머니가. 장모님이 보내 주셔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가나다라 그런 정도의 그런 책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가르치기도 하는데. 뭐. 목표를 갖고 가르치는 것 같진 않고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배우자 면담 7)

집에서는 거의 지금은 이제 쓰는 것보다는 중국어는 거의 이제 엄마가 책 읽어주는 거 하고 있고요. 네. 따로. 와이프가 애들한테 준 거를 쓰면서 가르치지는 않고. 그냥 책 읽는 것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단어장 보여주는 정도. 네. 그 정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글이라서. 이제 한글 가르치는 거 제가 하고 있어요. (배우자 면담 9)

다. 모국 출신 사람들과의 교류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상당수는 모국 출신 모임 또는 자조모임에서 모국 음식을 나누고 모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자녀들이 모국 문화를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언어에

노출되도록 하여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자국 자조모임은 사교적인 모임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녀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모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 그 애. 애들 그. 그런데 예전에 요즘 그렇게 안 만났으니까. 안 만나서.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그. 그 첫째 어렸을 때. 맨날 그렇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애들 같이 놀아 주고 그렇게 했어요. (면담 4)

> (자조모임이) 있어요. 가끔 친구들 모여서 그런 베트남 음식 요리하고 먹어요. … 아기도 같이 다 와요. … 친구들같이 베트남어로 얘기해요. (면담 7)

> 예. 그거 맞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오면, 우리는 한국말로 말 안 해요. 거의 몽골 말로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우리 아기들도 듣고 있으니까. 또. … 우리 친구는 아무튼 그래요. 둘 다 사용한다고 했어요. (면담 11)

> 그때 돌아가면서. 엄마가 네 명이잖아요. 다 모국어니까 오늘 나하고 다음에 언니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온라인으로 통화하면서 가르치고. 지금 그때는 올해는 애들은 다 학교 올라가니까 좀 바쁘고. 지금도 다시 시작하고 있고. 지금 그냥 글쓰기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면담 14)

> 전에 그 여기 엄마들 커뮤니티 들어오기 전에 주말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엄마들이 차례대로 이번주는 니가 책임지고 다음 주는 내가 책임지고 아이들 가르친다고 중국어를. 근데 그거는 하다가 진행 못했어요. 엄마들의 수준이 교구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면담 17)

>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전에도 토요일마다 세가구 같은 중국 언니들 모임이 있어요. 애들 같이 놀면서 중국어도 가르쳐 줘요. (면담 18)

> 중국 엄마들이 아기들 데리고 와서 같이 있어요. 그때 엄청 좋아요. 같이 만두 만들고 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애기들도 막 만들고. 하고 너무 먹고 좋아요. 계속 중국말도 하고. 선생님도 옆에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지? 뭐지? 얘기를 또 해 줬고. 한국말을 중국말을 다 하고. 그래서 애기들 엄청 좋았었어요. (면담 19)

한국 출신 부모는 결혼이민 배우자와 함께 자조모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팬데믹 상황으로 모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으며, 영상으로 모임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안 한 지 조금 됐어요. 됐고. 가끔 이제 연락을 통해서 이제 하는 정도로만 하지. 그런 상황이죠. (배우자 면담 5)

> 이제 안산 다문화센터에서 한 번 모임을 계기를 가져서 거기에 이제 한 열 스물 가족인가

하여튼 왔었어요. 그때 같이 있으면서 서로 이제 그 같은 지역 사람들이. 남편들은 한국 사람인데 이쪽은 중국 분들이거든요. (배우자 면담 10)

라. 모국 가족과의 소통 및 모국 방문

자녀가 모국에 있는 조부모나 친척과 통화하면서 소통하기 위해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통화 시에 친밀한 상대방에서 사용하는 모국어를 듣고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모국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경험의 기회를 자주 제공함으로써 모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네. (영상통화) 엄마한테 자주 해요. … 네. 영상에서 이제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기가) 캄보디아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해요. 따라서 해줘요. (면담 9)

제가 자주 전화해요. 몽골에. 그러니까 해요. 그러니까 옆에 맨날 만나니까. 옆에 맨날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막. 그런데 많이는 못 하고, 그래도 그냥 인사랑 할아버지, 할머니랑 어. 그런 것 좀 알아서 스스로 하니까. 또. .....(중략)..... 제가 따로 하라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제 몽골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사하고, 그냥 조금씩 짧은 시간에 엄마가 이렇게 물어봐라. 하면 물어보고 그렇게 해요. (면담 11)

매일 페이스타임 같은 것을 통해서 할머니나 누나라던지, 언니의 아이와도 많이 친하다 보니깐 맨날 태국어를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면담 20)

한편, 자녀가 자신의 모국에 일정 기간 방문하거나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황에 노출되고 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시도하기도 하였다. 방문 전에는 자녀가 모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언어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는 진술들이 있었다.

네. 맞아요. 자주 해요. 영상통화는 하고. 만약에 코로나 그렇게 없으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그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베트남 사람 많이 만나요. 그러면 자기 베트남어 쓰는 것도 발전할 수 있는데. (면담 5)

다녀왔는데, 그런데 어릴 때 갔다 왔으니까. 또 2년 전에 갔다 왔나? 예. 갔다 왔어요. 2주? 2주나 1주를 갔다 왔는데. 그때는 뭐. 엄마랑 몽골말 했고. 아이 한국말로 했고. 그리고 듣고 있고, 몽골 밥 먹고. 그렇게 있다가 왔는데. 그리고 좋아했던 것 같은데. (면담 11)

저 통역 안 해줘요. 친정 부모님도 한국에 있다가 중국 들어갔으니까 뭐 한국어 단어 대충 몇 개 알아요. 그래서 대화할 때 제가 일부러 가운데 통역해주지 않아. 중국어로 하던가 한국어로 단어로 대화하던가. 냅둬요. 그래도 의사소통돼요. 한국어는 말 안되니 그때는 애 중

국어 해요. 그때도 중국에 한 달 있다가 한어 병음 다 배우고 왔어요.(면담 18)

결혼이민자들은 현재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모국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상당히 아쉬움을 표현했다. 상황이 개선되면 자녀와 함께 모국을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앞으로도 방학 등을 활용하여 자녀가 모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기를 희망하였다.

초등학교 전에는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학교 다니면 시간 더 많이 없어가지고. 또 보낼 시간도 많이 없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학교 진학 후는) 방학 같은 때만. 방학 같은 때 아마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면담 5)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가서 네. 동영상(영상통화)만 하고 있어요. 없어지면 가고 싶어요. 길게. 네. 아이 때문에. 네.(면담 10)

있어요. 코로나 아니면 방학 때마다 아이들 중국에 데리고 가려고요. … 전에도 돈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애들 중국어 잘하지 못하고. 중국 가는 것 맞아요. 돈 들어가도 애가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 중국 문화 생활 모습 많이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괜찮으면 애 좀 크면 중국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면담 18)

이중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 출신 배우자들도 자녀들이 어머니의 모국을 방문하여 조부모 및 친척들과 교류하면서 모국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배우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그 외갓집 식구들이랑 같이 가깝게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그런 친척들 간의 그런 유대감도 생기고. 또 그쪽 문화도 좀 익히고. 언어도 더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너무 나이 먹지 않은 어린 나이에 한 번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원래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럴 생각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 하고 있죠.(배우자 면담 7)

예. 그냥 저희가 좀 더 생각했던 거는 애들이 좀 크면 어. 중국에 가서 이제 좀 지내다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배우자 면담 9)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좀 일 년에 한두 번 항상 한 달 동안 갔다 왔어요. 와이프가 이제 이제 이제 이중언어 강사를. 임신을 하기 전까지는 다문화센터에서 했었는데 임신을 한 다음에 아기들 육아를 하면서 그때 좀 경력이 단절됐어요. 이제 다시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외벌이를 하면서 와이프한테 그 한 달쯤 갔다 와 갔다 오고 애들 데리고 그때는 좀 원활하게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배우자 면담 10)

5. 부모의 지원 서비스 경험 및 요구

다문화 부모의 지원 서비스 경험 및 요구는 부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이용 시 긍정적 경험, 부모 지원 서비스 미이용 사유, 다문화가족 부모 지원 서비스, 자녀 이중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부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이용 시 긍정적 경험으로는 실질적인 양육 및 자녀 이중언어 지도에 도움, 심리적 안정감 제공 및 일상에 활력소 제공, 결혼이민자 간 교육의 장, 남편(아버지)의 양육 이해도 제고가 주요 응답으로 도출되었다. 부모 지원 서비스 미이용 사유에 대한 주요 응답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긴 대기 시간 및 서비스 제공 시간대 문제, 배우자 및 가족의 반대, 필요성 미인지로 범주화되었다.

서비스 지원 요구의 범주화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부모 지원 서비스 요구는 통번역 서비스, 발달단계별 이중언어 실천 교육, 정보 접근성 제고, 모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확대, 자국 출신 전문인력 배치 희망, 아버지 교육 및 상담 활성화로 유목화되었다. 자녀 이중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로는 모국어 교실 운영, 모국어로 된 도서 및 교재 지원, 모국 문화 및 역사 수업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 이해 교육 및 다문화 교류 강화, 모국 문화체험 및 캠프 프로그램, 영상 컨텐츠 개발 및 제공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Ⅴ-1-6〉 '부모의 지원 서비스 경험 및 요구'의 하위 범주

범주	하위 범주	
부모의 서비스 경험 및 요구	부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이용 시 긍정적 경험	실질적인 양육 및 자녀 이중언어 지도에 도움
		심리적 안정감 제공 및 일상에 활력소 제공
		결혼이민자 간 교류의 장
		남편(아버지)의 양육 이해도 제고
	부모 지원 서비스 미이용 사유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긴 대기 시간 및 서비스 제공 시간대 문제
		배우자 및 가족의 반대
		필요성 미인지
	다문화가족 부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	통번역 서비스
		구체적인 발달단계별 이중언어 실천 교육
		정보 접근성 제고
		모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확대

범주	하위 범주	
		자국 출신 전문인력 배치 희망
		아버지 교육 및 상담 활성화
	자녀 이중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	모국어 교실 운영
		모국어로 된 도서 및 교재 지원
		모국 문화 및 역사 수업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 이해 교육 및 다문화 교류 강화
		모국 문화 체험 및 캠프 프로그램
		영상 컨텐츠 개발 및 제공

가. 부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이용 시 긍정적 경험

1) 실질적인 양육 및 자녀 이중언어 지도에 도움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자녀 양육 과정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거나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결혼이민자들은 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양육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을 부모 교육이나 상담의 강점으로 꼽았다.

> (다문화센터 방문으로) 엄마. 아기 어떻게 키우는지. 어떻게 아기한테 말해야 되는지. 하는 교육 받았어요. 아기가 두 명 똑같아요. 4년 지났는데. 말도 못 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육. 집에 교육받는 거예요. 방문하는 거예요.(면담 6)

> 부모 교육도 그 애들 성장에 맞게. 특히 애들 말 안 듣고 사춘기에 대해서 뭐 대책이 되잖아요. 그때는. 전에는 그거도 좋았고, 애들 사춘기 때 말 안 듣는다. 도 어떻게 해야 된다. 대화는 어릴 때부터 많이 대화하라고. 그래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또 미리 교육 받았으니까 나중에 혹시 우리 애가 사춘기 되면 당황하지 않고. (면담 14)

> 저는 한국어에서 한국어를 다문화센터에서 많이 안 배우고 활동도 많고 제가 어떤 문제 있으면 바로 해결할 수 없으면 바로 다문화센터 연락했잖아요. 상담 선생님이 있어요. 상담도 하고 어떻게 애기 양육문제 대해서도 하고 가르쳐 주고 저 상담 많이 받았어요. (면담 18)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은 이중언어 관련 부모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중언어 사용의 장점에 대해 부모 교육을 통해 배우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이중언어를 지도하게 되었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특히 자녀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음. 그전에 여기 참여해서.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있어서. 선생님. 얘기해서 지금부터 아기 이중언어 지금부터 가르치면 좋아요. 그럼 집에 와서 나랑 아기는 연습하는. 연습하는 것 선생님 가르쳤어요. (면담 7)

계속 캄보디아 말로 하면 아기 발음 한국 아기처럼 다를까 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여기 다문화센터에 교육받았어요. 그 이중언어. 그래서 들어보고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 엄마 이렇게 마음속에도 알고. 캄보디아말도 알면 좀 이렇게 엄마 사이 좀 좋아요.(면담 8)

여기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것도 괜찮았어요. 애들하고 같이 만들 수도 있고.(면담 12)

큰 애는 여기 작년부터 여기 그 사업 들어오잖아요. 그 이중언어 부모코칭. 작년에 여기 일했으니까 참여는 못 하고, 근데 여기는 그 선생님을 통에서 이거 좀 많이 배우게 된 거예요. 꼭 그 베트남어 가르쳐야 되겠다. (면담 14)

2) 심리적 안정감 제공 및 일상에 활력소 제공

결혼이민자들은 실질적인 지식 제공이나 도움 이외에도 심리적인 요소를 부모교육의 효과로 언급하였다. 즉, 부모 교육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출산 이후 자녀 양육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을 해소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하며, 부모교육 시간 자체가 결혼이민자들의 일상에 활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아기 낳기 전에 아기 낳을 때 어떻게 숨쉬어야 하는 지 알려주잖아요. 그거 받고 나서 마음이 안심했어요. 기저귀 가는 거 한번 하고 경험이 생겨서, 가짜 아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안심감 줬어요. 그런데 안심감 있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정감 필요해요. 이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안심 되잖아요, (면담 1)

그냥 지금 여기 여기 와서 재미있어요. 맨날 오고 싶어요. 다른 거는 없어요. (면담 2)

받았어요. 만족했어요. 애기랑도 놀고 하는 것 사용하니 좋았어요. (면담 5)

3) 결혼이민자 간 교류의 장

부모 교육 서비스 이용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 자국 결혼이민자들을 만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결혼이민자들과의 경험 공유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교육할 때 노하우를 배우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네. 그 언니들 한국 온 지 오래된 언니들도 만날 수 있고,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 와서 언니들도 여기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캄보디아 사람 여기는 뭐 9명이나 10명 있어요. (면담 8)

네, 사례를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모이면 각자 교육 방식이 생기잖아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교육방식 하나씩 말해도 10가지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모이면 힘이 되는 거예요 (면담 1)

4) 남편(아버지)의 양육 이해도 제고

한국 출신 아버지들이 함께 부모 교육 및 상담을 받을 경우 결혼이민자 여성의 만족도가 높았다. 언어적 한계로 인해 부모가 양육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하기 힘들며, 결혼이민자 여성이 남편에게 요구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아버지 대상 부모 교육은 아버지 자신이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줄 뿐만 아니라 외국 출신 어머니들이 배우자의 지지를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아마. 어. 남편한테 대화하는 거는 좀 좋아. 조금 좋았어요. 왜냐하면, 한국말 제대로 잘 모르잖아요. 남편이랑 아기랑 그래서. 와서 교육 해주니까. 조금 더 좋았어요. (면담 6)

저도 가족. 가족이랑 같이 그 시간에 재밌게 우리 교육 들으면은 참 좋았어요. 뭐냐면 아빠도 어느 정도 베트남 문화의 이해 해 주시면은 좀 좋으니까. 왜냐면 엄마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자기는 들으니까 직접 들으니까 아무래도 좋죠. (면담 16)

(아빠 교실을 다녀오고 나서) 뭐. 더 잘해야겠다. 예. 부족한 것들 많이 느꼈고. 네.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어떤 내용인지 기억은 잘 안 나요. 지금 사실. (배우자 면담 7)

또 뭐 출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수업 듣고. 네. 아이 이제 저는 이제 와이프가 다 집에서 지냈거든요? 출산한 다음에? 제가 옆에서 다 이렇게 산후조리하는 거 도와주면서 지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배우자 면담 9)

나. 부모 지원 서비스 미이용 사유

1)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부모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했거나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대답이 많았다. 한국출신 배우자의 경우 정보를 찾기 위해 시도를 해보았으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용해 본 적 없는데요. 사실 정보도 어디서 얻는지 모르겠어요. (면담 3)

사용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면담 20)

일단 저희가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한국 친구들이 별로 없기도 하고, 엄마와 엄마로써 이야기 할 수 있는 태국 친구도 없다 보니깐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면담 20)

이게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정책, 그러니까 모든 걸 만들어 놓고 홍보를 안 하는 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다 만들어놨는데. 예. 홍보도 안 되어 있고. 대신에 뭔가 들이닥쳤을 때. 이걸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게. 인터넷에도 안 나와 있어요. (배우자 면담 8)

2) 긴 대기 시간 및 서비스 제공 시간대 문제

부모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어 참여하기 위해 신청을 하고 기다렸으나, 서비스 제공 규모가 적어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거나 모집 인원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제약이 발생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네. 여기(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잘하는데 대기는 1년 넘게 기다려야 되죠. 그전에는 제가 사비로 받았거든요. (면담 17)

응.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지관에서 우리 다문화 이거 필요한다고. 거기에서 좀 인원수가 많지 않아. 첫 단계를 배우고 시험 보고 합격해서 이 단계에 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면담 19)

상담을 요청했었거든요. 예전에 부부인가, 다문화 가정문제 이런 거로 아니면 심리상담 이런 걸 했는데 전화 준다고 하더니 안 오더라고요. 그냥 여기는 그렇고. (배우자 면담 1)

한편, 부모 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아버지들은 평일에 교육이 있을 경우 참여가 힘들며, 토요일도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토요일에 저기 만들기 같은 것 하는 것 같아요. 엄마들. 엄마들 만들기 하고 아기들은 저기 한글 공부 배우러 올라가고. 7살 아기는.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건 또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시간이 또 그러니까. 저도 뭐 한글 공부도 배우고 싶고. 그래도 시간이 잘 안 맞으니까. 또. (면담 11)

아니면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늦게 끝나고 하면 시간이 안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토요일 하는데 저희는 토요일 쉬지 않으니까. 그런데 참석하기가 시간대로 참석도 못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센터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고 그러는데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중언어니까

조금 지도를 해서 양성을 해서.(배우자 면담 4)

일단은 시간이죠. 부모역량 강화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오전이든 오후이든 저녁이든 시간이 딱 정해진 상황에서 부모의 역량이 나오는데. 다문화 같은 경우에 가정들은 좀 그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가 내기도 바쁘고 또 밤에 야근해서 오전에도 이제 자야 되고. (배우자 면담 10)

3) 배우자 및 가족의 반대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들의 반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다. 직접적으로 다른 결혼이민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반대하거나, 외국 출신 배우자가 외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남편 제가 거기 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세요. 제가 거기 가면 수준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면담 3)

이렇게. 다문화센터.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처음에 남편이 좀 불안해서 밖에는 이렇게 많이 안 보내요. 좀 불안해서. 그런데.(면담 8)

가고 싶어도 남편도 안 보내주고, 시누들도 안 보내주니까. 그래서 저긴 아예 안 했다가 여기와서 다문화센터 있다고. (면담 11)

4) 필요성 미인지

다문화가족 부모 교육 서비스 등은 문제가 있는 가족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나 문제가 발생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중에. 지금은. 지금은 생각이 없는데요. 보통. 뭐 이제 힘든 거 생길 땐 어려운 건 생길 땐 그때는 상담받는데. 나는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상담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면담 5)

어떤 엄마 아빠, 아빠가 술 먹었더니 그 엄마한테 폭행인가 했더라. 아이가 울면서 왔다 하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한 거 같아서 그래서 저는 안 갔죠. 우리 싸운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안 갔어요. 나는 교육 다른 관점에서 교육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안 갔어요. (배우자 면담 10)

다. 다문화가족 부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

1)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교육 서비스 이용 시에 모국어로 된 안내문이나 교육자료가 제공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았다. 서비스 진행 시에 통역가를 배치하는 방안이 최선이겠으나 교육 자료라도 번역 자료를 구비해둔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네, 그런데 우리 다 처음 부모님 되는 거라서 언어 모르면 더 힘들고, 아니면 진짜 어려우시면 통번역 선생님이랑 연동해서 수업하는 거 ppt 있잖아요. 그거 해서 중국어 버전, 베트남어 버전, 이렇게 해서 차트 하나 만들어서 그분한테 보내면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한 번만 하면 아기 1개월 2개월 3개월 때 주의 사항 중국어로 차트 하나, 베트남어 하나 만들던가 그러면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한 번만 만들면 복사만 하면 되니깐, 공유하면 엄마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면담 1)

> 음, 통역자 좋은 사람 … 네 궁금해요. 걱정 있어요. 문제 있어요. 센터 전화해서 이렇게 돕는 사람(태국어를 할 수 있는 상담가) 필요 있어요. (면담 2)

> 그리고 아기들 엄마들 모르잖아요.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고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요. 해서 뭐 뭐 뭐 뭐 뭐 하면서 그거(학교 가정통신문)는 대해서 좀 많이 설명해 줘. 그러면 좋겠어요. (면담 19)

>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센터에서도 안내문 올 때 한국말로 오기 때문에 엄마로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태국말로 돼서 오면 너무 좋죠. (면담 20)

2) 구체적인 발달단계별 이중언어 실천 교육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이중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 교육을 받기 원했다. 자녀와의 대화나 놀이활동 방식에 대해 알기를 희망했으며,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휘나 문장의 사용 등 구체적인 지침을 배우고 적용하기를 원했다.

>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게 궁금해요. 언제부터 아기에게 베트남어 동시에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베트남 문화 언제쯤 알려줄 수 있는지 그 시기를 알고 싶어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중략).....저는 이중 언어교육 제대로 받고 싶어요. 아기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교육 시켜야 할지 언어 발달 할 때 예를 들어 26개월 이때는 이런 단어 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한국어 이렇게 할 때 저렇게 할 때 이런 연결방식으로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면담 3)

어떻게 읽어주는 것. 그 뭐지? 발음이 좀 어떻게 하는지. 애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냥 보통 목소리. 이렇게 애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읽어주면 그렇게 배우고. 그 애들은 좋아해요. (면담 4)

네. (이중언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면담 7)

교육에서는 엄마가 어떻게 해야 애들하고 같이 놀면은 그렇게 그런 거를 알려줘 가지고, 애들 하고도 좀 교육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중략)..... 대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애기하고, 애기가 말을 잘 안 들을 땐 어떻게 하면 좀 거기 좀.((면담 12)

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알려주는 전문가 선생님이 없어요. 혹시 아이한테 한국어를 중국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교육하는 선생님 혹시 있어요.(면담 13)

안내라든지 우리 아이에게 이중언어를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은지 상담해주는 것, 안내해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면담 20)

3) 정보 접근성 제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 부모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를 원했다. 또한 서비스명을 보고 직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명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좀 뭐가 좀 제한이 있어요. 왜냐면 구청에 있는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뭐가 센터에 있는 정보 조금 더 늦게 받고 그 센터의 어떤.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있고. 센터에 뭐가 있으면 전달하고, 그 뭐가 제한이 좀 많아요.(면담 15)

그러니까 모든 인프라를 다 깔아놓고, 우리는 이런 걸 해요. 우리는 이런 걸 해요.라고 홍보를 하면서 정작 그거를 이용해야 되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배우자 면담 8)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름도 되게 어렵게 만들고. 이름도. 서비스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무슨 정책. 무슨. 이거는 되게 있어 보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쓰기 편하고 서비스 이용 받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다 되게 어려운 말을 갖다 붙이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배우자 면담 8)

4) 모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확대

결혼이민자 여성의 대부분은 자조모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단순히 육아를 위한 자조모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국어를 활용하여 지역 아동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거나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조모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부모들이 이중언어 부모코칭을 해주면서 자녀들이 이중언어를 배울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자녀가 이중언어를 배울 수 있게 함으로써 자조모임에 활력을 주고 지속성도 보장될 것이라고 보았다.

> 근데 아기들이 저희 둘이 중국어 이야기하는 거 듣고 둘도 중국어 이야기해요. 모임을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그리고 아니면 아까 말한 거 엄마들이 와서, 예를 들어 엄마 10명 아기는 20명 있어요. 와 가지고 아기는 방 하나 하고 5명이든 말하면은 책 읽어주고 나머지는 옆에 카페 있던가, 이야기하고 자기 유아 경험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한 명이 다섯 명 볼 수 있잖아요. (면담 1)

> 또 다른 외국인 엄마들과 교류할 수 있는 모임이 있어서 그 안에서 친분을 다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나눔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면담 20)

> 그리고 아기는 책 중국어 외국어책 있잖아요. 아니면 베트남어든 영어든 책 있으면 엄마들이 모임에서 작은 도서관 만들어서 책 이렇게 설치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한국인 아이도 와도 되고, 어차피 같은 나이여서 다문화센터 한국인 엄마도 가능하니깐 같이 와서 우리 주민이라서 책 읽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봉사활동 같은 거 해서 해주고 싶어요. (면담 1)

> 그 이중언어 부모코칭도 엄마. 부모한테 도움이 되고. 그 진짜 교실 열리면은 애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게,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자조모임이면 좀 가끔도 오래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또 가르치다가 또 나는 가르치는 게 맞을까? 또 시험도 없고 그랬잖아요. 진짜 교재를 개발하고 베트남어. 애들에 맞춤 수준에 맞는 수준으로 진짜 교실 열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더 좋은 거 같아요.(면담 14)

5) 자국 출신 전문인력 배치 희망

이중언어코치나 이중언어강사가 있더라도 출신국이 다를 경우 불편함을 느꼈다. 이에 지역에 자국 출신의 강사가 배치되거나 파견되어서 교육을 진행하거나 도움을 제공하기를 희망했다.

> 그래서 다른 데는 다문화센터에서도 그 캄보디아 선생님은 한 명씩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없잖아요. 예. 그 뭐 서류 같은 것.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없어서. 그냥 한국말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도 이렇게 아직 한국말 다 몰라서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거 편한 말만 하는데. .....(중략)..... 그 (캄보디아) 선생님 오셔가지고 저 그 캄보디아 엄마들. 캄보디아 아기들 그 만나고 뭐 얘기도 하고. 그래도 다 똑같은 다문화 아기기 때문에 서로 좀 이렇게 알고. (면담 8)

각 나라의 다 있잖아. 그런 학교. 특별한 학교를 만들어서 베트남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각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선생이 돼서 가르치는 거야. 그거를 정부에서 관리하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난 좋다고 생각해. (배우자 면담 3)

6) 아버지 교육 및 상담 활성화

결혼이민자 여성은 대부분 아버지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외국 출신으로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한국 출신 배우자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결혼이민자 여성뿐만 아니라 한국 출신 배우자들도 아버지 교육 활성화에 찬성 의견을 표명하였다. 특히 이중언어 사용을 지지하는 아버지들의 경우 아버지 교육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녀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놀이 방법을 배우기 희망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일정 부분 아버지 교육의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이 대상 수업, 한국인 남편 교육, 부모교육 등) 다 좋아요 하지만 아이 먼저 더 좋아요. 하지만 남편대상 교육 필요 있어요. (면담 2)

네. 남편분들 아마 상담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런 인정 뭐. 이제. 아마 이제 두 사람이 아직 한국 안이라서. 그래서 뭐 배운. 배워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이프 쪽의 부모님이랑 친척들을 그렇게 생각 안 해줘요. 그런데 애는 이제 와이프도 와이프 애니까. (면담 5)

대부분 대부분인데 한국 남자들은 애기랑 별로 안 친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뭐 일하다 쫓기다 보면 아기랑 놀 시간 많이 없고 쉬는 날이라도 솔직히 쉬는 날에는 좀 쉬고 싶긴 한데. 아기가 있더라고 놀고 싶기도 싶은데 그런 게 아기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 뭐 놀더라도 같이 놀 수 있는 것.(배우자 면담 6)

뭐. 그런데 어차피 이런 서비스들이 개인이 다 알아보고, 그 선택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아버님. 아버지들이 받으면 좋거든요. 네.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받으면 좋은 거라서 뭐. 일정 부분 아버지들한테 약간 강제성도 좀 줘서 교육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들이 몰라서 좋은 아빠가 못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배우자 면담 7)

7) 기타

이외에 다문화가족 부모가 희망하는 부모 지원 서비스에는 부부간 소통 프로그램, 일대일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 자녀 학업지도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이 있었다.

> 언어적인 소통프로그램 같은 거. 욕심일 수 있는. 그런 거까지 정말 된다고 하면은 완벽한 거 같아요. 왜냐면 항상 다문화에서 문제 되는 언어적인 소통에서 많이 싸우고 짜증 내고 그것 때문에 큰 결과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를 … 그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좀 그다음이고. 이게 솔직히 남자가 일하는 게 바쁘고. 또 언어를 모르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교육을 이해를 시킨다고 하면은 아, 내가 공부해야지 그게 자연스럽게 될 거 같아서. (배우자 면담 10)

> 뭐. 이것들도 그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 찾으려면. 뭐냐. 어떻게 보면 그 정보를 알고 신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약간 고정적으로 레귤러 하게 좀 이렇게 관리? 좀 그런 개념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와서. 뭐 도와줄 수. 도와줄 게 없냐.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중략)..... 일대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문화 지원센터나 그런 데서 어떤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자 면담 7)

> 그리고 우리 이제 애기 초등학생 나중에 중학생, 고등학생 미래 대학교 한국 애기 어떻게 키우면 나중에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고 이런 거 우리 전혀 몰라요. 나중에 애기 중 고등학교 들어가면 학점 어떻게 교육시스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죠. 이런 거 전문 선생님 나와서 수업해줬으면 좋겠어요.....(중략).....다문화가정에서 좋은 대학교 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정보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면담 18)

라. 자녀 이중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

1) 모국어 교실 운영

결혼이민자 여성의 대부분은 자녀를 대상으로 한 모국어 교실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부모가 가정 내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면서 익히도록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쓰기나 체계적인 언어 교육 등은 부모다 지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한국 출신 배우자들도 출신국별 모국어 교실 운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 네. 혹시 저기 베트남 말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있으면 가끔 애도 보내고. 그런 경우도 있으면 애도 베트남 말도 쓸 수 있으니까. 베트남 말 교실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면담 5)

부모로서는 본인으로서는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에) 역시 한계를 느껴요. 그러니까 좀 외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학원이라든지. 일본어 교실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교재. 좋은 교재 제공 해주시고. 또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는 곳을 좀 원해요. (면담 10)

저기. 뭐 다문화 센터 같은데 이렇게 몽골말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와서 몽골말 가르쳐 주면 우린 아이들 보내줄 순 있잖아요. 시간 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러면 저는 보낼 것 같은데. (면담 11)

같이 하면 더 좀 더 좋을 까? 안 좋을까? 예. 집에서는 노력하려고 하는데 근데 애들은 엄마 말은 그렇게 잘 안 듣는 편이어서. … 선생님이 말하면 한마디 하면 잘 됐다. 집에 가서는 엄마가 한 열 마디 하면 한마디 듣는 그런 행동만. (면담 12)

뭐. 태국어. 태국어를 쓰는 이중언어 아이들에게는 이제 태국어도 가르치고. 그런 게 있으면 언어교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한테는 또 거기서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면. … 나라별로. 네. 여러 나라랑 합치지 말고 나라별로.(배우자 면담 7)

2) 모국어로 된 도서 및 교재 지원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자녀에게 모국어로 된 도서나 낱말카드 등을 활용하여 모국어를 노출시키기 원했다. 그러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국어로 된 도서를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에 영유아기부터 활용할 수 있는 낱말카드나 그림책 등을 제공해주시는 서비스를 희망하였다.

나는 그냥, 유아 책이 좀 더 중국어 책을 좀 빌려서 하던가, 출산할 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책 읽는 거 다 좋은 내용이잖아요. 교육도 나중에 아기 인성 양성도 중요한 거고, 아니면 평소에 기저귀 주듯, 우유병 주듯, 그것은 필수품인데 정신적으로 받는 교육하고 이렇게 주는 것 하고는 달라요. (면담 1)

저는 제일 필요한 거는 베트남 책. 베트남 말 책이랑 배우는 그거는. 그거는 이제 구하고 있는데. 이제 파는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가르쳐줄 때 더 힘든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도. 차라리 들어가면 이것저것 사주세요. 보내주세요 해야겠다고. 혹시 한국에는 그런 서비스 있으면 좋겠어요. 그 책 애한테 베트남어 배워주는 책 같은 거랑 아니면 베트남 말 카드랑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면담 5)

그런데 어디서 구했는지. 잘 모르고. 그런데 그 책은 보니까 되게 좋아요. 이제 가벼운 말을 아기가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디서 구입했는지 몰라 가지고 그것도 있으면. 아이들 자주 열어보고 배우고 그러면 좋을 텐데. (면담 9)

그 가장 어려워요. 이거. 그런 것. 저는 그 그림책이잖아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그림책 그

리고 그런 그림책이 중국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그런 그림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면담 13)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자녀에게 제공되는 도서를 자신의 모국 대사관을 통해 지원받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다양한 각국의 도서를 한국 정부에서 모두 제공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각국 대사관이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다문화가족 영유아에게 모국어 도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미 대사관을 통해서 학교과정 교과서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취학 이전에도 자국의 교재를 제공받기를 희망하였다.

제 생각에는 지금 책 도서관 다른 도서관 하려면 나라가 많잖아요. 비용도 클 거라고 생각해서, 각 나라에 대사관 연락해서 혹시 책 지원해 줄 수 있냐? 아이 정신적 건강, 인성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거 좀 지원해 줄 수 있냐, 물어봐요. 한국 정부랑 같이하면 왜냐면 나라들이 많으니까 중국대사관은 중국 책만 지원하고 영국 대사관은 영국 책만 지원하고 미국대사관은 미국 책만 지원하고 그러면 쉬울 것 같아요. (면담 1)

대사관? 교과서를 보내준대요. 무료로. 일본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생 교과서를 보내준다고 들었어요. 대사관에 요청하면 일본어로 되어 있는 그 일본의 교과서 같은 거.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런 책이라든지. 교재. 교과서. … 그리고 초등학교 이전에 그런 것들을 그런 걸 줬으면 고맙겠어요. 취학 전에 그런 것들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교재 같은 거를. (면담 10)

도서 이외에도 가정 내에서 모국어를 익힐 수 있는 활동 교재를 얻기를 희망하였다. 활동지나 학습지의 경우 아동의 연령이나 모국어 수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의 교재교구가 제공되기를 원했다. 자녀의 교재교구에 대한 비용 부담의 의사도 밝혔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요. 잡지? 그런 거? 학교 다니기 전에 잡지 같은 거 생각나세요? 뭔가 있잖아요. 뭔가 엄마와 함께 하는 책이라던가. … 그냥 스티커를 여기다 했다가. 이렇게. … 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면담 10)

저도 나중에는 하는 거에서 연구해가지고 맞게 통합적으로 교재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연령에 맞게. 애기, 초등학생, 중학생 어른. 그런 것 있으면 더 좋은 거 같아요. (면담 14)

자연스럽게 애기 배울 수 있게끔 대화하는 말, 일반 생활에서 아니면 그냥 나중에 조금 크면은 좀 카드 이용해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애들 놀아 주면서 카드 이용해서 가르치고 아니

면 교재도 좀 개발하고 좀 통합하는 교재. 왜냐하면, 그 다문화센터마다 교재 통합되지 않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내부에서 교재를 사서 가르치는 것도 있고. 진짜 그거를 개발해가지고 애들에게 맞는 수준으로 교재 있으면 더 좋아요.(면담 14)

활동지 같은 거, 책 말고 활동지 같은 거 가지고 단어 배울 수 있는 이런 거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중언어도 제가 수업에 들어가지만 활동재료들 놀이 키트 같은 거 안 줘요. .....(중략).....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해주면 본인이 좀 부담 돈 내도 괜찮아요. 만약에 비용 많이 들어가면 나라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우리 본인 스스로도 일부 부담해도 상관없어요. 애기 위해서 다 잘할 수 있으니까. (면담 18)

3) 모국 문화 및 역사 수업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가족 부모는 어머니 모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자녀가 이중언어를 습득하는 데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자국의 전통문화 유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희망하였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언어적 한계로 인해 자녀에게 자국의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모국 문화 또는 역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가끔씩이나 뭐 캄보디아. 뭐 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다른 데는 좀 있거든요? 거기 캄보디아 선생님. 캄보디아 선생님들 이렇게 아이들한테 뭐, 앙코르와트도 보여주고. 뭐 그런 프로그램을 페이스북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00군에 뭐. 다음. 앞으로는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어요.(면담 8)

캄보디아에서 뭐 다문화 전통을 그런 거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제 거의 부모는 다 바빠요. 이제 애들 하고도 대화 많이도 못 하고. 그래서. 좀 힘들기는 하는데. 이제 만약에. 여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와서 캄보디아 말로 이제 가르쳐 애들.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 이제 애들 다 모여 가지고. 인제 이거저거 말해 주고. 뭐. 거기서 다문화 이제 전통이고 게임이고 그런 거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면담 9)

그런데 한국 사람 오면, 엄마 나라 이렇게 산다. 이렇게 그냥 한 번 그래도 그런 교육 해주면 아기들 다 잘 배울, 아니 잘 알 것 같은데요? 지금 엄청 많이 좋아요. 엄마 나라 이런 거 할 때. 물어보잖아요. 엄마한테. 이런 거 했다고 해서 엄마나라 엄청 크다고 했어.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저도 한국말 응. 좀 많이 못 해요. 들었어요. 알려주긴 알려주는데. 제대로 못 알려주니까. (면담 11)

4) 다문화 이해 교육 및 다문화 교류

다문화 부모들은 자녀가 다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이중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모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모국 출신 아동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다문화 아동과의 교류가 자녀가 다문화 정체성을 수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어차피 나중에 아기도 이중문화, 한국문화랑 같이 융합해야 되서, 그래서 한국 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한국 어머님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이쪽에 베트남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엄마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같이 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면담 1)

> 학교에서 예를 들어 애기 엄마 베트남 출신이면 베트남 과목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가끔 야외, 다문화 야외활동 그런 것도 같이 참여하고 그러면 아기도 베트남 문화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도 접할 수 있고 그런 기회 있었으면 좋겠어요. (면담 3)

> 나중에 그냥 다문화 애들 그냥 모여서 그 다문화 체험 각각 나라의 문화 있잖아요. (면담 14)

> 언어 부분은 아이들이 교류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깐, 제가 원하는 것은 같은 상황, 또는 외국인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이 있어서 같이 배움도 하고 친구로 지내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어요.....(중략)..... 아직 한국에 와서 외국인 아이들을 만난 적이 없어서 아이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면담 20)

> 그래서 언어가 부족하다는 생각보다는 좀 그런 다문화적인 체험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시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좋을 것 같아요.(배우자 면담 9)

5) 모국 문화 체험 및 캠프 프로그램

다문화 부모들은 자녀가 활동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각국별로 캠프를 진행하여 집중적으로 모국의 문화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 사실 태국에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친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 있다 보니깐 같이 놀러가고 같이 이런 것하고 해서 그때는 딱히 센터 도움이 없이도 가능했고 센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 그런 게 없다 보니 일회성이라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다문화와 관련된 장이 있어서 친구들도 만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엑티비티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면담 20)

> 네. 있으면 좋죠. 네. 뭐 필수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뭐 경험. 엄마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배우자 면담 7)

캠프 같은 거 하면은 좀 더 그러면 문화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좀 더 자녀들한테도 그 엄마 나라에 대해서 그런 엄마 나라 언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 캠프를 통해서 어떤 그 엄마 나라의. 그 나라를 이렇게 섞기보다는 엄마 나라를 통일 해가지고, 한 나라만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정보들도 거기에서 얻을 수 있고. 얻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중언어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캠프가 있으면 좀 엄마 나라의 어떤 언어나 그런 문화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캠프. 대신에 이제 한 나라. (배우자 면담 7)

6) 영상 컨텐츠 개발 및 제공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문화가족 부모들은 실제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칠 때 동영상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많이 활용하였다.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 컨텐츠를 개발하여 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장 좋은 건 컨텐츠가 좀 잘 만들어지는. 유튜브처럼 컨텐츠가 잘 만들어져가지고, 해외에서도 쉽게 접속을 할 수 있고. 하면서 아이들이랑 쉽게 볼 수 있는 게 되면 되게 큰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게. .....(중략)..... 그렇죠. 동화책 세대는 지났죠. 동화책을 아무리. 그러니까 동화책도 유튜브에서 동화책 읽어주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좋아하죠. (배우자 면담 8)

6. 소결

다문화 영유아를 둔 결혼이민자 20명과 한국 출신 배우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담을 유목화하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V-6-1〉과 같다.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 장애물,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을 위한 부모의 노력, 부모의 지원 서비스 경험 및 요구로 범주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은 자녀의 발달 지연 문제 경험, 자녀 양육 및 교육 시 언어적 한계 경험, 교류 및 정보 부족 경험, 부부 간 사고방식 및 양육관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경험으로 유목화되었다.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 장애물은 이중언어가 언어 발달 지체를 유발한다는 편견, 배우자 및 가족의 비지지적 태도,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이해 부족, 차별에 대한 두려움, 학업과정에 대한 염려, 모국어 사용에 대한 낮은 동기부여로 구분되었다.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을 위한 부모의 노력은 일상에서 이중언어 사용, 다양한 매체 활용, 모국 출신 사람들과의 교류, 모국 가족과의 소통 및 모국 방문 등으로 구분되었다.

다문화 부모의 지원 서비스 경험 및 요구는 부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이용 시 긍정적 경험, 부모 지원 서비스 미이용 사유, 다문화가족 부모 지원 서비스 및 자녀 이중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서비스 지원 요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부모 지원 서비스 요구에는 통번역 서비스, 발달단계별 이중언어 실천 교육, 정보 접근성 제고, 모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확대, 자국 출신 전문인력 배치 희망, 아버지 교육 및 상담 활성화 등이 있었다. 자녀 이중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로는 모국어 교실 운영, 모국어로 된 도서 및 교재 지원, 모국 문화 및 역사 수업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 이해 교육 및 다문화 교류 강화, 모국 문화체험 및 캠프 프로그램, 영상 컨텐츠 개발 및 제공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6-1〉 다문화 영유아를 둔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심층면담 분석 결과

범주	하위 범주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	자녀의 발달 지연 문제 경험	자녀의 언어 발달 지연
		자녀의 인지·정서 발달 지연
	자녀 양육 및 교육 시 언어적 한계 경험	자녀와의 일상적 대화에서의 어려움
		부족한 한국어로 인한 일상적 자녀 양육 및 훈육 어려움
		자녀 교육 시 어려움
	교류 및 정보 부족 경험	
	부부 간 사고방식 및 양육관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경험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 장애물	이중언어가 언어 발달 지체를 유발한다는 편견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이해 부족	
	배우자 및 가족의 비지지적 태도	
	비지지적인 교육 · 보육기관 교사 태도	
	차별에 대한 두려움	
	학업 과정에 대한 염려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을 위한 부모의 노력	일상에서 이중언어 사용	
	다양한 매체 활용	
	모국 출신 사람들과의 교류	
	모국 가족과의 소통 및 모국 방문 계획	
부모의 서비스 경험 및 요구	부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이용 시 긍정적 경험	실질적인 양육 및 자녀 이중언어 지도에 도움
		심리적 안정감 제공 및 일상에 활력소 제공
		결혼이민자 간 교류의 장
		남편(아버지)의 양육 이해도 제고
	부모 지원 서비스 미이용 사유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긴 대기 시간 및 서비스 제공 시간대 문제
		배우자 및 가족의 반대
		필요성 미인지
	다문화가족 부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	통번역 서비스
		구체적인 발달단계별 이중언어 실천 교육
		정보 접근성 제고
		모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확대
		자국 출신 전문인력 배치 희망
		아버지 교육 및 상담 활성화
	자녀 이중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	모국어 교실 운영
		모국어로 된 도서 및 교재 지원
		모국 문화 및 역사 수업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 이해 교육 및 다문화 교류 강화
		모국 문화 체험 및 캠프 프로그램
		영상 컨텐츠 개발 및 제공

심층면담 분석 결과에서 추가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언어 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도가 여전히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미 많은 영역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다수 교육내용에 이중언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 부모들의 진술에서 여전히 이중언어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가족의 비지지적 태도가 드러난 만큼 이중언어 인식개선은 다시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다문화가족 부모는 이중언어가 자녀의 언어발달 지연을 가져온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이중언어 사용이 자녀의 발달 지연에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인식이 선결적으로 해소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영유아 시기에는 아동의 언어발달 측면에서 이중언어 지원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기는 아동의 언어 형성 자체에 결정적인 시기로 발달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국어 및 한국어 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언어발달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실시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의 양육 역량 제고가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습득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중언어가 부모의 역할 효능감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본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자녀 양육 어려움 및 자녀 교육 지도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다문화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중언어를 지도하는 데에 있어 염려와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다문화가족 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이중언어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에도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도 해당 정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이중언어 관련 서비스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교육보육기관에서도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부모들은 교사에게서 전달받는 정보를 상당히 신뢰하므로 교육보육기관 종사자들에게 해당 정보 자료를 배포하거나 교사교육 시 정보를 전달하여 교육보육기관이 정보 전달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또한 부모가 직접 정보를 검색하고 획득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나, 정보 검색력이 부족하거나 언어

적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다문화 부모에게 자녀 양육 및 이중언어 교육 관련 사이트를 접속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등도 필요하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부모 특히 아버지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심층분석 결과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사용에는 한국 출신 배우자의 비지지적 태도가 큰 장애물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 여성뿐만 아니라 한국 출신 아버지들도 아버지 교육이 양육 이해도와 효능감을 제고시킨다고 응답하였다. 자녀 양육에 대한 이해와 참여는 결국 부모 역할 효능감을 제고할 것이며, 이는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로 이어질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여섯째, 다문화가족 부모는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에 모국 출신 사람들과의 교류가 도움이 된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질적인 부모 지원 서비스 요구에서도 모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자국 출신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컸으나, 개별 센터에서 출신국별로 해당 국가 출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자조모임을 활용하고 자조모임에서 결혼이민자의 역량도 강화하는 방식으로 결혼이민자 주도 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국가별 지원 요구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I

이중언어 지원 사업 진단 및 개선방안: 전문가 의견 수렴

01 조사응답자 특성

02 이중언어 지원 관련 인식 및 현황

03 이중언어 관련 사업 진단

04 이중언어 지원 사업 개선 방안

05 이중언어 환경 인식 및 개선 방안

06 소결

Ⅵ. 이중언어 지원 사업 진단 및 개선방안: 전문가 의견 수렴

1. 조사응답자 특성

전문가 의견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를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17명, 다문화교육센터 소속 9명, 지자체 소속 5명, 교육·보육기관 소속 11명이다. 각 센터에는 중앙기관 소속 인원도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의 해당 분야 종사 기간은 5년 미만이 38.1%로 가장 높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3.8%,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 14.3%, 15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은 각각 14.3%, 20년 이상은 9.5%로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 응답자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응답자는 센터장 4명, 사업담당자 4명, 중앙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종사자 1명, 이중언어코치 8명이다. 다문화교육센터 소속 응답자는 장학관, 장학사 등 센터장 4명, 사업담당자 2명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종사자 3명이다. 교육·보육기관은 유치원 원감과 교사 5명,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6명이 응답하였으며, 지자체 공무원은 5명이 응답하였다.

〈표 Ⅵ-1-1〉 전문가 의견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전체	100.0	(42)			
소속기관			해당 분야 종사 기간		
(중앙)다문화가족지원센터	40.5	(17)	5년 미만	38.1	(16)
(중앙)다문화교육센터	21.4	(9)	5~10년 미만	23.8	(10)
지자체(시군구)	11.9	(5)	10~15년 미만	14.3	(6)
교육·보육기관	26.2	(11)	15~20년 미만	14.3	(6)
			20년 이상	9.5	(4)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결과임.

〈표 Ⅵ-1-2〉 소속기관별 종사자 구분

단위: 명

구분	인원	구분	인원
전체	4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교육센터**	
센터장	4	센터장	4
사업담당자(팀장/팀원)	4	사업담당자(주무관)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	중앙다문화교육센터	3
이중언어코치	8		
교육·보육기관		**지자체**	
유치원 원감 및 교사	5	이중언어 사업 담당 공무원	5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6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결과임.

조사에 참여한 교육·보육기관 중 20명 미만 기관은 없었으며, 현원 평균이 63명으로 대부분 중간규모의 기관이었다. 한편, 응답한 교육·보육기관은 대부분 다문화 영유아가 많이 재원하고 있는 기관이다. 재원 다문화 영유아 수가 5명 이상에서 10명 미만이라는 응답이 4명, 10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7명으로 재원 다문화 영유아 수는 평균 28명이었다.

〈표 Ⅵ-1-3〉 교육·보육기관 현원 및 재원 다문화 영유아 인원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현원	100.0	(11)	재원 다문화 영유아	100.0	(11)
20~80인 미만 기관	90.9	(10)	5~10명 미만	36.4	(4)
80인 이상 기관	9.1	(1)	10명 이상	63.6	(7)
현원 평균	63명		재원 다문화 영유아 수 평균	28명	

자료: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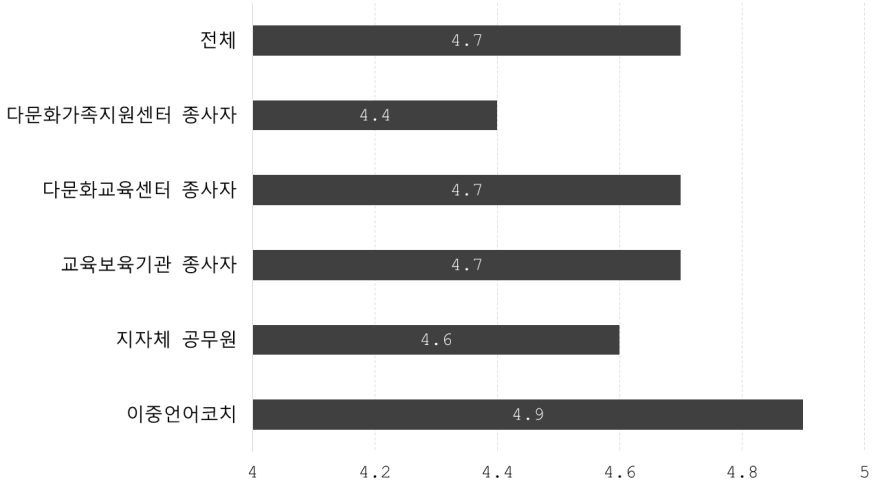
2. 이중언어 지원 관련 인식 및 현황

가. 이중언어 지원 관련 인식 및 이해

이중언어 지원 사업의 중요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은 4.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이중언어 코치가 4.9점으로 이중언어 지원 사업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다문화교육센터와 교육·보육기관 종사자가 4.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외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이중언어 지원 사업 중요도 평가가 4.4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Ⅵ-2-1] 이중언어 지원 사업 중요도

단위: 점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이중언어 관련 제도 및 지원 사업의 이해도를 살펴보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 가족정책기본계획,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지자체의 특화사업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3.3점에서 3.5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정도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3.5점으로 가장 이해도가 높았다.

〈표 Ⅵ-2-1〉 이중언어 관련 제도 및 지원 사업 이해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평균	계	(수)
다문화가족지원법	7.1	2.4	38.1	38.1	14.3	3.5	100.0	(42)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9.5	7.1	35.7	33.3	14.3	3.4	100.0	(42)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여가부)	7.1	21.4	21.4	21.4	28.6	3.4	100.0	(42)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교육부)	9.5	9.5	35.7	28.6	16.7	3.3	100.0	(42)
소속 지자체의 이중언어 관련 정책 및 특화 사업	9.5	21.4	19.0	28.6	21.4	3.3	100.0	(42)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지원이 어떤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48.4%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시행령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여, 절반 정도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상위 근거법령에 이중언어 지원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에 이중언어 지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29.0%, 부처별 실행계획이 12.9%, 지자체별 실행계획 6.5%순이었다.

〈표 Ⅵ-2-2〉 이중언어 지원 근거 규정

단위: %(명)

구분	%(명)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시행령	48.4(15)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29.0(9)
부처별 실행계획	12.9(4)
지자체 조례	3.2(1)
지자체별 실행계획	6.5(2)
기타	0.0(0)
계(수)	100.0(31)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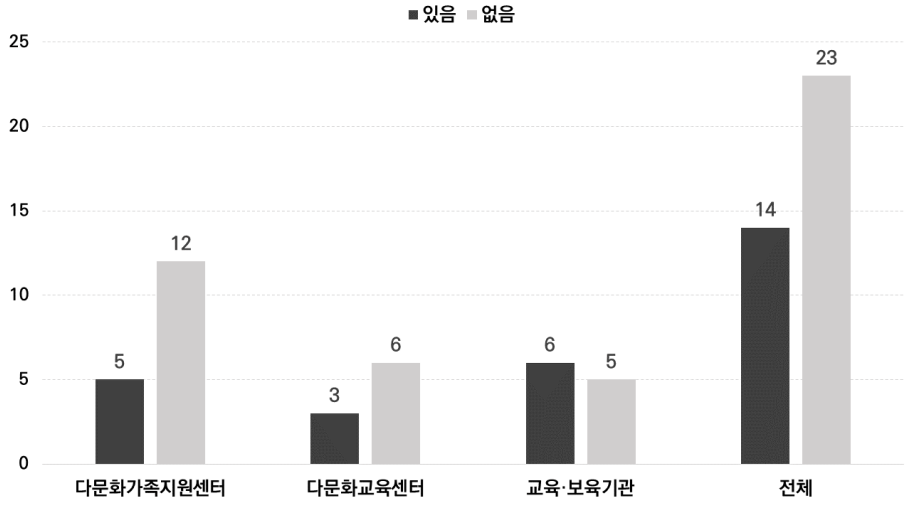
나. 이중언어 지원 사업 운영 현황

이중언어 지원 사업 운영에서는 타기관과의 연계 사업 실시 현황과 사업 운영상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먼저, 이중언어 지원사업을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지자체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연계 사업이 있다(14명)는

응답보다 없다(23명)는 응답이 많아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교육·보육기관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교육보육기관에서는 직접 이중언어 사업을 시행하기 보다는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배치된 이중언어 인력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Ⅵ-2-2] 기관별 외부 기관과의 이중언어 사업 연계 실시 여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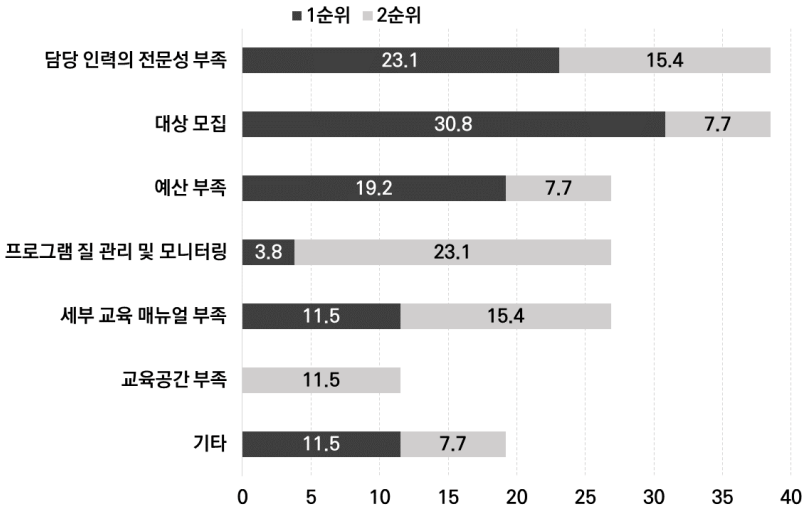


주: N=37명(지자체 공무원 제외)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이중언어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교육센터를 대상으로 운영 상 어려운 점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대상모집에 대한 어려움이 1+2순위(38.5%), 1순위 (30.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어려움도 1+2순위에서 38.5%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1순위 응답에서는 23.1%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1+2순위에서 높게 나타난 어려움은 예산 부족, 세부 교육 매뉴얼 부족, 교육공간 부족으로 모두 26.9%가 응답하였다.

[그림 Ⅵ-2-3] 이중언어 지원 사업 운영상 어려운 점

단위: %



주: N=26명((중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이중언어코치 응답)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다. 이중언어 관련 부모 역량강화 지원

다음은 다문화가족 부모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한 결과를 연구진이 유목화하여 분류한 결과이다. 주된 이유는 가족들의 부정적 인식, 이중언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자녀의 한국어 발달 염려, 이중언어 지도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활용 교재 부족, 부모들의 언어 능력 부족 등이었고 그 외에 기타 의견이 있었다. 이를 통해 이중언어에 대한 가족들의 인식과 이중언어가 한국어 발달을 저해한다는 생각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모가 이중언어를 지도할 수 있는 교재교구 및 지도방법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결혼이민자에게는 한국어 교육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는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Ⅵ-2-3〉 다문화가족 부모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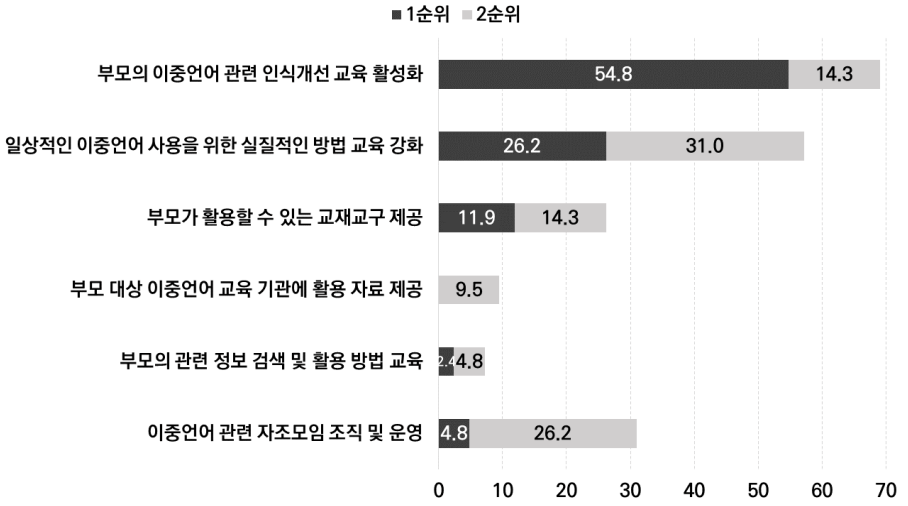
구분	내용
가족들의 부정적 인식	- 주변가족들의 반대 - 시부모, 배우자의 이해 적음 - 시부모, 배우자의 인식 - 조부모 반대 - 배우자, 시부모 등 가족구성원들이 아직도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음 - 가족들의 인식 부족 - 배우자 반대 - 일부 국가(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의 이중언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가족이 꺼리거나 무시함 - 가정 분위기로 못하는 한국어를 억지로 쓰게 되다 보니 단기간에 고치기 어려움
이중언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이중언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음 - 소수어인 경우 불필요 하다는 인식 - 선진국 언어 외 모국어를 외부에서 쓰게 되면 눈치가 보임 - 외모가 한국인과 비슷한 경우 공교육기관에서 다문화인임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여 이중언어 사용안함 - 국내 출생 자녀의 경우 다문화 가정 자녀임을 밝히기 꺼려함, 그로 인해 부모의 모국어 사용이 줄어듬 - 엄마들의 모국어 사용에대한 부정적인 시각
자녀의 한국어 발달 염려	- 한국어 학습에 방해 우려 - 자녀의 한국어 발달 늦을까 봐 - 자녀의 혼란염려
이중언어 지도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 교수법에 대한 낮은 이해: 언어를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학습적으로 접근 - 가정 내 인식 및 이중언어 사용방법 부재 - 전달 방식을 모름 -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이중언어 교육 교수방법을 잘 모름 - 이중언어 환경 조성에 대한 교육 부족
활용 교재 부족	- 아동용 교재 부족 - 활용 가능한 매체 부족 - 모어의 중요성 및 재미있는 교구, 교재 개발 및 다양한 모어의 접근성을 제공 - 교재교구 부족 - 교육교재 차이 - 활용 가능한 매체 부족
부모들의 언어 능력 부족	-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부족 - 가족간에도 이중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언어소통이 잘 안됨 - 부모님들 또한 한국어가 서툼 - 부모도 이중언어가 안됨
기타	- 지속적인 사용에 대한 부모의 의지부족 - 언어사용 기회 및 또래 그룹 활용을 통한 동기부여 필요 - 상호작용 부족(부모 다수가 생업으로 자녀 상호작용 곤란)/시간이 없음 - 가정 내 사용하는 언어와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름 - 교육기관 부족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다음은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우선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이다. 부모의 이중언어 관련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방안이 1+2순위(69.1%) 및 1순위(54.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상적인 이중언어 사용을 위해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1+2순위(57.2%) 및 1순위(26.2%)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순위 응답에서는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교재교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항목이 높게 나타났으며, 1+2순위에서는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조직 및 운영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Ⅵ-2-4] 이중언어 관련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지원 순위

단위: %



주: N=42명(응답자 전체)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상기의 결과에서 상위 4개 항목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보완방법에 대해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를 유목화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부모의 이중언어 관련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선택한 전문가는 다문화 가정 내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부모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모 인식 제고가 교육 효과성 제고로 이어지므로 부모의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는 이중언어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중요성 강조, 부모 교육 및 다문화가족 교육의 다양

화 모색, 교육 참여를 위한 유인책 강구 등을 제시하였다. 즉, 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홍보 강화, 다양한 교육 제공, 유인책 제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중언어 인식개선 교육 참여를 유도해야한다고 보았다.

〈표 Ⅵ-2-4〉 부모의 이중언어 관련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 및 보완방법

구분	내용
이유	- 다문화 가정 내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 부모 인식 제고가 교육 효과성을 높임
보완방법	- 이중언어 교육의 지속적인 홍보와 중요성 강조 - 부모 교육 및 다문화가족 교육 다양화 모색 - 교육 참여를 위한 유인책 강구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일상적인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 교육을 강화를 선택한 전문가들은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기본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필요한 일상생활에서의 이중언어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다문화 가족 내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일상적인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관련하여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모국어별 이중언어 코치 양성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있었으며,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부모 교육 활성화도 해결 방안으로 언급되었다.

〈표 Ⅵ-2-5〉 일상적인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 교육 강화가 중요한 이유 및 보완방법

구분	내용
이유	-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 - 이중언어 환경 조성에 필요 - 일상생활에서의 이중언어 교육 부재 - 의사소통의 어려움
보완방법	-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 -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 제공 - 모국어별 이중언어코치 양성 - 부모 교육 활성화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교재교구 제공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부모의 학습지도 능력 부족, 이중언어 교재교구 부족, 이중언어 교육 기회의 확대 등이 언급되었다. 부모 대상 이중언어 교재교구 제공을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이중언어 교재교구가 개발되어야 하며, 지역이나 기관별 또는 부모의 수요에 따른 적절한 교재교구 배분도 요구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기관 간 연계 활동에서도 부모 대상 교재교구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표 Ⅵ-2-6〉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교재교구 제공이 중요한 이유 및 보완방법

구분	내용
이유	- 부모의 학습지도 능력 부족 - 이중언어 교재교구의 부족 - 이중언어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보완방법	- 이중언어 교재교구의 개발 - 수요에 맞는 교재교구 배분 - 기관 연계 활동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조직 및 운영이 부모 역량강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자조모임이 부모 인식 개선 및 독려와 이중언어 교육의 지속성에도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민자 부모의 소외감 극복 및 정보교육 활성화가 이중언어 관련 부모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커뮤니티 조직 및 모임 지원,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부모 독려 및 의견 교류 활성화라고 응답하여 구체적인 보완 방법이 도출되지는 않았다.

〈표 Ⅵ-2-7〉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조직 및 운영이 중요한 이유 및 보완방법

구분	내용
이유	- 부모 인식 개선 및 독려를 위해 - 이중언어 교육의 지속성을 위해 - 이민자 부모의 소외감 극복 및 정보교류 활성화
보완방법	- 커뮤니티 조직 및 모임 지원 -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부모 독려 및 의견 교류 활성화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3. 이중언어 관련 사업 진단

가. 지원 사업 내실화 관련 부분별 중요성 및 이행도

이중언어 지원 사업 내실화에서 부분별 중요성을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이중언어 관련 인력 전문성 제고가 4.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 인력풀 확보가 4.2점, 이중언어 사업 이용자의 접근성 강화가 4.1점, 이중언어 사업의 다양화와 사업 연계기관 발굴 및 강화가 4.0점, 이중언어 사업 예산이 3.9점 순으로 나타났다. 즉, 현장 전문가들은 이중언어 사업을 수행할 인력 관련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이중언어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다양화하는 등 서비스 대상자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높게 평가하였다.

〈표 Ⅵ-3-1〉 이중언어 지원 사업 내실화의 부분별 중요성 평가

단위: %(명)

구분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평균	계	(수)
이중언어 사업 인력풀 확보	0.0	0.0	22.6	38.7	38.7	4.2	100.0	(31)
이중언어 관련 인력 전문성 제고	0.0	0.0	19.4	25.8	54.8	4.4	100.0	(31)
이중언어 사업의 다양화	0.0	3.2	29.0	35.5	32.3	4.0	100.0	(31)
이중언어 사업 연계 기관 발굴 및 강화	0.0	3.2	29.0	29.0	38.7	4.0	100.0	(31)
이중언어 사업 이용자의 접근성(accessibility)	3.2	0.0	9.7	54.8	32.3	4.1	100.0	(31)
이중언어 사업 예산	6.5	6.5	22.6	22.6	41.9	3.9	100.0	(31)

주: 교육·보육기관 종사자를 제외한 응답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이중언어 지원 사업 관련 부분들이 충분히 확보되거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에서는 중요성 평가보다 전반적으로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요성에 비해 실제 지원 정도는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개 항목의 이행도를 모두 3.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중언어 사업 이용자의 접근성은 3.4점, 이중언어 사업 인력풀 확보는 3.2점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Ⅵ-3-2〉 이중언어 지원 사업 내실화의 부분별 이행도(충분성) 평가

단위: %(명)

구분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평균	계	(수)
이중언어 사업 인력풀 확보	3.2	22.6	32.3	32.3	9.7	3.2	100.0	(31)
이중언어 관련 인력 전문성 제고	3.2	35.5	22.6	25.8	12.9	3.1	100.0	(31)
이중언어 사업의 다양화	6.5	19.4	41.9	25.8	6.5	3.1	100.0	(31)
이중언어 사업 연계 기관 발굴 및 강화	6.5	12.9	48.4	25.8	6.5	3.1	100.0	(31)
이중언어 사업 이용자의 접근성(accessibility)	3.2	9.7	38.7	38.7	9.7	3.4	100.0	(31)
이중언어 사업 예산	12.9	22.6	22.6	22.6	19.4	3.1	100.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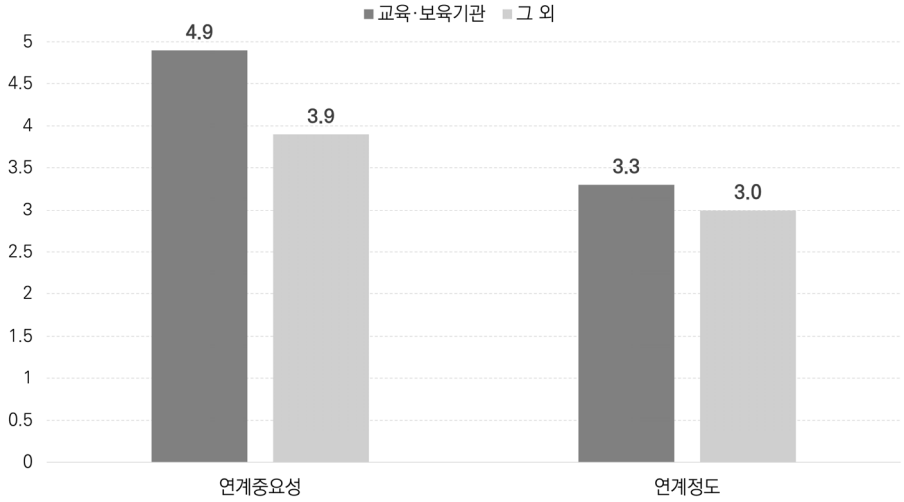
주: 교육·보육기관 종사자를 제외한 응답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나.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과의 연계

다문화 영유아 대상 이중언어 지원 사업 시 영유아 교육·보육기관과의 연계 중요성 및 연계정도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실제 이중언어 지원 사업 연계 정도보다 교육·보육기관과의 연계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성과 연계정도 모두 교육·보육기관 종사자의 점수가 높았다. 교육·보육기관 종사자와 그 외 기관 종사자의 비교 결과에서 연계정도는 0.3점 차이로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연계중요성에서는 1.0점 차이를 보였다. 교육·보육기관 종사자는 이중언어 사업 실시에서 교육·보육기관과 다른 기관 간에 연계 중요성을 4.9점으로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교육·보육기관이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재원 다문화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도를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Ⅵ-3-1] 연계 중요성 및 연계정도 비교: 교육·보육기관 종사자 vs. 그 외 기관 종사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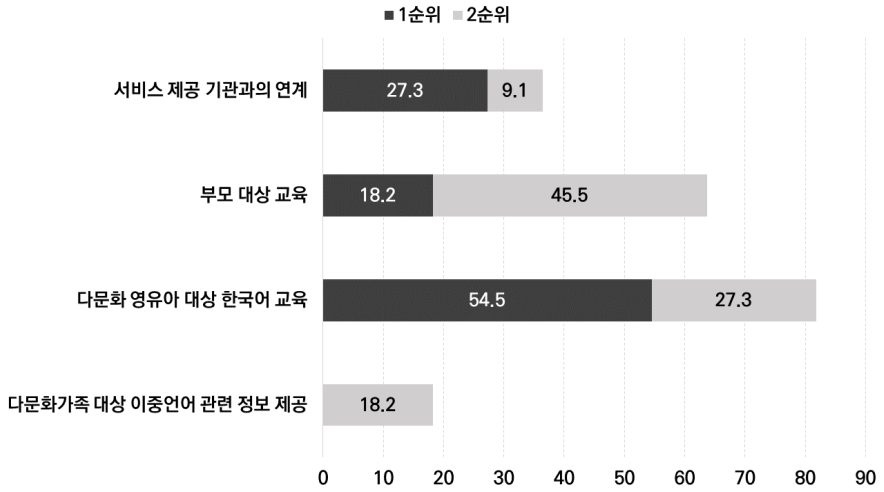


주: 교육·보육기관 N=11명, 그 외 N=31명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교육·보육기관 종사자에게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문화 영유아 대상 한국어 교육이 1순위(54.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순위 응답을 합하면 81.8%로 대부분의 교육·보육기관에서 원아 대상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1+2순위 합산에서 높은 응답은 부모 대상 교육(63.7%)이었으며, 1순위에서 높게 나타난 응답은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27.3%)로 나타났다.

[그림 Ⅵ-3-2] 교육·보육기관에서 실시 가능한 이중언어 발달 지원 프로그램

단위: %



주: N=11명(교육·보육기관 종사자)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나.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의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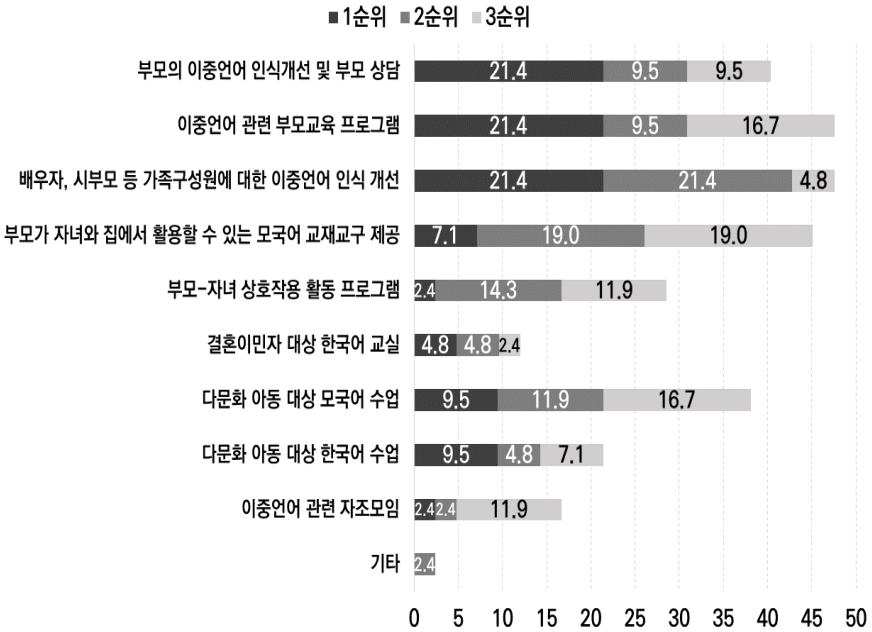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서비스에 대해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이중언어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중언어 인식 개선이 47.6%(1+2+3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중언어 인식개선이 1, 2순위 합산에서는 가장 높았다. 이는 배우자나 한국 가족들의 이중언어에 대한 지지적 태도가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에 상당히 중요하며, 아직까지 많은 경우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비지지적임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중언어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와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교재교구 제공(45.1%)과 부모의 이중언어 인식개선 및 부모 상담(40.4%)도 1, 2, 3순위 합산 결과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선 결혼이민자 부모 대상 결과에서는 자녀 대상 모국어 수업에 대한 필요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언어 관련 기관 서비스 선택 시에서 자녀가 모국어를 배우기 적합한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응답한 것과는 다른 양상의 응답 결과이다. 이를 통해 실제 다문화 부모의 경우 이중언어 지도에 대한 지식이나 역량의

부족을 경험하여 외부에서의 지원을 바라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가정 내에서 부모의 역할과 부모의 역량강화를 다문화 아동이 이중언어 사용에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 대상 인식개선과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Ⅵ-3-3]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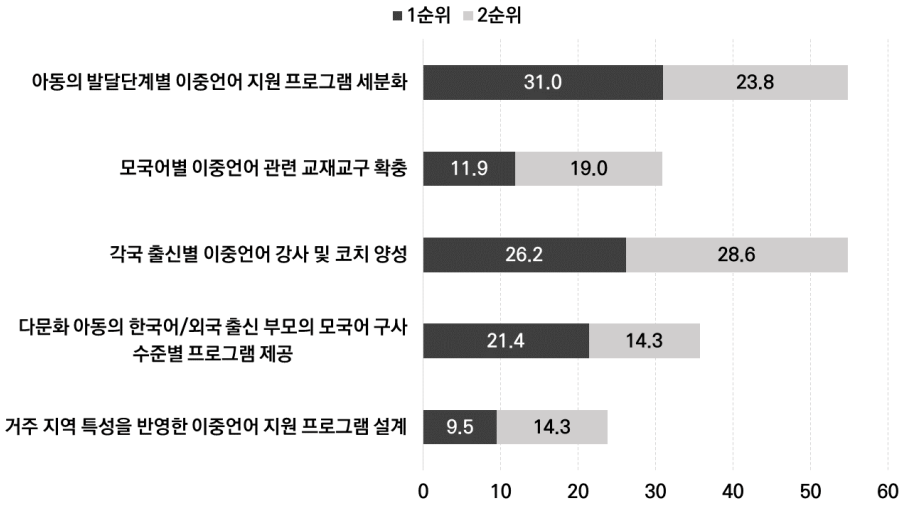
주: N=42명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다문화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 지원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질문한 결과, 아동의 발달단계별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 세분화라는 응답이 1순위(31.0%)와 1+2순위(54.8%)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영유아 시기에는 발달시기별 차이가 크므로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 방법을 세분화할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결국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이중언어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각국 출신별 이중언어 강사 및 코치 양성도 1순위에서 26.2%, 1+2순위에서 54.8%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부모의 경우 자국의 이중언어 강사나 코치를 선호하고, 실제로 효과성도 높으나 소수언어의 경우 해당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다음으로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모국어 구사 수준별 프로그램 제공(35.7%), 모국어 이중언어 관련 교재교구 확충(30.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 전문가들도 일률적인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인 다문화 아동과 부모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Ⅵ-3-4] 다문화 아동 및 부모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우선 고려사항

단위: %



주: N=42명(응답자 전체)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표 Ⅵ-3-3〉 다문화 아동 및 부모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우선 고려사항 선정 이유

구분	내용
1. 아동의 발달단계별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 세분화	-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 방법의 차이 - 언어 구사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의 필요성 - 사업 효과성 증진을 위해

구분	내용
2. 모국어별 이중언어 관련 교재교구 확충	- 모국어별 이중언어 교재교구가 부족한 상황 - 이중언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 부모 직접 교육, 가정에서의 교육을 통해 효과성 극대화
3. 각국 출신별 이중언어 강사 및 코치 양성	- 출신국별 이중언어 전문 강사 인력부족 및 구인의 어려움 해소 - 이중언어 강사의 전문성 고취를 위해 - 원활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 업무를 위해 -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 출신국 언어 및 문화 자긍심 고취를 통한 사업 효과성 극대화
4.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 구사 수준별 프로그램 제공	- 부모 교육을 병행하여 이중언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 언어구사 능력에 따른 수준별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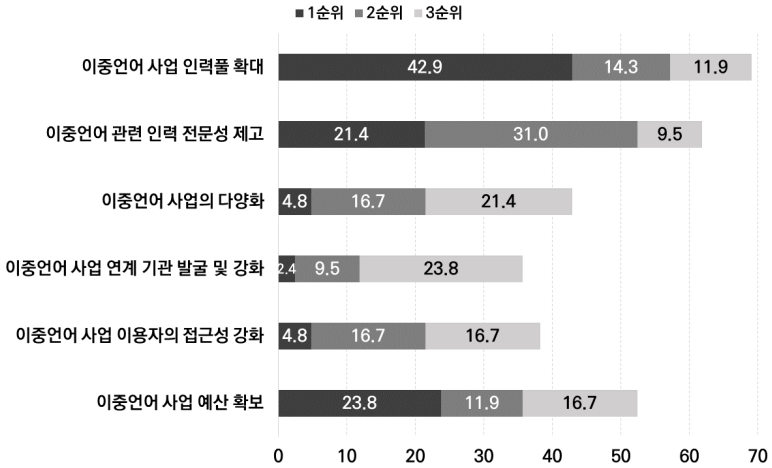
4. 이중언어 지원 사업 개선 방안

가. 이중언어 지원 사업 내실화 및 확대 방안

이중언어 지원 사업의 내실화 및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조사한 결과, 이중언어 사업 인력풀 확대라는 응답이 1순위(42.9%)와 합산 순위(69.1%)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이중언어 관련 인력 전문성이 합산 순위에서 61.9%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사업 부분별 중요성 평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두 부분을 보완 필요 응답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로 꼽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언어 사업 예산 확보는 1순위(23.8%)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합산 순위에서는 52.4%가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는 합산순위가 이중언어 사업의 다양화(42.9%), 이중언어 사업 이용자의 접근성 강화(38.2%), 이중언어 사업 연계 기관 발굴 및 강화(3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Ⅵ-4-1] 이중언어 지원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단위: %



주: N=31명(교육·보육기관 종사자 제외)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각 부분별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와 보완방법에 대해 개방형으로 응답한 결과를 유목화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이중언어 지원 사업의 인력풀 확대가 필요한 이유에서는 현재 이중언어 관련 인력 자체의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문가들은 이중언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력풀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중언어 사업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 부처가 인력 양성에 투자하여야 하며 인력 교육도 강화해야한다고 보았다.

〈표 Ⅵ-4-1〉 이중언어 사업 인력풀 확대 필요 이유 및 보완방법

구분	내용
이유	- 이중언어 인력부족 및 구인의 어려움 해소 -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 - 보다 다양한 국가별 양질의 이중언어 교육 실시를 위해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 결혼이민자의 자긍심 및 자녀의 모국에 대한 관심 제고
보완방법	- 중앙 차원에서 인력 양성 - 이중언어 인력 교육 강화 - 인건비 인상 및 예산확보 - 전문 인력 배치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이중언어 관련 인력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이유로는 현재 개인 역량에 의존하여 실시되고 있는 이중언어 지원 사업 전문성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중언어 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실시 시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인력의 전문성이 사업의 효과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중언어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되어야 하며, 현장 경험을 통해서도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업무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중언어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즉 인건비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표 Ⅵ-4-2〉 이중언어 관련 인력 전문성 제고 필요 이유 및 보완방법

구분	내용
이유	- 전문성 부족 문제(개인 역량에 의존) - 체계적, 지속적인 교육 및 자료 부족 - 인력의 전문성이 사업 성과에 이어짐
보완방법	-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 - 인건비 개선 - 업무 지속성 제공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이중언어 지원 사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본 전문가들은 현재 기본적인 매뉴얼에 기반하여 일률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보았으며,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이용자들의 호응을 유발하고 접근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 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연계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이중언어 사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로 이중언어 지원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다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또한 우수사례 공유 및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업 다양화에 대한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표 Ⅵ-4-3〉 이중언어 사업의 다양화 필요 이유 및 보완방법

구분	내용
이유	- 현재 기본적인 매뉴얼에 기반하고 있음 - 이용자의 접근성 및 호응도 유발 - 지역사회 및 연계기관 지원을 위해

구분	내용
보완방법	- 다양한 언어로 이중언어 환경 및 문화 교육 - 다양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 다른 프로그램의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 리뉴얼 - 지역 특화 프로그램 제공 - 사례공유 및 인센티브 제공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여성가족부의 이중언어 지원 사업은 이중언어코치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 자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또한 타 사업에 비해 시급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는 점도 예산 편성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인력 구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이중언어 사업비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이중언어의 중요성와 시급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제안하였다.

〈표 Ⅵ-4-4〉 이중언어 사업 예산 확보 필요 이유 및 보완방법

구분	내용
이유	- 프로그램 진행할 예산의 부족 - 타 사업에 비해 시급성이 낮게 인식됨 - 다양한 사업추진 및 인력 구성이 가능해짐
보완방법	- 별도의 예산 지원 - 예산 재분배 - 중요성 부각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나. 이중언어 지원 사업 인력 전문성

전문가들이 이중언어 지원 사업 내실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응답한 사업 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얻기 위해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를 유목화하였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중언어 사업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크게 교육 강화, 교육자료 제공, 인력 양성 및 배치 등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먼저,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이 필요하며,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에서 이중언어 관련 역량강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시에는 단편적인

이해 교육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다면적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이중언어 인력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간 노하우 공유를 위한 종사자 회의나 전문적인 학습동아리 등을 구성하여 자발적인 전문성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조직 지원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Ⅵ-4-5〉 이중언어 사업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

구분	내용
교육 강화	- 역량강화교육(체계적 교육 및 재교육) - 양성교육, 보수교육 강화 - 인력 전문교육 과정 필요 - 사업 전담 인력 역량강화(양성, 보수교육 등)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 다양한 방면의 교육, 문화 이해 교육 - 교수법 교육 - 종사자 회의 및 전문적 학습동아리 구성
교육자료 제공	- 새로운 교구 개발 - 모국어 교재교구 제공 - 활동지, 교재 제공
인력 양성 및 배치	- 원활한 배치 - 원내 관련 인력 배치 - 전문인력 양성
기타	- 처우개선 - 이중언어강사 강사비 인상 - 우수사례 공유 - 이중언어의 중요성과 우수사례 - 다년간 업무 유지 - 유관기관 이중언어 사업 담당 인력 협의체 구성·운영 - 예산관련 관계자 참석 공개토론회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예산확보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다. 이중언어 지원 사업 접근성

다문화가족 부모의 심층면담에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현장전문가들에게 이중언어 지원 사업의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접근성 제고 방안은 크게 홍보, 온라인 활용, 다국어 서비스, 연계 강화 등으로 유목화 되었다. 먼저, 홍보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동영상 제작을 통한 홍보, 언론 및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지역 내 기관을 통한 홍보, 출생신고 시 사업홍보자료 배부 등이 언급되었다. 또한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서 다문화 이중언어 관련 홍보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다음으로 온라인 활용 방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다문화가족이 많이 이용하는 다누리 포털 등을 활용하여 이중언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콘텐츠를 탑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이중언어 지원 사업 시에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온라인 메신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대면 사업과 더불어 온라인 강좌를 병행하여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서비스 이용 신청 및 교육 진행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안, 결혼이민자가 직접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제공, 온라인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도 제안되었다.

이중언어 지원 사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크게 부처 간 연계와 기관 연계로 구분되었다. 이중언어 지원 사업이 다부처 지원 사업이다보니 부처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상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서로 다른 전달체계를 가지고 이중언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중앙 부처와 중앙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상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결혼이민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학부모 대상 서비스 모집 시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또한 다양한 출신국 결혼이민자의 사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국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중언어 교육 시 다양한 언어로 다국어 번역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료에 대한 번역 자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Ⅵ-4-6〉 이중언어 지원 사업 접근성 제고 방안

구분		내용
홍보		- 다각적인 홍보방법 강구 -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많은 동영상 홍보 제작 필요 - 중앙(교육부 등)에서부터 다문화 관련 홍보 확대 실시 - 다국어 홍보 및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을 통한 홍보 -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한 홍보 강화 - 다문화가족 출생신고 시 사업홍보자료 배부
온라인 활용	온라인 플랫폼	- 이중언어관련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 - 다누리 포털 등 다문화가족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이중언어 관련 콘텐츠 탑재 및 연계 - 자유롭게 수시로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구분		내용
	커뮤니티 또는 온라인 메신저 활용	- 밴드 등 커뮤니티 활용 - 문자, 카카오톡 문자 발송 - 카카오채널 활용
	온라인 강좌	- 온라인반 개설 등 - 코로나 이후에도 수요에 따라 온·오프라인 수업이 필요함 - 온라인 또는 자료 배송(배부) 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기관에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음(생업, 가정 분위기 등)
	기타	- 앱을 통한 서비스이용 신청, 교육 진행 등 - 인터넷 등 활용교육 필요 - 온라인 활용 프로그램 개발
다국어 서비스		- 다국어 번역 서비스 제공 - 기관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 취득 시, 다양한 번역 자료 필요
연계	부처 간 연계	- 이중언어 정보 제공 채널 다양화(교육부, 여가부, 소속기관 포함)로 일원화된 이중언어 관련 정보 제공 필요 - 각 부처별 지원하고 있는 이중언어 관련 정보를 연계 보완(내용, 언어 등) 필요 - 교육부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 서비스 제공 한계(프로그램 모집 등의 어려움)로 여가부(다가센터) 연계 필요
	기관 연계	- 주민센터에서의 홍보 및 기관연계 - 가까운곳 기관 이용(어린이집 등) - 공공기관 활용 - 사회공공시설의 다문화 관련 교육 확대(국민의 다문화이해 증진 포함) - 지역내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찾아가는 이중언어 프로그램 진행 - 교육청, 학교에서 이중언어교육 개선
기타		- 이중언어사업에 대한 알기 쉬운 자료 및 정보제공 - 국가별 자조모임 활용 - 차량 지원, 교재 지원 필요 -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중언어 중요성 인식이 우선되면 서비스 이용 접근은 문제되지 않음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라. 교육·보육기관 연계

본 연구는 다문화 영유아를 둔 부모 대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과의 연계도 주요한 방안 중 하나이다. 이에 현장 전문가들에게 영유아 교육·보육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를 유목화한 결과 인력 파견, 교사교육, 기관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홍보, 교재 및 안내 제공 등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교육·보육기관에 이중언어 강사를 파견하는 서비스나 이중언어코치를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교사의 이중언어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서 교사 교육과정에서 이중언어 중요성을 교육하고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다문화 관련 센터와 교육·보육기관과의 연계, 기관 관 협약 체계 등이 필요하며, 부처 간 또는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자체가 주도하여 주민자치센터에 교육·보육 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이중언어 홍보 강화와 이중언어 교재 및 안내 자료 제공 이외에도 이중언어 지원 사업의 지역별 전문 인력 확보, 교수학습 인력 양성, 전달체계에서 중간 관리자 필요, 컨트롤 타워 필요 등이 제시되었다.

〈표 Ⅵ-4-7〉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연계 방안

구분	내용
인력 파견	- 찾아가는 서비스 - 이중언어 강사 파견 - 보육기관에 이중언어코치 배치 - 다문화 관련 연구로 전문성이 신장된 인력풀을 활용한 강사 배치
교사 교육	- 교사 인식개선 교육 - 교육, 보육기관에 이중언어 중요성 교육의무화 - 이중언어 교육 필요 - 정기적인 슈퍼비전과 같은 모임 - 다문화 교육할 수 있는 교사 지속적 관리 및 활용
기관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 기관간 협약체결 - 교육보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 부처(기관) 간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회 개최 - 다문화센터와 연계 - 상호 협력 사업 추진 -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도입
홍보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교육, 보육기관에 이중언어프로그램의 홍보 - 적극적인 홍보
교재 및 안내 제공	- 지역 내 교육,보육기관이 활용 가능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 - 교재 개발과 공유 - 프로그램 개발 및 안내
기타	- 지역별 전문 인력 확보 - 컨트롤 타워 필요 - 교수학습인력 양성 - 중간 관리자가 필요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마. 이중언어 관련 부모 역량강화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부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배우자 및 가족 인식 개선, 부모교육, 커뮤니티 활용, 부모 및 아동 대상 언어교육 확대,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유목화되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인식개선이 전제되어야 부모의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배우자 및 가족의 인식개선을 통해 이중언어에 대한 지지적 태도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다. 부모교육에서는 인식개선 교육과 더불어 교수법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부모교육에서 이중언어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포함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이중언어 자조모임, 학부모들의 소모임을 활성화하거나 지역커뮤니티와 연계하는 등 결혼이민자 부모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도 부모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결혼이민자 부모의 한국어 능력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자녀 대상 모국어 교육을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장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또한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강화를 통해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조되었다.

〈표 Ⅵ-4-8〉 이중언어 관련 부모 역량강화 방안

구분		내용
인식개선	배우자 및 가족 인식 개선	- 시부모, 배우자를 위한 교육의 안내, 이중언어교육의 효과성을 위한 자료제작, 인식개선교육 강화 - 인식개선 교육 진행 - 부모의 인식 개선을 통한 이중언어 사용 홍보 -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다문화 인식개선이 필요함 - 가족(시부모,남편)의 긍정적인 지원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인식개선(영어외에도 다양한언어에 대한 이중언어사용의 장점등) - 가족의 인식개선 필요 - 이중언어의 강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자녀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제고 - 이중언어의 강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부모교육	- 부모의 이중언어 관련 인식개선 교육 - 홍보 및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한 부모교육 - 학부모교육, 입학 전 필수 교육 - 부모 언어지원교육 - 인식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이중언어 교육 교수법 교육 필요

구분	내용
커뮤니티 활용	- 이중언어 자조모임 - 출신국가 학부모들의 소모임 활성화 - 지역커뮤니티 연계
부모 및 아동 대상 언어교육 확대	-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이 부족하여 이중언어교육의 어려움도 있어 한국어교육과 같이 진행 필요 -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모의 한국어/모국어 교육 확대 - 부모님들도 한국어를 배울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이어지는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함 - 한국어 관련 수업 시간대 다양화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 이중언어 사용 가정 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작용 및 활용 프로그램 활성화 - 자녀-부모 유도 프로그램 확대 - 한국어로 된 부모-자녀 상호작용방법 교육 진행
기타	- 교재 교구 개발 - 이중언어 인식개선 교육 및 성공사례 공유 - 각국 출신 이중언어코치 양성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인식개선, 교육,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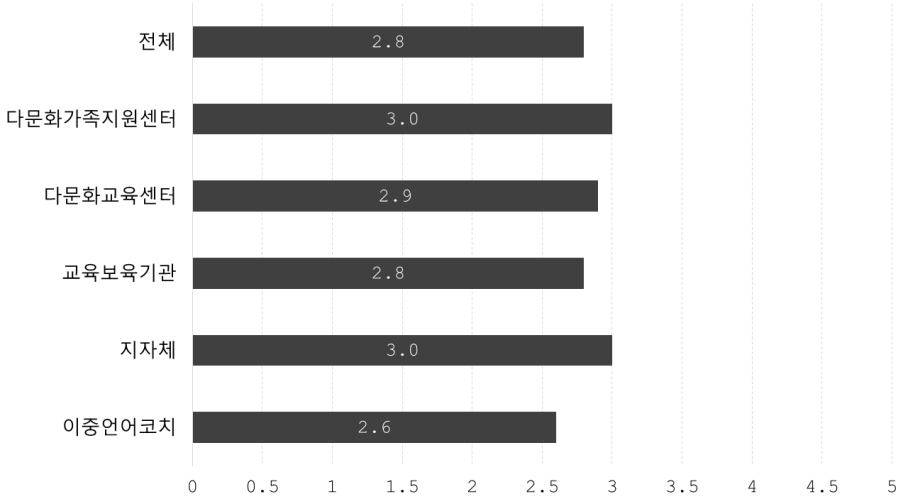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5. 이중언어 환경 인식 및 개선 방안

결혼이민자 대상 설문조사와 동일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이중언어 환경 및 인식에 대한 문항을 전문가 집단에게도 물었다. 결혼이민자의 전체 평균은 3.4점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 집단의 전체 평균은 2.8점으로 결혼이민자보다 한국사회의 이중언어 환경 및 인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이중언어코치가 2.6점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Ⅵ-5-1] 전문가 집단별 한국사회의 이중언어 환경 및 인식 비교

단위: 점



주: 한국사회의 이중언어 환경 및 인식 척도 문항(6문항)
① 한국사회는 다양한 외국 문화에 대해 수용적이다.
②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국민은 다문화 아동의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 습득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③ 한국사회는 언어별 차별 없이 모든 모국어 습득에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④ 다문화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중언어 사용을 지지 받는다.
⑤ 한국사회는 다문화 아동이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서비스가 충분하다.
⑥ 다문화 아동이 이중언어를 사용하면, 한국사회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 방안에 대해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를 유목화 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안은 크게 글로벌 인재 양성 측면에서의 다문화 교육 보편화, 이중언어 관련 우수사례 홍보 및 캠페인, 교육·보육기관에서 이중언어 인식개선 프로그램 및 교육 실시, 다문화 아동 대상 모국어 교육 기회 제공 및 동기부여, 모국어 능력 인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구분되었다.

〈표 Ⅵ-5-1〉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방안

구분	내용
다문화 교육 보편화	-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중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필요 - 전국민 대상 다양성 인식 및 다문화이해교육 필요 -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 확대 - 한국인 아동의 이중언어 접촉 경험 증진

구분	내용
이중언어 관련 우수 사례 홍보 및 캠페인	- 글로벌인재로 잘 성장한 자녀들에 대한 홍보 - 이중언어 지원 교육 수혜자의 사회 환원 사례 등을 발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매체를 통한 이중언어의 중요성, 이중언어의 성공사례등의 지속적인 노출 필요 - 주요언어(영어, 중국어) 외 타언어의 중요성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교육자료 제공 - 이중언어 교육 우수사례 공유 및 이점 홍보 - 이중문화와 언어 강점을 통해 성공한 명사, 전문가의 강연, 캠페인 등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캠페인(공익광고) - 긍정적으로 성장한 자녀의 롤모델 제시 - 이중언어 환경조성에 대한 지원 및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긍정적 사례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 이중언어 관련 직업 홍보(통·번역 등)
교육·보육기관에서 이중언어 인식개선 프로그램 및 교육 실시	- 교육기관에서 타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자녀의 인식개선을 위한 이중언어교육의 이해 등의 교육시간 별도 편성 필요 - 가정 및 원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월1회 이상 필요함 - 다문화 유아가 많은 유치원에 교사들의 다문화 교육방법 모색 - 학교에서 이중언어교실(단기간 1시간씩) 다문화교육 일환으로 실시 - 학교 방과후프로그램 확대 - 교육 및 보육 기관의 전문기관 연계 및 강사파견 홍보 등 - 이중언어 관련 교재교구를 제작하여 배포
다문화 아동 대상 모국어 교육 기회 제공 및 동기부여	- 자녀 연령, 정착단계별 이중언어 매뉴얼 필요. 입국 초기 자신의 모국어로 이러한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 - 유아기 다문화 학생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말하기대회 등 이중언어 자원을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
모국어 능력 인정 및 인센티브 제공	- 한국어 능력을 전제한 평가체계의 개선(한국어로 요구된 수행능력 부족, 실질 수행능력과는 구분되는 수행) - 모국어로 된 교과서로 학습과 시험 등을 할 수 있는 특별 전형 - 이중언어 교육-취업 루트 개발 - 학교 정규과정에 이중언어 실력인증 방안 강구 및 인센티브 제공
기타	- 이중언어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대상 수료증, 인증서 등을 수여하여 추후 학교 및 사회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 - 비대면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외국 문화 체험, 외국 여행 체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 - 중간관리자가 필요함(부모와 교육보육기관을 연계하는 관리자) - 이중언어 교실의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자의 편한 접근성(차량 지원 등)

자료: 본 연구의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6. 소결

〈표 Ⅵ-6-1〉은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결과 중 이중언어 지원 방안으로 제시된 주요 내용을 미시적, 중범위적, 거시적 차원에서 재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Ⅵ-6-1〉 전문가 의견조사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한 체계 수준별 지원 방안

구분	내용	
미시적 수준	다문화 아동	• 다문화 아동 대상 모국어 교육 기회 제공 및 동기 부여 •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기관의 한국어 교육 • 아동의 발달단계별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 세분화: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 방법 적용, 언어 구사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 •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모국어 구사 수준별 프로그램
	다문화 부모	• 부모의 이중언어 관련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 일상적인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 교육 강화 •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교재교구 제공 •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조직 및 운영 • 부모교육 활성화
	배우자 및 가족	•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중언어 인식개선 교육
중범위 수준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교육 강화	• 모국어별 이중언어코치 양성 • 교육강화: 체계적 교육/재교육,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강화 • 중앙 차원에서 전문 인력을 충분히 양성 • 전문 인력 양성 후 적절한 배치 • 이중언어 담당 인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보육기관 종사자	• 교육·보육기관 종사자 대상 이중언어 인식 개선 프로그램 실시 • 양성 및 보수 교육에서 이중언어 관련 교육 실시
	기관 연계	• 기관 간 연계 • 부처 간 연계: 교육부, 여성가족부 • 교육·보육기관과의 연계: 인력 파견, 교사 교육, 네트워크 구축, 교재 및 안내 제공 등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교재교구 개발, 수요에 맞는 교재교구 배분 • 다양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 모국어별 이중언어 관련 교재교구 확충 • 타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 리뉴얼 • 지역 특화 프로그램 • 사례공유 및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접근성 제고	• 홍보 강화 • 온라인 활용: 온라인 플랫폼 개발, 온라인 강좌 개설
거시적 수준	이중언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 다문화 교육 보편화 • 이중언어 관련 우수사례 홍보 및 캠페인 • 이중언어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여 중요성 부각 노력

구분	내용	
	제도화	•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시행령에 이중언어 지원 근거 규정 • 모국어 능력 인정 제도 및 인센티브 제공
	예산 확보	• 인건비 인상 • 예산 확보를 위한 별도 예산 지원, 예산 재분배

본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문화 영유아 및 부모 이중언어 지원방안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아동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전반적인 이중언어 지원 사업 이해 제고가 필요하다. 전문가 5개 집단에 응답을 분석해보니 다른 기관이나 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중언어 지원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담당 이중언어 지원 사업을 진행하거나 다문화 아동 및 부모 대상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이중언어 지원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보가 있어야 보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필요 시 연계가 가능하므로, 관련 기관이나 사업에 대한 취합된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둘째,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이중언어 인식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앞선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인식 제고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는데,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이중언어 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은 지속적인 인식 제고 사업이 요구되며 여전히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의미한다.

셋째,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중언어 지원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응답에서 '이중언어 사업 인력풀 확대'와 '이중언어 관련 인력 전문성 제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중앙 차원에서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전문 인력의 유입과 지속을 위해서는 인건비 인상 및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현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이 있으나 전문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부족하여 개인 역량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자료 개발 및 교수법 등에 대한 심화 교육 실시가 제안되었다.

넷째, 다양한 차원에서 연계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이중언어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하며,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실시하는 지원에 대한 일원화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사업 실시 시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부처 간 연계 뿐만 아니라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또한 자조모임 및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역커뮤니티와 연계하는 등 부모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다섯째, 이중언어 지원 방식에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활용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이중언어 관련하여 일원화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콘텐츠를 용이하게 이용하여 접근성을 제고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이중언어 관련 온라인 플랫폼 개발 및 연계, 온라인 메신저 및 커뮤니티 활용, 팬데믹 상황에서의 온·오프라인 강좌 병행 활용, 관련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 신청 및 교육 진행 등이 제안되었다.

여섯째, 시행 중인 이중언어 지원 사업 및 콘텐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앞서 결혼이민자 대상 조사 결과에서도 이중언어 관련 정보의 부족이 언급되었으며, 전문가 집단도 이중언어 지원 사업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 홍보를 강조하였다. 이미 다문화 아동 대상 이중언어 지원 사업을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필요가 있으나 이용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될 필요가 있다.

VII

다문화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방안

01 연구결과 종합

02 정책 기본방향 및 법적 기반 조성

03 정책과제별 추진 방안

04 지원 방안 종합 및 향후 연구 과제

Ⅶ. 다문화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방안

이 장에서는 국내외 정책 및 사업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전문가 의견조사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도출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다문화 영유아를 둔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먼저 각 장의 연구결과 중 공통된 부분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종합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중언어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할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6가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각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연구결과 종합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외 정책 및 사업 분석, 다문화 영유아를 둔 부모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전문가 의견조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중언어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과 부모의 역량강화 지원 관련 욕구 및 동원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절에서는 앞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의 강점 및 자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각 장의 결과 중 공통되게 범주화할 수 있는 결과들을 종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가. 교육ㆍ보육기관 및 교사 관련 결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모든 분석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나 교사 관련 내용이 모두 주요 결과로 도출되었다. 먼저, 국내외 정책 및 사업 분석에서는 특히 대만 사례에서 최근 유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안내 정

도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층면담에서는 오히려 교사의 비지지적 태도가 이중언어 사용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이중언어 지원 사업 실시 시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의 연계 중요성에 대해 교육 · 보육기관 종사자는 4.9점(5점)으로 응답하여 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의 수요는 높으나, 실제 연계 정도(3.3점)는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문화 영유아 및 부모 대상 이중언어 지원 사업에서 교육 · 보육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타기관과 교육 · 보육기관과의 연계 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Ⅶ-1-1〉 교육 · 보육기관 및 교사 관련 결과

구분	주요 결과
정책 및 사업 분석	• 국외 사례-대만: 유아 교육기관 교육과정에 문화 및 언어 통합 과정 진행, 교사에게 다문화 대응 커리큘럼 제작 배포 및 교육 방법 관련 연수, 교육 워크숍 실시
설문조사	•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안내: 이중언어에 대한 대화 경험 전혀 없음이 63.4%,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나 이외에 지원은 없었다는 응답이 20.2%
심층면담	•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 장애물: 비지지적인 교육 · 보육기관 교사 태도
전문가 의견조사	• 이중언어 지원 사업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의 실제 연계 정도는 연계 중요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교육보육기관 종사자는 연계정도 3.3점, 연계 중요성 4.9점, 그 외 기관 종사자는 연계정도 3점, 연계중요성 3.9점으로 응답 •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방안: 교육·보육기관에서 이중언어 인식개선 프로그램 및 교육 실시

나. 컨텐츠 및 교재교구 개발 관련 결과

컨텐츠 및 교재교구 개발 관련 결과도 모든 분석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정책 사업 분석 결과에서는 이중언어 컨텐츠 개발이 대부분 민·관·학 협력으로 진행되나 해당 결과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민·관·학 협력 형태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결혼이민자 부모들이 자녀의 모국어 습득 시 어려운 점으로 모국어로 된 교재의 부족을 응답하였으며, 가장 필요한 지원 서비스로 자녀와 집에서 활용가능한 모국어 교재교구 제공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에서도 다문화 부모들은 자녀 이중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로 모국어로 된 도서 및

교재 지원, 영상 컨텐츠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다문화가족 부모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 사용이 어려운 이유로 활용 교재의 부족을 꼽았으며,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 1, 2, 3순위 합산에서 부모가 자녀와 집에서 활용가능한 모국어 교재교구 제공이 높게 나타났고, 이중언어 교육 지원 시 우선적 고려 사항에서는 아동의 발달단계별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 세분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재교구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준별, 발달단계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컨텐츠 및 교재교구 개발에 있어 민·관·학의 협력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개발 된 컨텐츠를 홍보하고 활용함에 있어서도 협력적 관계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표 Ⅶ-1-2〉 컨텐츠 및 교재교구 개발 관련 결과

구분	주요 결과
정책 및 사업 분석	• 교육부 : 이중언어 학습 지원 전자책 보급하기 위해 민·관·학 업무 협약 체결 • 민간기관 주도 이중언어 지원 사업: 대부분 민·관·학 협력 사업의 성격 • 그러나 민·관·학 협력 이중언어 사업의 결과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해야하며, 향후 민·관·학 협력 형태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
설문조사	• 자녀의 모국어 습득 시 어려운 점: '모국어로 된 책이나 교재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1+2순위(41.8%)에서 두 번째로 높음 •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 자녀와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교재교구(책, 낱말카드 등) 제공이 가장 높음(1순위 31.1%, 1+2+3순위 63.1%)
심층면담	• 자녀 이중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 영상 컨텐츠 개발 및 제공, 모국어로 된 도서 및 교재 지원
전문가 의견조사	• 다문화가족 부모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 활용 교재 부족 •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 1+2+3순위에서 부모가 자녀와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교재교구 제공(45.1%)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다문화 아동 및 부모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 시 우선적 고려 사항: 아동의 발달단계별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 세분화가 1순위(31%)와 1+2순위(54.8%)에서 가장 높음

다. 부모 및 가족구성원 인식개선 관련 결과

설문조사, 심층면담,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다문화 부모 및 가족구성원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먼저, 설문조사에서는 다문화 부모들 자신도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로 부모의 이중언어 인식개선과 부모 상담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이중언어에 대한 가족의 태도 변인이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의 주요한 영향요인이었다. 유사하게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 장애물로 한국 출신 배우자 및 가족의 비지지적 태도가 언급되었으며, 부모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우자 및 가족의 반대가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응답되었다. 즉,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적 태도가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및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에 결정적인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 집단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다문화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이 어려운 이유로 가족들의 부정적 인식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이중언어 관련 부모 역량강화 및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로 부모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중언어 관련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지적하였다.

〈표 Ⅶ-1-3〉 부모 및 가족구성원 인식개선 관련 결과

구분	주요 결과
설문조사	•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여부 영향요인(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이중언어에 대한 가족의 태도 •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 부모의 이중언어 인식개선 및 부모 상담이 1순위 응답에서 21.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심층면담	•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 장애물: 배우자 및 가족의 비지지적 태도 • 부모 지원 서비스 미이용 사유: 배우자 및 가족의 반대
전문가 의견조사	•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이 어려운 이유: 가족들의 부정적 인식이 가장 많이 언급됨 • 이중언어 관련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지원 순위: 1순위(54.8%), 1+2순위(69.1%) 모두 부모의 이중언어 관련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중언어 인식 개선이 1+2순위, 1+2+3순위(47.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라. 실천적 부모교육 관련 결과

부모의 인식개선에서 더 나아가 실제 일상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실천적 부모 교육의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은 설문조사, 심층면담,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서 도출되었다. 설문조사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모국어 사용지지 및 기회제공 노력과 부모의 역할 효능감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져 일상에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부모의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이해가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에 있어서 중요하며, 부모들도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교육받고자 하는 수요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다문화가족 부모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실제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 지도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인식개선에서 더 나아가 부모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으며, 부모의 역할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Ⅶ-1-4〉 실천적 부모교육 관련 결과

구분	주요 결과
설문조사	•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여부 영향요인(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부모의 자녀의 모국어 사용지지 및 기회제공 노력 • 한국어 사용 집단의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여부 영향요인: 부모 역할 효능감 • 부모의 가정 내 일상언어로 이중언어 사용 집단: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가능성 가장 높음
심층면담	•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 장애물: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이해 부족 • 다문화가족 부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 구체적인 발달단계별 이중언어 실천 교육
전문가 의견조사	• 다문화가족 부모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 이중언어 지도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마. 출신국별 지원 및 자조모임 관련 결과

출신국별 지원에 대한 욕구나 출신국별 자조모임 관련 결과는 모든 분석에서 도출되었다. 먼저, 국외 사례 분석에서 특히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아동 및 가족 통합기회(IfKuF) 사업은 자조모임이 교육 · 보육기관 및 지원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유용한 모델을 제시해준다. 설문조사 결과의 상당수가 출신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여부 영향요인 분석에서도 출신국이 주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심층면담에서는 다문화 부모도 모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 출신 전문인력에 대한 욕구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중언어 교육 지원 시 각국 출신별 이중언어 강사 및 코치 양성의 필요성을 전문가 집단도 크게 인지하고 있음을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중언어 관련 부모 역량강화 방안에서도 커뮤니티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출신국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수 집단 출신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 재정이나 공간 등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공급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조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Ⅶ-1-5〉 출신국별 지원 및 자조모임 관련 결과

구분	주요 결과
정책 및 사업 분석	•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아동 및 가족 통합기회(IfKuF) 사업: 배낭 유치원(Rucksack KiTa) 프로그램
설문조사	•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여부 영향요인(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출신국
심층면담	• 다문화가족 부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 모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확대, 자국 출신 전문인력 배치 희망
전문가 의견조사	• 이중언어 교육 지원 시 우선 고려 사항: 각국 출신별 이중언어 강사 및 코치 양성 1+2 순위에서 54.8%로 높게 나타남 • 이중언어 관련 부모 역량강화 방안: 커뮤니티 활용(이중언어 자조모임, 출신국가 학부모들의 소모임 활성화, 지역커뮤니티 연계)

바. 접근성 제고 관련 결과

이중언어 정보 및 사업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내용은 모든 분석결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설문조사에서는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미이용 이유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53.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심층면담에서도 다문화가족 부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정보 접근성 제고가 언급되었다.

이에 대한 제고 방안은 대만 사례와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대만의 경우 다문화 자녀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디지털 강좌를 개설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일상에서 지속가능한 이중언어 실천을 위해 접근성이 강화된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홍보, 온라인 활용, 다국어 서비스, 연계 등이 이중언어 지원 사업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표 Ⅶ-1-6〉 접근성 제고 필요성 관련 결과

구분	주요 결과
정책 및 사업 분석	• 대만의 다문화 자녀교육 홈페이지 개설: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라오어, 미얀마어, 말레이어, 필리핀어 등 7개 동남아시아 언어 교육 교재를 제공 • 대만의 디지털 강좌 개설: 동남아시아어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치
설문조사	•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미이용 이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해서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심층면담	• 다문화가족 부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 정보 접근성 제고
전문가 의견조사	• 이중언어 지원 사업 접근성 제고 방안: 홍보, 온라인 활용(온라인 플랫폼, 커뮤니티 또는 온라인 메신저 활용, 온라인 강좌 등), 다국어 서비스, 연계(부처 간/기관 간 연계) 등

사. 인력 및 사업의 전문성 강화 관련 결과

이중언어 사업 및 담당인력 전문성 강화와 관련한 연구결과는 정책 및 사업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부모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할 경우에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가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여부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이중언어 관련 기관 서비스 선택 시에 자녀가 모국어를 잘 배울 수 있는 기관, 이중언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의 서비스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이 이중언어 관련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사업 인력풀 확보였다. 대만과 미국의 정책 및 사업 분석에서는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교사를 확보하거나 훈련을 통해 양성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성을 갖춘 모국어 및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이 서비스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다문화 영유아의 성공적인 이중언어 사용과도 연결됨을 보여준다.

〈표 Ⅶ-1-7〉 인력 및 사업의 전문성 강화 관련 결과

구분	주요 결과
정책 및 사업 분석	• 대만 동남아시아 언어 교사 다수 채용: 동남아시아 언어를 배우는 학생이 있을 경우 2개 국어를 사용하는 인증된 교사에게 배우도록 함 • 미국 소브라토 초기 문해력 프로그램(SEAL): 프로그램 지도 교사에게 이중언어 및 문해력 지도 전문적 훈련 실시

구분	주요 결과
설문조사	• 이중언어 사용 집단의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여부 영향요인: 이중언어 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 이중언어 관련 기관 서비스 선택 시 주요 고려 사항: 자녀가 나의 모국어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기관의 서비스가 45.4%로 가장 높으며, 이중언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의 서비스 36.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전문가 의견조사	• 이중언어 지원 사업 운영상 어려운 점: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이 1+2순위 합산 38.5%로 가장 높았음 • 이중언어 지원 사업 내실화에서 부분별 중요성: 이중언어 관련 전문성 제고(4.4점/5점), 이중언어 사업 인력풀 확보(4.2점/5점) 순임 • 이중언어 지원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 이중언어 사업 인력풀 확대가 1순위(42.9%)와 합산 순위(69.1%)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이중언어 관련 인력 전문성(합산 61.9%)

2. 정책 기본방향 및 법적 기반 조성

가. 기본방향

2000년대 중반 이후 이중언어 지원 정책이 공론화되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중언어 지원 사업에 진전을 보였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전달체계 안에서 이중언어 관련 사업들이 제도화되면서 다문화가족의 강점으로서 이중언어에 대한 시각이 강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중언어 지원 정책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이중언어 지원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진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모 역량강화를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미시적 관점에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 사용에 관련된 아동과 부모를 둘러싼 여러 환경 체계가 부모의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 영유아를 둔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부모 역량강화 관점에서 이중언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중언어를 다문화가족의 강점으로 인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가정 내에서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이 가능하다. 이미 이중언어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교육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나, 본 연

구 결과는 여전히 이중언어 관련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배우자 및 가족의 이중언어 인식 및 태도가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심층면담 결과에서 다문화가족 부모들이 여전히 이중언어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가족의 비지지적 태도가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에 장애물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부모, 가족, 교사 등의 이중언어 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이는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 사업에서 이중언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수용성 제고가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생애초기(영유아기) 동시적 이중언어 습득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영유아기에는 한국어 습득에만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하며,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 습득의 유용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들도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영유아기 모국어 습득은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언어 학습 능력이나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 등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문화가족은 이미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며, 성장 이후 순차적으로 이중언어를 습득하는 것보다 생애초기에 동시적 이중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언어 발달 측면에서 보다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 이론및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최근 정책 방향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부모 역량강화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의 강점으로서 이중언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영유아기부터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내 경제적 격차에 따른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에 동시적 이중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가 가정 내에서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에서는 월평균가구소득이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 내 이중언어를 사용할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구소득에 따른 이중언어 습득의 불평등성도 생애초기에 동시적 이중언어를 사용함으로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해외의 선행연구 검토에서도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에 유의미한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셋째, 앞서 제시한 이중언어 인식 제고 사업의 확대 및 생애초기 동시적 이중언어 습득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이중언어 지원 내실화가 필요하다.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은 다양한 차원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 교육부 산하 기관을 위시하여 지자체별로 이중언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관·학 협력 사업들도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이중언어 지원 사업 및 정보 제공에 일원화된 통로가 부재한 상황이다. 개별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사업 간에 상호 보완 및 지원이 가능한 연계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처 간 연계나 중앙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협력 체계 기반을 형성하여야 한다.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중언어 사업 간의 연계를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해당 산하 기관들 간에 보다 긴밀한 연계 사업이 실시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지역 사업 기관과 교육·보육기관 간에 연계로도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이중언어 관련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 〈표 Ⅶ-1-1〉과 같다.

〈표 Ⅶ-1-9〉 다문화 영유아의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다문화 영유아의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 정책 기본방향
• 기본방향 1: 이중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 • 기본방향 2: 생애초기(영유아기) 동시적 이중언어 습득 지원 • 기본방향 3: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 내실화

정책과제
• 협력적 이중언어 지원 사업 추진체계 구축 • 다문화가족 및 교육·보육기관의 이중언어 인식 제고 • 출신국별 자조모임 활성화 및 활용 •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맞춤형 이중언어 지원 • 이중언어 사업 및 정보 접근성 제고 • 이중언어 전문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자료: 본 연구진이 작성함.

나. 협력적 이중언어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상기에 제시한 이중언어 관련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과제를 원활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

첫째, 중앙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이중언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뿐만 아니라 다문화 아동 지원 관련 법령들에서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등 다문화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들에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이나 모국어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문화 아동에 대한 지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령들에는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문화 아동의 보육·교육과 부모 대상 지원 관련 조항은「다문화가족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중언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3항에는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가능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당위성이나 의무적 성격을 가진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정책 아젠다로 이중언어를 상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둘째, 교육·보육기관과의 연계 구축을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교육 교직원의 다문화이해 및 이중언어 이해 제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다문화가족지원법」제5조에는 교원을 다문화이해교육 연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유치원 교사는 다문화이해교육 대상에 포함되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박은정 외, 2020: 163). 따라서 다문화이해교육의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 보육교직원을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즉,「다문화가족지원법」제5조 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도 다문화이해교육 대상자에 포함할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정책과제별 추진 방안

앞선 연구결과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중언어 지원 필요성을 도출하였으나, 본 장에서는 포괄적인 이중언어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과제보다는 '다문화 영유아' 및 '부모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이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과제는 협력적 이중언어 지원 사업 추진체계 구축, 다문화가족 및 교육·보육기관의 이중언어 인식 제고, 출신국별 자조모임 활성화 및 활용,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맞춤형 이중언어 지원, 이중언어 사업 및 정보 접근성 제고, 이중언어 전문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이다. 아래에서는 정책과제에 따른 추진 방안의 도출근거와 추진 방안의 중심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가. 협력적 이중언어 지원 사업 추진체계 구축

1) 컨트롤 타워 역할의 중앙 기구 조직

국내 지원 정책 및 사업들을 살펴본 결과, 2010년 이후 이중언어 지원 사업의 기틀이 마련되고 여러 사업들이 안착과정에 있으나,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중언어 사업 간의 연계를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다양한 차원에서 연계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중앙 차원에서의 연계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여러 부처에서 이중언어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연계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관할 부처로서 여성가족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이중언어 관련 정보 공유망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모든 부처의 다문화 아동 및 부모 대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총괄하고 연계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중언어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모든 부처 및 산하 기관은 컨트롤 타워 조직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출하거나, 컨트롤 타워 조직이 수시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후자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사업 간 연계를 설계할 때에도 기초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단일 부처 사업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 영역으로 이중언어 지원 사업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보육기관과의 협력 강화: 협의체 구성

다문화 영유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부모 대상 지원에서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주요한 전달체계의 역할을 담당한다. 다문화 영유아의 대부분이 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은 별도의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 발달 시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므로 다문화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기본적인 전문성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자원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이중언어 지원 사업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의 실제 연계 정도는 연계 중요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한국보육진흥원과 MOU를 맺고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파견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교육청과도 연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 및 교사 교육에서 더 나아가 이중언어 관련 부모 교육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긴밀한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청,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 사업을 통해 교육·보육 기관을 이용하는 다문화 부모 대상 이중언어 인식개선 교육이나 실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제안한다.

3) 컨텐츠 개발을 위한 민·관·학 협력 강화

앞서 민간 차원의 이중언어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민·관 협력 또는 민·관·학 협력의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협력 사

업들은 대부분 다국어 동화책이나 동화 동영상 제작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중언어 관련 컨텐츠 개발은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보다 여러 차원의 요구와 전문성을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관·학 협력 형태의 개발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관·학 협력을 통한 컨텐츠 개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발 과정뿐만 아니라 개발된 컨텐츠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도 민·관·학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협력 사업의 결과물이 이중언어 지원 전달체계에서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은 여전히 모국어 관련 교재교구의 부족을 느끼고 있다. 기존의 민·관·학 협력은 공익 성격의 사업이므로 해당 컨텐츠도 대부분 무료로 제공된다. 따라서 개발 결과물을 취합하기 용이한 상황이므로 해당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일괄적인 통로를 제공하고 보육·교육기관과 공공 사업 추진 기관들에서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다문화가족 및 교육·보육기관의 이중언어 인식 제고

1)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 이중언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관 확대

가족구성원 이중언어 인식개선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여성가족부 산하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중언어부모코칭, 가족코칭 등의 사업을 통해 이중언어 인식개선 및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2020년 이중언어 부모코칭의 이용자 실인원은 789명, 이중언어 가족코칭은 257명에 그쳤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a :100).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된 이중언어코치 인력을 확대하기 어려운 예산 구조에 기인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으로만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 인식개선 사업을 보다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중언어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다문화 교육 강사 또는 이중언어강사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다문화 아동이 재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부모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중언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의 협력을 전제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교육청 간에 협력이 요구된다.

2) 교육·보육기관 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 중 이중언어 이해교육 실시

앞선 조사 결과에서 교육·보육기관의 교직원에 대한 이중언어 이해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대부분의 부모가 이용 중인 기관의 교사 의견이나 권유에 크게 영향을 받으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나 지지를 받은 경험이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이중언어 지원 사업 시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의 연계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영유아 및 부모 대상 이중언어 지원 사업에서 교육·보육기관 교직원 역할의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 교육·보육기관에서 실질적인 정보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중언어와 관련하여 다문화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거나, 타기관과의 사업 연계를 통해 이중언어 지원 사업 대상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교직원의 이중언어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보육기관 교사의 양성교육 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 다문화이해교육에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중언어의 필요성만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내용으로 필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 출신국별 자조모임 활성화 및 활용

1) 자녀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자조모임: 출신국별 자조모임-교육·보육기관-가족센터 연계 사업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부모들은 자국 출신 이주민들과의 교류가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으며, 모국어를 활용한 자조모임 확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출신국별로 요구 사항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실제로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자국 출신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센터에서 소수 언어를 포함하여 출신국별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출신국별 자조모임을 활용하면 출신국별 지원 요구의 일

정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가 지원하고 지역 내 교육·보육기관을 기반으로 한 출신국별 자조모임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방안은 Ⅲ장의 독일 사례에서 살펴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아동 및 가족 통합기회(IfKuF) 사업의 배낭 유치원(Rucksack KiTa)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독일의 이 사업은 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4~6세 유아의 이주 부모 소모임을 활용한 이중언어를 포함한 가족교육 사업이다. 영유아 교육·보육시설(Kita)이 지역 통합센터와 해당 시설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협의한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인력은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주민 부모이다. 최소 6명의 부모가 참여하며 이주민 부모와 비주민 부모가 함께 참여한다. 이주민 부모 중 한 명이 소그룹을 지원하는 가이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사업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용하여,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기반으로 기존의 출신국별 자조모임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 대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및 교육·보육기관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중언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프로그램 실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센터 이용자 자조모임 참여자뿐만 아니라 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다문화 부모들의 참여 의사를 파악하여 자조모임을 조직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조모임이 구성된 이후에는 이중언어 구사 능력이 있으며, 이중언어 교육 서비스를 받은 부모 대표를 선출하고, 각 자조모임별 부모 대표를 중심으로 자녀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운영 방식 교육 및 자료 배포가 필요하다. 자조모임의 성격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되, 자녀와의 이중언어 활동 관련 기본적인 가이드와 충분한 활동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영유아를 둔 다문화 부모를 함께 모집하고 영유아기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공해줄 수 있다. 또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지리적인 요소가 프로그램 이용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보통 지역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 곳이기 때문에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보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러한 지리적 접근성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한다.

출신국별 자조모임을 활용한 이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결혼이민자 부모가 주도적으로 자조모임을 운영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강점인 이중언어를 활용하여 스스로 역량강화를 도모한다는 점이다. 둘째, 자조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자녀의 이중언어 지도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자조모임을 활용하면 일회성이나 단기적 프로그램에 비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기존 사업에서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충족하기 어려웠던 출신국별 이중언어 지원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다섯째, 이 사업의 자조모임은 지역커뮤니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비 다문화가족과 함께 진행하거나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

라.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맞춤형 이중언어 지원

1) 실생활에서 활용가능한 이중언어 실천 부모교육

본 연구의 심층면담 결과에서 다문화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 사용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모교육을 희망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다문화 부모들이 올바른 이중언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지도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이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에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따라서 다문화 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유아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 동기부여 방법이나 다양한 상황별 적용이 가능한 이중언어 실천 방법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 즉, 이중언어 관련 부모교육 시 구체적인 상황별 실천 방법을 교육하고, 자녀와 함께 참여하여 실행해보는 등 일상생활 속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이중언어 실천 심화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2) 협력 기반 수준별 모국어 교재교구 개발 및 지원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결혼이민자 부모들이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서비스로 모국어 교재교구를 응답하였으며, 심층면담에서도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모국어로 된 도서 및 교재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관련 전문가들 또한 수요에 맞는 교재교구 개발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동화책이나 초급 수준의 언어 교재 발간에서 더 나아가 아동의 발달단계의 특징을 반영하거나, 수준별 언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교구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기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하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재교구 개발이 필요하다.

교재교구 개발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등이 주도로 진행할 수 있으나, 기존에 교재교구 개발의 경험이 있는 민간 기업과 학계 자원을 활용하여 민관·학 협력의 형태로 수요를 반영하면서도 체계적인 수준별 모국어 교재교구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여기에서는 외교부와의 연계도 제안하고자 한다. 결혼이민자들 중에서는 본국 대사관을 통해 모국의 교재교구나 교과서 등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모국어 교재교구를 개발할 수도 있으나, 각국 대사관을 통해 해당 국가의 모국어 학습 자료를 협조 받아 이를 배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해당 국가에서는 연령별 모국어 학습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할 겨우 수준별 학습 자료를 희망하는 요구도 반영할 수 있다.

마. 이중언어 사업 및 정보 접근성 제고

1)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통합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

앞선 결과들에서 언급하였듯이, 다문화가족 부모들은 이중언어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찾기 어렵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는 충분한 자료 제공도 필요하나 기존에 이미 구축된 자료들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데에도 기인한다. 여러 기관에서 이중언어 전자책 및 동영상, 활동지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언어별로 자료가 분산되어 있으며, 이중언어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다누리 포털 사이트에서도 바로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

대만은 2016년 이후부터 이중언어 교육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7개 동남아시아어가 정식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다. 또한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라오스어, 미얀마어, 말레이어, 필리핀어 등 7개 동남아시아 언어 교육 교재를 제공하는 다문화 자녀교육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언어 및 문화 관련 자료를 용이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대만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문화 아동 및 부모들이 이중언어 관련 자

료를 손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을 제안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포털인 다누리 사이트 홈 화면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이중언어 관련 기관 및 교육·보육기관에도 적극 홍보하여 사업 담당자와 교사들도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사이트는 여성가족부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자료만이 아니라 관련 부처들이 해당 카테고리에 관련 자료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민·관·학 협력 사업을 통해 개발된 다양한 자료들을 공유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2) 적극적인 온라인 활용을 통한 이중언어 교육 확대: 온·오프라인 병행 강좌 확대/ 교육용 앱 개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미 온라인으로 이중언어 교육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을 통한 교육방식 다양화를 통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부모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에서 서비스 이용 시간대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특정 시간대에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도 이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방식을 교차적으로 사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사용가능한 이중언어 관련 교육용 앱 개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앱에서는 단시간 동영상이나 클립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 내용을 보거나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여타 학습 앱에서와 같이 수준별 이중언어 교육 컨텐츠를 구현한 앱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바. 이중언어 전문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1) 중앙 차원에서 이중언어강사 자격 기준 마련 및 교육 실시

이중언어코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중언어지원사업 인력으로 배치되므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양성과정을 관할하고 있다. 한편 외부 기관에서의 이중언어 강사의 경우는 센터나 교육청별로 선발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통일된 명확한 자격 기준이나 교육과정이 부재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중언

어강사 자격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중앙 차원에서 이중언어강사 양성 과정이나 자격 인증 제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출신국 이중언어강사가 양성되어 이중언어라는 강점을 가진 결혼이민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언어강사 양성 및 자격 인증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인건비 인상 및 예산확보도 필요하다. 처우 개선이 전제되어야 지속성을 가지고 종사하여 향후 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중언어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수법 심화 교육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이중언어 사업 인력풀 확대'와 함께 '이중언어 관련 인력 전문성 제고'가 이중언어 지원 사업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응답되었다. 양성과정이나 보수교육이 있는 경우에도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증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따라서 단순히 이중언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 시 요구되는 이중언어 교수법에 대한 심화 교육이 필요하다. 보수교육 시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교육 받기 보다 참여 방식으로 사례 분석이나 교수법 실습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심화교육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그림 Ⅶ-2-1] 정책과제별 추진 방안

정책과제	추진 방안	추진 내용
1. 협력적 이중언어 지원 사업 추진체계 구축	컨트롤 타워 역할의 중앙 기구 조직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총괄·연계 가능한 조직 구성 • 해당 조직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범부처적인 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정보제공, 연계, 사각지대 발굴, 사업 확장
	교육·보육기관과의 협력 강화: 협의체 구성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교육청, 교육·보육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 교육·보육기관 이용 다문화 부모 대상 교육을 협력사업으로 실시
	컨텐츠 개발을 위한 민·관·학 협력 강화	• 민·관·학 협력을 통한 컨텐츠 개발 • 현재 개발된 컨텐츠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인 활용
2. 다문화가족 및 교육·보육기관의 이중언어 인식 제고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 이중언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관 확대	•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및 이중언어강사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다문화 아동이 재원하는 기관에 파견 • 파견 강사가 다문화가족 및 부모 대상 이중언어 인식개선 교육 실시
	교육·보육기관 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 중 이중언어 이해교육 실시	• 교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에 실질적인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필수 교육내용 포함
3. 출신국별 자조모임 활성화 및 활용	자녀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자조모임: 출신국별 자조모임-교육·보육기관-가족센터 연계사업	• 독일 배낭 유치원(Rucksack Kita) 모델을 벤치마킹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기반으로 출신국별 자조모임을 확대 • 자조모임 결혼이민자 대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및 교육보육기관과 협의 및 지원을 통해 이중언어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정책과제	추진 방안	추진 내용
4.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맞춤형 이중언어 지원	실생활에서 활용가능한 이중언어 실천 부모 교육	•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 동기부여 방법, 다양한 상황별 적용 가능한 이중언어 실천 방법에 대한 심화교육 실시
	협력 기반 수준별 모국어 교재교구 개발 및 지원	• 민·관·학 협력을 통한 수준별 교재교구 개발 • 외교부와의 연계를 통해 각국 대사관에서 교재교구 지원 사업 실시
5. 이중언어 사업 및 정보 접근성 제고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통합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	• 대만 사례 벤치마킹 • 이중언어 관련 통합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적극적인 온라인 활용을 통한 이중언어 교육 확대: 온·오프라인 병행 강좌 확대/ 교육용 앱 개발	• 온오프라인 이중언어 교육 병행 및 교차적 사용 • 스마트폰 이중언어 관련 교육 앱 개발 및 활용
6. 이중언어 전문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중앙 차원에서 이중언어강사 자격 기준 마련 및 교육 실시	• 이중언어강사 자격기준에 대한 가이드 라인 마련 •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또는 자격인증 제도 방안 고려 • 인건비 인상 및 예산확보 필요
	이중언어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수법 심화 교육	• 실제 교육 시 요구되는 이중언어 교수법에 대한 심화 교육 실시 • 참여방식의 사례 분석이나 교수법 실습 등 다양한 방식 도입

자료: 본 연구진이 작성함.

4. 지원 방안 종합 및 향후 연구 과제

이 장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별 추진방안을 본 연구의 개념틀인 다차원적 역량강화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면 [그림 Ⅶ-4-1]과 같다. 먼저,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가 직접적으로 실천 가능한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원 방안에서도 이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미시적 차원에서 부모 교육과 자조모임 활성화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강점으로서 이중언어라는 진일보한 접근 방식으로 자조모임 연계사업과 실천적 부모 교육, 온라인 환경 조성 등 서비스 내용 및 전달체계 개선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기존 방안과 차별성을 지닌다. 다음으로 부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방위적 측면에서 이중언어 관련 인식개선 및 이해 제고와 협력적인 추진체계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중언어 관련 부모의 역량강화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이중언어 전문인력의 질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들을 제언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미시적, 중범위적, 거시적 차원에서 다양한 추진방안들을 제언하였으며, 특히 중범위 차원에서 미시적, 거시적 차원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들을 다수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이중언어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및 프로그램 내용 구성,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및 종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다문화 영유아를 둔 부모의 역량강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언하였다.

한편, 조사 및 면담 대상자와 연구 규모 등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 및 조사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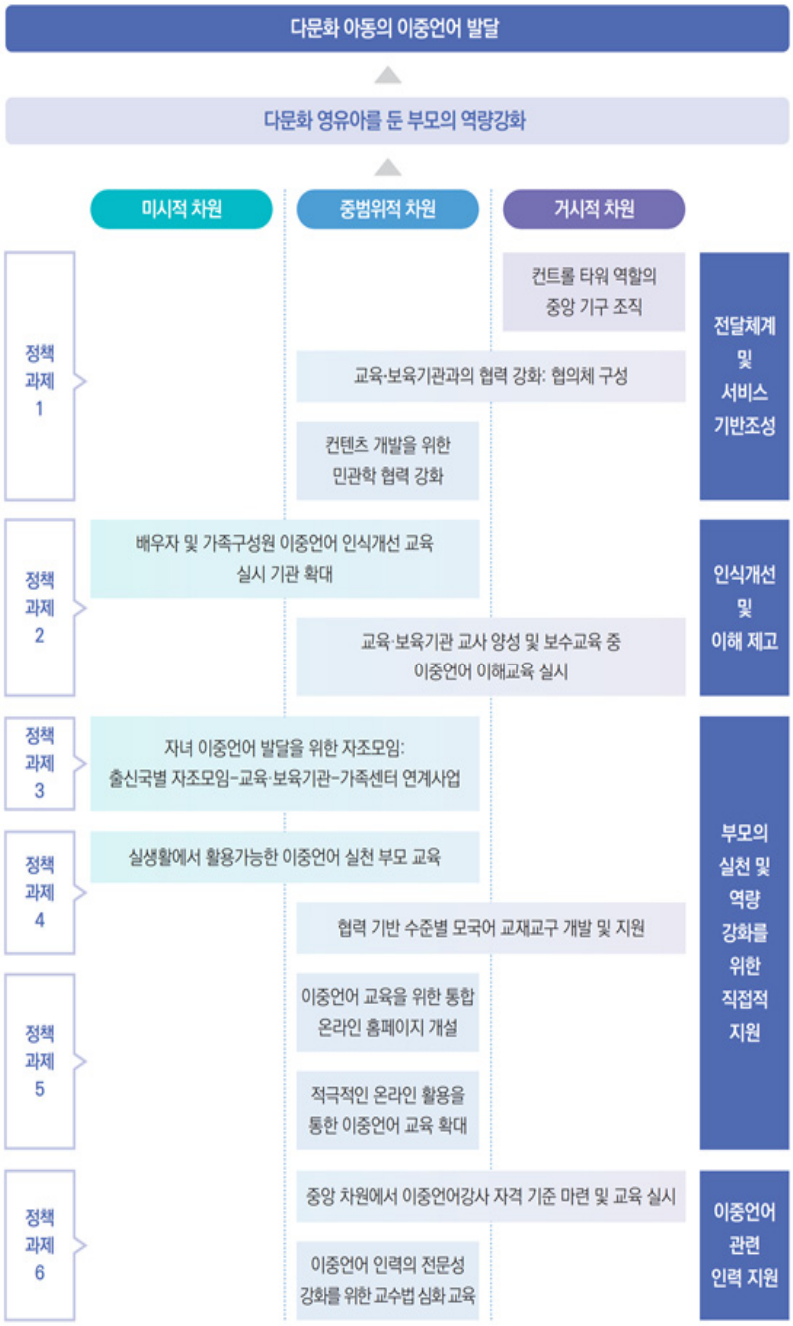
첫째, 성, 체류 지위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이중언어 연구가 필요하다. 남성 결혼이민자의 특수한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조사 및 면담 대상자가 표집되어 일정 부분 편향성을 가진다. 또한 기존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설정하여, 국제결혼을 통한 체류 지위를 가지는 결혼이민자 외 이민자 가족은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공적 지원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인구 집단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대규모 실태조사나 패널조사에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관련 실태 및 영향요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변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결과를 기존의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비교 가능한 변인을 찾기 어려웠다. 대규모 실태조사에서 관련 변인을 다수 포함하게 되면, 조사 간 비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별 이중언어 사용의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출신국별 이중언어 사용 요인 및 가족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출신국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실제 현장에서 소수 출신국별 차이를 반영하여 접근하는 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자조모임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향후에 출신국별로 심층적인 분석이 다수 진행된다면, 기존의 지원 체계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보다 효과적인 출신국별 이중언어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림 Ⅶ-4-1] 다문화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 방안 개요



참고문헌

강현옥, 황혜원(2013). 다문화가족 어머니와 영아의 애착 및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8*(4), 433-459.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 319-359.

구춘권(2012), 이주의 증가와 독일 이주민 정책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21*(1), 119-154.

교육부(2021).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중앙다문화교육센터(2020). 엄마 아빠와 함께 배우는 이중언어교재 전자책 이용 안내.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국가평생교육진흥원·중앙다문화교육센터(2021). 202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유치원.

권경숙(2017). 다문화가정 영유아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이중언어 강사들의 담론. *어린이미디어연구, 16*(3), 231-260.

권복순, 차보현(2006).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 의 주부의 의사소통능력과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3), 109-134.

권순희(2009).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제안. *국어교육학연구, 34*, 57-115.

김미애(201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보호연구, 3*(1), 59-96.

김민경(2009). 결혼이민여성의 임파워먼트과정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6(3), 243-275.

김선영(2009). 한국과 독일의 다문화 비교. *한국정책연구, 9*(1), 175-194.

김연수(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 217-252.

나동석, 박종인(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과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1*(4), 1-20.

박명숙(2010).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2), 193-218.

박영순(2010). 세계 속의 한국어학과 다언어교육의 본질. *세계한국어문학, 3,* 13-45.

박영진, 장인실(2018).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특성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1*(1), 227-260.

박은정, 박창현, 조혜주(2020).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박점자(2015).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 모의 양육효능감, 자녀의 언어발달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정은(2007). 다문화 사회에서 생각하는 모어교육: 이주가정과 국제결혼 가정을 중심으로. 일지사.

박진경, 원숙연(2010).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정책 정향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4*(3), 191-217.

박찬옥, 이은경(2012). 출신 국가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부모역할 인식. *다문화콘텐츠연구, 12*, 65-94.

박현선, 이채원, 노연희, 이상균(2012). 다문화 가정의 이중언어, 이중문화적 양육 환경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어머니 양육참여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65-388.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성용구, 김근이(2014).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부모교육. *학부모연구, 1*(1), 89-111.

송종호(2007). 현대의 민족문제와 다문화주의; 한국: 단일민족환상 깨고 다문화주의로의 '전환시대'. *민족연구. 30*, 90-126.

신영화(2002). 한국인 남편과 조선족 아내의 부부문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2), 1-24.

신영화(2010).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접근.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2), 161-192.

심보경, 김정숙(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시기별 한국어 교육 및 자녀 학습 지도방안 연구. *어문연구, 71*, 57-78.

양순미(2007).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행복에 관련변인이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17*(2), 5-39.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2009).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37-168.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

여성가족부(2020a).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2020b).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Ⅰ.

여성가족부(2020c).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Ⅱ.

여성가족부(2021). 2021년 가족사업안내 2권.

오윤자, 정민자, 라휘문, 박정윤, 김상만(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모델 및 발전방안.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윤혜미(2009).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임파워먼트 기반의 사회복지실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4), 85-108.

이명숙(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안. *한국가족복지학, 16*(3), 209-224.

이영실, 강윤경(2009). 중복장애자녀의 부모교육을 통한 임파워먼트 향상에 관한 연구, 지적 및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의 중복장애를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6*(2), 127-146.

이선미, 이경아(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3), 71-105.

이은경(2016).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자본과 부모역할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21*(4), 27-48.

이재승, 김희재(2016). 다문화사회와 언어교육정책-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교육문화연구, 22*(4), 191-211.

이진경, 김혜미(2019).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비교 연구.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11*, 23-43.

임동선, 김신영, 한지윤, 강다은, 이수경(2020). 학령기 이중언어 아동의두 언어 능숙도와 부모의 L1/L2 사용률 간의 관계. *이중언어학, 79*, 217-247.

임동선, 백수정, 김송이, 한지윤(2020). 다문화 가정 내 모국어 사용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 능력 및 사회적 지지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3*(3), 141-162.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정장엽, 정순관(2014).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 분석_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지방정부연구, 17*(4), 121-142.

정해숙, 김이선, 이아름(2013). 이중언어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정해숙, 김이선, 최윤정, 박현선, 장명림(2014).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실행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주미연, 정명혜(2018). 광주· 전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여가활동 매개효과 검증. *지역사회연구, 26*(2), 25-43.

최금해(2006).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미영(2019). 결혼이주여성의 주관적인 결혼만족도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18*(2), 21-39.

최윤경, 양미선, 도남희, 박혜원, 이진숙, 정윤경, 이보람(2011).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 실태 및 맞춤형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최윤정,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정해숙, 양계민, 이은아, 황정미(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최현욱, 황보명(200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이 자녀의 한국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0*(4), 315-329.

최혜지, 최연선, 최원희(2008). 문화적 유능감 (cultural competence)이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2), 1-34.

통계청(2020).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5962.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1a). 2020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1b). 20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한승준(2008).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3), 463-486.

행정안전부(2020. 10. 29.),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19. 11월 1 기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수정). xlsx.'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

허남순, 허소영, 고윤순, 이경욱(2012). 빈곤부모의 역량강화 경험 연구, 위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부모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0*, 167-199.

Abdelilah-Bauer, B. (2016). 이중언어 아이들의 도전. 박찬규 (번역). 서울: 구름서재. (원전 2012년 출판)

Anderson, R. T. (2004). First language loss in Spanish-speaking children: Patterns of loss and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In B. Goldstein (Ed.), *Bilingual language development and disorders in Spanish-English speakers* (pp. 187-212). Baltimore: Paul H. Brookes.

Batalova, J., Hanna, M.., & Levesque, C. (2021. 02. 11). Frequently Requested Statistics on Immigrants and im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Migration Policy institute.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frequently-requested-statistics-immigrants-and-immigration-united-states-2020(2021. 5. 3. 인출).

Barrera, I. (1993). Effective and appropriate instruction for all children: The challenges of cultural/linguistic diversity and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3*(4), 461-487.

Beaumont, C. (1992). Service delivery issues. In Langdon, H. W. & Cheng, L. R. L. (Eds.), *Hispanic children and adults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Assessment and intervention* (pp. 343-372). Gaithersburg, MD: Aspen Publishers.

Berry, J. W., Phinney, J. S., Sam, D. L., & Vedder, P.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55*(3), 303-332.

Bialystok, E., Craik, F. I., & Luk, G. (2012). Bilingualism: Consequences

for mind and brai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6*(4), 240-250.

Bohman, T. M., Bedore, L. M., Peña, E. D., Mendez-Perez, A., & Gillam, R. B. (2010). What you hear and what you say: Language performance in Spanish-English bilinguals.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13*(3), 325-344.

Bosch, L., & Sebastián-Gallés, N. (2001). Evidence of early language discrimination abilities in infants from bilingual environments. *Infancy, 2*(1), 29-49.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2015), Sprachenvielfalt – Ressource und Chance: Forschungsprojekte zu sprachlicher Bildung und Mehrsprachigkeit.

Byers-Heinlein, K., Burns, T. C., & Werker, J. F. (2010). The roots of bilingualism in newborns. *Psychological science, 21*(3), 343-348.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2020). ELR Illustrative Example: SEAL Model. https://www.cde.ca.gov/sp/el/rm/sobrato.asp(2021. 6. 28. 인출).

Campos, S. J. (1995). The Carpentería preschool program: A long term effects study. In E. E. Garcia & B.McLaughlin (Eds.), *Meeting the challenge of linguistic and cultural divers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pp. 34-48).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CGIL Bildungswerk (2013), KIESEL. Bildungschancen stärken – Wege partnerschaftlicher Kooperation zwischen Grundschulen und Eltern. Erfahrungen, Ergebnisse, Anregungen.

Chanda, I. (2017). State Efforts to help immigrants integrate.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https://www.ncsl.org/research/immigration/state-efforts-to-help-immigrants-integrate.aspx(2021. 5. 1. 인출).

Chen, Y. -H. (2008). The significance of cross-border marriage in a low fertility society: Evidence from Taiwan.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9 (3), 331-352.

Chung, F. -C., Wang, K.-C, & Chen, Y. -L. (2006). A comparison study of language, mental abilities development, and learning behavio r for children of foreign bride Families in Pingtung. Bulletin of Educational Psychology, 37(4), 411-429. [in Chinese]

Cobo-Lewis, A. B., Eilers, R. E., Pearson, B. Z., & Umbel, V. C. (2002). Interdependence of Spanish and English knowledge in language and literacy among bilingual children. In D. K. Oller &R. E. Eilers (Eds.), *Language and literacy in bilingual children* (pp.118 -134). Clevedon, England: Multilingual Matters.

Colorado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2020). New America n Integration annual report 2020. https://cdle.colorado.gov/sites /cdle/files/documents/New%20American%20Annual%20Report%2 012-20%20final%20with%20signatures.pdf(2021. 5. 3. 인출).

Conboy, B. T. (2012). Language processing and production in infants and toddlers. *Bilingual language development & disorders in Spanish-English speakers,* 47-71.

Cowger, C. D. (1994). Assessing client strengths: Clinical assessment for client empowerment. Social Work, 39(3), 262- 268.

Cummins, J. (1984). *Bilingualism and special education: Issues in assessment and pedagogy*. Clevedon, England: Multilingual Matters.

De Houwer, A. (2007). Parental language input patterns and children's bilingual use. *Applied psycholinguistics, 28*(3), 411-424.

Delaney, E. M., & Kaiser, A. P. (2001). The effects of teaching parents blended communication and behavior support strategies. *Behavioral Disorders, 26*(2), 93-116.

Education Website for New Residents' Children (2021a). Online Texts o f 7 Southeast Asian Languages. https://newres.k12ea.gov.tw/isch ool/publish_page/15/(2021. 5. 30. 인출).

Education Website for New Residents' Children (2021b). Information for cultural and linguistic workshops and registration links. https://newres.k12ea.gov.tw/ischool/public/volunteer/index.php ?bid=0&cid=10(2021. 7. 2. 인출).

Executive Yuan, Taiwan (2016). Launch of the New Southbound Policy. https://www.ey.gov.tw/Page/9277F759E41CCD91/87570745-3460-441d-a6d5-486278efbfa1(2021. 5. 30. 인출).

Feliciano, C. (2001). The benefits of biculturalism: Exposure to immigrant culture and dropping out of school among Asian and Latino youths. *Social Science Quarterly, 82*(4), 865-879.

Fortune, T. W. (2012). What the research says about immersion. In the Asia Society (Ed.), Chinese language learning in the early grades: A handbook of resources and best practices for Mandarin immersion (pp. 9-13). https://asiasociety.org/files/chinese-earlylanguage.pdf(2021. 5. 3. 인출).

Freedberg, L., & Frey, S. (2016). Promoting success for dual language learner the essential rol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s. https://edsource.org/wp-content/uploads/2016/06/Promoting-Success-For-Dual-Language_Learners-2016.pdf(2021. 6. 28. 인출).

Gallagher, A., Frith, U., & Snowling,M. J. (2000). Precursors of literacy delay among children at genetic risk of dyslexia.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2), 203-213.

Gay, G. (2000).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Theory, research, & practice*.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Genesee, F., Paradis, J. & Crago, M.(2004). *Dual language development and disorders: A handbook on bilingualism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Paul H. Brookes Pub.

Gutierrez-Clellen, V. F. (1999). Language choice in intervention with bilingual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8*(4), 291-302.

Hancock, T. B., Kaiser, A. P., & Delaney, E. M. (2002). Teaching parents of preschoolers at high risk: Strategies to support language and positive behavior. *Top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2*(4), 191-212.

Hemsley, G., Holm, A., & Dodd, B. (2010). Patterns in diversity: Lexical learning in Samoan-English bilingual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2(4), 362-374.

Hester, P. P., Kaiser, A. P., Alpert, C. L., & Whiteman, B. (1995). The generalized effects of training trainers to teach parents to implement milieu teaching.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20*(1), 30-51.

Holcomb-McCoy, C., & Bryan, J. (2010). Advocacy and empowerment in parent consultation,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8*(3), 259-268.

Hornberger, N. H. (1991). Extending enrichment bilingual education: Revisiting typologies and redirecting policy. In O. Garcia (Ed.). Bilingual Education: *Focusschrift in Honor of Joshua A. Fishman on the Occasion of his 65thBirthday*, 1, 215-234.

Hornberger, N. H. (1996). Language and education. In S. L. McKay & N. H. Hornberger. (Eds.). Sociolinguistics and second language teaching (pp. 449-473).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ang, F. S. (2015). Report on the New Immigrant Torch Program. https://www.immigration.gov.tw/media全國新住民火炬計畫成效評估研究.pdf(2021. 5. 30. 인출).

Hsia, H. C. (2002). Searching for a Haven: The henomenon of "freign brides" i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s. Taipei: Tonsan.

Hsia, H. C. (2007). Imaged and imagined threat to the nation: The media construction of the 'foreign brides' phenomenon' as social problems in Taiwan. *Inter-Asia Cultural Studies, 8*(1), 55-85.

Immigration Agency, Taiwan (2018).). The needs for livelihood of Mainland and foreign spouses. Immigration Agency, Taiwan. Title: The needs for livelihood of Mainland and foreign spouses. Available at: https://www.immigration.gov.tw/media/55896/2107年新住民生活需求調查摘要報告-英文版.pdf(2021. 5. 30. 인출).

Jia, G., Kohnert, K., Collado, J., & Aquino-Garcia, F. (2006). Action naming in Spanish and English by sequential bilingual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9(3), 588-602.

Kallenbach, S., Lee, K. S., Down-Karkos, S., Taylor, M. B. (2013). Adult education and immigrant integration : Network for Integrating New Americans (NINA)- theoretical framework. World Education, Inc. https://lincs.ed.gov/publications/pdf/NINA_theoretical-framework.pdf(2021. 5. 3. 인출).

Kallenbach, S., & Nash, A. (2016). Adult education and immigrant integration: Lessons learned from the Networks for Integrating New Americans initiative. World Education, Inc. https://worlded.org/WEIInternet/inc/common/_download_pub.cfm?id=16503&lid=3(2021. 6. 28. 인출).

Kan, P. F., & Kohnert, K. (2005). Preschoolers learning Hmong and English: Lexical-semantic skills in L1 and L2.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8*(2), 372-384.

Kan, P. F., & Kohnert, K. (2012). A growth curve analysis of novel word learning by sequential bilingual preschool children.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15*(3), 452-469.

Klein, K., Forehand, R., Armistead, L., & Long, P. (1997). Delinquency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ulthood: Family parenting predictors from early adolescence. *Adolescence, 32*(125), 61-80.

Kohnert, K. (2002). Picture naming in early sequential bilinguals: A 1-year follow-up.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5*(4), 759-771.

Kohnert, K. (2004). Cognitive and cognate-based treatments for bilingual aphasia: A case study. *Brain and Language, 91*(3), 294-302.

Kohnert, K. (2008).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uccess factors in sequential bilingualism. *The ASHA Leader, 13*(2), 10-13.

Kohnert, K. J., & Bates, E. (2002). Balancing bilinguals II: Lexical comprehension and cognitive processing in children learning Spanish and English. *Journal of Speech, Language & Hearing Research, 45*, 347-359.

Kohnert, K. J., Bates, E., & Hernandez, A. E. (1999). Balancing

bilinguals: Lexical-semantic production and cognitive processing in children learning Spanish and English.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2*(6), 1400-1413.

Kohnert, K., & Derr, A. (2004). Language intervention with bilingual children. In B. Goldstein (Ed.), *Bilingual language development and disorders in Spanish-English speakers* (pp. 311-342). Baltimore: Paul H. Brookes.

Kohnert, K., & Stoeckel, R. (2003). *Intervention for bilingual children with CAS: One language or two?* http://www.apraxiakids.org/faqsresponsekohnert.html(2021. 7. 2. 인출).

Krashen, S. (1999). *Condemned without a trial: Bogus arguments against bilingual education.* Portsmouth, NH:Heineman.

Ladson-Billings, G. (1995). But that's just good teaching! The case for culturally relevant pedagogy. *Theory into Practice, 34*(3), 159-165.

Lai, W. F. & Chen H. Y. (2007). The relationships between communicat ion patterns and peer interactions of a young child born to Viet namese immigrants in Taiwan.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1*(1), 99-122.

Lai, W. F. (2013).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Taiwanese children's p ersonal narratives: Conjunctions, internal state terms, and narrat ive structures. In A. McCabe & J. Chang (Eds). *Chinese Language Narration* (pp. 115-142). https://www.jbe-platform.com/content/books/9789027271099#chapters(2021. 7. 2. 인출).

Lambert, W. E. (1977). Effects of bilingualism on the individual. In P. A. Hornby (Ed.), *Bilingualism: Psychological, social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New York: New York Academic Press, Inc.

Lan, P. C. (2019). From reproductive assimilation to neoliberal multicul turalism: Framing and regulating immigrant mothers and childre n in Taiwan.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40*(3), 318-333, do i:0.1080/07256868.2019.1598952.

Leseman, P. P.(2000). Bilingual vocabulary development of Turkish pre schoolers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

ultural Development, 21(2), 93-112.

Leseman, P. P., & van Tuijl, C. (2001). Home support for bilingual deve lopment of Turkish 4-6year old immigrant children in the Nethe rlands: Efficacy of a home-based educational programme. *Journa 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22*(4), 309-324.

Lin, J. H. (2018). 'Assisting you to become a local': NGOs and construc ted foreign spouses in Eastern Taiwan. *Gender, Place & Culture, 25*(1), 118-133.

Lindholm-Leary, K. (2011). Student outcomes in Chinese two-way imm ersion programs: Language proficiency, academic achievement, and student attitudes. In D. J. Tedick, D. Christian, T. W. Fortun e (Eds.), *Immersion education: Practices, policies, possibilities* (pp. 81-103). Bristol, Blue Ridge Summit: Multilungual Matters.

Linquanti, R., & Alison, B. (2014). Reprising the Home Language Surve y: Summary of a National Working session on policies, Practice s, and Tools for Identifying Potential English Learners. 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 https://files.eric.ed.gov/fulltext/E D565756.pdf(20211. 5. 30. 인출).

Linquanti, R., Cook, H. G., Bailey, A. L., & MacDonald, R. (2016). Movi ng toward a More Common Definition of English Learner: Colle cted Guidance for States and Multi-State Assessment Consortia. Washington DC; 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

López, L. M., & Greenfield, D. B.(2004). The cross-language transfer of phonological skills of Hispanic Head Start children. *Bilingual Re search Journal, 28*(1), 1-18.

Marchman, V. A., & Martínez-Sussman, C. (2002). Concurrent validity o f caregiver/parent report measures of language for children who are learning both English and Spanish. *Journal of Speech, Langu age, and Hearing Research, 45*(5), 983-997.

Marchman, V. A., Fernald, A., & Hurtado, N. (2010). How vocabulary si ze in two languages relates to efficiency in spoken word recogni tion by young Spanish-English bilinguals. *Journal of child langu*

age, 37(4), 817-840.

McCardle, P., Kim, J., Grube, C., & Randall, V. (1995). An approach to bilingualism in early intervention. I*nfants & Young Children, 7* (3), 63-73.

McLaughlin, B. (1984).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childhood. Vol I: Preschool children*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 sociates.

Ministerium für Kinder, Familie, Flüchtlinge und Integration des Landes NRW (2021), Integrationschancen für Kinder und Familien (IfKu F) Programm zum Ausbau der Konzepte „Griffbereit“, „Rucksack KiTa“ und „Rucksack Schule“

Ministry of Education, Taiwan (2005). Foreign and Mainland Chinese S pouse Care and Counseling Measures. https://edu.law.moe.gov.t w/LawContentHistoryList.aspx?id=FL038611(2021. 5. 30. 인출).

Ministry of Education, Taiwan (2020). Total Number of Children of Cro ss-border Marriages in Different Educational Level. https://stats. moe.gov.tw/files/analysis/108_son_of_foreign.pdf(2021. 5. 30. 인출).

Ministry of Education, Taiwan (2021). Curriculum Guidelines of 12-yea r Basic Education. https://12basic.edu.tw/12about-3-1.php(2021. 5. 30. 인출).

Ministry of the Interior, Taiwan (2021). Marriage Rates. https://www.ri s.gov.tw/app/portal/346(2021. 5. 30. 인출).

Montrul, S. (2002). Incomplete acquisition and attrition of Spanish tens e/aspect distinctions in adult bilinguals.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5*(1), 39–68.

Montrul, S. (2005).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first language loss in adult early bilinguals: Exploring some differences and similari ties. *Second language research, 21*(3), 199-249.

Moore, K. A., Caal, S., Lawner, E., Rojas, A., & Walker, K. (2014). Abriendo Puertas/Opening doors parenting program: Summary report of program implementation and impacts. Child Trends

Publication.
https://www.childtrends.org/wp-content/uploads/2014/06/Abriendo-Puertas-Report-8-18-141.pdf (2021. 6. 28 인출).

Moore, S. M., & Perez-Mendez, C.(2003). *Cultural contexts for early intervention.* Rockville, MD: American Speech-Language- Hearing Association.

NAEYC. (1995). Responding to linguistic and cultural diversity recommendations for effective early childhood education: A position statement. Washington, DC: Author.

National Education Radio Website, Taiwan (2021). https://channelplus.ner.gov.tw/community(2021. 7. 2. 인출).

Nelson, P., Kohnert, K., Sabur, S., & Shaw, D. (2005). Classroom noise and children learning in a second language.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17*(4), 2365.

New Taipei City Government (2021). Report on the project of empowering the New Second Generation. https://wedid.ntpc.gov.tw/stable/detail/k1AldpDPdLK7(2021. 5. 30. 인출).

Nuscheler, F. (2004). *Internationale migration: Flucht und Asyl*. Wiesbaden: VS Verlag.

Paradis, J., Crago, M., Genesee, F., & Rice, M. (2003). Bilingual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How do they compare with their monolingual peer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6*, 1-15.

Pearson, B. Z., Fernández, S. C., & Oller, D. K. (1993). Lexical development in bilingual infants and toddlers: Comparison to monolingual norms. *Language learning, 43*(1), 93-120.

Perozzi, J. A., & Sanchez, M. L. C.(1992). The effect of instruction in L1 on receptive acquisition of L2 forbilingual children with language delay.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23,* 348-352.

Petitto, L. A., & Holowka, S. (2002). Evaluating attributions of delay an

d confusion in young bilinguals: Special insights from infants ac quiring a signed and a spoken language. *Sign Language Studies, 3*(1), 4-33.

Pettito, L. A., Katerelos, M., Levy, B. G., Gauna, K., Tétreault, K., & Ferraro, V. (2001). Bilingual signed and spoken language acquisition from birth: Implications for the mechanisms underlying early bilingual language acquisition. *Journal of Child Language, 28*(2), 453-496.

Pham, G., & Kohnert, K. (2014). A longitudinal study of lexical develop ment in children learning Vietnamese and English. *Child Develo pment, 85*(2), 767-782.

Portes, A., & Hao, L. (2002). The price of uniformity: Language, family, and personality adjustment in the immigrant second generation. *Ethnic & Racial Studies, 25*(6), 889-912.

Portes, A., & Rumbaut, R. G. (2001). *Legacies: The story of the immigr ant second gener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escorla, L. (2000). Do late-talking toddlers turn out to have reading di fficulties a decade later? *Annals of Dyslexia, 50*, 87-102.

Restrepo, M. A., Castilla, A. P., Schwanenflugel, P. J., Neuharth-Pritchett, S., Hamilton, C. E., & Arboleda, A. (2010). Effects of a supplemental Spanish oral language program on sentence length, complexity, and grammaticality in Spanish-speaking children attending English-only preschool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41*(1), 3-13.

Roberts, T. A. (2014). Not so silent after all: Examination and analysis of the silent stage in childhoo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9*(1), 22-40.

Robinson-Zañartu, C. (1996). Serving Native American children and fa milies: Considering cultural variables. *Language, Speech, and He aring Services in Schools, 27*, 373-384.

Rodríguez, J. L., Díaz, R. M., Duran, D., & Espinosa, L. (1995). The imp act of bilingual preschool education on the language developme

nt of Spanish-speaking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4), 475-490.

Ruan, P. C., Wu, M. I., Chang, J. C., & Hsu, P. J. (2020). Emitting "new" sparkles: Transmitting the value of the mother-tongue and the prospect of the language projects for new immigrants. NCCU UONLINE NEWS, Issue 1729. https://unews.nccu.edu.tw/tag/1729%e6%9c%9f/(2021. 5. 30. 인출).

Scarborough, H. S. (1990). Very early language deficits in dyslexic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6), 1728-1743.

Schaerlaekens, A., Zink, I., & Verheyden, L. (1995). Comparative vocabulary development in kindergarten classes with a mixed population of monolinguals, simultaneous and successive bilinguals.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16*(6), 477-495.

Solomon, B. B. (1976). Black empowerment: Social work in oppressed communit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Statistisches Bundesamt(2021). Datenreport 2021. Wiesbaden: Statistisches Bundesamt.

Su, H. H. (2016).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joining the counselling class of life adaptation among the new immigrant women. Unpublished Master Thesis, National Sun Yat-Sun University, Taiwan.

Tabors, P. O. (2008). *One child, two languages: A guide for preschool educators of children learn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2d ed.). Baltimore: Paul. H. Brookes.

Tabors, P. O. (1997). One child, two languages: A guide for preschool educators of children learn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Baltimore: Brookes.

The White House. (2014). Empowering Our Children by Bridging the Word Gap.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blog/2014/06/25/empowering-our-children-bridging-word-gap(2021. 5. 3. 인출).

The White House. (2015a). Strengthening communities by welcoming al

l residents: A federal strategic action plan on immigrant & refug ee Integration. ht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 ult/files/docs/final_tf_newamericans_report_4-14-15_clean.pdf(2 021. 5. 2. 인출).

The White House. (2015b). White House task force on new Americans: One-year progress report. https://obmawhitehouse.archives.gov/ sites/default/files/image/tfna_progress_report_final_12_15_15.pd f(2021. 5. 2. 인출).

Thordardottir, E., Ellis Weismer, S., & Smith, M. (1997). Vocabulary lea rning in bilingual and monolingual clinical intervention. *Child L anguage Teaching and Therapy, 13*(3), 215- 227.

Tseng, V., & Fuligni, A. J. (2000). Parent-Adolescent language use and relationships among immigrant families with East Asian, Filipino, and Latin American backgroun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2), 465-476.

U.S. Census Bureau(2019). Language Spoken at Home. https://data.cens us/gov/cedsci(2021. 5. 3. 인출).

U.S. Department of Education(2015). 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 https://www.ed.gov/essa?src=ft(2021. 5. 3. 인출).

U.S. Department of Education(2016). Non-regulatory guidance: English learners and Title III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 n Act(ESEA) https://www2.ed.gov/policy/elsec/leg/essa/essatitleii iguidenglishlearners92016.pdf(2021. 6. 28. 인출).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13). Implementing H ome Instruction for Parents of Preschool Youngsters (HIPPY) Pr ogram Model Overview. http://homvee.acf.hhs.gov/Implementati on/3/Home-Instruction-for-Parents-of-Preschool-Youngsters-HI PPY-/13(2021. 6. 28. 인출).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U.S. Department of E ducation(2016). Policy statement on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children who are dual language learners in early childhood progr ams. https://files.eric.ed.gov/fulltext/ED566723.pdf(2021. 6. 28. 인출).

Van Deusen-Scholl, N. (2003). Toward a definition of heritage language: Sociopolitical and pedagog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Language, Identity, and Education, 2*(3), 211-230.

Van Kleeck, A. (1994). Potential cultural bias in training parents as conversational partners with their children who have delays in language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3*, 67-78.

Van Tuijl, C., Leseman, P. P., & Rispens, J. (2001). Efficacy of an intensive home-based educational intervention programme for 4- to 6-year-old ethnic minority children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5*(2), 148-159.

Wang, H. Z. (2001). Social stratification, Vietnamese partners' migration and the Taiwanese labor market. *Taiwan: A Radical Quarterly in Social Studies, 41*, 99-127.

Wixom, M. A. (2015).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and National Experts examine: State level English language learner policies.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http://www.ecs.org/clearinghouse/01/17/92/11792.pdf(2021. 5. 3. 인출).

Winsler, A., Díaz, R. M., Espinosa, L., & Rodríguez, J. L. (1999). When learning a second language does not mean losing the first: Bilingual language development in low-income Spanish-speaking children attending bilingual preschool. *Child Development, 70*(2), 349-362.

Wong-Fillmore, L. (1991). When learning a second language means losing the firs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 323-346.

Yeh, Y.-C. & Ho, H.-J. (2015). An evaluation of the Vietnamese heritage language training project.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10*(2), 71-95.

【참고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정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독일 이주법(Zuwanderungsgesetz)

【참고 사이트】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홈페이지, CA Legis. Assemb. S.B.84, 2015 Reg. Sess. (Cal., 2015).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5(2021. 5. 1. 인출).

Child Welfare Information Getaway. (n.d.). Home Instruction for Parents of Preschool Youngsters (HIPPY).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preventing/prevention-programs/homevisit/homevisitprog/hippy/(2021. 5. 3. 인출).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2021. 10. 1. 인출)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 홈페이지, https://lgglobalschool.co.kr/ko (2021. 11. 7. 인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html&bcode=HAGAAAA&bmode=view&idx=HAGAAAA (2021. 10. 10.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488, (2021. 11. 7. 인출).

독일 연방정책교육본부 홈페이지, https://www.bpb.de/nachschlagen/zahlen

-und-fakten/soziale-situation-in-deutschland/61646/migrationshintergrund-i (2021. 5. 20. 인출).

두루책방 홈페이지, http://xn—hu1b40go5ck8x.com/(2021. 11. 7. 인출).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홈페이지, https://foundation.miraeasset.com/front/socialwelfare/guide/parentsLang.do(2021. 11. 7. 인출).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홈페이지, https://www.key.kr/(2021. 11. 7. 인출).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https://www.sc.or.kr/happy2/intro.do(2021. 11. 5. 인출).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auliklim.cafe24.com/xe/home (2021. 11. 7. 인출).

올리볼리 그림동화 홈페이지, http://ollybolly.org/?fwp_cartoon_new_or_pop=new(2021. 11. 7. 인출).

㈜ 아시안허브 홈페이지, http://asianhub.kr/(2021. 11. 7. 인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hf.or.kr/lay1/bbs/S1T62C67/A/15/view.do?article_seq=1111839&mode=view&tp=1(2021. 11. 5. 인출).

한민족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hankorea.or.kr/html/biz_04.php(2021. 11. 7. 인출).

현대차정몽구재단 홈페이지, http://www.hyundai-cmkfoundation.org/magazine/getMagazineSub.do;jsessionid=BpG8rqUQLu71X2aPD5QhbF0pEUF51vMNPkTWvGoPq0f9NkbtpVOmScOqChId414S.MGFWeb01_servlet_engine1?idx=33&subIdx=348(2021. 11. 7. 인출).

Abstract

Policy Support to Empower Multicultural Parents for Bilingual Language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Eun Jung Park, Mugyeong Moon, Ji Yeon Yun,
Dong Sun Yim, Weng-Feng Lai

This study aims is to seek effective support policies to empower multicultural parents with young children, from the aspect of bilingualism being a strength of multicultural famili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bilingual support policies and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to identify the status of bilingual parenting in multicultural families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addition, an expert opinion survey was conducted to diagnose the status of bilingual support and to derive policy measur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three basic principles for bilingual support policies were suggested for parental empowerment of multicultural infants and toddlers: improving the overall awareness of bilingualism, support for simultaneous bilingual development at the beginning of life(infancy), substantializing bilingual support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linkage system. Six policy tasks were derived from the basic principle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o establish a cooperative bilingual support system, 2) to provide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awareness of bilingualism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young children, 3) to activate and utilize self-help groups by country of origin, 4) to provide customized bilingual

support for using two languages at home. 5) to improve access to bilingual services and informations, 6) to expand professional bilingual human resources and strengthen their professionalism. Specific plans were presented to realize the derived policy tasks. Finally, implementation strategies were suggested to realize these policy tasks.

Keywords: Multicultural Family, Bilingualism, Parental Empowerment, Bilingual Support

부록

부록 1. 심층면담 질문지_한국어판

영유아 부모 심층면담 질문지

※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기본과제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의 수행을 위한 심층면담 질문지입니다.

※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보호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관리될 예정이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심층면담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미취학 자녀를 기준으로 대답해주십시오.
✓ 각 질문의 하단에 제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대답해주십시오.

[자녀 양육 전반]

Q 1. 귀하는 자녀의 양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대답해주십시오.)
- 주양육자
-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긴급한 돌봄 지원이 필요할 때: 조부모, 친인척 도움, 민간 베이비시터 이용 등

Q 2. 자녀 양육 시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사용 언어 및 언어 습득 과정]

Q 3. 귀하의 자녀가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 주언어, 부언어

* 주언어: 가정,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주된 언어
* 부언어: 주언어 이외에 사용하는 다른 언어

- 상황별 사용하는 언어 차이
(예시: 외국 출신 부모와 자녀가 단둘이 있을 경우와 조부모가 함께 할 때 다른 언어 사용)

Q 4. 귀하의 자녀가 언어를 습득한 과정은 어떠합니까?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대답해주십시오.) - 언어습득 시 가장 많이 노출된 언어 - 언어습득 시기 및 이중언어 사용 시 습득 순서 - 언어습득 과정에서의 어려움
[이중언어 구사 환경]
Q 5. 귀하의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은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대답해주십시오.) - 가정 내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대한 견해 - 자녀의 외국 출신 부모의 언어습득 및 문화 공유 노력 및 교육 계획
Q 6. 부부가 서로의 언어습득에 대해 가진 태도와 습득 정도는 어떠합니까?
Q 7. 가정 외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사회 등에서 이중언어 사용 아동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지원 요구]
Q 8. 귀하의 다문화가족 부모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은 어떠했습니까?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대답해주십시오.) - 서비스 이용 여부 - 이용 시 만족 및 도움 정도 - 이용 서비스의 개선할 점
Q 9.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또는 언어발달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은 어떠했습니까?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대답해주십시오.) - 서비스 이용 여부 - 이용 시 만족 및 도움 정도 - 이용 서비스의 개선할 점
Q 10.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시: 부모교육, 부모상담, 자녀와의 활동 교재교구 제공 등
Q 11.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 및 자녀 대상 지원 서비스를 모두 말씀해주십시오.)
Q 12. 이 외에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지원 및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 응답자의 기본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연령	_____세
성별	① 남 ② 여
거주지	_____ 시/도 _____시/군/구
출신국	
모국어	
한국 거주 기간	_____년 _____개월
이주 배경	*(국제결혼, 이주노동, 유학 등)*
최종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 졸 ④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취업 여부	① 취업(전일제) ② 취업(시간제) ③ 미취업
가구 월평균 소득	
가구 구성원	*(예: 남편, 자녀 2명, 시부모)*
배우자 만남 계기	① 유학 중에 ② 한국에서 일하는 중에 ③ 종교 기관을 통해서 ④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⑤ 기타(적어주세요:_____)
본인의 한국어 구사능력	① 매우 유창함 ② 유창한 편임 ③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함 ④ 거의 못함 ⑤ 전혀 못함 - 매우 유창함: 원어민에 근접한 수준으로 의사소통 및 토론이 가능함. - 유창한 편임: 은행 및 관공서 업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현을 구사하는 데 무리가 없음. - 기본적인 의사소통: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간단한 표현만 구사 가능함 (* 한국어 능력시험 등급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TOPIK _____급)
배우자의 (피면담자) 모국어 구사능력	① 매우 유창함 ② 유창한 편임 ③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함 ④ 거의 못함 ⑤ 전혀 못함 - 매우 유창함: 원어민에 근접한 수준으로 의사소통 및 토론이 가능함. - 유창한 편임: 은행 및 관공서 업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현을 구사하는 데 무리가 없음. - 기본적인 의사소통: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간단한 표현만 구사 가능함
가정 내 일상언어	① 부모의 두 언어를 함께 사용함(이중언어 사용) ② 한국어만 사용함 ③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나, 본인 모국어를 가끔 사용함 ④ 3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함(적어주세요:_____) ⑤ 제3의 언어를 사용함(적어주세요:_____)

※ 귀하 자녀의 기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귀하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 자녀 출생순위별로 다음 사항에 응답해주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출생년월				
성별				
출생지				
현재 이용 중인 교육·보육시설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중·고등학교 ⑤ 기타				
자녀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① 한국어 ② 외국출신 부모의 언어 ③ 한국어와 외국출신 부모의 언어를 거의 동일하게 사용 ④ 제3의 언어				
자녀 양육 시 주양육자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 ① 한국어 ② 외국출신 부모의 언어 ③ 제3의 언어 ④ 한국어와 외국출신 부모의 언어를 거의 동일하게 사용				

면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_번역본(베트남어)[26)]

PHIẾU CÂU HỎI PHỎNG VẤN CHI TIẾT BỐ MẸ TRẺ DƯỚI 3 TUỔI

※ Phiếu câu hỏi phỏng vấn chi tiết này là đề án cơ bản năm 2021 do Viện nghiên cứu chính sách nuôi dạy con đứng ra chủ trì nhằm đề ra "phương án hỗ trợ nâng cao vai trò của bố mẹ nhằm phát triển khả năng song ngữ cho trẻ dưới 3 tuổi trong gia đình đa văn hóa.

※ Nội dung trả lời của Bạn chỉ được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nghiên cứu và thông tin thu thập được quản lý chặt chẽ căn cứ theo Luật bảo hộ cá nhân. Chính vì thế, kính mong Bạn vui lòng trả lời thành thực. Một lần nữa, xin chân thành cám ơn Bạn đã tham gia cuộc phỏng vấn chi tiết này.

✓ Hãy trả lời theo tiêu chuẩn con em Bạn chưa đến độ tuổi đi học.
✓ Hãy trả lời từng câu hỏi bao gồm các mục nêu dưới đây.

[VỀ VẤN ĐỀ NUÔI DƯỠNG CON CÁI]

CH 1. Bạn đang nuôi dưỡng con cái của Bạn như thế nào?
(Hãy trả lời tất cả nội dung được nêu dưới đây)
- Người nuôi dưỡng chính
- Có sử dụng cơ sở giáo dục mầm non hay không
- Có sử dụng dịch vụ hỗ trợ chăm sóc trẻ em hay không: dịch vụ trông trẻ, trông trẻ theo giờ, trung tâm hỗ trợ nuôi dạy trẻ tổng hợp vvv
- Khi cần được hỗ trợ trông trẻ khẩn cấp: nhờ ông bà hoặc người thân trông hộ. sử dụng dịch vụ người trông trẻ cá nhân vvv

CH2. Bạn gặp khó khăn gì khi nuôi dạy con và Bạn giải quyết khó khăn bằng cách nào?

[Ngôn ngữ sử dụng và quá trình tiếp thu ngôn ngữ của con]

CH3. Con Bạn hiện đang sử dụng ngôn ngữ gì?
- Ngôn ngữ chính, ngôn ngữ phụ

* Ngôn ngữ chính: Ngôn ngữ sử dụng chủ yếu trong đời sống sinh hoạt hằng ngày trong gia đình, nhà trẻ, trường học vvv
* Ngôn ngữ phụ: Ngôn ngữ khác được sử dụng thêm ngoài ngôn ngữ chính

- Sự khác biệt về ngôn ngữ sử dụng theo từng tình huống
(Ví dụ: Trường hợp khi bố mẹ xuất thân từ nước ngoài và con cái ở bên nhau, và ngôn ngữ sử dụng khác khi có ông bà ở bên cạnh)

CH4. Quá trình tiếp thu ngôn ngữ của con Bạn diễn ra như thế nào?
(Hãy trả lời tất cả các nội dung dưới đây)
- Ngôn ngữ dùng nhiều nhất khi tiếp thu ngôn ngữ
- Thời điểm tiếp thu ngôn ngữ và trình tự tiếp thu khi sử dụng song ngữ
- Khó khăn trong quá trình tiếp thu ngôn ngữ

[Môi trường luyện nói song ngữ]

CH5. Gia đình Bạn (bản thân, bạn đời, con cái, bố mẹ) nghĩ gì về song ngữ và hai nền văn hóa?

26) 면담조사지 및 연구참여 설명문은 6개 언어(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몽골어)로 번역하였으나 보고서에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만 제시함.

(Hãy trả lời tất cả các nội dung dưới đây) - Quan điểm về song ngữ và hai nền văn hóa trong gia đình - Kế hoạch tiếp thu ngôn ngữ cho con mình của bố mẹ xuất thân từ nước ngoài và nỗ lực chia sẻ văn hóa, kế hoạch giáo dục
CH6. Thái độ về tiếp thu ngôn ngữ của vợ chồng và mức độ tiếp thu ngôn ngữ như thế nào?
CH7. Bạn thể hiện thái độ như thế nào đối với trẻ em sử dụng song ngữ tại nhà trẻ, trường mẫu giáo, trường học, xã hội vvv ngoài việc sử dụng trong gia đình?

[Kinh nghiệm sử dụng dịch vụ hỗ trợ và yêu cầu hỗ trợ]
CH8. Bạn đã từng sử dụng dịch vụ hỗ trợ bố mẹ gia đình đa văn hóa lần nào chưa? (Hãy trả lời tất cả các nội dung dưới đây) - Sử dụng dịch vụ lần nào chưa - Mức độ hài lòng khi sử dụng và mức độ hữu ích - Yếu tố cần phải cải thiện dịch vụ sử dụng
CH9. Bạn đã từng sử dụng dịch vụ song ngữ hoặc phát triển ngôn ngữ cho con Bạn lần nào chưa? (Hãy trả lời tất cả các nội dung dưới đây) - Sử dụng dịch vụ lần nào chưa - Mức độ hài lòng khi sử dụng và mức độ hữu ích - Yếu tố cần phải cải thiện dịch vụ sử dụng
CH10. Suy nghĩ của Bạn về dịch vụ cần được hỗ trợ nhiều hơn để phát triển năng lực nuôi dưỡng con đối với gia đình đa văn hóa là gì? - Thí dụ: Khóa học đào tạo dành cho bố mẹ, tư vấn cho bố mẹ, cung cấp giáo trình dụng cụ học tập để phục vụ hoạt động kèm học cho con cái vvv
CH11. Suy nghĩ của Bạn về dịch vụ hỗ trợ cần thiết để phát triển song ngữ cho con là gì? (Hãy nêu tất cả dịch vụ hỗ trợ dành cho bố mẹ và con cái)
CH12. Xin vui lòng nêu ra ý kiến về việc hỗ trợ bố mẹ để phát triển song ngữ cho trẻ em trong gia đình đa văn hóa cũng như hỗ trợ phát triển ngôn ngữ cho con

※ Bảng này là câu hỏi về thông tin cá nhân chi tiết của Bạn. Xin vui lòng điền vào và nộp cho chúng tôi.

Độ tuổi	_____tuổi
Giới tính	① Nam ② Nữ
Địa chỉ cư trú	Quận/huyện/TP_____ TP/tỉnh_____
Quốc gia xuất thân	
Tiếng mẹ đẻ	
Thời gian lưu trú tại Hàn Quốc	_____năm _____ tháng
Nền tảng định cư	*(Lấy chồng nước ngoài, lao động, du học vvv)*
Trình độ học lực	① Tốt nghiệp bậc PTCS ② Tốt nghiệp PTTH ③ Tốt nghiệp cao đẳng ④ Tốt nghiệp đại học chính quy hệ 4 năm trở lên
Trạng thái việc làm	① Việc làm (toàn thời gian) ② Việc làm(bán thời gian) ③ Chưa có việc làm
Thu nhập trung bình hộ gia đình	
Thành viên gia đình	(Thí dụ: chồng, 2 đứa con, bố mẹ chồng)
Hình thức làm quen với bạn đời	① Thông qua du học ② Thông qua hình thức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③ Thông qua cơ quan tôn giáo ④ Thông qua công ty môi giới hôn nhân ⑤ Khác(Ghi rõ nội dung:_____)
Trình độ nói tiếng Hàn của bản thân	① Rất lưu loát ② Khá lưu loát ③ Chỉ giao tiếp cơ bản ④ Hầu như rất kém ⑤ Hoàn toàn không biết nói - Rất lưu loát: Gần như tương đương với người bản xứ và có khả năng thảo luận được. - Khá lưu loát: Không gặp khó khăn trong đời sống sinh hoạt như giao dịch ngân hàng, thực hiện thủ tục hành chính vvv. - Giao tiếp cơ bản: Có thể nói đơn giản những mẫu câu lặp đi lặp lại trong đời sống sinh hoạt (* Nếu Bạn có chứng chỉ năng lực tiếng Hàn, xin vui lòng điền vào đây. TOPIK cấp_____)
Khả năng nói tiếng mẹ đẻ của bạn đời (đối với người không phỏng vấn trực tiếp)	① Rất lưu loát ② Khá lưu loát ③ Chỉ giao tiếp cơ bản ④ Hầu như rất kém ⑤ Hoàn toàn không biết nói - Rất lưu loát: Gần như tương đương với người bản xứ và có khả năng thảo luận được. - Khá lưu loát: Không gặp khó khăn trong đời sống sinh hoạt như giao dịch ngân hàng, thực hiện thủ tục hành chính vvv. - Giao tiếp cơ bản: Có thể nói đơn giản những mẫu câu lặp đi lặp lại trong đời sống sinh hoạt
Ngôn ngữ sử dụng trong gia đình	① Sử dụng hai ngôn ngữ của bố mẹ cùng lúc(sử dụng song ngữ) ② Chỉ sử dụng tiếng Hàn ③ Chủ yếu sử dụng tiếng Hàn, thỉnh thoảng sử dụng tiếng mẹ đẻ của mình ④ Sử dụng 3 thứ tiếng(Hãy ghi cụ thể_____) ⑤ Sử dụng ngôn ngữ thứ 3((Hãy ghi cụ thể_____)

※ Bảng này là câu hỏi về thông tin cá nhân chi tiết của con Bạn. Xin vui lòng điền vào và nộp cho chúng tôi.

* Bạn có mấy con ở độ tuổi dưới 18?_____con
* Hãy trả lời các chí tiết dưới đây theo trình tự năm sinh của con Bạn.

	Con đầu	Con thứ 2	Con thứ 3	Con thứ 4
Ngày tháng năm sinh				
Giới tính				
Quốc gia xuất thân				
Cơ sở giáo dục hiện đang sử dụng ① Nhà trẻ ② Mẫu giáo ③ Trường tiểu học ④ Trường PTCS, trường PTTH ⑤ Khác				
Ngôn ngữ chính thường sử dụng trong sinh hoạt của con Bạn ① Tiếng Hàn ② Ngôn ngữ của bố mẹ xuất thân từ nước ngoài ③ Sử dụng hầu như cùng lúc ngôn ngữ của bố mẹ người Hàn Quốc và nước ngoài ④ Ngôn ngữ thứ 3				
Ngôn ngữ sử dụng chủ yếu của người nuôi dưỡng chính khi nuôi dạy con ① Tiếng Hàn ② Ngôn ngữ của bố mẹ xuất thân từ nước ngoài ③ Ngôn ngữ thứ 3 ④ Sử dụng hầu như cùng lúc ngôn ngữ của bố mẹ người Hàn Quốc và nước ngoà				

Xin chân thành cám ơn Bạn đã tham gia phỏng vấn.

부록 3. 심층면담 연구참여 설명문_한국어판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문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다문화가족 부모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문과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설명문을 읽고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대상 이중언어 지원정책 및 서비스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의 이중언어 양육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부모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 상**: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 30명

○ **연구의 참여 절차**: 설명문을 숙지 후 참여 의사가 있다면,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 **참여기간 및 소요시간**: 면담은 2021년 6~7월 중에 진행되며, 각 면담은 60분~12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한국어로 면담 진행 시 60분 내외가 소요되며, 통역으로 면담을 진행할 경우 면담 시간이 2배가량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면 담 장 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면담이 진행되거나, 귀하의 자택 및 자택 인근 장소 중 원하시는 조용한 장소에서 면담이 진행됩니다.

○ **면담 주요내용:** 본 면담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용 언어 및 언어 습득 과정, 가정 내 이중언어 구사 환경, 관련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지원 요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보상:** 귀하가 면담에 참여 시 사례비 7만원이 지급됩니다. 면

담대상자의 사정이나 중단 요청으로 인해 심층면담이 완료되지 못하거나, 면담대상자가 참여의사를 철회할 경우에 사례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위험성 및 이익:** 본 면담의 내용은 연구에 반영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귀하는 이중언어 지원 정책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면담 진행 시 경미한 심리적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실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담 진행을 원치 않으시면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으며, 대답하기 원치 않는 질문은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로감을 느끼셔서 휴식을 원하실 경우 면담 도중에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 참여 사례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성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수집될 것입니다. 수집한 자료는 잠금 장치가 있는 사무실 공간에서 지정된 서류 캐비닛에 보관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떠한 출판물 또는 보고서에도 기재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 완료 후 연구진은 총무정보팀으로 문서를 이관하며, 총무정보팀은 관계법령에 따라 문서를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3년간 보관 후 분쇄 파기할 것입니다.

면담내용은 녹음되며, 면담 과정에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휴대전화 번호, 출신국, 자녀 연령 등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면담 후 즉시 삭제되며, 나머지 정보는 연구를 위해 사용됩니다. 전사한 면담내용과 수집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에 보관되며 연구진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연구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연구자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되며 이후 분쇄방법으로 폐기될 것입니다.

❍ **제3자 정보제공:**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공개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자료의 보관**: 조사로부터 수집된 원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실 내에 3년간 보관되며, 연구진 이외에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보관기간인 3년이 지난 이후 즉시 폐기됩니다.

❍ **연구참여 도중 중도 탈락:** 귀하는 면담에 참여하면서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둘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중단 즉시 폐기됩니다. 면담 완료 후에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철회를 요청하면 해당 내용은 즉시 삭제될 것입니다.

❍ **연구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설문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 박은정 전화번호: 02-398-7788
E-MAIL: ej.park@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공동연구자 문무경 전화번호: 02-398-7710
E-MAIL: mgmoon@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공동연구자 윤지연 전화번호: 02-398-7758
E-MAIL: sunflower@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IRB 사무국 전화번호: 02-398-7761

부록 4.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설문지_한국어판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 조사[27)]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은 다문화 영유아 가구의 가정 내 언어사용 실태와 부모의 자녀양육 시 어려움을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부모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조사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보호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관리될 예정이오니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 조사기관	㈜ 에스티아이
◆ 조사문의	윤지연 연구원 02-398-7758 sunflower@kicce.re.kr	◆ 조사담당	박재균 책임연구원 02-785-9564 sti9564@gmail.com
◆ 연구책임	박은정 부연구위원		

27) 설문조사지 및 연구참여 설명문은 6개 언어(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영어)로 번역하였으나 보고서에는 한국어만 제시함.

※ 이 조사는 출생 시 외국 국적을 소지했던 결혼이민자·귀화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문 1. 귀하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1. 한국어 ☞ 설문 종료
2. 중국어 ☞ 중국어 버전
3. 일본어 ☞ 일본어 버전
4. 베트남어 ☞ 베트남어 버전
5. 캄보디아어 ☞ 캄보디아어 버전
6. 태국어 ☞ 태국어 버전
7. 영어 ☞ 영어 버전
8. 기타(모국어:_____) ☞ 선문 1-1로 이동

선문 1-1. 다음 중 원어민과 유사한 수준으로 읽고 쓸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까? (구사 가능한 언어가 여러 개일 경우 설문지 응답이 가장 편한 언어를 선택해주세요.)

1. 한국어 ☞ 한국어 버전
2. 중국어 ☞ 중국어 버전
3. 일본어 ☞ 일본어 버전
4. 베트남어 ☞ 베트남어 버전
5. 캄보디아어 ☞ 캄보디아어 버전
6. 태국어 ☞ 태국어 버전
7. 영어 ☞ 영어 버전
8. 없음 ☞ 설문 종료

선문 2.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1. 한국인 배우자 있음 ☞ 선문 3으로 이동
2. 외국인 배우자 있음 ☞ 설문 종료
3. 이혼·사별 ☞ 설문 종료
4. 미혼 ☞ 설문 종료

선문 3. 귀하는 만 3세부터(2018년 7월 이전 출생) 만 6세 이하(미취학 자녀)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1. 없음 ☞ 설문 종료
2. 있음 ☞ 선문 3-1로 이동

선문 3-1. 만 3세부터(2018년 7월 이전 출생)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가 몇 명입니까?

_____명

선문 4.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선문 4-1. 귀하의 거주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농산어촌

※ 귀하의 **미취학 자녀 중 연령이 가장 높은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Ⅰ.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실태

문 1. 귀하의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이 평소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본인(응답자)	배우자	자녀

1. 한국어만 사용함
2.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나, 나의 모국어를 가끔씩 사용함
3. 나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거의 반반씩 사용함
4. 주로 나의 모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가끔씩 사용함
5. 나의 모국어만 사용함
6. 제3의 언어(한국어와 모국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함(적어주세요:_____ _____)

문 2. 귀하의 미취학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자녀는 몇 세 입니까?

1. 만 3세(2017년 8월~2018년 7월 출생) ☞ 문 3-3로 이동

2. 만 4세(2016년 8월~2017년 7월 출생) ☞ 문 3-2로 이동
3. 만 5세~취학 전(2016년 7월 이전 출생) ☞ 문 3-1로 이동

문 3. 귀 자녀가 다음 시기에 가장 많이 듣고 접한 언어는 무엇입니까?

문 3-1. 만 5세~취학 전	문 3-2. 만 4~5세	문 3-3. 만 3~4세	문 3-4. 만 2~3세	문 3-5. 만 1~2세	문 3-6. 생후 12개월 이전
	→	→	→		
① 한국어 ② 모국어 ③ 기타언어 (적어주세요:_____)	① 한국어 ② 모국어 ③ 기타언어 (적어주세요:_____)	① 한국어 ② 모국어 ③ 기타언어 (적어주세요:_____)	① 한국어 ② 모국어 ③ 기타언어 (적어주세요:_____)	① 한국어 ② 모국어 ③ 기타언어 (적어주세요:_____)	① 한국어 ② 모국어 ③ 기타언어 (적어주세요:_____)

문 4. 귀 자녀가 한국어와 모국어를 구사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여기에서 언어 구사 수준은 '과자 먹을래요.', '이 장난감 사주세요.' 등 간단한 의사표현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생후 24개월 이전	만 2~3세	만 3~4세	만 4~5세	만 5세 이후	구사하지 못함
문 4-1. 한국어	①	②	③	④	⑤	⑥
문 4-2. 모국어	①	②	③	④	⑤	⑥

문 4-3. 귀 자녀가 한국어와 귀하의 모국어를 습득한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1. 나의 모국어를 먼저 습득하고, 한국어를 습득함
2. 한국어를 먼저 습득하고, 나의 모국어를 습득함
3. 나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습득함
4. 현재 나의 모국어만 습득함 ☞ 문 5로 이동
5. 현재 한국어만 습득함 ☞ 문 5로 이동

문 4-4. 귀 자녀의 한국어와 모국어 구사 수준을 비교하면 어떠합니까?

1. 나의 모국어를 한국어보다 잘함
2. 한국어를 나의 모국어보다 잘함
3. 나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비슷한 수준으로 구사함
4. 잘 모르겠음

문 5. 귀하의 자녀는 귀하의 모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자녀의 모국어 구사 정도에 √표시 해주십시오.

* 거의 못함: 매우 쉬운 단어인 엄마, 아빠, 응, 아니 등만 구사
* 조금 할 수 있음: 숫자나 동물·사물의 이름, '고맙습니다', '이거 뭐예요?' 등 단순한 문장 구사
* 잘하는 편임: '배고파서 밥 먹을래요.', '이 장난감 사주세요.' 등 간단한 의사표현 및 단순한 문장 이해
* 잘함: 일상적인 대부분의 문장을 이해하고 외국 출신 부모와 모국어로 의사소통 가능

문항	전혀 못함	거의 못함	조금 할 수 있음	잘하는 편임	잘함
	1	2	3	4	5
1. 듣기					
2. 말하기					

문 5-1. 귀하는 자녀가 한국에서 모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귀하와 자녀의 어려움을 모두 고려하여 응답해주십시오.

1. 어려움 있었음 ☞ 문 5-1-1로 이동
2. 어려움 없었음 ☞ 문 6으로 이동

문 5-1-1. 자녀가 귀하의 모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자녀가 한국어와 나의 모국어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함
2. 자녀가 한국어로만 이야기하려고 함
3. 내가 자녀의 한국어 발달에 대해 매우 걱정함
4. 모국어로 된 책이나 교재가 부족함
5. 나의 배우자는 자녀가 모국어를 배우는 것을 지지하지 않음
6. 한국 가족들(시부모, 친인척 등)이 자녀의 모국어 사용에 부정적으로 반응함
7. 나의 모국어 사용에 대해 한국의 사회적 시선 및 인식이 좋지 않다고 느낌
8.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 6. 귀하는 자녀가 한국어 습득 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귀하와 자녀의 어려움을 모두 고려하여 응답해주십시오.

1. 어려움 있음 ☞ 문 6-1로 이동
2. 어려움 없음 ☞ 문 7로 이동

문 6-1. 자녀가 한국어 습득 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자녀가 한국어와 나의 모국어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함
2. 자녀가 나의 모국어로만 이야기하려고 함
3. 나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웠음
4. 한국 출신 부모가 자녀와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부족했음
5. 해외에 오래 거주하는 등 한국어를 듣거나 접할 기회가 적었음
6.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 7. 자녀가 한국어와 나의 모국어를 모두 습득했을 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2. 이중언어 사용이 장래에 진학이나 취업에서 장점(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3. 자녀가 다문화 배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4. 자녀의 전체적인 언어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자녀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 아래에 제시된 문항에 해당하는 정도를 1점~5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문 8. 가정 내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자녀가 나의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지지한다.					
2. **나의 배우자는** 자녀가 나의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지지한다.					
3. **한국 가족들은**(부모/시부모, 친인척) 자녀가 나의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지지한다.					
4. **나의 자녀는** 나의 모국어를 배우고자 노력한다.					
5. **나의 배우자는** 나의 모국어를 배우고자 노력한다.					
6. **나의 가족은** 나의 모국 문화(음식, 명절 등)를 함께하고자 노력한다.					
7. **나의 배우자 및 가족은** 내가 모국인 친구와 만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8. **나는** 자녀가 나의 모국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9. **나는** 자녀가 한국어와 나의 모국어를 모두 능통하게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자녀가 나의 모국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1. **내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자녀의 이중문화 수용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2. **나는** 한국이웃들과 잘 어울리려고 노력한다.					
13. **나는** 한국의 전통과 풍습을 익히고 가족들과 함께하고자 노력한다.					
14. **나는** 한국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15. **나는** 나의 모국 출신이라는 점이 자랑스럽다.					

문 9. 귀 자녀의 모국어 습득을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일상생활에서 모국어를 사용하여 자녀와 이야기하려고 노력한다.					
2. 나는 자녀에게 모국의 방송 및 영상을 보여준다.					
3. 나는 자녀에게 모국어로 된 책을 읽어준다.					
4. 나는 자녀에게 모국어로 된 노래를 불러준다.					
5. 나는 자녀와 함께 모국어로 다양한 놀이를 한다.					
6. 나는 학습지나 낱말카드 등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친다.					
7. 나와 배우자는 자녀가 나의 모국어를 사용할 때 칭찬하고 격려한다.					
8. 나는 자녀가 함께 모국 출신 사람들을 만나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9. 나는 자녀가 모국어를 사용하여 모국의 가족과 자주 통화하도록 한다.					
10. 나와 배우자는 기회가 될 때마다 자녀와 함께 모국을 방문한다.					

문 10. 한국사회의 이중언어 환경 및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한국사회는 다양한 외국 문화에 대해 수용적이다.					
2.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국민은 다문화 아동의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 습득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 한국사회는 언어별 차별 없이 모든 모국어 습득에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4. 다문화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중언어 사용을 지지 받는다.					
5. 한국사회는 다문화 아동이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서비스가 충분하다.					
6. 다문화 아동이 이중언어를 사용하면, 한국사회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II.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정책 욕구

※ 1) 이중언어 교육 및 상담, 2) 모국어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3) 한국어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이용 경험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문 11. 아래에 제시된 이중언어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험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는 자녀가 귀하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문 11-1.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문11-2. 만족도
1. **이중언어** 관련 부모 상담	1. 이용함 ☞ 문 11-2로 이동 2. 이용한 적 없음	1. 매우 낮음 2. 다소 낮음 3. 보통 4. 다소 높음 5. 매우 높음
2. **이중언어** 관련 부모교육	1. 이용함 ☞ 문 11-2로 이동 2. 이용한 적 없음	1. 매우 낮음 2. 다소 낮음 3. 보통 4. 다소 높음 5. 매우 높음
3. 배우자, 시부모 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중언어** 인식 개선 교육	1. 이용함 ☞ 문 11-2로 이동 2. 이용한 적 없음	1. 매우 낮음 2. 다소 낮음 3. 보통 4. 다소 높음 5. 매우 높음
4.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지원	1. 이용함 ☞ 문 11-2로 이동 2. 이용한 적 없음	1. 매우 낮음 2. 다소 낮음 3. 보통 4. 다소 높음 5. 매우 높음
5. 기타 *프로그램명을 적어주세요 _____	1. 이용함 ☞ 문 11-2로 이동 2. 이용한 적 없음	1. 매우 낮음 2. 다소 낮음 3. 보통 4. 다소 높음 5. 매우 높음

※ 이용한 서비스가 1개 이상인 경우: ☞ 문 11-3으로 이동

※ 모두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문 11-6로 이동

문 11-3. 귀하는 해당 서비스를 어떠한 경로로 이용하게 되셨습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1. 주변에서 이미 이용 중인 지인이 소개해주어서
2. 가족 및 친인척을 통해서
3.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해서
4.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권해주어서
5. 보건소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담당자를 통해서
6.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한 후 정보를 알게 되어서
7.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 11-4. 귀하 및 자녀가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육아종합지원센터
3. 어린이집
4. 유치원
5. 지역 도서관
6. 문화센터
7.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 11-5.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1. 어려움 있었음 ☞ 문 11-5-1로 이동
2. 어려움 없었음 ☞ 문 12으로 이동

문 11-5-1.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을 2순위까지 응답해주십시오.

(☞ 응답 후 문 12으로 이동)

1순위	2순위

1. 나의 모국어로 된 정보가 없거나 부족함
2. 서비스 제공 기관이 너무 멀리 있음
3.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담당자와 의사소통이 잘 안 됨
4. 서비스 제공 시간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있음
5. 관련 교육 및 상담 등 서비스 내용이 어렵게 느껴짐
6.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 11-6. 다문화가족을 위한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해서
2. 우리 가족은 이미 이중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3. 이중언어를 사용할 계획이 없어서
4. 서비스 제공 기관이 너무 멀리 있어서
5.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
6. 관련 서비스의 질이나 내용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7. 배우자 및 가족들이 서비스 이용을 꺼려해서
8.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 12. 아래에 제시된 모국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는지 응답해주십시오.

	문 12-1.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문12-2. 만족도
1.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교재(전자책 포함) 제공 서비스	1. 이용함 ☞ 문 12-2로 이동 2. 이용한 적 없음	1. 매우 낮음 2. 다소 낮음 3. 보통 4. 다소 높음 5. 매우 높음
2.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모국어로** 동화 읽어주기·동요 배우기, 음식 만들기 등)	1. 이용함 ☞ 문 12-2로 이동 2. 이용한 적 없음	1. 매우 낮음 2. 다소 낮음 3. 보통 4. 다소 높음 5. 매우 높음
3. 자녀 대상 **모국어** 수업	1. 이용함 ☞ 문 12-2로 이동 2. 이용한 적 없음	1. 매우 낮음 2. 다소 낮음 3. 보통 4. 다소 높음 5. 매우 높음
4. 기타 * 프로그램명을 적어주세요. _____	1. 이용함 ☞ 문 12-2로 이동 2. 이용한 적 없음	1. 매우 낮음 2. 다소 낮음 3. 보통 4. 다소 높음 5. 매우 높음

※ 이용한 서비스가 1개 이상인 경우: ☞ 문 12-3으로 이동

※ 모두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문 12-6로 이동

문 12-3. 귀하는 해당 서비스를 어떠한 경로로 이용하게 되셨습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1. 주변에서 이미 이용 중인 지인이 소개해주어서
2. 가족 및 친인척을 통해서
3.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해서
4.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권해주어서
5. 보건소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담당자를 통해서
6.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한 후 정보를 알 게 되어서
7.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 12-4. 귀하 및 자녀가 모국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육아종합지원센터
3. 어린이집
4. 유치원
5. 지역 도서관
6. 문화센터
7.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 12-5. 모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1. 어려움 있었음 ☞ 문 12-5-1로 이동
2. 어려움 없었음 ☞ 문 13로 이동

문 12-5-1. 모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을 2순위까지 응답해주십시오.

(☞ 응답 후 문 13로 이동)

1순위	2순위

1. 나의 모국어로 된 정보가 없거나 부족함
2. 서비스 제공 기관이 너무 멀리 있음
3.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담당자와 의사소통이 잘 안 됨
4. 서비스 제공 시간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있음
5. 관련 교육 및 교재 등 서비스 내용이 어렵게 느껴짐
6.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 12-6. 귀하와 자녀가 모국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해서
2. 자녀가 이미 나의 모국어를 잘 구사하기 때문에
3. 자녀에게 나의 모국어를 가르칠 계획이 없어서
4. 서비스 제공 기관이 너무 멀리 있어서
5.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
6. 관련 서비스의 질이나 내용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7. 배우자 및 가족들이 서비스 이용에 부정적이어서
8.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 13. 아래에 제시된 한국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는지 응답해주십시오.

	문 13-1.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문13-2. 서비스 만족도
1.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실	1. 이용함 ☞ 문 13-2로 이동 2. 이용한 적 없음	1. 매우 낮음 2. 다소 낮음 3. 보통 4. 다소 높음 5. 매우 높음
2. 자녀 대상 **한국어** 수업	1. 이용함 ☞ 문 13-2로 이동 2. 이용한 적 없음	1. 매우 낮음 2. 다소 낮음 3. 보통 4. 다소 높음 5. 매우 높음
3. 자녀와 함께하는 한국어 활동 프로그램(**한국어로** 동화책 읽어주기·동요 배우기 등)	1. 이용함 ☞ 문 13-2로 이동 2. 이용한 적 없음	1. 매우 낮음 2. 다소 낮음 3. 보통 4. 다소 높음 5. 매우 높음
4. 기타 * 프로그램명을 적어주세요. _____	1. 이용함 ☞ 문 13-2로 이동 2. 이용한 적 없음	1. 매우 낮음 2. 다소 낮음 3. 보통 4. 다소 높음 5. 매우 높음

※ 이용한 서비스가 1개 이상인 경우: ☞ 문 13-3으로 이동

※ 모두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문 13-6으로 이동

문 13-3. 귀하는 해당 서비스를 어떠한 경로로 이용하게 되셨습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1. 주변에서 이미 이용 중인 지인이 소개해주어서
2. 가족 및 친인척을 통해서
3.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해서
4.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권해주어서
5. 보건소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담당자를 통해서
6.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한 후 정보를 알게 되어서
7.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 13-4. 귀하가 한국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육아종합지원센터
3. 어린이집
4. 유치원
5. 지역 도서관
6. 문화센터
7.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 13-5. 한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1. 어려움 있었음 ☞ 문 13-5-1로 이동
2. 어려움 없었음 ☞ 문 14로 이동

문 13-5-1. 한국어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을 2순위까지 응답해주십시오.

(☞ 응답 후 문 14로 이동)

1순위	2순위

1. 나의 모국어로 된 정보가 없거나 부족함
2. 서비스 제공 기관이 너무 멀리 있음
3.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담당자와 의사소통이 잘 안 됨
4. 서비스 제공 시간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있음
5. 서비스 및 교육 내용이 어렵게 느껴짐
6.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 13-6. 귀하와 자녀가 한국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해서
2. 자녀가 이미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3. 서비스 제공 기관이 너무 멀리 있어서
4.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
5. 관련 서비스의 질이나 내용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6. 배우자 및 가족들이 서비스 이용에 부정적이어서
7.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 14. 귀하는 자녀의 이중언어(한국어와 응답자의 모국어) 발달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순위까지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1. 부모의 이중언어 인식개선 및 부모 상담
2. 이중언어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3. 배우자, 시부모 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중언어 인식 개선
4. 자녀와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교재교구(책, 낱말카드 등) 제공
5.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
   (예를 들어, 모국어로 동화 읽어주기·동요 배우기, 음식 만들기 등)
6.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실
7. 자녀 대상 모국어 수업
8. 자녀 대상 한국어 수업
9.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지원
10.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 15. 귀하는 앞으로 자녀의 이중언어(한국어와 응답자의 모국어) 발달을 위해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1. 있음 ☞ 문 15-1로 이동
2. 없음 ☞ 문 16로 이동

문 15-1. 귀하가 이중언어 관련 기관 서비스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기관의 서비스(기관 이용 빈도)
2.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기관의 서비스
3. 제공하는 교재교구가 다양한 서비스
4.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기관의 서비스
5. 이중언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의 서비스
6. 자녀가 나의 모국어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기관의 서비스
7. 기타(적어주세요:_____)

Ⅲ. 일반적 양육 특성

문 16. 귀하의 자녀를 낮 시간에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 본인 2. 배우자
3. 조부모 및 친인척 4.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5. 공공 아이돌보미 6. 민간 베이비시터
7.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 17. 가정 내에서 자녀와 가장 많이 의사소통하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1. 본인 2. 배우자
3. 조부모 4. 친인척
5.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 18. 귀하가 자녀 돌봄을 위해 이용 중인 기관 및 서비스를 선택 해 주십시오.

기관 및 서비스	이용	미이용
1. 어린이집	☞ 문 18-1로 이동	
2. 유치원	☞ 문 18-1로 이동	
3. 육아종합지원센터		
4.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5. 시간제 보육		
6. 문화센터		
7. 공동육아나눔터		
8. 사립 영유아학원(영어유치원 및 놀이학교 포함)		
9.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 18-1. 귀하의 자녀는 시설(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언제부터 이용했습니까?

생후 12개월 이전	생후 24개월 이전	만 2~3세	만 3~4세	만 4~5세	만 5세 이후
①	②	③	④	⑤	⑥

문 18-2. 귀하의 자녀를 이 시기에 처음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맞벌이를 해서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음
2. 한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도록 일찍 보냈음
3.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낼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했음
4. 아이를 돌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보냈음
5. 주변에 아이의 친구 또래가 없어서 보냈음
6.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 18-3. 귀하의 자녀가 이용 중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어떻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1.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 없음.
2. 모국어를 사용하지 말고, 한국어만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음.
3.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였으나, 이외에 지원은 없었음.
4. 가정에서 아이와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주었음.
5. 이중언어 관련 교육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계해 주었음.
6. 기타(적어주세요:_____)

문 19. 귀하가 스스로의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 해주십시오.

문항	매우 부족하다	부족한 편이다	보통 이다	충분한 편이다	매우 충분하다
	1	2	3	4	5
1. 자녀와의 소통					
2.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					
3. 일반적인 자녀 양육 지식					
4. 자녀의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5. 학업/공부 지도					
6.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자녀에게 필요한 정보 습득					

문 20.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정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2.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					
3. 자녀가 장래에 잘 성장할지 걱정된다.					
4. 자녀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5.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6. 자녀에게 남들만큼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생각이 든다					

문 21. 자녀 양육에 동참하거나 도움을 제공하는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의 배우자는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내 주변에는 자녀 돌봄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이웃이 있다.					
3. 긴급하게 자녀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가 있다.					
4. 우리 지역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이외에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충분하다.					

Ⅳ. 자녀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배문 1. 귀하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령	_____세
성별	① 남 ② 여
출신국	① 중국 ② 일본 ③ 베트남 ④ 캄보디아 ⑤ 필리핀

	⑥ 태국 ⑦ 영어권 국가(출신국:_____) ⑧ 기타(출신국:_____)
한국 거주 기간	_____년 _____개월
최종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 졸 ④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근로형태	① 임금근로자(전일제) ② 임금근로자(시간제) ③ 비임금근로자(고용주, 자영업, 프리랜서 등) ④ 가정주부
월평균 가구소득	(※ 소득은 지난 3개월 평균 금액이며, 세금 공제 전의 금액임.)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가구 구성원	가구원수: _____명(본인 포함)
	(동거 중인 가족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부 ⑤ 모 ⑥ 시부 ⑦ 시모 ⑨ 그 외 친인척(　　) ⑩ 기타(　　)
한국어 구사 수준	① 매우 유창함 ② 유창한 편임 ③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함 ④ 거의 못함 ⑤ 전혀 못함 (* 한국어 능력시험 등급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TOPIK _____급) - 매우 유창함: 원어민에 근접한 수준으로 의사소통 및 토론이 가능함. - 유창한 편임: 은행 및 관공서 업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현을 구사하는 데 무리가 없음. - 기본적인 의사소통: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간단한 표현만 구사 가능함

배문 2. 귀하의 배우자 및 결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령	_____세
최종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 졸 ④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근로형태	① 임금근로자(전일제) ② 임금근로자(시간제) ③ 비임금근로자(고용주, 자영업, 프리랜서 등) ④ 가정주부
결혼 유지 기간	_____년 _____개월

배우자 만남 계기	① 유학 중에 ② 한국에서 일하는 중에 ③ 종교 기관을 통해서 ④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⑤ 기타(적어주세요:_____)
응답자의 모국어 구사수준	(* 배우자가 귀하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① 매우 유창함 ② 유창한 편임 ③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함 ④ 거의 못함 ⑤ 전혀 못함 - 매우 유창함: 원어민에 근접한 수준으로 의사소통 및 토론이 가능함. - 유창한 편임: 은행 및 관공서 업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현을 구사하는 데 무리가 없음. - 기본적인 의사소통: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간단한 표현만 구사 가능함

배문 3. 귀하의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문 3-1. 귀하의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배문 3-2. 아래에 귀하의 자녀들에 대한 사항을 응답해주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연령(만 나이) **출생년월**	_____세 ___ 년___월	_____세	_____세	_____세
성별 ① 남 ② 여				
출생 국가				
한국 체류 기간	_____년 _____개월	_____년 _____개월	_____년 _____개월	_____년 _____개월
모국 체류 기간	_____년 _____개월	_____년 _____개월	_____년 _____개월	_____년 _____개월
현재 건강상태 ① 건강함 ② 다소 약한 편임 ③ 질병 있음(적어주세요) ④ 장애 있음(적어주세요) ⑤ 질병·장애 있음(적어주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한국어 구사 수준 ① 또래에 비해 매우 지체됨 ② 또래에 비해 다소 지체됨 ③ 또래와 비슷함 ④ 또래보다 잘하는 편임 ⑤ 또래보다 월등히 잘함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5.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설명문_한국어판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연구 참여 설명문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다문화가족 부모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문을 신중하게 읽어보시고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이해하신 후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설명문을 읽고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동의란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대상 이중언어 지원정책 및 서비스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의 이중언어 양육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부모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 상**: 만3세부터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귀화자 500명

❍ **연구의 참여 절차**: 설명문을 숙지 후 참여 의사가 있다면, 설문조사 참여 동의란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 **참여기간 및 소요시간**: 설문조사는 2021년 7~8월 중에 진행되며, 설문 응답에는 25~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설문 주요내용:** 본 설문조사는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실태, 이중언어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및 정책 욕구, 일반적 양육 특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보상:** 귀하가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귀하의 휴대폰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위험성 및 이익:** 귀하는 설문조사 응답 과정에서 연구대상자가 알지 못했던 이중언어 관련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

습니다. 다만, 25분 이상 소요되는 설문응답에 따른 피로감을 느끼거나 문항 응답 시 경미한 심리적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연구참여 도중 중도 탈락:** 귀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하면서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둘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중단 즉시 폐기됩니다. 조사 완료 후에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철회를 요청하면 해당 내용은 즉시 삭제될 것입니다. 다만,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 참여 사례비(모바일 상품권)를 지급하기 위해서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수집될 것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데이터 수집 및 모바일 상품권 지급 후 즉시 삭제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응답을 통해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귀하 및 배우자의 성별, 연령, 출신국, 거주지 규모(읍면동 단위)와 자녀의 성별, 연령 등이나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는 연구를 위해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에 보관되며 연구진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연구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연구자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사례 지급과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일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설문조사의 참여에 동의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 **제3자 정보제공:**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자에게 공개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자료의 보관**: 조사로부터 수집된 원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실 내에 5년간 보관되며, 연구진 이

외에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되며 이후 분쇄방법으로 폐기될 것입니다.

❍ **연구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설문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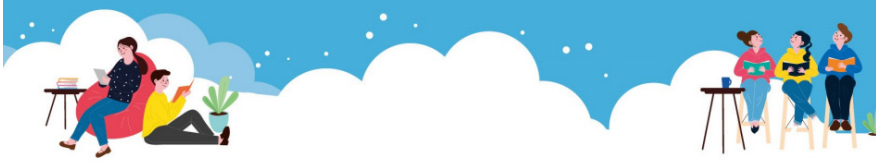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 박은정	전화번호: 02-398-7788
	E-MAIL: ej.park@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공동연구자 문무경	전화번호: 02-398-7710
	E-MAIL: mgmoon@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공동연구자 윤지연	전화번호: 02-398-7758
	E-MAIL: sunflower@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IRB 사무국	전화번호: 02-398-7761

육 아 정 책 연 구 소

부록 6. 다문화가족·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모집 안내문

다문화가족 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 참여 안내

안녕하세요?
국무총리산하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다문화 영유아 가구의 가정 내 언어사용 실태와 부모의 자녀양육시 어려움을**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부모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영유아 이중언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마련을 위해 시행되는 본 조사에 많은 부모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Q. 이 조사는 왜 하나요?
A. 영유아가 있는 다문화 가정에서 가정 내 언어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지원방안 및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Q.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A. 만3세~6세의 미취학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부모라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설문조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A.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녀 교육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나 정책은 무엇인지 등을 질문드립니다.

Q. 응답의 비밀이 보장되나요?
A.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비밀이 보호됩니다.

Q. 답례품이 있나요?
A.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들께는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참가방법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옆의 QR코드를 대어 접속하시거나, 아래 링크에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세요.
https://bit.ly/3iFHY4k

조사기간 2021년 7월 28일 ~ 8월 24일

문의 조사수행기관 에스티아이 박재균 책임연구원 (02-785-9124)
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윤지연 연구원(02-398-7758)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부록 7. 전문가 의견조사 질문지

이중언어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28)]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1년 기본과제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일환으로 영유아를 둔 다문화가족 대상 이중언어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보호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관리될 예정이오니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 문의처 multi@kicce.re.kr

28) 센터 및 중앙기관, 이중언어코치, 지자체, 교육·보육기관별 별도의 설문지로 조사하였으나, 보고서에는 공통질문과 별도질문으로 통합하여 구성함.

Ⅰ. 일반사항 - 공통

1. 귀하의 소속은 어느 기관입니까? (_____)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다문화교육센터
③ 중앙건강가정진흥원
④ 중앙다문화교육센터
⑤ 시·도 지자체
⑥ 유치원
⑦ 어린이집

2. 귀하의 직책/직급은 무엇입니까? 기술해주십시오. (_____)

3. 귀하는 현재 재직 중인 분야에 얼마나 종사하셨습니까? (_____)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4. 귀하 소속 기관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_____)시/도 (_____)시/군/구

※ 본 조사에서 이중언어는 한국어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의미합니다.

Ⅱ. 이중언어 지원 사업 현황 – 센터 및 중앙기관, 이중언어코치

1. 귀 기관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중언어 지원 사업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사업명과 사업 내용을 기술해 주십시오.

※ 내용 칸에는 사업 목적, 대상, 재원(국비, 시비 등) 등을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 표에서 행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해주십시오.

구분	이중언어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명	내 용
1		
2		
3		
4		
5		

2. Ⅱ-1번 문항에 기술하신 각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이용자의 만족도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및 프로그램명	효과성					만족도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1											
2											
3											
4											
5											

3. 귀하는 각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및 프로그램명	방 안
1		
2		
3		
4		
5		

4. 귀 기관은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① 있음 (☞ 4-1로 이동)　② 없음 (☞ 4-2로 이동)

4-1. 있다면, 연계하고 있는 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연계 기관	연계 프로그램
1		
2		
3		

4-2. 앞으로 연계하고 싶은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연계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계 희망 기관 및 프로그램	이유
1		
2		
3		

5. 귀 기관이 이중언어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② 대상 모집
③ 예산 부족
④ 프로그램 질 관리 및 모니터링
⑤ 세부 교육 매뉴얼 부족
⑥ 상위 관리 및 문의 기관의 부재
⑦ 교육공간 부족
⑧ 기타(적어주세요:)

5-2. 해당 항목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이유	
	방법	
2순위	이유	
	방법	

이중언어 코치만 응답

6.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실무자로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어려움	필요한 지원
1		
2		
3		

II. 이중언어 지원 사업 현황 - 지자체

1. 귀 지자체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중언어 지원 사업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사업명과 사업 내용을 기술해 주십시오.

※ 내용 칸에는 사업 목적, 대상, 재원(국비, 시비 등) 등을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 표에서 행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해주십시오.

구분	이중언어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명	내 용
1		
2		
3		
4		
5		

2. II-1번 문항에 기술하신 각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이용자의 만족도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및 프로그램명	효과성					만족도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1											
2											
3											
4											
5											

3. 귀하는 각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및 프로그램명	방 안
1		
2		
3		
4		
5		

4. 귀 지자체는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기관 간 연계나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습니까?

① 있음 (☞ 4-1로 이동)　② 없음 (☞ 4-2로 이동)

4-1. 있다면, 관련 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연계 기관	연계 프로그램
1		
2		
3		

4-2. 이중언어 지원 사업을 위해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내 자원(기관, 관련 전문가 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역사회 내 자원	활용 방안
1		
2		
3		

5. 귀 지자체가 이중언어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	해결 방안
1		
2		
3		

II. 이중언어 지원 사업 인지 및 연계 현황 - 교육·보육기관

1. 귀 기관의 현원과 현재 재원 중인 다문화 영유아는 몇 명입니까?

현원	명	재원 다문화 영유아	명

2. 귀하가 알고 계신 이중언어 관련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해당 사업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프로그램명을 모르실 경우, 주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구분	이중언어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명	실시 기관
1		
2		
3		
4		
5		

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다문화 영유아 및 부모 대상 이중언어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 3-1번으로 이동)　② 없음 (☞ 3-2번으로 이동)

3-1. 있다면, 연계하거나 이용하신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 (☞ 응답 후 4번으로 이동)

	사업 및 프로그램명	효과성					만족도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1											
2											
3											
4											
5											

3-2. 재원 중인 다문화 영유아와 부모 대상으로 이중언어 지원 사업을 연계하거나 이용하신 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4. 귀 기관이 직접 다문화 영유아 및 부모 대상으로 이중언어 관련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 4-1번으로 이동)　② 없음 (☞ 5번으로 이동)

4-1. 있다면, 프로그램명은 무엇이며, 효과성과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

	프로그램명	효과성					만족도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1											
2											
3											

4-2.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으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구분	어려움	필요한 지원
1		
2		
3		

5. 다음 중 귀 기관이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
② 부모 대상 교육
③ 다문화 영유아 대상 한국어 교육
④ 다문화 영유아 대상 모국어 교육
⑤ 다문화가족 대상 이중언어 관련 정보 제공
⑥ 기타(적어주세요:　　)

5-1.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이유와 어떠한 내용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를 기술해주십시오.

1순위	이유	
	추진방안	
2순위	이유	
	추진방안	

Ⅲ. 이중언어 지원 사업·정책 인식 및 방안 - 공통

1. 귀하는 다문화가족 대상 이중언어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거의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중요함
⑤ 매우 중요함

2. 귀하는 아래 제시된 이중언어 관련 제도 및 지원 사업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귀하의 이해 정도를 표시해주십시오.

	구분	이해도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1	다문화가족지원법					
2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3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여가부)					
4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교육부)					
5	소속 지자체의 이중언어 관련 정책 및 특화 사업					

2-1. 귀하는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지원이 어느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생각하시는 가장 상위 제도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시행령
②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③ 부처별 실행계획
④ 지자체 조례
⑤ 지자체별 실행계획
⑥ 기타(적어주세요:)

2-2.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3. 다음에 제시된 항목이 이중언어 지원 사업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충분히 확보되거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요성

	구분	중요성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1	이중언어 사업 인력풀 확보					
2	이중언어 관련 인력 전문성 제고					
3	이중언어 사업의 다양화					
4	이중언어 사업 연계 기관 발굴 및 강화					
5	이중언어 사업 이용자의 접근성(accessibility)					
6	이중언어 사업 예산					

2) 이행도(충분성)

	구분	이행 정도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1	이중언어 사업 인력풀 확보					
2	이중언어 관련 인력 전문성 제고					
3	이중언어 사업의 다양화					
4	이중언어 사업 연계 기관 발굴 및 강화					
5	이중언어 사업 이용자의 접근성(accessibility)					
6	이중언어 사업 예산					

3-1. 이중언어 지원 사업 내실화 및 확대를 위해 우선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순위까지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이중언어 사업 인력풀(이중언어강사/코치 등) 확대
② 이중언어 관련 인력 전문성 제고
③ 이중언어 사업의 다양화
④ 이중언어 사업 연계 기관 발굴 및 강화

⑤ 이중언어 사업 이용자의 접근성(accessibility) 강화
⑥ 이중언어 사업 예산 확보
⑦ 기타(적어주세요:_____)

3-2. 귀하가 해당 항목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이유	
	방법	
2순위	이유	
	방법	
3순위	이유	
	방법	

4.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순위까지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부모의 이중언어 인식개선 및 부모 상담
② 이중언어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③ 배우자, 시부모 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중언어 인식 개선
④ 부모가 자녀와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 교재교구(책, 낱말카드 등) 제공
⑤ 부모-자녀 상호작용 활동 프로그램
⑥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실
⑦ 다문화 아동 대상 모국어 수업
⑧ 다문화 아동 대상 한국어 수업
⑨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⑩ 기타(적어주세요:_____)

5. 귀하는 이중언어 사업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안	이유
1		
2		
3		

6. 다문화가족이 이중언어 관련 지원을 용이하게 이용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 접근성, 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고 측면을 포함하여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방안
정보 접근성 제고	
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공	
기타(적어주세요:)	

7. 귀하는 다문화 아동 및 부모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대상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아동의 발달단계별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 세분화
② 모국어별 이중언어 관련 교재교구 확충
③ 각국 출신별 이중언어 강사 및 코치 양성
④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 구사 수준별 프로그램 제공
⑤ 거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 설계
⑥ 기타(적어주세요:)

7-2. 귀하가 해당 항목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1순위	
2순위	

8. 이중언어 지원 사업 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연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성					연계정도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8-1.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과의 활발한 연계를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안	이유
1		
2		
3		

9. 다문화가족 부모들이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	해결 방안
1		
2		
3		

10.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부모의 이중언어 관련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② 일상적인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 교육 강화
③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교재교구 제공
④ 부모 대상 이중언어 교육기관에 활용 자료 제공
⑤ 부모의 관련 정보 검색 및 활용 방법 교육
⑥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조직 및 운영
⑦ 기타(적어주세요:)

10-1. 귀하가 해당 항목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이유	
	방법	
2순위	이유	
	방법	

Ⅳ. 이중언어 환경 및 인식개선 - 공통

1. 한국사회의 이중언어 환경 및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 표시 해주십시오.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한국사회는 다양한 외국 문화에 대해 수용적이다.					
2.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국민은 다문화 아동의 (외국 출신 부모) 모국어 습득에 수용적이다.					
3. 한국사회는 언어별 차별 없이 모든 모국어 습득에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4. 다문화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중언어 사용을 지지 받는다.					
5. 한국사회는 다문화 아동이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서비스가 충분하다.					
6. 다문화 아동이 이중언어를 사용하면, 한국사회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안해주십시오.

	방안
1	
2	
3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8. 전문가 의견조사 개방형 응답 결과

〈부록 표 1〉 이중언어 지원 사업 내실화 및 확대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 선정 이유/방법

구분		내용
1. 이중언어 사업 인력풀 확대	이유	**이중언어 인력부족 및 구인의 어려움 해소** - 군지역의 경우 이중언어 강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농촌지역 인력풀 확보의 어려움 - 이중언어강사, 코치 등 확보해야 사업 가능 - 이중언어교육의 원할한 교육을 위해 필요 - 인력이 대체로 부족한 편임 - 수시로 요구되는 인력 확보 곤란 - 현장의 이중언어강사 확보 어려움 발생(특히 소수언어) - 현재 이중언어 교사 지원이 원활하지 않음 - 교사들의 업무가중을 감소하기 위하여 인력풀이 꼭 필요함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 - 이중언어코치가 배정되지 않은 센터는 실무자가 사업을 수행 중 - 전문성 있는 인력이 많아져야 지속적인 사업 진행 가능 - 실질적인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강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사업 수행력 강화 필요 - 전문적 강사가 부족하여 유치원 담임교사가 유아 기초언어교육을 진행하는 상황임
		보다 다양한 국가별 양질의 이중언어 교육 실시를 위해 - 각 나라별 이중언어코치 배치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일부 언어만 이중언어 교실 운영 - 대상아동이 많아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음 - 이중언어가 가능한 인력이 반드시 필요 - 원아와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결혼이민자의 자긍심 및 자녀의 모국에 대한 관심 제고 -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서비스직(면세점, 식음료상점 등) 취업 이외에 교육자로 활동하여 자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그 자녀 역시 자연스럽게 결혼이민자 출신 국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하므로 양질의 이중언어교육 활동가 필요
	방법	**중앙 차원에서 인력 양성** - 이중언어 강사 등 인력 추가 양성 - 전문성 확보 및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우수사례 및 인력풀 공유 -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 가능한 이중언어강사 확보 - 지역 내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정 부모 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강사/코치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 교사양성 기관 다양화
		이중언어 인력 교육 강화 - 이중언어 강사의 전문적인 연수가 필요함 - 이중언어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 횟수 증가 필요

구분		내용
		인건비 인상 및 예산확보 - 예산확보 필요 - 이중언어 강사의 인건비 인상 - 이중언어 교육의 중요성 반영한 예산 증액 - 이중언어가 가능한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지원금 지원
		전문 인력 배치 - 전문성 있는 인력을 기관연계 배치 수용연계 - 인력풀 부족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서 배치 - 지역 교육청에서 유,초,중에 맞는 이중언어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지역 내 유,초,중에 지원해주면 좋겠음 - 전문 인력풀을 확대하여 유치원 또는 학교에 강사를 채용할 때 도움을 주었으면 함 - 전체 인력풀 공유 - 인력풀 등재 활용 - 다문화가족 양성화한 후 인력배치
		기관 연계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 교육-취업이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 이중언어 사업 연계 기관 발굴 및 강화
2. 이중언어 관련 인력 전문성 제고	이유	**전문성 부족 문제(개인의 역량에 의존)** - 이중언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중언어사업의 적격자는 아니라고 생각함 - 이중언어 관련 인력의 전문성 부족 - 전문성 부재를 현장에서 느끼기 때문임 - 언어교육은 전문성, 체계성, 지속성이 필요하므로 전문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 - 강사의 질이 떨어질 경우 사업이 많고 접근성이 높아도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으므로 강사의 질은 꼭 담보되어야함. 다문화언어강사 뿐만 아니라 한국인 이중언어강사도 필요함(영어교육처럼) - 부모교육에도 전문성이 필요함 - 이중언어 관련 인력이 원에 대해 이해하고 원의 사정을 인지하고 통역을 할 때 그 상황에 대해 알았으면 함
		체계적, 지속적인 교육 및 자료 부족 - 이중언어코치의 자격요건에 비해 전문성 인식 부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이 부족함 - 별도의 교육없이 책자 또는 전임자의 프로그램을 참조하는 경우가 많음 - 이중언어 전문인력의 양적 확대에 따른 질 관리 필요 - '다문화(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및 보수연수가 이루어진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이중언어 강사에 대한 전문성을 크게 신뢰받지 못함 - 이중언어코치로 매년 교육내용이 업그레이드 되어야한다고 생각함. 4년 이상 되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 - 현재 이중언어 교사 지원이 원활하지 않음 - 추가적인 관련 교육으로 더욱 전문성 제고 됨

구분		내용
		인력의 전문성이 사업 성과에 이어짐 - 관련 인력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사업의 진보가 있음 - 이중언어 관련 인력 전문성이 있으면 사업 기획에 효과적 - 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 수업의 아이디어, 수업방식 개발 필요 - 전문성이 낮으면 성과 없음 - 사업 전담인력의 개별 역량에 따라 사업의 활성화 및 효과성이 다르기 때문임 - 전문가 인력 양성으로 다문화교육지원의 질 향상 - 이중언어교육의 원할한 교육을 위해 필요
	방법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 - 역량강화 교육시간 확대 - 이중언어코치미배치센터 담당자에 대한 교육제공과 우수사례공유 - 전문적 이중언어강사 배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이중언어 강사를 협의회 의원으로 위촉하여 조언구하기 - 다문화 이해교육 및 다문화교육 전문가 양성 연수 확대 - 이중언어강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주관기관 선정 필요- ex.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 기존 양성된 인력들에 대한 재(보수)교육 확대 실시 - 보수교육 시간 확대 - 다양한 내용의 보수교육 및 매뉴얼 제공 - 놀이활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이중언어 인력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파견 - 교육 인력 양성
		인건비 개선 - 다문화센터에서 이중언어코치는 필수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호봉 기준표에는 배제되어 있어 매년 인건비가 최저시급이 기준이 되고 있음.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이중언어코치가 센터는 떠나는 이유가 되고 있어 전문성 있는 이중언어코치 확보를 위해 이들의 호봉 기준표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업무 지속성 제공 - 관련 인력에 대한 다년간의 업무 유지가 필요함
3. 이중언어 사업의 다양화	이유	**현재 기본적인 매뉴얼에 기반하고 있음** - 기본적인 교육에 머물고 있기 때문 - 제한된 프로그램으로 사업 다양성이 부족함 - 대개의 경우 기본적인 사업 매뉴얼에 기반하여 진행하고 있어 사업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함 - 이중언어사업을 중요하다고 하고, 기본사업에도 포함시켰으나 사업 담당자를 센터기본인력이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됨 - 이중언어사업에 대한 지침 및 매뉴얼 부족 - 이중언어 방법적 면이 다양하지 않음 - 이중언어 교육방법만 제공하지 말고 각 나라마다 아동에게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구분		내용
		이용자의 접근성 및 호응도 유발 - 사업의 다양화 도모를 통한 이용자의 접근성 강화 - 부모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과 자녀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화 필요 - 다양한 사업이 있어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됨 - 사업의 다양화를 통해 대상자모집에 용이 할 수 있음 - 일반가정 확대, 아동 대상 확대, 연령 확대 - 이중언어 사업의 다양화로 다문화 유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음
		지역사회 및 연계기관 지원을 위해 - 학교나 시도교육청에서는 몇 개월이라도 이중언어강사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부담을 느낌 - 지역 연계사업으로 이중언어사업연계 필요
	방법	**다양한 언어환경 및 문화 교육** - 배치인력의 다양화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일상생활 속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중언어환경을 확대함 - 자녀에게 언어직접 교육, 아동대상 모국어 수업 - 이중언어 사업에 참여한 아이는 언어교육와 문화학습이 필요하므로 다문화 이중언어 캠프(언어를 배우고 실천 할 수 있도록), 엄마나라 여행(다문화가족으로서의 자긍심 제고)등 다양한 사업이 있으면 함 - 다문화관련 교재교구 지원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여 그 나라의 문화체험을 지원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 TF팀 구성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지침상 이중언어사업의 내용은 간략히 표기되어 있어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매뉴얼은 2014년에 제작된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어 현재시대를 반영한 프로그램 진행의 어려움이 있음. 이에 매년 발행할 수는 없더라도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하여 이중언어사업의 다양화를 꾀하면 좋겠음
		다른 프로그램의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 리뉴얼 - 다양한 사업관련 유튜브 동영상 활용 - 대상국의 좋은 프로그램 접목 - 민간 자원 활용
		지역 특화 프로그램 제공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발을 통해 대상자 참여 동기부여 강화 - 프로그램 진행에 4가지영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지역특성과 대상자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폭을 넓혀줌
		사례공유 및 인센티브 제공 - 가족서비스제공 기관별 프로그램 현황 및 사례공유의 기회 마련 - 사업 진행 시 결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으면 더욱 참여율이

구분		내용
		높아질 것임 - 기타 대학이나 언어교육원 등에서 인력을 보유-파견 하는 형태가 되는 데 필요함 - 인센티브 제공
4. 이중언어 사업 연계 기관 발굴 및 강화	이유	**인력 및 예산부족의 문제 해소**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 - 타 기관과 연계 시 인력 확충 없이도 인력 공유가 가능함 - 기관연계가 수월하고 다양한 지원이 된다면 인력지원에 대한 예산절감
		통합적 프로그램 제공 - 기관 연계의 부족 - 이중언어로 지원하는 사업이 없음 - 이중언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족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음 - 기관간 정보교환이 필요함
		사업 다양화를 통한 참가자 확대 및 동기부여 - 이중언어 사업 연계기관 발굴 및 강화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동기부여 및 사업의 다양성 확보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계 기관 발굴 및 강화 필요 - 참가자 확산 필요 - 이중언어의 활용도가 가시적으로 확보되어야 참여가 높아질 것임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관 발굴
	방법	**지역 내 자원 활용** - 지역내 언어관련학과가 있는 교육기관등과 업무협약을 진행 - 지역별, 사업별 연계 기관 발굴 및 강화 지원 - 시청, 도청과 연계 사업 - 이중언어 인력풀 구축 - 교육-취업이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 기관과 원의 원활한 연계 - 기관에 전담 인력 배치(지역으로 묶어 담당전문인력 배치)
		외부기관과의 연계 활성화 - 외부기관 연계 (경북센터 삼성 기업 연계 ex. 이중언어대회) - 수시로 연계기관과 소통이 필요 - 언어 교육의 특성을 위해 연계성을 갖도록 할 것
		예산 확보 - 지자체 예산 지원 일 홍보
5. 이중언어 사업 이용자의 접근성 강화	이유	**이용자 확대를 위해** - 현재 여성가족부 이중언어 관련해서는 대상이 영유아기 부모에게 한정되어 있음. 하지만 실제 이중언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 대상 이용자 확대가 필요 - 이용자가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사업에 참여도가 높아짐 - 사업 이용자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참여자가 많음 - 이중언어교육의 원할한 교육을 위해 필요

구분		내용
		지역별 접근의 어려움이 있음 - 시군별 문화적 차이가 심함 - 농촌에서 이중언어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이 없고 거리가 멀어서 센터 수업을 참여하지 않음 - 사업을 알고 있지만 거리가 멀어 참여가 어려움 - 유아들이 하루 종일 유치원에서 지내므로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언어교육'을 실시하면 좋겠음
		이용자의 인식 및 홍보부족 - 다문화가족들의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 대상자가 사업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음 - 각 시도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자의 정보 전달이 낮음 -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 존재 - 알지 못해서 접근이 어려움 - 이중언어 사업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이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음
		접근성 강화를 할 수 있는 예산 부족 - 현재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비, 운영비의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임
	방법	**예산집행방식 개선** - 현재 가족사업안내 지침상 특성화예산은 통합운용하고 특성화통장도 1개로 사용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시군구는 특성화 총예산이 아닌 사업별 단가를 기준으로 예산결산을 요청하고 있어 특성화 사업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자유롭게 집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각 사업별 단가에 맞춰 집행하고 있음. 이에 지침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로 예산집행의 개선이 필요함
		프로그램 다양화 - 자녀 연령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참여시간대를 다양화 - 권역별 통합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진행 방법 다양화
		홍보 강화 - 기존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 다양한 정책 홍보 강화 - 홍보와 더불어 가족인식 개선교육도 필요함 - 관련 학부모에게 홍보 및 접근 방법에 대한 안내
		유관기관 활용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도입 - 이중언어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별 접근성 확대 - 유아들이 하루종일 유치원에서 지내므로, 언어교육 강사를 교육지원청이나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채용하여 각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해주면 좋겠음 - 다문화가족센터 등에서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이중언어 교육 등을 진행하면 좋을 듯함 - 학교 정규교육과정의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구분		내용
6. 이중언어 사업 예산 확보	이유	**프로그램 진행할 예산의 부족** - 실제 센터 사업비 내에서 이중언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은 없음. 기존 사업비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언어학습의 특성상 장기 프로그램으로 많은 예산소요가 수반됨 - 인건비를 제외하면 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운영예산이 없는 상황 - 예산 부족으로 사업운영이 힘듦 - 다문화 정책학교를 운영 중인데 처음 내려온 예산이 너무 부족하여 다문화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웠음 - 다문화 자녀가 이전보다 많아진 상황에서 다문화자녀의 이중언어 교육은 필수교육이라고 생각되므로, 예산부터 확보해야 상황에 맞게 사업을 확대 할 수 있음 -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정의 증가로 이에 따른 정책 및 예산이 필요
		타 사업에 비해 시급성이 낮게 인식됨 - 초중고 다문화학생 대상 다양한 사업(한국어교육, 기초학습지원,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 대비 이중언어 지원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 예산 편성 - 이중언어교육이 한국어, 교과학습 교육지원보다 시급성 면에서 순위가 낮음
		다양한 사업추진 및 인력 구성이 가능해짐 - 예산 부족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 - 이중언어 강사 인건비가 보장되어야 전문성 있는 강사 확보 가능 -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 다양화 구상이 가능함 - 예산이 수반되어야 프로그램 개발 가능 - 다양한 놀이 활동 및 체험이 가능해짐 - 다문화 이중언어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으면 함 - 예산학보가 되어야 교사들이 더욱 정보를 받을 수 있음
	방법	**별도의 예산 지원** - 이중언어 사업을 위한 별도 예산 필요(이중언어코치 확대로 예산을 늘리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 특별교부금의 확대 지원 - 자체예산 등 확보 위해 노력 - 지자체 지원
		예산 재분배 - 다문화학생 교육기회 제공 중심 사업을 제도화 및 안정화하고, 이중언어 등 인재양성 및 강점개발 지원으로 예산 자원 분배 - 운영비 예산확보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고안 - 인력풀 확보 - 사이트 및 활동자료 필요함 - 장기적으로 다문화학생(유아)에 필요한 지원이라는 인식을 제고해야 함
		중요성 부각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예산확보에 필요한 분들을 모시고 공개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알려 예산확보 - 이중언어의 중요성 부각

〈부록 표 2〉 다문화 아동 및 부모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우선 고려사항 선정 이유

구분	내용
1. 아동의 발달단계별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 세분화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 방법의 차이** - 발달과정에 맞는 사업 구조 필요 - 유아의 발달의 차이가 심하므로 전문적 단계가 필요함 - 아동 발달단계별 진행되는 놀이 및 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 필요 - 영아, 유아, 아동의 발달단계별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 세분화 필요함 - 이중언어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진행 시 참여자의 자녀 나이(영아기, 유아기, 초등학생)에 따라서 눈높이 맞게 수업 진행 필요
	언어 구사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 - 연령이라기보다 아동의 현재 구사능력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 - 연령과 개인차에 맞는 세분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실적으로 이중언어 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구사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아동의 발달단계별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언어를 학습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의 필요성 - 기본적 교육에 머물고 있기 때문 - 아동 발달 단계별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교육 필요 - 언어 발달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을 위해서 - 이중언어지원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면 늦음. 유아기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이른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요구됨 -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필요
	사업 효과성 증진을 위해 - 현재 본 센터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해본 결과 또래자녀를 키우는 결혼이민자들간의 공감대 형성 및 교육의 효과성이 높아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세분화하면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 같음 - 발달단계별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야 효과가 크다고 생각함
2. 모국어별 이중언어 관련 교재교구 확충	**모국어별 이중언어 교재교구가 부족한 상황** - 교구 교재 부족 - 대상자 의견 수집한 결과 모국어 교구 및 교재 원함 - 참가자들이 단어 카드, 교재, 교구재 등 배분을 희망함 - 놀이중심 외국어교육자료가 있을지 의문임 - 모국어별 영유아용 그림책/동화책 필요함 - 한국에 있는 외국어교재 다문화자녀한테 맞지 않음
	이중언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 모국어를 활용한 놀이 활동을 위해 모국어별 교재교구 제공을 통한 접근성 제고 필요 - 구어만 아이에게 알려주게 되면 언어를 배우는데 한계가 있음. 책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어휘를 배울 수 있음 - 유아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놀이할 수 있는 모국어별 이중언어 관련 교재교구 확충
	부모 직접 교육, 가정에서의 교육을 통해 효과성 극대화 -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부터 한국어/모국어 교육이 동시되어야 공교육

구분	내용
	진입시 학교 생활 적응이 수월해지고, 한국어/모국어 교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특장점인 이중언어 개발 및 자긍심 고취 가능 - 인력 확보가 곤란한 상태에서 시급히 고려할 것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재 - 모국어별 이중언어 관련 교재교구가 확충되면 이중언어활용 프로그램 운영시 참여자들이 스스로 모국어로 책을 읽어 주거나 더 쉽고 편하게 아이와 놀이할 수 있음
3. 각국 출신별 이중언어 강사 및 코치 양성	**출신국별 이중언어 전문 강사 인력부족 및 구인의 어려움 해소** - 이중언어코치의 출신국별로 참여자가 한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다양한 언어권의 이중언어코치 양성 필요 - 자국의 이중언어강사를 선호하고 교육효과도 좋은데, 소수언어국가의 이중언어강사 섭외가 어렵고 같은 나라의 강사섭외가 반복될 경우 소외되는 참여자들이 발생 - 다양한 교육 자원 풀 필요함. 이중언어 욕구가 높은 베트남어의 경우 시중에 판매 하고 있는 교재가 실질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 캄보디아, 태국어 등의 소수언어 진행시 교육 자료가 강사에게 의존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강사도 없음. 자체 교육 자료 제작이 가능한 고급 인력이 필요함 - 처음부터 모국어를 쓰지 않은 가정은 한국어 사용에 익숙해져서 실천하는데 시행착오가 많음. 각국 출신별 이중언어 코치가 있으면 영유아기부터 모국어에 대한 노출이 되고 어머님들도 수업에 참여하면서 배울 수 있어서 엄마의 모국어 사용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각국의 강사구하기가 너무 힘듦 - 인력풀의 부족 및 활용의 어려움
	이중언어 강사의 전문성 고취를 위해 - 부모가 생업에 바쁜 경우가 많아 전문 강사에 의해 교육이 지원되지 않는 한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질지 의문임 - 전문성 있는 이중언어강사 및 코치 양성을 통한 사업 확대 필요 - 부모보다는 전문성있는 강사의 교육이 효과가 높음 - 강사의 질이 현장에서의 만족에 큰 영향이 있음
	원활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 업무를 위해 - 다문화업무는 적은 인원의 담당자가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사업 진행 업무 담당자 충원이 필요 - 기재된 모든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나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사항은 이중언어 교육 지원 인력 확보를 통한 전달체계 마련 필요 -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아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음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 이중언어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전문강사 필요 - 지원강사가 정해지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이므로
	출신국 언어 및 문화 자긍심 고취를 통한 사업 효과성 극대화 - 출신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됨
4.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 구사	**부모 교육을 병행하여 이중언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 부모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

구분	내용
수준별 프로그램 제공	- 부모의 언어능력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부모의 언어구사 수준이 다르므로 어려움이 있음 - 가정과 원에서 함께 배워가는 것이 필요함 - 아동의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 또는 교구가 시중에 많이 없어서
	언어구사 능력에 따른 수준별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 - 다문화아동의 이중언어 구사 수준별 욕구가 상이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세분화가 필요함 - 이중언어교육 인력 확보와 함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준별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아이가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과 함께 진행하면 언어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음 - 부모의 모국어 수준 차이점 큼 - 이중언어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 지원 필요
	기관 연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이중언어 접근성 향상 - 지금까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크게 효과가 없어서 대상자의집뿐만 아니라 다문화센터과 학교과 같이 연결해서 아동을 대상으로 엄마나라의 언어를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면 아동이 엄마나라의 언어를 재미있고 다양한 환경을 느낄 수 있을 것임

〈부록 표 3〉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에서 중요한 부분 이유/방법

구분		내용
1. 부모의 이중언어 관련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이유	**다문화 가정 내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 한국어 먼저 배운 후 엄마 언어 배워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 때문 - 이중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부모가 먼저 인식해야 함 - 부모들이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교육 및 지지하려는 의지가 중요 - 인식 부족으로 인해 가족들에 대한 설득이 어려움 - 해당 가정의 이중언어에 대한 인식에 따라 교육의 지속성이 결정된다 생각함 - 가정에서부터 인식개선이 있어야 교육에 참여함 -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의 지원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이중언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이중언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 부모의 무관심이 심함 - 한국어 학습 방해 우려, 소수어인 경우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방해요소라고 예상됨
		부모 인식에 따라 교육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 - 해당 가정의 이중언어에 대한 인식에 따라 교육의 지속성이 결정된다 생각함 - 교재 교구 활용 시 부모의 역량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중언어에 노출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필요함 -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해 부모의 인식개선이 선행되

구분		내용
		어야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환경조성이 가능하기 때문 - 실생활에서 이중언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모 인식개선 필요 - 부모님의 인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그 영향이 자녀에게로 이어짐 -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높아질수록 이중언어 교육 참여 및 활용도 증가 예상 - 이중언어에 중요성을 부모가 먼저 인식해야 아이들에게 모어사용에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 - 부모의 인식개선이 자녀를 다문화 인재로 양성 - 소통과 교감을 통한 인식개선 교육 필요 - 부모의 자존감 결여가 보여짐 -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방법	**지속적인 홍보와 이중언어 교육의 중요성 강조**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긍정적인 모델제시 - 지속적인 홍보와 이중언어의 중요성 강조 - 이중언어의 긍정적 부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사례 공유 - 배우자, 시부모의 경우 이중언어교육 인식이 부족하여 이중언어교육의 효과성, 중요성 등을 안내할 수 있는 교육자료 배포, 교육강화 -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 장기적으로 자녀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제고 - 센터 교육을 통해 이중언어 교육의 시기와 방법을 안내
		부모 교육 및 다문화 가정 교육 다양화 - 센터 내 이중언어 부모교육 진행,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 마련 - 다양한 부모교육 -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 활성화 - 학교, 지자체 등 관련 단체에서 학부모 교육 실시 - 부모의 이중언어 실생활 교육 권장을 위한 인식개선 연수 - 여가부/교육부 등의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내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 관련 내용 포함 - 이중언어 이해교육, 이중언어 필요성 및 중요성 교육, 영유아 발달 단계 교육 및 성공 사례 공유 - 다문화 이해 교육 컨텐츠 중에 이중언어 컨텐츠를 더 많이 첨가해서 교육 진행 - 남편 및 그 외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시군 센터를 통한 수시 교육 - 앱을 통한 교육, 현장지원 등 - 지자체 일 교육기관 차원 부모교육
		교육 참여를 위한 유인책 강구 - 교육 참여 의무화 - 참여를 위한 유인책 필요
2. 일상적인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 교육 강화	이유	**이중언어에 대한 인식 부족** - 학원에서 외국어 배우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
		이중언어 환경 조성을 위해 - 쉬워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맞벌이 부모들이 따로 시간을 내기

구분		내용
		가 어려우므로 - 가정 내 일상적인 구사 환경이 되어야 두 언어 다 모국어처럼 사용할 것임 - 단순 교육으로 그치기보다는 실제 활용 할 수 있는 교재교구를 제공함으로써 이중언어 환경 조성에 용이하도록 함 - 이중언어의 사용을 늘릴 수 있는 기회 제공 - 이중언어교육은 타 교육기관의 이중언어교육 지원보다도 영유아 시기부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대상자들이 나라별 모국어로 직접 보고 배우고 따라할 수 있으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음
		일상생활에서의 이중언어 교육 부재 -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방법 부족 - 가정에서는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실생활 교육 필요 - 가정 내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와 함께 이중언어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름 - 일상생활에 준비물 없이 어느 장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이중 언어 학습법 필요 -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 부족 - 특별한 교재-교구는 부모 자체가 사용하기 어려워 하여 일상적으로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 제공이 더 도움이 될거라 생각함
		의사소통의 어려움 - 기본적인 대화 스킬이 필요함 -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생활을 잘 알지 못하며 교사와 의사소통이 어려움
	방법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 및 배포, 이중언어 교육 우수사례 가정의 사례 공유, 자조모임 활용 - 다양한 교재교구 및 콘텐츠 개발, 연계 - 온라인 학습 개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 제공 - 놀이, 동화책을 활용한 방법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자료 필요 -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교구 개발배포(센터교육, 가정에서 활용) - 온라인 교육 제공 - 몸을 이용한 놀이 소개 -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사이트 필요함 - 일상 속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음
		모국어별 이중언어코치 양성 - 모국어별 이중언어코치를 양성하여 직접적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음. 또 같은 언어와 문화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음. 그리고 모국어별 이중언어코치가 있으면 모국어에 집중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임

구분		내용
		부모 교육 활성화 - 가정 내에서의 이중언어 사용 방법 교육 강화 필요 - 부모의 이중언어 실생활 교육 연수 - 지역별 공공/민간의 교육기관(다가센터, 평생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부모의 이중언어 교육 방법 코칭 및 지원 - 한국배우자와 아동이 외국배우자에게 외국 언어를 같이 배우는 프로그램 실시(엄마가 베트남인이라면 아빠와 아동이 함께 베트남어를 배우는 방법) - 학부모와 함께하는 수업방법모색 -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 강화
3.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교재교구 제공	이유	**부모의 학습지도 능력 부족** - 부모의 모국어 학습지도 능력 부족
		이중언어 교재교구의 부족 - 다양한 교구 교재 확보 - 교재교구 부족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등) - 자녀에게 집에서 이중언어교육을 하기 위한 교구 부족함
		이중언어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다양한 교재교구를 활용하여 영유아기 눈높이 맞게 이중 언어 학습 필요 -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가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이의 활동을 교재, 교구를 통해서 교감 기회
	방법	**이중언어 교재교구의 개발** - 교재교구 개발 - 체계적으로 엄마나라의 언어 책, 교재 만들 필요
		기관 연계 활동 - 기관과의 연계활동 제공
		수요에 맞는 교재교구 배분 - 단어 카드, 교재, 동화책 배분 - 수요조사를 통한 교재교구 제공 - 교재교구 제공으로 부모의 학습지도 능력 강화
6. 이중언어 관련 자조 모임 조직 및 운영	이유	**학부모 인식 개선 및 독려를 위해** - 잘 하고자 하는 부모들을 지지하는 것 필요 - 서로 서로 독려할 수 있는 모임 조직 운영 - 자조 모임을 하면서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됨 -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은 자신들과 같은 상황의 다문화 가정 부모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 더 마음을 잘 열고 배움이 잘 이뤄질 것 같아서
		이중언어 교육의 지속성을 위해 - 스스로 자율의지가 있어야 효과 높음 - 혼자서 이중언어를 교육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엄마와 아이 둘 다 쉽게 흥미를 잃을 수 있음 - 민간 자원 활용

구분		내용
		이민자 부모의 소외감 극복 및 정보교류 활성화 - 소수언어의 경우 커뮤니티 부재로 인한 소외감 - 이중언어 관련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해 그 안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다 보면 모국어 사용에 자신감도 생기고 다른 참여자들의 교육방식도 배우고 정보도 교류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같은 문화권 부모들의 모임으로 정보교환 및 문제해결 -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공감대 형성
	방법	**커뮤니티 조직 및 모임 지원** - 자조모임 강화 - 이중언어 모임 지원 - 비슷한 성격의 학습자모임 운영 - 광역 커뮤니티 조직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에 예산이 있으면 자조모임마다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면 장기적인 모임으로 갈 수 있음 - 운영하는 기관연계 및 기관의 자원 지원 - 자조모임 지원(예산,프로그램 등)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등 행사를 준비함 - 다문화 가정 네트워크 구축일 지자체 차원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을 이중언어강사로 양성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그 강사를 중심으로 자조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부모 독려 및 의견 교류 활성화 -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부모를 지지함 - 자조모임을 통해서 서로 흥미로운 상황을 만들어주고 정보도 공유함 - 참여 독려

부록 9. 전문가 자문 목록

〈부록 표 4〉 전문가 자문 개요

구분	일시	참석자	내용
동료멘토링 회의	2021. 2. 22	원내 연구자 4인	연구 방향성 논의 및 연구 관련 정보 공유
자문회의	2021. 2. 26	언어병리학과 교수 1인, 다문화교육전공 교수 1인, 정책연구소 연구자 1인	연구 방향성 및 기본 개념 논의
정책연구실 무협의회	2021. 3. 3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현황 파악 및 연구 방향성 논의
자문회의	2021. 4. 22	(1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5인 (1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6인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및 부모지원 사업 자문
동료멘토링 회의	2021. 4. 23	원내 연구자 4인	심층면담지 내용 검토 및 설문조사표 구성 논의
자문회의	2021. 5. 3	독일 한국학과 교수1인	독일의 이중언어 지원 정책 사업 관련 자문
서면자문	2021. 5. 20~24	독일 한국학과 교수1인	독일 지자체 이중언어 사업 및 정책 자료 수집
서면자문	2021. 5. 26~28	유아교육과 교수 1인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 설문지 문항 검토 및 자문
동료멘토링 회의	2021. 5. 26	원내 연구자 3인	설문조사 질문지 구성 및 문항 내용 검토
자문회의	2021. 5. 27	이중언어 코치 2인	부모면담지 내용 검토 및 이중언어 서비스 관련 자문
서면자문	2021. 6. 21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중간보고 원고 검토
서면자문	2021. 6. 23~28	정책연구소 연구원 1인	다문화가족 부모대상 설문지 서면자문 및 문항검토
자문회의	2021. 7. 7	사회복지학과 교수 2인	전문가 의견조사 및 정책분석 관련 자문
서면자문	2021. 9. 14~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2인	전문가 의견조사 질문지 구성 및 문항 검토
자문회의	2021. 11. 8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구위원 1인, 다문화교육지원센터장 1인, 한국보육진흥원 팀장 1인	이중언어 지원 사업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 검토
서면자문	2021. 12. 13~17	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및 사무처장	경상북도 이중언어 관련 사업 내용 자문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3330
9 791190 485999
ISBN 979-11-90485-99-9